국립국어원 2007-1-21

발간 등록 번호
11-137-252-00069-14

2007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한영목
연구 보조원 : 박숙희, 유세진

조 사 지 역 : 충청남도 서천군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연구 책임자 : 한영목

2007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 제출문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1

3. 전사 자료 ---------- 13
제 1 편 구술발화 ---------- 15
제 2 편 어휘 ---------- 157
제 3 편 음운 ---------- 212
제 4 편 문법 ---------- 246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7년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충남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부여군, 북쪽으로는 보령시, 남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 군산시, 서쪽으로는 황해와 접하고 있다. 면적은 358.00㎢이며 현재 25,656가구에 인구 63,105명이 살고 있다. 평균기온은 13.1°이고 강수량은 1,431㎜를 보인다. 서천읍·장항읍·마서면·화양면·기산면·한산면·마산면·시초면·문산면·판교면·종천면·비인면·서면 등 2개읍 11개면 172개 동리가 있다. 군청소재지는 서천읍 군사리이다.

서천군은 예로부터 한산모시로 유명했던 곳이며 경제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군면적 중 40.5%인 147.5㎢가 농경지이며, 그 가운데 논이 112.66㎢, 밭이 34.84㎢로 논이 밭보다 3배 정도 많다. 평야가 비교적 넓고 토질이 비옥한데다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논농사가 활발하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저마·생강 등이며, 저마는 종천면·시초면에서, 생강은 문산면·시초면에서 많이 생산된다. 서천군의 특산물인 한산모시는 삼국시대 한사군(지금의 한산면·기산면 지역)에서 자생하던 저마로 모시를 짠 것이 시초이며, 최근 다시 수요가 늘어나 이 지역의 가내수공업품으로 명성이 높다.

서천군에서도 서면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은 깨끗한 모래와 맑은 물, 동백꽃을 자랑하며,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다. 비인만의 맨 끝에는 동백정이라는 누각이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 숲속에 있어 운치를 더해준다. 그밖에 한산모시길쌈과 한산소곡주 공장, 건지산성, 비인읍성 등이 관광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2 조사 기간

2007년 7월 27일~9월 23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이름 : 서
나이 : 72세(호적상 1937년생)
출생지 : 충남 서천군 시초면
거주지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선대거주지 : 충남 서천군 마서면 (5대 이상 거주)
직업 : 주부 및 농업
경력 : 담배나 채소 등을 키워 시장에 내다 팔거나 삯바느질을 하였음.
학력 : 초등학교 졸업

병역 : 해당 없음.
제보자 소개 과정 : 서천군 마서면 동네주민으로부터 입담이 좋은 분이라고 소개 받음.
제보자의 특기 사항 :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4남매를 키움.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치아상태가 좋아 발음이 정확함.

(2) 보조제보자

이름 : 조
나이 : 81세(1926년생)
출생지 : 충남 서천군 문산면
거주지 : 충남 서천군 문산면
선대거주지 : 충남 서천군 문산면 (4대 이상 거주)
직업 : 농업
경력 : 미장, 목수일, 어물장사를 한 경험이 있고 마을에서 이장을 맡아 일했음.
학력 : 무학
병역 : 없음.
보조제보자 소개 과정 : 서천군 문산면 씨 소개로 만남.
보조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보조제보자의 음성 특징 : 틀니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 많고 구술 능력이 뛰어나 보조제보자로 선정하였음.

1.4. 조사자

(1) 이름 : 한영목(충남대학교 교수)/
박숙희(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유세진(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2) 조사 일시 : 2007. 7. 27~9. 23
(3) 조사 장소 : 제보자의 집
(4) 조사 일시 : 총 14일 조사
2007년 3월 23일 - 예비조사
2007년 7월 27일 - 예비조사
2007년 7월 28일 - 구술1, 어휘 1~3
2007년 7월 29일 - 구술 2~3, 어휘 4
2007년 8월 2일 - 구술 4~5, 어휘 5
2007년 8월 3일 - 구술 6, 어휘 6~7
2007년 8월 4일 - 구술 7~8, 어휘 8
2007년 8월 5일 - 구술 9, 어휘 9
2007년 9월 14일 - 구술 10, 음운 1~2, 문법 1
2007년 9월 15일 - 구술 11, 음운 3~4, 문법 2
2007년 9월 16일 - 구술 12~13, 문법 3

2007년 9월 21일 - 구술 14~15
2007년 9월 22일 - 구술 16~17
2007년 9월 23일 - 보충조사: 구술 18, 어휘 10, 음운 5

① 구술발화

녹음시간(전사량)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구술 1 - 0:49:09			
구술 2 - 1:05:45			
구술 3 - 1:01:12 (61분)	18시간	17시간	16시간
구술 4 - 1:01:35			
구술 5 - 0:27:25			
구술 6 - 1:34:53			
구술 7 - 1:20:01			
구술 8 - 0:38:26 (16분)	6시간	5시간	4시간
구술 9 - 1:03:03			
구술10 - 0:47:00			
구술11 - 0:45:31 (16분)	6시간	5시간	4시간
구술12 - 1:08:41			
구술13 - 0:45:28			
구술14 - 1:09:01			
구술15 - 1:19:48 (80분)	24시간	23시간	22시간
구술16 - 0:43:41			
구술17 - 1:07:17 (67분)	21시간	20시간	19시간
구술18 - 0:30:48			

② 어휘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어휘 1 - 1:29:27	18시간	17시간	16시간
어휘 2 - 0:37:39	8시간	7시간	6시간
어휘 3 - 2:03:11	14시간	13시간	12시간
어휘 4 - 0:54:35	12시간	11시간	10시간
어휘 5 - 0:57:26	12시간	11시간	10시간
어휘 6 - 0:53:48	12시간	11시간	10시간
어휘 7 - 1:03:07	12시간	11시간	10시간
어휘 8 - 1:27:23	18시간	17시간	16시간
어휘 9 - 0:31:22	6시간	5시간	4시간
어휘10 - 0:51:04	10시간	9시간	8시간

③ 음운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음운 1 - 0:29:39	6시간	5시간	4시간

음운 2 - 0:13:35	3시간	2시간	2시간
음운 3 - 1:05:50	14시간	13시간	12시간
음운 4 - 0:12:50	3시간	2시간	2시간
음운 5 - 0:01:02	1시간	1시간	1시간

④ 문법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문법 1 - 0:55:04	10시간	9시간	8시간
문법 2 - 0:36:04	8시간	7시간	6시간
문법 3 - 0:47:01	10시간	9시간	8시간

⑤ 총 녹음시간 : 32:28:47

1.5 전사

(1) 전사자	한영목/박숙희/유세진
전사 일시	2007년 7월 30일～10월 20일
소요 시간	252시간
(2) 1차 점검자	한영목/박숙희/유세진
1차 점검 일시	2007년 8월 20일～10월 27일
소요 시간	230시간
(3) 2차 점검자	한영목/박숙희/유세진
2차 점검 일시	2007년 9월 3일～11월 10일
소요 시간	210시간
(4) 3차 점검자	한영목/박숙희/유세진
2차 점검 일시	2007년 10월 15일～11월 30일
소요 시간	187시간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④ 장음 표시는 단어의 음절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음절 뒤에 ":" 표시를 하였다.
⑤ 음절 하나하나를 정확히 발음하였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예를 들면 '맺지'를 [맫찌]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e]와 [ɛ]로 실현되면 '에'와 '애'로 전사하였다.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wɛ]로 실현되면 '왜'로 전사하였다.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⑤ 단어에서 음성 [ㅎ]이 나타날 때에는 앞에 띄어쓰기를 두어 실현 환경을 밝혔다.
⑥ 이중모음 [ɨi]는 '으'를 풀어 '으ㅡ'로 표기하였다.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2. 일상 의례

1.2.6. 환갑잔치

10223 @ 환갑짠치에 대해서 함번 여쭤 보께요. {환갑잔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10223 @ 그 항갑짠치할 때 어떤 절차로 무어슬 어떠게 준비하지요 환갑짠치는? {그 환갑잔치할 때 어떤 절차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지요, 환갑잔치는?}
10223 # 항갑짠치 헐라면 인자 내녀니가 항가비라고 헐라머 오리 찜 뒈지 사다 키고. {환갑잔치 하려면, 인제 내년이 환갑이라고 하려면 올해쯤 돼지 사다 키우고.}
10223 @ 어. {응.}
10223 # 미리버타 육씹 일련 데더 네에 행 항가빙게 그때버터 인자 항갑짠치를 미리버텀 준비허지요. {미리부터 육십일 년 되던 해에 환, 환갑이니까 그때부터 인제 환갑잔치를 미리부터 준비하죠.}
10223 # 뒈지도 키고 내녀니 항갑 허야거따 허며는 그냥 해서 인자 저런 디 대. {돼지도 키우고 내년에 환갑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해서 인제 저런 데, 대.}
10223 # 대사지내능 거처럼 그르케 준비허지오. {대사지내는 거처럼 그렇게 준비하죠.}
10224 # 떡뚜 허구 임절미두 허구 그냥 해서 지비서 상야노쿠 인자 절 반는다구지. {떡도 하고, 인절미도 하고 그냥 해서 집에서 상을 해놓고 인제 절 받는다고 하지.}
10224 # 이~ 상 이러케 혀노쿠 지금 저런 디서 그 과일 머 이르케 노쿠 허넝 거처럼 지비서 다 허지우. {잉, 상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저런 데서 그 과일 뭐 이렇게 놓고 하는 것처럼 집에서 다 하죠.}
10224 # 과일 사서 막 큰상 헌다구면 다:: 그 음시글 괴야. {과일 사서 막 큰상 한다고 하면 다 그 음식을 괴어.}
10224 # 괴야서 놔 노쿠서 절 받꼬 항감날 인자 아침 머꾸서. {괴어서 놔, 놓고서 절 받고 환갑날 인제 아침 먹고서.}
10223 # 절 반는다 허구 절 반는 데 가보자구. {절 받는다 하고 절 받는 데 가보자고.}
=1 덜. {들.}
=1 인자 경웅기 쏘리 나먼 나가 보야지. {인제 경운기 소리 나면 나가 봐야지.}
10225 @ 그래서 그라먼 인제 고걸 제 괴고 그라구서 인제 동네싸람 와서 인제 저 추카하주고. {그래서 그러면 인제 고걸 괴 괴고 그러고서 인제 동네사람 와서 인제 저 축하해주고.}
10224 @ 상얼 꾈 때 그라먼 인제. {상을 꾈 때 그러면 인제.}
10224 # 상은 그렁 거 고ㅑ 주구. {상은 그런 거 괴어 주고.}

10223 # 그렁 걷 혀 주구 인자 뒈지 자꼬 허먼 그저니는 술 어듬머리 수리자뉴 그릉게. {그렁 거 해 주고 인제 돼지 잡고 하면 그전에는 술 가장 먼저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10225 # 술덜 머그러 오구 그냥 허구 머 동네 싸람덜 오나서 그냥 머거쪼 차린 음식. {술들 먹으러 오고 그냥 하고, 뭐 동네 사람들 와서 그냥 먹었죠, 차린 음식.}
10224 @ 금 상에다도 뒈지머리 노코 그래써요? {그럼 상에다가도 돼지머리 놓고 그랬어요?}
10224 # 그런 상엔 뒈지머리 안 놛씨유. {그런 상에는 돼지머리 안 놨어요.}
10224 # 에 오디다 제 지낼 때가 뒈지머리 노터라고요. {예, 어디다 제 지낼 때가 돼지머리 놓더라고요.}
10225 @ 금 금 다른 사람 초 그 항갑짠치 초대 바드면 가서 그 옌나레는 그 게란 가틍 거 가주 가따고요? {그럼 그럼 다른 사람 초, 그 환갑잔치 초대 받으면 가서 그 옛날에는 그 계란 같은 거 가져 갔다고요?}
10225 # 예 예. {예 예.}
10225 @ 부조또나구? {부조돈하고?}
10225 # 예. {예.}
10225 # 부조똔 아니 부조쫀 대신 부주 앙쿠 게란 한 줄 마니 주는 지븐 두 줄 그렁 걷 가좓써. {부조돈, 아니 부조돈 대신 부조 않고, 계란 한 줄 많이 주는 집은 두 줄 그런 것 가져왔어.}
10225 @ 예. {예.}
10225 # 지비서 적 뿌치고 그렁 거 할 때 쓰라구. {집에서 부침 부치고 그런 거 할 때 쓰라고.}
=1 @2 할머니 그 궤 놔떤 음시근 다 이제 멍나요? {할머니 그 괘 놨던 음식은 다 이제 먹나요?}
=1 # 먹쭈. {먹지요.}
=1 @ 아까워서 어트게 멍나?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1 # 그리도 다 쓰 허믄 먹찌. {그래도 다 쓰, 하면 먹지.}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 그다메 이 사 이 상녜 거틍 건 잘 모르시저? {그 다음에 이 사, 이 상례 같은 건 잘 모르시죠?}
10226 @ 저 예 옌날 사람 주그먼 장녜 치를 때 어트가능 건 잘 암보셔쪼 그렁 건녀? {저 예 옛날 사람 죽으면 장례 치를 때 어떡하는 건 잘 안보셨죠, 그런 것은요?}
10226 @ 소렴 대렴 거틍 건? {소렴 대렴 같은 건?}
10226 @ 여마고 그러능 건? {염하고 그러는 건?}
10226 # 여머고 허능 거 봐찌유. {염하고 하는 거 봤죠.}
10226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26 # 예. {예.}
10226 @2 씨어른 도라가실 때 다 지베서 하셔쩌? {시어른 돌아가실 때 다 집에서 하셨죠?}
10226 # 에 그렁 보 보구. {응 그렁 보 보고.}

10226 # 너미 인자 지반 누구 상 나먼 가서 그 이피는 옫 다 챙겨서 주구 그렁 거 혀찌유. {남의 인제 집안 누구 상 나면 가서 그 입히는 옷 다 챙겨서 주고 그런 것 했죠.}
10226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26 # 예. {예.}
10226 @ 그럼 여그 보먼 그 사라미 주그면 장네를 치르는데 그 그 장네 절차에 대해서 이써요 게 초종이니 스비니 뭐 소렴 거튱 거. {그럼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그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있어요, 그 초종이니 염습이니 뭐 소렴 같은 거.}
10226 @ 자 기엉나능 게 이쓰세요? {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10226 # 그 그렁 건 몰르는디 장네 지내 절차. {그, 그런 건 모르는데 장례 지내 절차.}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30 @ 그러면 금 금 다릉 거 여쭤볼께요 제사 지내는 애기. {그러면 그럼 그럼 다른 거 여쭤볼게요, 제사 지내는 얘기.}
10230 @ 그 예드면 제사에는 어떵 게 이쬬 사라미 주그면? {그 예를 들면 제사에는 어떤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10230 @ 제사 지낼 때 바론 제 그 기제라고 해서 곧 일련 되면 그 주근 날 제단날 기제사가 이찌요? {제사 지낼 때 바로 인제 그 기제라고 해서 곧 일년 되면 그 죽은 날 제삿날 기제사가 있죠?}
10230 # 예 소상이지 그건. {예, 소상이지 그건.}
10230 @ 아 일련 냥 소상. {아 일년 그냥 소상.}
10230 # 에 이:년 인자 대:상은 마주막 삼년 채 마주마기 대:상. {예, 이년 인제 대상은 마지막 삼년 채 마지막이 대상.}
10230 @ 예. {예.}
10230 @ 감 대상 지나믄 방이 방 그 방찌사라 구라나요? {그럼 대상 지나면 방이 방 그 방제사라고 그러나요?}
10230 # 그루츄 방안 찌사. {그렇죠, 방안 제사.}
10230 @ 에 방안 찌사. {예, 방안 제사.}
10230 # 에. {예.}
10230 @ 고 일려네 함번씩 찌내지오? {고 일년에 한번씩 지내죠?}
10230 # 예. {예.}
10230 @ 그 도라가신 날 지나나요 그라믄 날? {그 돌아가신 날 지내나요, 그러면 날?}
10230 # 도라가신 전 날. {돌아가신 전 날.}
10230 @ 전. {전.}
10230 # 사:른 날로 지내야 음시글 잡쑨다 혀가꾸 산: 날루 지냉게 도라 오놀 도라가시문 어제가 지사요. {산 날로 지내야 음식을 잡순다 해갖고 산 날로 지내니까 돌아, 오늘 돌아가시면 어제가 제사요.}
10230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30 # 에. {예.}
10230 # 지사는 그르케 지내. {제사는 그렇게 지내.}

10232 @ 지사 때두 그람 뭘 마니 좀 차련나요 음식 저 상 차릴 때 지사? {제사 때도 그럼 뭘 많이 좀 차렸나요, 음식 저 상 차릴 때 제사?}
10232 # 상채릴 때 나물허구 밤 대추 사 삼사 실과 다 노쿠 적 뿌치구 떠거구 다 노츄 그냥 이서. {상차릴 때 나물하고, 밤, 대추, 사, 삼사 실과 다 놓고, 부침개 부치고 떡하고 다 놓죠, 그냥 이렇게.}
10232 # 바 배서 국 끄리구 바 배노쿠 탕 해노쿠 다 그르캐서 제사 지내지유. {밥 해서 국 끓이고 밥 해놓고, 탕 해놓고 다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죠.}
10232 @ 그람 인제 그 대개 추석 때도 지내고 설날도 제사 지내지오? {그럼 인제 그 대개 추석 때도 지내고 설날도 제사 지내죠?}
10232 # 그르츄. {그렇죠.}
10232 # 파뤌 보롬날 아치미 지내구. {팔월 보름날 아침에 지내고.}
10232 @ 예. {예.}
10232 # 정월 초하룬날 아치미 지내구.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지내고.}
10232 @ 에. {예.}
10232 @ 그럴 때는 그 다 절거틍 거 하지오 연시제는? {그럴 때는 그 다 절 같은 거 하죠, 연시제는?}
10232 # 그러치유 다 저러지유. {그렇죠, 다 절하죠.}
10232 @ 그에 마야믄제. {그게 뭐냐면 인제.}
10232 @ 그 다메 시제아러 시제라고 시향 지낸다 고라지오? {그 다음에 시제하러 시제라고 시향 지낸다고 그러죠?}
10232 # 예. {예.}
10232 @ 그건 제 오대조 이상만 지내는데 그 시제 지내는디 함번 가보셔써요? {그건 인제 오대조 이상만 지내는데 그 시제 지내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10232 # 그름뉴. {그럼은요.}
10232 @ 어트게 지내요 그거뚜 시제느뇨? {어떻게 지내요 그것도 시제는요?}
10232 # 시제 그저니는 사니서 지낸는디. {시제 그전에는 산에서 지냈는데.}
10232 @ 네. {네.}
10232 # 사니 지물 한 지물 모이마두 지무를 따루따루 해서 가주 가써 지내꺼드뇨. {산에 제물 한 제물 묘마다 제물을 따로따로 해서 가져 가서 지냈거든요.}
10232 @ 아. {아.}
10232 # 근디 그게 너머 벙거럽꾸 어려우니까 인자 음. {그런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인제 음.}
10232 # 지블 지어 노쿠 집 지끔 지어써유 종종 지불 지쿠서 거기서 지냐. {집을 지어 놓고 집 지금 지었어요, 종중 집을 짓고서 거기서 지내.}
10232 # 인자 방이서 축 써노쿠 하: 나라부지 지내구 또 다음 하라부지 또 지내구. {인제 방에서 축 써놓고 한 할아버지 지내고 또 다음 할아버지 또 지내고.}
10232 # 근디 삼:십 이 두 지무링가 도ㅏ 지무리 우리는. {근데 삼 십 이 두 제물인가 돼, 제물이 우리는.}
10232 @ 아. {아.}
10232 # 인 즘 마내서 양쪼기서 지냐. {인제 좀 많아서 양쪽에서 지내.}
10232 # 지사를 이르케 집 지어노쿠 제실찌불 지어노쿠. {제사를 이렇게 집 지어 놓고 제실

집을 지어 놓고.}
10232 # 거기 가선자 낼리 시사라믄 오늘뽀터 가서 다 음식 만들구 적 뿌치구 미리버텀 다 해가지구 양쪼기서 축 써서 노쿠 이쪼기서 그짝 하라부지 이: 손덜 지내구 이쪼기서는 또 딴 하라부지 손덜 지내구 여케 양쪽이서 지내지유. {거기 가서 인제 내일이 시사라면 오늘부터 가서 다 음식 만들고 부침개 부치고 미리부터 다 해가지고, 양쪽에서 축 써서 놓고 이쪽에서 그쪽 할아버지 이, 자손들 지내고, 이쪽에서는 또 딴 할아버지 자손들 지내고 이렇게 양쪽에서 지내지요.}
10232 # 그래서 우리 시어먼님 시아버님두 시제로 모셔서 지비서 인자 안 지내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시제로 모셔서 집에서 인제 안 지내요.}
1023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32 @ 그 다메 차레쌍도 차 차레쌍 인제 차리조? {그 다음에 차례상도 차, 차례상 인제 차리죠?}
10232 # 그르치유. {그렇죠.}
10232 @ 에. {예.}
10232 @ 그 다메 그러믄 제 그 혹씨 지 지방두 제사 때는 지방 부치고. {그 다음에 그럼 인제 그, 혹시 지 지방도 제사 때는 지방 부치고.}
10232 # 예. {예.}
10232 @ 추길꼬. {축 읽고.}
10232 # 예. {예.}
10232 @ 연 그래 그라면 추석 때나 설 때는 그렁 거 아 나조 지방 축 거틍 건녀? {연, 그래 그러면 추석 때나 설 때는 그런 거 안 하죠, 지방 축 같은 것은요?}
10232 # 그러데유. {그러데요.}
10232 @ 에. {예.}
10232 # 제사 때가 허지. {제사 때에 하지.}
10232 # 저기 나가보야 할랑감네. {저기 나가봐야 하려는가보네.}
10232 @ 그러세요 예 그럼 그러서 쫌 하던 간다나게 여쭤볼께요. {그러세요, 예 그럼 그래서 좀 하여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0232 @ 그러믄 제 그 제사에 인제 그 제 제 놀 때 삼사실과 노코. {그럼 인제, 그 제사에 인제, 그 제, 제 놀 때 삼사실과 놓고.}
10232 # 에. {예.}
10232 @ 떡뚜 노코. {떡도 놓고.}
10232 # 에. {예.}
10232 @ 저. {저.}
10232 # 나물로쿠. {나물 놓고.}
10232 @ 에. {예.}
10232 # 응 저기 탕 노쿠. {응, 저기 탕 놓고.}
10232 @ 탕은 메 탕을 해요 보통? {탕은 몇 탕을 해요 보통.}
10232 # 삼: 탕. {삼 탕.}
10232 @ 삼: 탕이요? {삼 탕이요?}
10232 # 에. {예.}
10232 @ 응. {응.}

10232 @ 그다민 제. {그담 인제.}
10232 # 어탕 소탕 육탕 기냥 삼: 탕. {어탕, 소탕, 육탕 그냥 삼 탕.}
1023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32 @ 그람 인제 생서는 주로 뭐 노치오 여기서는? {그럼 인제 생선은 주로 뭐 놓죠, 여기서는?}
10232 # 조기 노치유. {조기 놓죠.}
10232 @ 조기. {조기.}
10232 @ 또. {또.}
10232 # 숭어. {숭어.}
10232 @ 숭어. {숭어.}
10232 # 조기. {조기.}
10232 # 포. {포.}
10232 @ 포. {포.}
10232 @ 포는 무슨 포? {포는 무슨 포?}
10232 # 우시는 저 미너포 놔요. {우리는 저 민어포 놔요.}
10232 @ 어이고 미너포 놔요? {어이구 민어포 놔요?}
10232 # 에. {예.}
10232 @ 그러곤제 그 전 적 뿌칭 거 저기라고 하조? 적뚜 노코. {그리고 인제, 그 전, 적 부친 거 적이라고 하죠? 적도 놓고.}
10232 # 예 적. {예 적.}
10232 @ 그 다멘제 밥 패 노코. {그 다음에는 인제 밥 해 놓고.}
10232 # 구거구 바버구 노쿠. {국하고 밥하고 놓고.}
10232 @ 네. {네.}
10232 @ 그 다메 뭐 인제 그러고서 인제 그 뭐야 그 잔 올리자나요? {그 다음에 뭐 인제 그러고서 인제 그 뭐야 그 잔 올리잖아요?}
10232 @ 자 놀리능 건 누가 젤 먼저 올려요? {잔 올리는 건 누가 제일 먼저 올려요?}
10232 # 크나더리 올리지우. {큰아들이 올리죠.}
10232 @ 크나들 아. {큰아들 아.}
10232 # 예. {예.}
10232 @ 두 번째 짜는? {두 번째 잔은?}
10232 # 두 번째 짜는 인자 자그나들. {두 번째 잔은 인제 작은아들.}
10232 @ 아 사위나 따른 쫌 뒤로 가나요 그람? {아 사위나 딸은 좀 뒤로 가나요, 그럼?}
10232 # 그르치. {그렇지.}
10232 @ 에. {예.}
10232 # 지사 지내는디 사위 따른 츠음버틈 참 그 사람더리 지내믄 몰라는디 사위 따른 밀려 나. {제사 지내는데 사위, 딸은 처음부터 참 그 사람들이 지내면 모르는데 사위, 딸은 밀려 나.}
10232 @ 아 그래요 에. {아 그래요 예.}
10232 @ 아 아들 주잉가 보군요. {아 아들 위주인가 보군요.}
10232 # 에 아들 이씀 아들덜. {예 아들 있음 아들들.}
10232 @ 그 그가믄 저 친척떨도 오며는 그게 무슨 즈 저 잔 올려요? {그 그렇게 하면 저

친척들도 오면은 그게 무슨 저, 저 잔 올려요?}
10232 # 그르치유 그르치유 친척 지사 지내러 오믄 올리지유. {그렇죠, 그렇죠, 친척 제사 지내러 오면 올리죠.}
10232 @ 에 견데 주로 세 번 올리고 그 담 첨자나고 그러지오? {예, 근데 주로 세 번 올리고 그 담 첨잔하고 그러죠?}
10232 @ 또 안 느께. {또 안 늦게.}
10232 # 예. {예.}
10232 @ 예. {예.}
10232 # 아니 함문 함무넌다고 음 제사. {아니, 합문, 합문한다고 음 제사.}
10232 @ 축 예. {축 예.}
10232 # 다 저여구 충 일꾸 지내구. {다 절하고 축 읽고 지내고.}
10232 @ 에. {예.}
10232 # 나서 인자. {나서 인자.}
10232 @ 함문. {합문.}
10232 # 나오자녀 다. {나오잖아 다.}
10232 @ 에 에. {예 예.}
10232 # 함문 나오나서 이따가 인자 한참 쪼매 이따가 숭넹 올리지우. {합문 나와서 있다가 인제 한참 조금 있다가 숭늉 올리지요.}
10232 @ 아 숭늉. {아 숭늉.}
10232 # 숭넹. {숭늉.}
10232 @ 에. {예.}
10232 # 저 물. {저 물.}
10232 @ 에. {예.}
10232 # 숭넹 숭넹 올리구서 절들 허구 그러고서나 끈나데유. {숭늉 숭늉 올리고서 절들 하고, 그러고서는 끝나데요.}
10232 @ 그라고 이제 그 음복한다구래서. {그리고 인제 그 음복한다고 해서.}
10232 # 에. {예.}
10232 @ 음시글 또 멍나요 제사 끈나[x고x]? {음식을 또 먹나요, 제사 끝나[x고x]?}
10232 # 그르초 음 보근 상이 인는 음시글 멍능 게 음보긴디 남자들 저러구 헌 사람더른 술 우선 술짠 음복짠 술짠 그게 따러놔떤 술짠. {그렇죠, 음 복은 상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음복인데 남자들 절하고 한 사람들은 술 우선 술잔, 음복잔 술잔 그게 따라놨던 술잔.}
10232 @ 네. {네.}
10232 # 제사쌍이다 그 술짠 그게두 제사 예:에 드러간데유 음보기. {제사상에다 그 술잔 그것도 제사 예에 들어간대요 음복이.}
10232 # 그애서 크나더리 음보 거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이 음복 하더라고요.}
10232 @ 아 아. {아 아.}
10232 # 크나덜 음복 허구 저근아덜뚜 음복 허구 다 음복 술 해. {큰아들 음복 하고, 작은아들도 음복 하고 다 음복 술 해.}
10232 @ 이제 철쌍한다능 건 제 상을 다 인제. {인제 철상한다는 건 인제 상을 다 인제.}
10232 # 예 다 치우능 게 철쌍이구. {예 다 치우는 게 철상이고.}
10232 @ 그 다메 제사 음시근 누가 준비를 하조 음식 쭌비하는 사라믄?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은 누가 준비를 하죠, 음식 준비하는 사람은?}
10232 # 음식 준비허는 사라믄 메누리가 하조. {음식 준비하는 사람은 며느리가 하죠.}
10232 @ 며느리가 해요? {며느리가 해요?}
10232 # 예. {예.}
10232 @ 에 며느리 그저. {예 며느리 그저.}
10232 # 다. {다.}
10232 @ 혹씨 그 제사 어떤 사라믄 제사 음식 모 탄다 제사 몯 찌난다는 그런 금기사항 이써요? {혹시 그 제사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못 한다 제사 못 지낸다는 그런 금기사항 있어요?}
10232 @ 옌나리믄 뭐 상가찌베 가따 온 사라믄 제사 몯 찌나게 하고 그러던데. {옛날이면 뭐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은 제사 못 지내게 하고 그러던데.}
10232 # 그르츄. {그렇죠.}
10232 # 상가찌비 오느리 지사라믄 어제나 오눌 가며는 지사 안 지내지우. {상갓집에 오늘이 제사라면 어제나 오늘 가면은 제사 안 지내지요.}
10232 @ 예. {예.}
10232 # 그 사라믄. {그 사람은.}
10232 # 딴 사람들 따 지내구 그 사라믄 짇 저러구 제사 안 지내드라고요. {딴 사람들 다 지내고 그 사람은 지, 절하고 제사 안 지내더라고요.}
10232 @ 또 그런 데 가따 온 사람도 음식 쭌비 모 다게 하나요 그람요? {또 그런 데 갔다 온 사람도 음식 준비 못 하게 하나요, 그럼요?}
10232 # 음식 으 음식 준비는 모 더게 안쿠 그냥 허데요. {음식 으, 음식 준비는 못 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하데요.}
10232 # 근디 몰라 그넝 저기한 땐 안 가 봐씅게. {그런데 몰라 그냥 저기할 땐 안 가 봤으니까.}
10232 # 요 제사믄 미리 우 내리 제사라믄 오늘뻐터 안치. {요 제사면 미리 우 내일이 제사라면 오늘부터 않지.}
10232 @ 예. {예.}
10232 # 안 가지. {안 가지.}
10232 # 사밀 쩡도는. {삼 일 정도는.}
10232 @ 음. {음.}
10232 @ 여기 뭐 제사 지내 가래떠기니 힌떠 꺼틍 건 시루떠 꺼튼 잘. {여기 뭐 제사 지내[xㄹ때x] 가래떡이니 흰떡 같은 건 시루떡 같은 잘.}
10232 # 시루떠 개노치유. {시루떡 해놓죠.}
10232 @ 시루떠 개놔요? {시루떡 해놔요?}
10232 # 에 에. {예 예.}
10232 @ 가래떡 안 노치요? {가래떡 안 놓죠?}
10232 # 가래떠근 안 노치우. {가래떡은 안 놓죠.}
10233 @ 그 혹씨 제사 지내는 그 방버비 옌날과 좀 달라징 거 거테요 요즘 요즘? {그 혹시 제사 지내는 그 방법이 옛날과 좀 달라진 거 같아요, 요즘, 요즘?}
10233 @ 곋 보니까 어떤 사람더른 그 도라가신 부모 할머니 하랍 다:: 때때로 열 려네 뭐 열 메 뻔 지나는 사람도 인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부모 할머니 할

아버지 다 때때로 일 년에 뭐 열 몇 번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10233 @ 또 요즘 어떤 사람더른 항꺼버네 그냥 지나는 사람이뚜 이꾸 그러타고 하더라구요. {또 요즘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233 # 그렁께 지끄믄 다 제 멀때로데유 지내구.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제 멋대로데요 지내고.}
10233 # 뭐 지사두 초지녀기 지내는 사람두 이꾸 그 저. {뭐 제사도 초저녁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 저.}
10233 # 그어케 지내는디 우리는 그르케 쫌 일찍 지낸다우문 우리 아더른 조아 아내요.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좀 일찍 지낸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좋아 안 해요.}
10233 # 그럴라믄 무더러 안 지내고 아무 때나 지내지 무더러 지내냐고 허지. {그러려면 뭣하러 안 지내고 아무 때나 지내지 뭣 하러 지내냐고 하지.}
10233 # 그냥 헐라고 아내요. {그냥 하려고 안 해요.}
10233 @ 아 밤 느께 해요? {아, 밤늦게 해요?}
10233 # 에. {예.}
10233 # 꼭 근디 그 날 귿 그 시에 지내야지. {꼭 그런데 그 날 그, 그 시에 지내야지.}
10233 @ 그러먼 제사 저 장:남 이믄 제사 여러 번 지내지오 일려네? {그러면 제사 저 장남이면 제사 여러 번 지내죠, 일 년에?}
10233 # 할머이 하라부지이여구 아버지여구 이써찌 즈이 아버지여고 근디 할머이 하라부지는 시제로 모싱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있었지 저희 아버지하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제로 모시니까.}
10233 @ 에. {예.}
10233 # 여르메 한 번빼끼 웁써. {여름에 한 번밖에 없어.}
10233 @ 예. {예.}
10233 # 저이 아버지 함 번. {저희 아버지 한 번.}
10233 @ 음. {음.}
=1 @ 그 다으멘 제 여기는 해꼬. {그 다음에 인제 여기는 했고.}
=1 @ 안 끄너지나 쫌 어 일딴 다른 내용 너머가능 게 조켄네 응. {안 끊어지나 좀 어 일단 다른 내용 넘어가는 게 좋겠네, 응.}
=1 @ 그럼 먼저 하다가 마른 데요 인제 쪼끔만 더 하고. {그럼 먼저 하다가 만 데요, 인제 조금만 더 하고.}
=1 @ 바느질 먼저 바느질 도구에 대하까지 함 번 먼저뻔 와서 조사해꺼든뇨. {바느질 먼저 바느질 도구에 대해까지 한 번 먼젓번 와서 조사했거든요.}
=1 # 에. {에.}

1.4. 의생활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14 @ 그 누에를 주능 누에 인제 뭐 주넝 거 이짜나요 근 무슨 나무? {그 누에를 주는 누에 인제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슨 나무?}
10414 # 뽕 뽕나무. {뽕, 뽕나무.}
10414 @ 뽕 에. {뽕 예.}
10414 @ 누에똥도 가라 주나 부조? {누에똥도 갈아 주나 보죠?}
10414 # 그러므뉴. {그럼은요.}
10414 # 이여케 밥 쭈면 누에더리 막 다:: 우이루 올루 놔서 머거. {이렇게 밥 주면 누에들이 막 다 위로 올려 놔서 먹어.}
10414 # 그러구서는 그 뽕닙꽌 주문 무 란 묻께 다 따꺼서 주더라구유. {그러고서는 그 뽕잎 주면 물 안 묻게 다 닦아서 주더라고요.}
10414 # 그르케서 주며는 누에가 다 올루 놔서 막 버석버석버석 멍는 소리 나게 머그먼 인자 누에가 다 우이가 올라 안짜뉴. {그렇게 해서 주면은 누에가 다 올려 놔서 막 버석버석버석 먹는 소리 나게 먹으면, 인제 누에가 다 위에 올라 앉잖아요.}
10414 @ 예. {예.}
10414 # 그러면 그 눔 지버서 딴 디다 다:: 골라 내구 치:지우 다. {그러면 그 놈 집어서 딴 데다 다 골라 내고 치우죠, 다.}
10414 @ 네. {네.}
10414 # 버리고 새루 놔 주구 그레유. {버리고 새로 놔 주고 그래요.}
10414 @ 금 누에 키울 때 이런 요런 게 이쪼. {그럼 누에 키울 때 이런 요런 게 있죠.}
10414 # 채반. {채반.}
10414 @ 채반 예. {채반, 예.}
10414 # 에. {예.}
10414 @ 채바네다 그럼 종이도 까라저요? {채반에다 그럼 종이도 깔아줘요?}
10414 @ 기냥 채반 위에다 그냥. {그냥 채반 위에다 그냥.}
10414 # 아니 처 깔지우. {아니, 처 깔죠.}
10414 @ 아 뭘 까능구만뇨. {아, 뭘 까는구먼요.}
10414 # 에 깔구서나 그 위다 올려 노먼 그냥 밥 주구 뽕니파리 이러케 주구 그기다 이르케 노며는 다:: 댕이머 지더리 냥 막 글거 머거요. {예, 깔고서는 그 위에다 올려 놓으면, 그냥 밥 주고 뽕잎 이렇게 주고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다 다니며 저희들이 그냥 막 긁어 먹어요.}
10414 @ 예. {예.}
10414 # 그래가주구 또 한:: 메칠 머거서 누에가 제법 크며는 밥 줘두 암 먹떼요. {그래가지고 또 한 며칠 먹어서 누에가 제법 크면은 밥 줘도 안 먹데요.}
10414 # 다:: 잠자니라구 고개 처들구 다 이써요 안 자구. {다 잠자느라고 고개 쳐들고 다 있어요, 안 자고.}
10414 @ 아::. {아.}
10414 # 그러다가 인자 자미 깨믄 음 월::떡 크드라구유 누에가. {그러다가 인제 잠이 깨면 음, 훌쩍 크더라고요, 누에가.}
10414 @ 예. {예.}
10414 # 한 잠 자먼. {한 잠 자면.}
10414 @ 예. {예.}

10414 # 그르면 뽕 주며는 또 인저 그 우이루 올라가서 머그먼 그 우이 치 개려 내구서 치래기 똥 허구는 버리지우. {그러면 뽕 주면은 또 인제 그 위로 올라가서 먹으면 그 위의 치 가려 내고서 찌꺼기 똥 하고는 버리죠.}
10414 # 그냥 키더라구유. {그냥 키우더라고요.}
10414 @ 가믄 제 또 두 잠 자고. {그러면 인제 또 두 잠 자고.}
10414 # 예. {예.}
10414 @ 아::! {아!}
10414 # 그러구서. {그러고서.}
10414 @ 잠 잔다능 거 어트게 자능 그람 잠 잔다능 게 양 가마니 인넝 거에요 누에가? {잠 잔다는 거 어떻게 자는, 그럼 잠 잔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에가?}
10414 # 예 에 잘 가. {예 예, 잘 가.}
10414 # 이르케 고개 처들구 다:: 암 머꾸 이써유. {이렇게 고개 쳐들고 다 안 먹고 있어요.}
10414 @ 아 메치리나 그래요 그 잠 잘 때는? {아, 며칠이나 그래요, 그 잠 잘 때는?}
10414 # 한 이틀 한 사밀 그러케 허나? {한 이틀, 한 삼일 그렇게 하나?}
10414 # 다:: 자 주궁 검마냥 이내 이뜨라구요. {다 자, 죽은 것처럼 이내 있더라고요.}
10414 @ 어 그래요? {아, 그래요?}
10414 # 예 암 머꾸. {예, 안 먹고.}
10414 @ 음 그람 그게 허물 자구 나서 허물 버서요 그 임는? {음, 그럼 그게 허물, 자고 나서 허물 벗어요 그 입는?}
10414 # 이자 허물 번는다 구데유. {인제 허물 벗는다고 그러데요.}
10414 # 그냥 해서나 크구 크구 그러더라구요 그러문. {그냥 해서는 크고, 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414 # 마주막 짬 자구서는 누에가 인자 노 배 가 노::란해지드라구유 이냥 보며는. {마지막 잠 자고서는 누에가 인제 노, 배 가 노래지더라고요, 이냥 보면은.}
10414 # 그러면 꼬치 저. {그러면 고치 지어.}
10414 @ 음. {음.}
10414 # 인자. {인제.}
10414 # 이케 무슨 나무까쟁이 뭐 그렁 거 지저부::너게 노며는 그루 올라가서 다:: 꼬치 지터라구유. {이렇게 무슨 나뭇가지 뭐 그런 거 지저분하게 놓으면은 거기로 올라가서 다 고치 짓더라고요.}
10414 @ 에. {예.}
10414 # 꼬치 지구서 그 소기서 인잗 중넝 거야 이써 초기가. {고치 짓고서 그 속에서 인제 죽는 거야, 있어 속에.}
10414 # 꼬치 드러가 그러가꾸. {고치 들어가 그래갖고.}
10414 # 꼬치 다 따가주구 인자 팔드만. {고치 다 따가지고 인제 팔더구먼.}
10414 @ 금 인제 누에 올리기 한다고 하능 거니깐 그. {그럼 인제 누에 올리기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
10414 # 잠 자구서 인제 올리능 거슨 꼬치 지능 거. {잠 자고서 인제 올리는 것은 고치 짓는 거.}
10414 @ 아. {아.}
10414 # 꼬치 질 때 올린다능 거유. {고치 질 때 올린다는 거요.}

10414 # 꼬치 재. {고치 질 때.}
10414 @ 그람 요 똥고로망 건 제 그 누에 꼬치라고 하지요? {그럼 요 동그란 건 인제 그 누에고치라고 하죠?}
10414 # 예. {예.}
10414 @ 감 고 소게 드런는 건 뭐라 구래요 거? {그럼 고 속에 들어 있는 건 뭐라 고 해요 그거?}
10414 # 뻔데기. {번데기.}
10414 @ 아. {아.}
10414 @ 음 그러믄 제 그 누에꼬치선 제 그 누에꼬치가 단다나데요 즈이덜 어려쓰 때 보니까요. {음, 그러면 인제 그 누에고치에서는 인제 그 누에고치가 단단하데요, 저희들 어렸을 때 보니까요.}
10414 # 예. {예.}
10415 @ 그 시를 뽀부야 데자나요? {그 실을 뽑아야 되잖아요?}
10415 # 예. {예.}
10415 @ 그 얻 어트게서 뽀바써요? {그 얻, 어떻게 해서 뽑았어요?}
10415 # 그어뚜 미영 뽑떼끼 그거 저기다가 그르시다 느쿠. {그것도 무명 뽑듯이 그거 저기다가 그릇에다 넣고.}
10415 @ 에. {예.}
10415 # 뜨거께 끌테유 뜨거께. {뜨겁게 끓 테요, 뜨겁게.}
10415 @ 물 무리다 느야 되지오? {물, 물에다 넣어야 되죠?}
10415 # 에 무리 뜨건 무리서 이로케 이로케 저서가주구 이러케 허며는 그 시:리. {예, 물이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실이.}
10415 @ 나오저 에. {나오죠, 예.}
10415 # 이 졸졸졸 이르케 뽐넌 대루 나오데유. {이, 졸졸졸 이렇게 뽑는 대로 나오데요.}
10415 @ 에. {예.}
10415 # 실 명지 시:리. {실, 명주 실이.}
10415 @ 에. {예.}
10415 # 그러면 다 나오면 그기 뻔데기. {그러면 다 나오면 그게 번데기.}
10415 @ 그 시를 그암 어트게 그양 가마니 어디에 가따가. {그 실을 그럼 어떻게 그냥 가만히 어디에 갖다가.}
10415 # 나오더라구유. {나오더라고요.}
10415 # 아니조 그거뚜 물래처럼. {아니죠, 그것도 물레처럼.}
10415 @ 아. {아.}
10415 # 그냥 해서 실 자 자꾸 냥 뽀바서 감뜨라구유. {그냥 해서 실 자, 자꾸 그냥 뽑아서 감더라고요.}
10415 @ 아 그래요 그 자리서 아::!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 아!}
10415 # 에 에. {예 예.}
=1 # 그냥 허 혀:가주구 그 뻔데기 나오더락 그냥 누에꼬치 잔:뜩 느쿠. {그냥 해, 해가지고 그 번데기 나오도록 그냥 누에고치 잔뜩 넣고.}
=1 @ 음. {음.}
=1 # 잔:뜩 퍼기나 느쿠서나 그냥 헝게 인저 뻔데기는 나오는디 이:그믄 익:떼유 그냥 뜨겅

게 어려서 보니까 에. {잔뜩 퍽이나 넣고서는 그냥 하니까 인제 번데기는 나오는데 익으면 익데요, 그냥 뜨거우니까 어려서 보니까 예.}
=1 @ 어 무리 뜨거우니까 무리 끄리고무뇨 예. {아, 물이 뜨거우니까 물을 끓이는구먼요.}
=1 # 이근 늠 그냥 내 노문덜 먹:떠만 뻔데기. {익은 놈 그냥 내 놓으면들 먹더구먼 번데기.}
=1 # 나는 그거 몸 머거. {나는 그거 못 먹어.}
10414 @ 그럼 그게 명주시를 내구 명실 내리긴 명주실 내린다고 하능 건 무슨 소리에요 혹씨 기어카세요? {그럼 그게 명주실을 내고 명주실 내리긴 명주실 내린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10415 # 그게 실: 내능 거지우. {그게 실, 내는 거죠.}
10415 @ 아 예. {아, 예.}
10416 @ 그 다메 명주실두 나능 게 이따바여 명주실 날기. {그 다음에 명주실도 나는 게 있나봐요, 명주실 날기.}
10416 # 그러치우. {그렇죠.}
10416 # 날구 그거뚜 그 나르야 짜지우. {날고 그것도 그 날아야 짜지요.}
10416 @ 어트게 나러요 나능 건? {어떻게 날아요, 나는 건?}
10416 # 이르케 나능 건 그 구녁 열 깨 고 구녁 이써가꾸 그 구머기다 하 놀씩 느:서 이르케 자버다가 인자 잉아 거를 롬 안 거를 롬 이어케 하나 걸러서 하나씩 으르케 새존는다 구지. {이렇게 나는 건 그 구멍 열 개 고 구멍 있어갖고 그 구멍에다 한 올씩 넣어서 이렇게 잡아다가 인제 잉아 걸 놈, 안 걸 놈 이렇게 하나 걸러서 하나씩 이렇게 새 좇다는다고 하지.}
10416 # 그거 새조사서 이러::케서 가따 응 날트리 이써유. {그거 새 조아서 이렇게 해서 갖다 응, 날틀이 있어요.}
10416 # 날틀 쪽 말뚝 바긍 거 메 깨 이러케 바긍 거 인는 디다 이어케 이어케 새조사서 가따 노쿠 노쿠 혀가꾸. {날틀 쪽 말뚝 막은 거 몇 개 이렇게 박은 거 있는 데다 이렇게, 이렇게 새 조아서 갖다 놓고, 놓고 해갖고.}
10416 # 그어또 잉아 거러서 냥 짜야지우 미영베마냥. {그것도 잉아 걸어서 그냥 짜야죠, 무명베처럼.}
10416 @ 근디 명주시른 굉:이 기를 꺼 아네요 하나 하나가? {그런데 명주실은 굉장히 길거 아네요, 하나하나가?}
10416 # 그러치오. {그렇죠.}
10416 @ 그람 그어또 어트게 끈날 때 뭘로 인나요 시를? {그럼 그것도 어떻게 끝날 때 뭘로 잇나요, 실을?}
10416 # 이리스 이:스야지우. {이어, 이어야죠.}
10416 @ 그 때 어트게 이서요? {그 때 어떻게 이어요?}
10416 # 그 저니 명주 모:시는 푸 썸 누에꼬치 그거 이꺼드뉴? {그 전에 명주 모시는 풀 먹인 누에고치 그거 있거든요?}
10416 # 그거 이냥 쪼매 저기애다 그냥 소니로 싹:: 비벼서 이르케 대두 인는디 아마 그거뚜 그럴 꺼여유. {그거 이냥 조금 저기에다 그냥 손으로 싹 비벼서 이렇게 대고 잇는데 아마 그것도 그럴 거예요.}
10416 @ 명주 맨다 고라던데 그 명주 맨다능 게 그니까? {명주 맨다고 그러던데 그 명주

맨다는 게 그러니까?}
10416 # 그거뚜 인자 뭔 푸를 발르든지 발러서 이르케 매서 바디 이르케 내리야 짜지유. {그것도 인제 뭔 풀을 바르든지 발라서 이렇게 매서 바디 이렇게 내려야 짜지요.}
10416 @ 아 감 명주 명주실 짜능 거뚜 아까 모시 짜능 거하고 기게 베트른 갇껜네요 그라믄? {아, 그럼 명주, 명주실 짜는 것도 아까 모시 짜는 거하고 기계 베틀은 같겠네요, 그러면?}
10416 # 짤 때 예 가찌유 예 또까찌유. {짤 때, 예 같죠, 예 똑같지요.}
10417 @ 그라믄 그 혹씨 그 이렁 거 짜는 베틀 명칭 함번 아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혹시 그 이런 거 짜는 베틀 명칭 한번 아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10417 @ 아까 마란 끄실개도 이꼬. {아까 말한 베틀신도 있고.}
10417 # 빙어리. {비경이.}
10417 @ 에. {예.}
10417 # 잉아. {잉아.}
10417 @ 잉아. {잉아.}
10417 @ 여기 또. {여기 또.}
10417 # 받 부테. {바디, 부티.}
10417 @ 에. {예.}
10417 # 말코. {말코.}
10417 @ 말코. {말코.}
10417 # 어 바디집 바디. {어, 바디집 바디.}
10417 @ 바디. {바디.}
10417 # 바디에다는 인자 한 구녕이다 두 올쎙이 느:가꾸 짜능 거유. {바디에는 인제 한 구멍에다 두 올씩 넣어갖고 짜는 거요.}
10417 @ 에. {예.}
10417 # 두 올씩 한 구녕이다 두 올씩 느서 잉아 거른 늠 잉아 안 거른 늠 두 올씩 한 구녕이다가. {두 올씩 한 구멍에다 두 올씩 넣어서 잉아 건 놈, 잉아 안 건 놈 두 올씩 한 구멍에다가.}
10417 @ 베틀 저 뒤쪼기루 똥고라니 킁 거 이쪼? {베틀 저 뒤쪽으로 동그랗게 큰 거 있죠?}
10417 # 도투마리. {도투마리.}
10417 @ 여기 하능 거 말고. {여기 하는 거 말고.}
10417 # 에 도투마리라구 인자 명주 자꾸 매:서 거기다 감넝 거. {예, 도투마리라고 인제 명주 자꾸 매서 거기다 감는 거.}
10417 @ 에. {예.}
10417 @ 아니 저 베틀 맨 뒤에 또 저 킁:: 거 이찌오. {아니 저 베틀 맨 뒤에 또 저 큰 거 있죠.}
10417 # 그게 감:능 거유 그게. {그게 감는 거예요 그게.}
10417 @ 그게. {그게.}
10417 @ 그게 도토마 도토마리에요? {그게 도투마리, 도투마리예요?}
10417 # 도토마리 예 에. {도투마리 예 예.}

10417 @ 에::. {예.}
10417 @ 그 활때가 아닝가 그 때 활때는 거기서 앙 쓰는 마리? {그 활대가 아닌가, 그 때 활대 거기서 안 쓰는 말이?}
10417 # 활때는 우꾸 빙어리허구 이으케 끄슬개가 이찌. {활대는 없고, 비경이하고 이렇게 베틀신이 있지.}
10417 # 똥::고라너게 이르케 끈 혀서 그 자부댕기따 노아따 허는 끄슬개. {동그랗게 이렇게 끈 해서 그 잡아당겼다 놨다 하는 베틀신.}
10417 @ 아 예:: 에. {아, 예, 예.}
10417 @ 그. {그.}
10417 # 그거에요. {그거예요.}
10417 @ 예. {예.}
10419 @ 그믄 제 온 만드넝 건 온 만드러 보셔써요 혹씨? {그러면 인제 옷 만드는 건 옷 만들어 보셨어요, 혹시?}
10419 # 뭔 만드러요 저기 뭔 저구리유? {뭣 만들어요, 저기 뭣 저고리요?}
10419 @ 예를 문 제 그 명 게 바지도 만들고 저고리 만들구 치마두 막 옌나레 다 만드러버 이버떵 건데 예. {예를 들면 인제 그 무명 그게 바지도 만들고, 저고리 만들고, 치마도 막 옛날에 다 만들어 입었던 건데 예.}
10419 # 만드러찌우. {만들었죠.}
10418 @ 그라믄 제 온 만들 때는 주로 어떤 그 오깜드리 이써요 온 만들 때 옌나리는? {그러면 인제 옷 만들 때는 주로 어떤 그 옷감들이 있어요, 옷 만들 때 옛날에는?}
10418 @ 베. {베.}
10418 # 그 그 여러 종뉴지오 비단 조언 양:단 가틍 거뚜 이꾸. {그, 그 여러 종류죠, 비단 좋은 양단 같은 것도 있고.}
10418 # 광:목뚜 이꾸. {광목도 있고.}
10418 # 명주 오걍목 모:시 그렁 거 다 오까믄 다 여러 가지지오. {명주, 옥양목, 모시 그런 거 다 옷감은 다 여러 가지죠.}
10418 @ 삼베. {삼베.}
10418 # 예. {예.}
10419 @ 아까 삼베를 그 치그로 만등 거뚜 삼베라고 랜나요? {아까 삼베를 그 칡으로 만든 것도 삼베라고 했나요?}
10419 # 예 총올치라구 그걷 혀서 훌터서 그냥 음 삼베처럼 짜 짜데유. {예 총훑이라고 그것 해서 훑어서 그냥 음, 삼베처럼 짜, 짜데요.}
10419 @ 총울치 그건 그건 어떤 오슬 만드러요 그걸로는녀? {총훑이 그건, 그건 어떤 옷을 만들어요 그걸로는요?}
10419 # 그거뚜 삼베처럼 그냥 짜서 만드는디 그거뚜 저 마포 그렁 건마냥 그냥 오 대입꾸 그러데유. {그것도 삼베처럼 그냥 짜서 만드는데 그것도 저 마포 그런 것처럼 그냥 옷 해 입고 그러데요.}
10419 @ 에 그 그걷. {예, 그 그것.}
10419 @ 예 허 헝겁 헝거번 보통 뭘 헝거비라고 래요? {예, 헝, 헝겊, 헝겊은 보통 뭘 헝겊이라고 해요?}
10419 # 귿 이~ 온 만느는 만드는 포목 이게 홍거비조. {그 잉, 옷 만드는, 만드는 포목 이

게 헝겊이죠.}
10419 @ 그게 에. {그게 예.}
10419 # 에. {예.}
10419 @ 걸 흥거비라고 래요? {그걸 헝겊이라고 해요?}
10419 # 예. {예.}
10419 @ 음. {음.}
10419 @ 금 제 우선 제 그 베요. {그럼 인제, 우선 인제 그 베요.}
10419 @ 베나 모시 무명 이렁 게 인는데 우선 제 그 치마를 만들 때는 주로 무슨? {베나 모시, 무명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인제 그 치마를 만들 때는 주로 무슨?}
10419 @ 인제 베루 해요 아니면 모시로 해요 삼베로 해요? {인제 베로 해요, 아니면 모시로 해요, 삼베로 해요?}
10419 @ 다 틀릴 꺼 아네요? {다 다를 거 아네요?}
10419 # 다 가찌오 옌 모시루두 삼베 치마 맨들구 마포 삼베루두 치마 만들구. {다 같죠, 옛 모시로도 삼베 치마 만들고, 마포 삼베로도 치마 만들고.}
10419 @ 명으로도 어~. {무명으로도 응.}
10419 # 예 미영두 치마 만들구 다 만드능 거시니까 만들지오. {예 무명도 치마 만들고, 다 만드는 것이니까 만들죠.}
10419 @ 근디 인제 그. {근데 인제 그.}
10419 @ 삼베 치매는 아무 때나 안 니블 꺼 아네요? {삼베 치마는 아무 때나 안 입을 거 아네요?}
10419 # 여르미 입찌오. {여름에 입죠.}
10419 @ 여르매요? {여름에요?}
10419 # 에. {예.}
10419 @ 그 옌날 명:은 게. {그 옛날 무명은 그게.}
10419 # 미영은 겨우리 이꾸. {무명은 겨울에 입고.}
10419 @ 겨우리 이꼬요 에. {겨울에 입고요 예.}
10419 # 광목 미영 이렁 건. {광목, 미영 이런 건.}
10419 @ 혹씨 저고리는 그 종뉴가 이 쫌 인나요 다른 여러 종뉴가 저고리도? {혹시 저고리는 그 종류가 이, 좀 있나요 다른 여러 종류가 저고리도?}
10419 # 그러치오. {그렇죠.}
10419 # 저고리두 양단 저고리두 이꾸 인저 삼베는 적싸미지 저구리가 아니고 적쌈. {저고리도 양단 저고리도 있고, 인제 삼베는 적삼이지 저고리가 아니고, 적삼.}
10419 @ 적쌈 에. {적삼 예.}
10419 # 모시 적쌈 삼베 적쌈 그 호껍떼기로 허능 거시 적싸미구. {모시 적삼, 삼베 적삼 그 홑껍데기로 하는 것이 적삼이고.}
10419 @ 예. {예.}
10419 # 이 저 두 껍떼기루 저비루 허능 거시 저구리지. {이 저 두 껍데기로 겹으로 하는 것이 저고리지.}
10419 @ 아: 그래꾼뇨? {아, 그랬군요?}
10419 # 예. {예.}
10419 # 주 저비루 그저닌 양단 저구리 가텅 거 광목 쩌구리두 허구 그냥 다 소니루 꼬매서

이버찌우. {두 겹으로 그전에는 양단 저고리 같은 거, 광목 저고리도 하고 그냥 다 손으로 꿰매서 입었죠.}
10419 @ 금 광목 쩌고리는 우리가 마런 그 지베서 짠 명 저 베아고 가틍 경가요 광모건? {그럼 광목 저고리는 우리가 말한, 그 집에서 짠 무명, 저 베하고 같은 건가요, 광목은?}
10419 # 광모근 자 지비서 짜능 게 아니구. {광목은 인제 집에서 짜는 게 아니고.}
10419 @ 에. {예.}
10419 # 음 기게에서 공장이서 널::께 광이 널:버 그건. {음, 기계에서 공장에서 넓게 광이 넓어 그건.}
10419 @ 아. {아.}
10419 # 그거 그게 널:께 나오넝 게 미영보덤 가눌구. {그거, 그게 넓게 나오는 게 무명보다 가늘고.}
10419 @ 음. {음.}
10419 # 오:리. {올이.}
10419 @ 음. {음.}
10419 # 그게 광:모긴디. {그게 광목인데.}
10419 # 그 그걸루덜 옫 그저니는 남자덜 바지 저구리 해이꾸 다 그래찌우. {그 그걸로들 옷 그전에는 남자들 바지저고리 해 입고 다 그랬죠.}
10419 @ 감 광모건 돈 주구 사오야 데겐네요? {그럼 광목은 돈 주고 사와야 되겠네요?}
10419 # 그르치우. {그렇죠.}
10419 # 광모건 사야지오. {광목은 사야죠.}
10419 @ 감 베로 함번 그라먼 어르신도 베로 나라가주고 그어 저 치마 저고리 만드러 보셔써요? {그럼 베로 한번 그러면 어르신도 베로 날아가지고 그거 저 치마 저고리 만들어 보셨어요?}
10419 # 모:시. {모시.}
10419 @ 모시로만? {모시로만?}
10419 # 에. {예.}
10419 @ 그 다민 조고리에 색똥저고리라능 게 이쪼? {그 다음에는 저고리에 색동저고리라는 게 있죠?}
10419 # 예. {예.}
10419 @ 그건. {그건.}
10419 # 색똥저구리는 이 소매. {색동저고리는 이 소매.}
10419 @ 에. {예.}
10419 # 소매가 인자 색똥이루 인자 색쌔기루 헌 색똥얼 다릉 게 색똥저구리지우. {소매가 인제 색동으로 인제 색색으로 한 색동을 단 게 색동저고리죠.}
10419 @ 그 유똥저고리라고 하능 건 또 뭐에요? {그 윳동저고리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10419 # 유:똥저구리는 인자 이 천 이르미 유:똥이라구 천 이르미지우 양단 가틍 거 그렁 건 천 이름. {윳동저고리는 인제 이 천 이름이 윳동이라고 천 이름이죠, 양단 같은 거, 그런 건 천 이름.}
10419 @ 아 유똥은 금 어트게 생깅 걸 유똥이? {아, 윳동은 그럼 어떻게 생긴 걸 윳동이[x라고x]?}
10419 # 유:똥은 부둘부두래이 이 옌나리 퍼대기 그렁 거 어른 내 어버주는 퍼대기 그렁 거

뚜 유:똥이로 유:똥퍼대기 해서 둘러주고. {윳동은 부들부들해서 이, 옛날에 포대기 그런 거 어린 애 업어주는 포대기 그런 것도 윳동으로 윳동포대기 해서 둘러주고.}
10419 # 어꾸 오디 추립 깔라믄 유:똥포대기 해서 둘러 주구 그래찌. {업고 어디 출입 가려면 윳동포대기 해서 둘러 주고 그랬지.}
10419 @ 지그믄 안 나오조 유똥 거틍 거? {지금은 안 나오죠, 윳동 같은 거?}
10419 # 지그믄 그렁 거 안 나오데유.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오데요.}
10419 @ 그 두루 두루매기요. {그 두루, 두루마기요.}
10419 # 에. {예.}
10419 @ 그건 뭘로 만드러요? {그거 뭘로 만들어요?}
10419 # 두루매기 모시루두 맨들구 모시 이러케 막 뚜디려서 납쪼거게 뚜디린 느믄 진설두루매기라구두 허구. {두루마기 모시로도 만들고, 모시 이렇게 막 두드려서 납작하게 두드린 놈은 진설두루마기라고도 하고.}
10419 @ 예. {예.}
10419 # 그냥 배기두루매기는 모시걷마냥 그저 헝 거시 배기두루매기구. {그냥 배기두루마기는 모시 것처럼 그저 한 것이 배기두루마기이고.}
10419 # 진서리라능 거슨 그저니 막 이케 다디미또기다가 막:: 뚜디러서 인자 우를 납쪼거게 뚜디링 거여유. {진설이라는 것은 그전에 막 이렇게 다듬잇돌에다가 막 두드려서 인제 위를 납작하게 두드린 거예요.}
10419 @ 예. {예.}
10419 # 그르 그걸루 두루매기 해서 파 뤌 때 추석 때 그런 때는 그렁 거 입찌. {그러, 그걸로 두루마기 해서 팔 월 때, 추석 때 그런 때는 그런 거 입지.}
10419 @ 배기라고 하능 그람 뭔 걸 그 모시로 항 거또 배기라고 래요 아니믄? {배기라고 하는 그럼 뭔 걸 그 모시로 한 것도 배기라고 해요, 아니면?}
10419 # 인제 모시로 배기두루매기는 안 뚜딜구 그냥 이러케 바거서 두루매기럴 이냐 미싱이다 바거가꾸 두루매기럴 만드릉 거구유. {인제 모시로 배기두루마기는 안 두드리고 그냥 이렇게 박아서, 두루마기를 이냥 재봉틀에다 박아갖고 두루마기를 만든 거고요.}
10419 @ 음. {음.}
10419 # 진설두루매기는 그냥 다디미여가꾸 소니로 꼬매서 갇 그렁 거 다 풀지래서 부처가주구 대리미루 다려서 인두루 다려가꾸 그냥 허능 거시 진설두루매기고. {진설두루마기는 그냥 다듬이질해갖고 손으로 꿰매서 갓 그런 거 다 풀질해서 붙여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서 인두로 다려갖고 그냥 하는 것이 진설두루마기이고.}
10419 @ 음. {음.}
10419 # 그렁 걷 다 시아버지 이씅게 혀서 이펴지. {그런 것 다 시아버지 있으니까 해서 입혔지.}
10419 @ 음::. {음.}
10419 @ 그럼 그 베루는 두루매기 암 만드러써 점 어려운 지분 베루 만들자나요 또 그 모시는 비쌀 꺼 아녜요 모시루 만들람? {그럼 그 베로는 두루마기 안 만들었어, 좀 어려운 집은 베로 만들잖아요, 또 그 모시는 비쌀 거 아녜요, 모시로 만들려면?}
10419 # 마포두루매기는 아 내 봐찌오? {마포두루마기는 안 해 봤죠?}
10419 # 주근 사라미래 인자 마포두루매기 혀지 사러서 도라 댕이는 사람 마포두루매기 안테. {죽은 사람이라야 인제 마포두루마기 하지,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마포두루마기 않

데.}
10419 # 함 번도 허는 디 암 바써. {한 번도 하는 데 안 봤어.}
10419 @ 베는 할 꺼 아네요 베? {베는 할 거 아네요, 베?}
10419 # 에 모시는 허지오. {예, 모시는 하죠.}
10419 @ 아니 무명 베. {아니 무명, 베.}
10419 @ 베 모시 베. {베, 모시, 베.}
10419 # 에 광목 광목 까틍 거슨 허지오. {예, 광목, 광목 같은 것은 하죠.}
10419 @ 예. {예.}
10419 @ 도포? {도포?}
10419 # 도포도 그저니 일:두 자 랑쿠 인자 지:른 살포 지꾸서나 이러케 뒤침 찌구 노니나 활량덜 그런 냥반더리 노니 갈 쩌기 저기 허구 그러케 활량더리 도포 이버써. {도포도 그전에 일도 잘 않고, 인제 긴 살포 짚고서는 이렇게 뒷짐 지고 논이나, 활량들 그런 양반들이 논에 갈 적에 저기 하고 그렇게 활량들이 도포 입었어.}
10419 @ 예. {예.}
10419 @ 활량더리. {활량들이.}
10419 # 두루매기처럼 생겨찌우 도포두. {두루마기처럼 생겼죠, 도포도.}
10419 @ 예 예. {예 예.}
10419 # 그 그. {그, 그.}
10419 @ 그게 더 두루매기보다 더 어트게 처니 더 마니 드러가요? {그게 더, 두루마기보다 더, 어떻게 천이 더 많이 들어가요?}
10419 # 마니 드러가지우 근디 도포 주군 사람 옫 헐 때두 도포 허데유 그저닌. {많이 들어가죠, 근데 도포 죽은 사람 옷 할 때도 도포 하데요, 그전엔.}
10419 @ 그 다민 제 그 여기 임능 걸 쪼기라 구라나요? {그 다음 인제 그, 여기 입는 걸 조끼라고 그러나요?}
10419 @ 조 조끼? {조, 조끼?}
10419 # 에 소매 웁씨 형 건 조끼지우 쪼끼. {예, 소매 없이 한 건 조끼죠, 조끼.}
10419 @ 여기서 뭐라 구러던데 조끼를 이 동네서 여기 서천서는 걸 조끼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던데 조끼를 이 동네에서, 여기 서천에서는 그걸 조끼를?}
10419 @ 다릉 그냥 조끼라 구래써요 다른 말 안 쓰구요? {다른 그냥 조끼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 안 쓰고요?}
10419 # 소매 움능 거 여자 오슨 배자. {소매 없는 거 여자 옷은 배자.}
10419 @ 배자 에. {배자 예.}
10419 @ 그람 고쟁이라고 하능 뭐에요? {그럼 고쟁이라고 하는 [x것은x] 뭐예요?}
10419 # 고쟁이는 쏘기다 임는 여자덜 저기지오 중이. {고쟁이는 속에다 입는 여자들 저기죠, 중의.}
10419 @ 중이. {중의.}
10419 # 여자덜 소기다 임는 중이가 고쟁이여. {여자들 속에다 입는 중의가 고쟁이야.}
10419 # 소꼳 소껃. {속곳, 속곳.}
10419 @ 아:: 예 소껃. {아, 예 속곳.}
10419 # 에. {예.}
10419 @ 그링까 그 옌날 고쟁이는 점부 다 그 미티를 타쪼 오시. {그러니까 그 옛날 고쟁

이는 전부 다 그 밑을 탔죠, 옷이.}
10419 # 예. {예.}
10419 @ 에. {예.}
10419 # 미티 타 노쿠 그냥 그 이 다리만 이써가꾸 아래 이케 압뛰루 다 타지구 냥 말 다러서 그냥 임능 거 그에 고쟁이여. {밑에 타 놓고, 그냥 그, 이 다리만 있어갖고, 아래 이렇게 앞뒤로 다 타지고, 그냥 말기 달아서 그냥 입는 거 그게 고쟁이야.}
10419 @ 어. {예.}

1.4.3. 옷 만들기

10423 @ 예 오느른 바느지라는 방버벼 예를 들믄 제. {예, 오늘은 바느질하는 방법요, 예를 들면 인제.}
10423 @ 그 뭘 아까 옫 꾸매구 라능 거 이짜나요? {그 뭘 아까 옷 꿰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10423 # 에. {예.}
10423 @ 거기 보믄 뭐 그 호능 거뚜 이꾸 방는 거뚜 이꾸 감치능 거뚜 이꾸. {거기 보면 뭐 그 호는 것도 있고, 박는 것도 있고, 감치는 것도 있고.}
10423 # 에. {예.}
10423 @ 누비넝 거뚜 이꾸 이치오. {누비는 것도 있고, 있죠.}
10423 # 에. {예.}
10423 @ 함 그릉 거 쫌 얘기 조 매주세요. {한번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0423 # 그 오오. {그 어어.}
10423 @ 바느지라는 방법. {바느질하는 방법.}
10423 # 바거서 허능 거슨 응 바늘루 뒫 뒤빠늘 줘서 방능 게 그게 바거 농 거구. {박아서 하는 것은 음, 바늘로 뒷, 뒷바늘 줘서 박는 게 그게 박아 놓은 거고.}
10423 # 호농 거슨 그냥 이냥 이냥 해서 그냥 한 줄루 쭉:: 이르케 이르케 가능 게 호능 거구유. {호는 것은 그냥, 이냥, 이냥 해서 그냥 한 줄로 죽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호는 거고요.}
10423 @ 에. {예.}
10423 # 감:치능 거슨 바늘루 이르케 떠서 이르케 가머지게 꼬매능 게 그게 감치능 거요. {감치는 것은 바늘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감아지게 꿰매는 게 그게 감치는 거예요.}
10423 @ 아::. {아.}
10423 @ 누비능 건뇨? {누비는 건요?}
10423 # 누비능 거슨 냥 쪼옥:: 쪽:: 꾸매눙 게 누비능 거구. {누비는 것은 그냥 조옥 족 꿰매는 게 누비는 거고.}
10423 @ 아. {아.}
10423 @ 바늘로 누벼서 이르케요? {바늘로 누벼서 이렇게요?}
10423 # 옌나리는 바늘루두 누베찌유. {옛날에는 바늘로도 누볐죠.}
10423 @ 음 그람. {음, 그럼.}
10423 # 옌나리는. {옛날에는.}

10423 @ 재봉틀로. {재봉틀로.}
10423 # 에 근디 재봉틀로 뉘비야지 뉘비능 거슨 벨로 잘 모 더. {예 그런데 재봉틀로 누벼야지, 누비는 것은 별로 잘못 해.}
10423 @ 예 음. {예, 음.}
10423 @ 금 이게 호 호넝 건 어떤 때 호 호능 거조 그르니까 뭘 무슨 꼬메는 즘 옫깜? {그럼 이게 호, 호는 건 어떤 때 호, 호는 거죠, 뭘 무슨 꿰매는 좀 옷감?}
10423 # 호능 거슨 음 그냥 화서 꺼꺼서 인두질 치능 거시 호구. {호는 것은 음, 그냥 호아서 꺾어서 인두질 치는 것이 호고.}
10423 @ 에. {예.}
10423 # 방능 거슨 안 뜨들 껃. {박는 것은 안 뜯을 것.}
10423 @ 아 안 뜨들 꺼. {아, 안 뜯을 것.}
10423 # 안 뜨들 꺼슬 인자 디리다 바늘질해서 근 쫑쫑 방능 게 박 그게 안 뜨들 꺼시구. {안 뜯을 것을 인제 가져다 바느질해서 그건 촘촘 박는 게 박, 그게 안 뜯을 것이고.}
10423 # 호능 거슨 이자 뜯끼두 허구 허 헝게 쪽:: 한 줄루 해씅게 자부 대~이먼 뜨더지거든뉴. {호는 것은 인제 뜯기도 하고 하, 하니까, 족 한 줄로 했으니까 잡아당기면 뜯어지거든요.}
10423 @ 아. {아.}
10423 # 그릉 게 호농 거구. {그런 게 호는 거고.}
10423 @ 감치능 거. {감치는 거.}
10423 # 감:치능 거슨 이 이 이렁 거처럼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감치는 것은 이, 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0423 @ 아 완저니. {아, 완전히.}
10423 # 그어뚜 자 란 뜨찌 감치믄 그냥. {그것도 잘 안 뜯지 감치면 그냥.}
10423 # 예 얄께 헤지능 게 감치능 거주. {에, 얇게 해지는 게 감치는 거죠.}
10423 @ 그어 바느지하는 방법뚜 여러 가지가 이꾸먼뇨. {그거 바느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먼요.}
10423 # 예 여러 가지유. {예, 여러 가지요.}
10424 @ 그 그람 인제 옫까메 따라 빨래아는 방버비 좀 다를 꺼 아네요? {그 그럼 인제 옷감에 따라 빨래하는 방법이 좀 다를 거 아네요?}
10424 # 예 달조. {예 다르죠.}
10424 @ 그라믄 제 빨래하능 걷 쭘 얘기 좀 해주세요 긍까 예 드믄. {그럼 인제 빨래하는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424 @ 그 무슨 뭐 빨랟 빵망이라등가 빨래터라등가 애벌빨래 두벌빨래 이런 얘기 즘. {그 무슨 뭐 빨랫방망이라든가, 빨래터라든가 애벌빨래, 두벌빨래 이런 얘기 좀.}
10424 # 빨래빵맹이::는 그 저니는 비누 발러서 방매이지려써 빨래빵맹이로 빨래헐 때. {빨랫방망이는 그 전에는 비누 발라서 방망이질 했어 빨랫방망이로 빨래할 때.}
10424 # 근디 지그믄 그냥 안터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않더구먼.}
10424 # 빨래방맹이로 뚜드러서 빠러찌우 그 허 그러구. {빨랫방망이로 두드려서 빨았죠, 그거 그러고.}
10424 @ 그 담 빨래터가 이써써요 별또로 동네 싸람 모여서 이케 하는? {그 다음 빨래터가 있었어요, 별도로 동네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하는?}

10424 # 새:메 서 해:찌우 새미서 마니 허구 그 저니는 저 아피 똘:물. {샘에서 했죠, 샘에서 많이 하고 그 전에는 저 앞에 도랑물.}
10424 @ 예. {예.}
10424 # 여기는 무리 짜유. {여기는 물이 짜요.}
10424 # 월래 인자 지하수 팡 건 짜드라구. {원래 인제 지하수 판 건 짜더라고.}
10424 # 그렁게 저기 인자 수리물 내리면 그기 가서 빠르믄 두루박찔 아 내서 무 란 푸구 내리 가는 물루 기냥 헹기구 빨구 헝게 빠래개가 때두 잘 빠지구 조치 편쿠 깨까댜. {그러니까 저기 인제 수리[x조합x]물 내리면, 거기 가서 빨면 두레박질 안 해서 물 안 푸고, 내려가는 물로 그냥 헹구고, 빨고 하니까 빨래가 때도 잘 빠지고 좋지, 편하고 깨끗해.}
10424 # 그래서 그런 디로 가서 허주 보미 물 내리먼. {그래서 그런 데로 가서 하죠, 봄에 물 내리면.}
10424 @ 금 동네 뿐덜 마니 다 오셔가지고. {그럼 동네 분들 많이 다 오셔가지고.}
10424 # 예 오 인자 가 그 동네 싸람덜뚜 가러서 허는 사람덜 이찌우. {예, 오 인제 가, 그 동네 사람들도 가려서 하는 사람들 있죠.}
10424 @ 겨우리는 어트게 하셔써요 겨우리 빨래는? {겨울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겨울에 빨래는?}
10424 # 그릉게 겨우리는 지비서 해찌조우. {그러니까 겨울에는 집에서 했죠.}
10424 @ 지베서요 예. {집에서요 예.}
10424 # 에. {예.}
10424 # 지비시 지비 새아미 이쓸 때는 지비서 해찌만 새암 조기 새:미서 해찌 냥 파 논 샘:. {집에서 집에 샘이 있을 때는 집에서 했지만 샘, 저기 샘에서 했지, 그냥 파 놓은 샘.}
10424 @ 애불빨래라능 건 뭐요 처 빤 빨래능감 그언 또 빨래? {애벌빨래라는 건 뭐에요, 첫 번 빨래인가 그건 또 빨래?}
10424 # 방맹이루 뚜두려서 빠능 게 처음 빠능 거지우. {방망이로 두드려서 빠는 게 처음 빠는 거죠.}
10424 @ 애벌빨래구요? {애벌빨래고요?}
10424 # 에. {예.}
10424 @ 그 다미 두벌빨래두 이써요 그럼 방맹이루 뺄고? {그 다음에 두벌빨래도 있어요, 그럼 방망이로 빨고?}
10424 # 두벌발::래는 인자 쌀머서 빠능 거. {두벌빨래는 인제 삶아서 빠는 거.}
10424 @ 쌀머서. {삶아서.}
10424 # 살머가주구 인자 빠능 거 쌀무문 또 빠르양게요. {삶아가지고 인제 빠는 거, 삶으면 또 빨아야 하니까요.}
10424 @ 에. {예.}
10424 @ 아까 잰물 말쓰물 하셔찌오? {아까 잿물 말씀을 하셨죠?}
10424 # 에. {예.}
10424 @ 그 잰무를 어트게 낸다고래찌오 아까요 그? {그 잿물을 어떻게 낸다고 했죠, 아까요 그?}
10424 # 집. {짚.}
10424 # 지비나 콩깍찌나 그릉 거 땐 재를 바구리에다가 인자 그 미티다 뭐 깔구 집 깔구 흥:겁 뭗 깔구 그러구서나 그기다 한: 바구리 다머가꾸 이냥 이냥 저처 거이다 물 부서요.

{짚이나, 콩깍지나 그런 거 땐 재를 바구니에다가 인제 그 밑에다 뭐 깔고, 집 깔고, 헝겊 뭣 깔고 그러고서는 거기다 한 바구니 담아갖고 이냥, 이냥 적셔 거기다 물 부어요.}
10424 @ 네. {네.}
10424 # 잰물 내려. {잿물 내려.}
10424 @ 예. {예.}
10424 # 그양 물 부서서 자꾸 부수믄 미티 인자 미끄런 무리 나오거드뇨. {그냥 물 부어서 자꾸 부우면 밑에 인제 미끄러운 물이 나오거든요.}
10424 # 그걸루 잰물 잰물 바터서 빨래헌다구 지. {그걸로 잿물, 잿물 밭아서 빨래한다고 하지.}
10424 @ 음. {음.}
10424 # 옌나리. {옛날에.}
10424 @ 예 고오레다가 인제 아까 양잰물. {예, 그러다가 인제 아까 양잿물.}
10424 # 인자 쌀물 쩌기는. {인제 삶을 적에는.}
10424 @ 네. {네.}
10424 # 그 양잰무를 옌나리는 양잰물 이써써유. {그 양잿물을 옛날에는 양잿물 있었어요.}
10424 # 그잉게 양잰무룰 뽀::야넌 어름 떵어리마냥 생이떼요. {그러니까 양잿물을 뽀얀 얼음 덩어리처럼 생겼데요.}
10424 @ 양잰무리요? {양잿물이요?}
10424 # 예. {예.}
10424 # 그거 어 가따 빨래 쌈는 디다 느믄 막 미::끈미끈허드라구유. {그거 어 갖다 빨래 삶는 데다 넣으면 막 미끈미끈하더라고요.}
10424 # 근디 그거 느쿠 쌀무야 빨래가 쏙 빠지구 때 잘 빠저. {근데 그거 넣고 삶아야 빨래가 쏙 빠지고 때 잘 빠져.}
10424 @ 집 재 그렁 건 아까 인제 잰물 만들려 그렁 거구요. {짚 재 그런 건 아까 인제 잿물 만들려고 그런 거고요.}
10424 # 예:: {예.}
10424 @ 그 저네 보믄 그 광모깅가 그거 보면 아니믄 베 베도 짜고 그먼. {그 전에 보면, 그 광목인가 그거 보면, 아니면 베, 베도 짜고 그러면.}
10424 # 에 미영. {예, 무명.}
10424 @ 예 명 짜면. {예 무명 짜면.}
10424 # 광목. {광목.}
10424 @ 제가 짐 잘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10424 # 광목. {광목.}
10424 @ 예. {예.}
10424 @ 그 여울거튼 디다가 가따가 돌루 눌 돌로 눌러놔가 메:칠 무리다 둥 거 거테요 아마 물 머 빠지라 구랜나? {그 여울 같은 데에다가 갖다가 돌로 눌, 돌로 눌러놓고, 며칠 물에다 둔 거 같아요, 아마 물 뭐 빠지라고 그랬나?}
10424 @ 여기는 그렁 건 아 내써요? {여기는 그런 건 안 했어요?}
10424 # 그 그 광목 바랠라믄 지비다 당궈따가 널구 널구 허지우. {그, 그 광목 바래려면 짚에다 담갔다가 널고, 널고 하죠.}
10424 @ 무레다요? {물에다요?}

10424 # 에. {예.}
10424 @ 예. {예.}
10424 @ 메 뻔 게 당궏? {몇 번 그렇게 담갔[x죠x]?}
10424 # 에 에 뽀야너라구 쌀무문 그냥 혀야유. {예, 예 뽀야라고 삶으면 그냥 해야 해요.}
10424 @ 으. {음.}
10424 # 잼물도 빠지구 깨끄더구 그러라구. {잿물도 빠지고 깨끗하고 그러라고.}
10424 @ 그러 민제 옫까메 따라 빨래하는 방법두 달르건네요 어떵 건 방맹이 뚜드능 게 이꾸. {그럼 인제 옷감에 따라 빨래하는 방법도 다르겠네요, 어떤 건 방망이 두드리는 게 있고.}
10424 # 그러초 광모기나 미영 그렁 거슨 방매이루 뚜드리야구. {그렇죠, 광목이나 무명 그런 것은 방망이로 두드려야 하고.}
10424 @ 네. {네.}
10424 # 명주가틍 거. {명주 같은 거.}
10424 @ 네. {네.}
10424 # 그런 부드러꾸 얄분 오슨 그냥 빠르야지 방매이루 몯 뚜들지우. {그런 부드럽고 얇은 옷은 그냥 빨아야지 방망이로 못 두드리죠.}
10425 @ 푸 라까 푸른 하신다 구래짜나요? {풀 아까 풀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0425 # 그르추. {그렇죠.}
10425 @ 그건 다 모등 건 다 오슨 푸른 해써요? {그건 다, 모든 건 다 옷은 풀은 했어요?}
10425 # 푸 래야지 푸르르 해찌오. {풀 해야지 푸를 했죠.}
10425 # 광목뚜 푸 러야 허구 미영 그렁 거뚜 푸 러야 허구 명주두 푸 러야유. {광목도 풀해야 하고, 무명 그런 것도 풀해야 하고, 명주도 풀해야 해요.}
10424 @ 네. {네.}
10425 # 뚜드릴라먼. {두드리려면.}
10425 @ 그럼 빨래해서 말린 다음 그 오까메 따라서 인제 손질 해야될 꺼 아네요? {그럼 빨래해서 말린 다음 그 옷감에 따라서 인제 손질해야 될 거 아네요?}
10425 @ 예 드먼 다드미지 란다덩가 다림지라다능가 할 때 그렁 거. {예를 들면 다듬이질한다든가, 다림질한다든가 할 때 그런 거.}
10425 # 그치우 으 대리미루 대려가머 허꾸 인두루 대려가머 허꾸 그러지우. {그렇죠, 음 다리미로 다려가며 하고 인두로 다려가며 하고 그러죠.}
10425 # 이런 짇 딸고 그렁 거 헐 때 인두질허양게. {이런 깃 달고 그런 거 할 때 인두질해야 하니까.}
10425 @ 개선 제 지베 마라자믄 제 빨래를 하며는 어따 너러써요? {그래서 인제 집에 말하자면 인제 빨래를 하며는 어디다 널었어요?}
10425 # 빨래쭈류. {빨랫줄요.}
10425 @ 빨래쭈료? {빨랫줄요?}
10425 # 에. {예.}
10425 @ 네. {네.}
10425 @ 빨래쭈른 지베다 맨나 부지오? {빨랫줄은 집에다 맸나 보죠?}
10425 # 그르추 기냥 늘 메주 빨레쭈레다 너러 놔. {그렇죠, 그냥 늘 매죠, 빨랫줄에다 널어 놔.}

10425 @ 저기도 인네요 저런 시그로. {저기도 있네요, 저런 식으로.}
10425 @2 옌날 빨래쭈룬 어떵 거여써요 지금? {옛날 빨랫줄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
10425 @2 지그믄 저런 나이롱이지만 옌날 빨래쭈룬 할머니 어떵 걸로 빨래쭈를 해서 놔써요? {지금은 저런 나일론이지만 옛날 빨랫줄은 할머니, 어떤 걸로 빨랫줄을 해서 놨어요?}
10425 # 옌날 빨래쭈룬 샌내끼 꽈:서 빨래쭈래찌우. {옛날 빨랫줄은 새끼 꼬아서 빨랫줄 했죠.}
10425 # 옌나리는 머 노끈 저런 저기가 이써 노끄니루. {옛날에는 뭐 노끈 저런 저기가 있어 노끈으로.}
10425 @2 근데 고기에다 저 빨래를 너러도 되요? {근데 고기에다 저 빨래를 널어도 돼요?}
10425 @ 그럼 음. {그럼 음.}
10425 # 노끈 노끈 꽈서 해찌. {노끈, 노끈 꽈서 했지.}
10425 # 모시 헌 꾸묵 나가능 거 그 녹 그걸루 노끈 꽈서. {모시 헌 타래 나가는 거 그 녹, 그걸로 노끈 꽈서.}
10425 @ 음 음 음 그릉게 찔기지. {응, 응, 응 그러니까 질기지.}
10425 @ 음 그믄 제 다드미지랄 때 그 다드미지른 어트게 하능 거에요 그니까 따듬 따듬 다듬? {음, 그럼 인제 다듬이질할 때, 그 다듬이질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듬, 다듬, 다듬[x질x]?}
10425 # 다드미지럴 쩌기 넝 저버서 촉초걸 때 저버서 노쿠 그 다디미똑 우에 노쿠 빨래빵망이루 이냥 뚜두러서 다디미지래찌오. {다듬이질할 적에 그냥 접어서 촉촉할 때 접어서 놓고, 그 다듬잇돌 위에 놓고 빨랫방망이로 그냥 두드려서 다듬이질했죠.}
10425 @ 아 오슬려? {아, 옷을요?}
10425 # 에: 그러고서 은자 고분뎅이 이런 디가 이짜녀 저분 꺼끈 고분. {예, 그러고서 인제 굽은 곳 이런 데가 있잖아, 접은 꺾은 굽은 곳.}
10425 @ 예. {예.}
10425 # 그렁 걷 웁:씨 헐라믄 홍두깨. {그런 것 없이 하려면 홍두깨.}
10425 @ 홍두깨 아. {홍두깨 아.}
10425 # 홍두깨 인자 제법 큰 막때기 이냥 홍두깨 요마넝 거 이찌우. {홍두깨 인제 제법 큰 막대기 이냥 홍두깨 요만한 거 있죠.}
=1 # 점신 사준다구 네. {점심 사준다고 하네.}
=1 @ 네. {네.}
10425 @ 홍두깨 지금 말쓰마셔꺼든뇨? {홍두깨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10425 # 에 홍두깨는 나무루 매::끄너게 까끙 거 이써요 인자. {예, 홍두깨는 나무로 매끈하게 깎은 거 있어요, 인제.}
10425 @ 네. {네.}
10425 # 또까치 매::끄너게 까끈 홍두깨 인는디 거기다가 가 오술 거기다 가머유 이펴. {똑같이 매끈하게 깎은 홍두깨 있는데 거기다가 가, 옷을 거기다 감아요, 입혀.}
10425 @ 그래요? {그래요?}
10425 # 그래가꾸 그 다디미또기다 올려노쿠 방맹이루 이냥 뚜드러. {그래갖고 그 다듬잇돌에다 올려놓고 방망이로 이냥 두드려.}
10425 @ 아 홍두개 가믕 걸료? {아, 홍두깨 감은 걸요?}
10425 # 예 가믄 홍두깨루 뚜디러 그러야 고부시 웁씨 다 뚜두러 지지. {예, 감은 홍두깨로

두드려, 그래야 굽은 곳 없이 다 두드려 지지.}
10425 @2 음 저핀 데 업씨. {음 접힌 데 없이.}
10425 # 그르케서 잘 잘 다디미 자 럴라믄 홍두깨 이펴서 오설 꾸미지. {그렇게 해서 잘, 잘 다듬이 잘 하려면 홍두깨 입혀서 옷을 꾸미지.}
10425 @ 음 아주 옌나리 참:: 힘드셔께서요. {음, 아주 옛날에 참 힘드셨겠어요.}
10425 # 아이고! {아이고!}
10425 # 옌나리 사른 생가거먼 참. {옛날에 산 생각하면 참.}
10425 @ 그르케 다듬지라고 또 다림지리라고 하능 건 제. {그렇게 다듬질하고, 또 다림질이라고 하는 건 인제.}
10425 # 그르추 인자 대리미루 그 저니는 이런 대리미 우꾸. {그렇죠, 인제 다리미로 그 전에는 이런 다리미 없고.}
10425 @ 네. {네.}
10425 # 숟뿔 다머서 장적 때가주구 그 그눔 불 다머서 음 이~ 쇠. {숯불 담아서 장작 때가지고 그, 그놈 불 담아서 음, 잉, 쇠.}
10425 @ 에 똥고랑 거. {예, 동그란 거.}
10425 # 대리미 똥고라능 거기다 불 다머가주구 인자 그놈 미티가 뜨겁짜뉴. {다리미 동그란 거기다 불 담아가지고 인제 그놈 밑이 뜨겁잖아요.}
10425 # 그릉게 그걸루 이러케 대레찌우.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다렸죠.}
10425 # 그얼루 부짜꾸 두:리가 부짜꾸 하나 녀기서 부짜꾸 우이서 빨래 부짜버 주는 사라미써 그릉게. {그걸로 붙잡고, 둘이 붙잡고, 하나 여기서 붙잡고, 위에서 빨래 붙잡아 주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10425 # 이 발루 눌루구 아 이 쪼기는 부짜꾸 그 대리미로 이냥 대레찌우. {잉, 발로 누르고 아, 이쪽에는 붙잡고 그 다리미로 이냥 다렸죠.}
10425 @ 아. {아.}
10425 @ 두리 그냥 두리 다 해야 데꾸만 체소한 우에 싸람 하나 부뚤고. {둘이 그냥 둘이 다 해야 되겠구먼, 최소한 위에 사람 하나 붙들고.}
10425 # 예. {예.}
10425 @ 한 사람 발로 밥꾸 하머서 다림지라고 아유! {한 사람 발로 밟고 하면서 다림질하고 아휴!}
10425 # 두리 허야지우 자버 주야 대리지 그거는 혼자는 잘 모 때려 펴 노쿠는. {둘이 해야죠, 잡아 줘야 다리지 그것은 혼자는 잘 못 다려 펴 놓고는.}
10425 # 모시건 마포걷 그릉 걷 대릴라면 그러케서 대려따. {모시거나, 마포거나 그런 것 다리려면 그렇게 해서 다렸다.}
10425 @ 그라믄 제 고 대리미아고 또 그 인두라고 하능 거 이쭈 그릉 거뚜 다련나요? {그러면 인제 고 다리미하고 또 그 인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렸나요?}
10425 # 인두눈 바느지럴 때 인자 꾸긴 디 대려가머 허지우 인두라구 그걷. {인두는 바느질할 때 인제 꾸긴 데 다려가며 하죠, 인두라고 그것.}
10425 @ 예. {예.}
10425 # 쩨끄마::넝 거 이써유. {조그만한 거 있어요.}
10425 @ 예 빼쪼가니. {예, 뾰쪽하게.}
10425 # 예 빼쪼거이 쪼꼬마넝 거 그거 그 저구리 헐라믄 집 따를 때 인 그 짇 꽁뎅이 이러

케 뜽구라너게 잘 달구 그렁 거 헐라믄 바느질. {예, 뾰쪽하니 조그만한 거, 그거 그 저고리 하려면 깃 달 때 음, 그 깃 끝 이렇게 동그란하게 잘 달고 그런 거 하려면 바느질.}
10425 # 그러구 솔떼기 이른 혼:솔 그런 디 딱 저처서 이르케 대리구 그러능 거지우. {그리고 솔기 이런 혼솔 그런 데 딱 젖혀서 이렇게 다리고 그러는 거죠.}
10425 @ 금 인두는 어따 뜨겁께 해요 건? {그럼 인두는 어디에다 뜨겁게 해요, 그건?}
10425 # 화리뿌리요. {화롯불이요.}
10425 @ 아 화리다 꼬바 놔따가. {아, 화로에다 꽂아 놨다가.}
10425 # 예 화리뿌리다 이냥 꼬바따 그놈 빼가꾸 인자 인두루 쓰지우. {예 화롯불에다 이냥 꽂았다 그놈 빼갖고 인제 인두로 쓰죠.}
10425 @ 그 방망이는 주로 뭘로 만드로람뇨? {그 방망이는 주로 뭐로 만들었나요?}
10425 @ 뚜둘 때 그 방망이는? {두드릴 때 그 방망이는?}
10425 # 대추나무 방맹이두 맨들구 박딸라무 방맹이루 맨들구 그러지우. {대추나무 방망이도 만들고, 박달나무 방망이로 만들고 그러죠.}
10425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425 # 에. {예.}
10425 @ 거 좀 댇 그 좀 한차 맘 팔두 아프 그러켄네요? {거 좀, 댓, 그 좀 한참 하면 팔도 아프고 그렇겠네요?}
10425 # 그르치오 다드미 마니 허믄 파 라프지오. {그렇죠, 다듬이 많이 하면 팔 아프죠.}
10425 @ 근디 오래 하셔써요? {근데 오래 하셨어요?}
10425 @ 그 담 다드미또:른? {그 다음 다듬잇돌은?}
10425 # 돌루 뎅 거 이찌우. {돌로 된 거 있죠.}
10425 @ 돌루 이써유? {돌로 있어요?}
10425 # 예. {예.}
10425 # 우 우리두 이써유 독 다디미똘. {우, 우리도 있어요, 돌 다듬잇돌.}
10425 @ 금 다드미지라 할 때 그 막 돌루 뚜들고 뭔 노래 가틍 거뚜 하믄서 해요 기냥 해요 그렁 아 내요? {그럼 다듬이질할 할 때 그 막 돌로 두드리고, 뭔 노래 같은 것도 하면서 해요, 그냥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10425 # 노래느 낭쿠유 그 두:리가 다드미허먼 참:: 듣끼 조아. {노래는 않고요, 그 둘이 다듬이질하면 참 듣기 좋아.}
10425 # 먼 디서 그냐 마춰서 뚜드먼. {먼 데서 그냥 맞춰서 두드리면.}
10425 @2 장다니 잘 마저요? {장단이 잘 맞아요?}
10425 # 다디미지러는 소리 참 방맹이 파럴 때먹 때믄 그 다디미 쏘리가 두:리가 뚜디르먼 참:: 드끼 조:치오. {다듬이질하는 소리 참 방망이 팔 월 대목 되면, 그 다듬이 소리가 둘이 두드리면 참 듣기 좋죠.}
10425 @ 두리 뚜드러요? {둘이 두드려요?}
10425 # 두리 뚜드르야지오 양쪼기서 이~ 마주 안자서. {둘이 두드려야죠, 양쪽에서 잉, 마주 앉아서.}
10425 @ 아 갸 갇 하나 노코서? {아! 각각 하나 놓고서?}
10425 # 에. {예.}
10425 @ 어~ 그런 냬기 조 매저 보세요 그럼 어트게 핸나. {엉, 그런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나.}

10425 # 두리가 다디미질허믄 차::암 마춰서 뚜드르먼 군중 마처서. {둘이 다듬이질하면, 참 맞춰서 두드리면 박자 맞춰서.}
10425 @ 아. {아.}
10425 # 그 사이에두 이르케 이르케 뚜디는 사이에 사이 사이 사이 드르가는 소리가 참 다디미 쏘리 조아. {그 사이에도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는 사이에 사이, 사이, 사이 들어가는 소리가 참 다듬이 소리 좋아.}
10425 @ 아 감 다드미 네 개가 뚜드러지는 소리네요 아 그러케꾸나. {아, 그럼 다듬이 네 개가 두드려지는 소리네요? 아, 그렇겠구나.}
10425 # 예 네 가 네 개가. {예, 네 개, 네 개가.}
10425 @2 왜 파럴 대모게 그런 소리가 나나요? {왜 팔월 대목에 그런 소리가 나나요?}
10425 # 파럴 때모기는 모시곧 그렁 거 다 혀서 멩질 명일 샐라구 다 해 이브양게. {팔월 대목에는 모시옷 그런 거 다 해서 명절, 명일 쇠려고 다 해 입어야 하니까.}
10425 @2 새 옫. {새 옷.}
10425 # 에. {예.}
10425 @ 그 옌나렌 그. {그 옛날에는 그.}
10426 @ 금 옌나린 그읻 그 오슬 물드려 이버쓸 꺼 아녜요? {그럼 옛날은 그 입, 그 옷을 물들여 입었을 거 아네요?}
10426 # 그르치우. {그렇죠.}
10426 @ 예. {예.}
10426 @ 함버 곰 그 물드리능 거 쫌 하고 쫌 애기 좀 해저보세요. {한번 그럼 그 물들이는 거 좀 하고, 좀 애기 좀 해줘보세요.}
10426 # 그 저니 물까미 이때요 장이. {그 전에 물감이 있데요 장에.}
10426 @ 에. {예.}
10426 # 물디리믄 노랑물두 이꾸 부농물두 이꾸 검정물두 이꾸 그냥 물까미 이써요 그릉게. {물들이면 노랑물도 있고, 분홍물도 있고, 검정물도 있고, 그냥 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426 @ 예. {예.}
10426 # 잉 그 물까물 사다가 그 옫까믈 그기다 무리다 타서 당거서 물디리지우. {잉, 그 물감을 사다가 그 옷감을 거기다 물에다 타서 담가서 물들이죠.}
10426 @ 네. {네.}
10426 # 그래가꾸 그 눔 손지려선 자 이버 꼬메 이꾸. {그래갖고 그 놈 손질해서 인제 입어, 꿰매 입고.}
10426 @ 물드리믄 어트게 그 오슬 금방 어서 빠르야 되나요 아니믄 그냥 케. {물들이면 어떻게 그 옷을 금방 어디서 빨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10426 # 아니요 물디려서 그 참 풀 헐 꺼슨 푸러구. {아니요, 물들여서 그 참 풀할 것은 풀하고.}
10426 @ 네. {네.}
10426 # 풀 안 헐 꺼슨 그냥 거러노쿠 그르케 가꾸 물디려서 옫까물 꼬메서 저구리두 허구. {풀 안 할 것은 그냥 걸어놓고, 그렇게 해갖고 물들여서 옷감을 꿰매어 저고리도 하고.}
10426 @ 아. {아.}
10426 # 치마두 허구 그르케서 해이버씨우. {치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 입었어요.}
10426 @ 음. {음.}

10426 @ 그라믄 기냥 무슨 감:물 거튱 건 여기선 안 드려쭈 감 거튱 건? {그러면 그냥 무슨 감물 같은 건 여기서는 안 들였죠, 감 같은 건?}
10426 # 지금 그 그 감:무른 지금 생겨찌우. {지금 그, 그 감물은 지금 생겼죠.}
10426 # 그 지금 생겨찌 그 저니는 색쌕 물까미 수박쌩 물 그 저 남물 그 물까미 색:쌔기루 장이 가먼 물 파는 사라미 이써유 그 물깜. {그 지금 생겼지, 그 전에는 색색 물감이 수박색 물, 그 저 남물, 그 물감이 색색으로 장에 가면 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감.}
10426 # 깡통이다 쪽:: 그냥 색쌔기로 다머노쿠 얼마 깝 달라구먼 거기서 떠서 그냥 싸서 주구 주구 그르케 해서 물 사다 디려서 오 대 이버찌우. {깡통에다 족 그냥 색색으로 담아놓고, 얼마 값 달라고 하면 거기서 떠서 그냥 싸서 주고, 주고 그렇게 해서 물 사다 들여서 옷 해 입었죠.}
10426 @ 무를 마니 디려써유? {물을 많이 들였어요?}
10426 @ 옌날 물깜 마니 드려서 오 태 이버써요? {옛날 물감 많이 들여서 옷 해 입었어요?}
10426 # 그르치우. {그렇죠.}
10426 # 우리 엔나리는 고루고루 저런 비단 포모기 색쌔기루 옵씅게 물까믈 사다 디려서 마니 이버찌우. {우리 옛날에는 고루고루 저런 비단 포목이 색색으로 없으니까, 물감을 사다 들여서 많이 입었죠.}
10427 @ 그 담 제 이 양잰무리나 잼물 또 기왇짱을 빠아서 그 가루루두 빨래를 해따 구래요 기와 기와 까루두. {그 다음 인제 이 양잿물이나 잿물 또 기왓장을 빻아서 그 가루로도 빨래를 했다 그래요 기와, 기와 가루도.}
10427 # 그언 아 내 봐써유 나는 근디 기와짱이 그게 잼물루 만든다 구데유. {그건 안 해 봤어요, 나는 그런데 기왓장이 그게 잿물로 만든다고 그러데요.}
10427 @ 아. {아.}
10427 # 그렁게 인자 그걸루 해꾸만 빠숴서. {그러니까 인제 그걸로 했구먼, 빻아서.}
10427 @ 그러믄 고 지비나 재를 가주구 그 빨래아는 방법 쭘 애기 좀 해 저 보세요. {그러면 고 짚이나 재를 가지고, 그 빨래하는 방법 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10427 # 집 그 집 땐 재루 재루 그 잰무를 그냥 바터써요 그냥이서 물 부숴서 허믄 미티루 무리 이르케 자꾸 나오는 느 미로 그게 그게 잰무를 바터서. {짚, 그 짚 땐 재로 그 잿물을 밭았어요, 그냥 해서 물 부어서 하면 밑으로 물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놈으로 그게, 그게 잿물을 밭아서.}
10427 @ 에 그치오 에. {예, 그렇죠, 예.}
10427 # 빨래허능 거지오 고걸루. {빨래하는 거죠, 고걸로.}
10427 @ 오트게 온 빨랜 어트게 그 잰무리다가 오슬 빨래를? {어떻게 옷 빨래는 어떻게 그 잿물에다가 옷을 빨래를?}
10427 # 그 빨래를 당그지우. {그 빨래를 담그죠.}
10427 @ 얼마나 당궈요 그니까요? {얼마나 담가요, 그러니까요?}
10427 # 인자 부룰 만큼 빨래 때 부룰 망큼 장꽌 당거두 당거저유 그냐 해서 빨래해찌우 그걸루. {인제 불을 만큼, 빨래 때 불을 만큼 잠깐 담가도 담가져요, 그냥 해서 빨래했죠, 그걸로.}
10427 @ 거 장굴 가따간 제 빠는 거유? {거 담근 걸 갖다가 인제 빠는 거예요?}
10427 # 예. {예.}

10427 @ 금 양잰물두 마창가지구요? {그럼 양잿물도 마찬가지고요?}
10427 @ 양잰무른. {양잿물은.}
10427 # 양잰무른 쌀믈 때 느야지 그냥 아 내써유. {양잿물은 삶을 때 넣어야지 그냥 안 했어요.}
10427 저기 빨래 이러케 아시빨래헐 쩌기는 양잰물루 앙쿠 쌀믈 때 드르가드라구유 양잰무른. {저기 빨래 이렇게 애벌빨래할 적에는 양잿물로 하지 않고 삶을 때 들어가더라고요, 양잿물은.}
10427 @ 집뚜 빨래할 땐 머 써써유 집? {짚도 빨래할 땐 뭐 썼어요, 짚?}
10427 # 빨래할 때 지비루는 집 땐 재루 잼물 바터서는 썬는디 지비루는 아 내써유. {빨래할 때 짚으로는 짚 땐 재로 잿물 받아서는 썼는데 짚으로는 안 했어요.}
10427 @ 그럼 요고 채 이거 잰물 바터서 하면 그뚜 때가 때가 잘 빠저요? {그럼 요고 재, 이거 잿물 받아서 하면 그것도 대가 때가 잘 빠져요?}
10427 # 미끄러니까. {미끄러우니까.}
10427 @ 아 미끄리니까. {아, 미끄러우니까.}
10427 # 그르치우 빠지지우. {그렇죠, 빠지죠.}
10427 # 그래두 비누가 이쓰야유. {그래도 비누가 있어야 해요.}
10427 @ 아 비누가. {아, 비누가.}
10427 # 에. {예.}
10427 # 비누가 인자 흔치 아넝게 그러치유. {비누가 인제 흔치 않으니까 그렇지요.}

1.5. 식생활

1.5.1. 채소 재배와 요리

10501 @ 그럼 제 채소 재배하능 거 쭘 여쩌 보께요. {그럼 인제 채소 재배하는 거 좀 여쭤볼게요.}
10501 # 채소. {채소.}
10501 @ 예 바테서 기른 채소는 어떵 거뜨리 이써요? {예, 밭에서 길은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501 # 여러 가지 만치우. {여러 가지 많죠.}
10501 # 바티서 길르는 채소 다:: 바티서 길르지오. {밭에서 기르는 채소 다 밭에서 기르죠.}
10501 # 양파두 바티서 길르구 읻 골파 그 가느른 파두 컨 파두 무수 배추 상추 뭗 다:: 바티서 길르지우. {양파도 밭에서 기르고, 잉 골파 그 가는 파도, 큰 파도, 무, 배추, 상추, 뭣 다 밭에서 기르죠.}
10501 @ 음. {음.}
10501 # 호박 그 저 뭐이구 다. {호박, 그 저 뭣이고 다.}
10501 @ 시금치. {시금치.}
10501 # 에 시금치 마늘 다 바티서 길르지우. {예, 시금치, 마늘 다 밭에서 기르죠.}
10501 @ 미나리 거틍 건 어디서 길러요? {미나리 같은 건 어디서 길러요?}

10501 # 미나리는 잉 물 린는 디서랴 길러요. {미나리는 잉, 물 있는 데서라야 길러요.}
10501 # 그러구 무 룸:는 디서 난 미나리는 불미나리. {그리고 물 없는 데서 난 미나리는 불미나리.}
10501 # 무 룸:는 디서 바티 이런 디서 인넝 건 불미나리. {물 없는 데서, 밭에 이런 데서 있는 건 불미나리.}
10501 @ 그 다메 그 인지 그 뿌리 게 그게 뿌리루 뎅 거 이쩌나요 바티 나능 거 감자. {그 다음에 그 인제 그 뿌리 그게, 그게 뿌리로 된 거 있잖아요, 밭에 나는 거, 감자.}
10501 # 그르치오 고구마 가튱 거 감자 그렁 건 다 뿌리루 허지우. {그렇죠, 고구마 같은 거 감자 그런 건 다 뿌리로 하죠.}
10501 @ 그 뭐주 기::릉 거 토란 토란 연근 연근. {그 뭐죠, 긴 거 토란 토란, 연근 연근.}
10501 # 에 에 연근. {예 예, 연근.}
10501 # 연그는 물 쏘기서 키여유. {연근은 물 속에서 키워요.}
10501 @ 토라는? {토란은?}
10501 # 에. {예.}
10501 # 토라는 이런 디서 그냥 키구 바티서 연그는 방죽 까튼 그 물 쑤기서 키에뜨라구요. {토란은 이런 데서 그냥 키우고 밭에서, 연근은 방죽 같은 그 물 속에서 키우더라고요.}
10501 @ 당근두 키워요? {당근도 키워요?}
10501 # 당근 두 바티서 키지우 당그는. {당근도 밭에서 키우죠, 당근은.}
10501 @ 에. {예.}
10501 @ 그 담 지금 하시능 게 머지오 오늘 항 게 호 호박? {그 다음 지금 하시는 게 뭐죠, 오늘 한 게 호, 호박?}
10501 # 호박. {호박.}
10501 @ 또 이게 머이 기::다낭 게 좀 또 여르메 가지. {또 이게 뭐야, 기다란 게 좀 또 여름에 가지.}
10501 # 가지. {가지.}
10501 # 가지도 바티서 키구. {가지도 밭에서 키우고.}
10501 # 다:: 과일두 바티서 키여유. {다 과일도 밭에서 키워요.}
10501 @ 예. {예.}
10501 @ 과이른 주로 뭐이 어떵 게 이써요? {과일은 주로 뭣이 어떤 게 있어요?}
10501 # 과이른 머 차메 수박 도마도. {과일은 뭐 참외, 수박, 토마토.}
10501 @ 음. {음.}
10501 # 큰 도마도두 이꾸 방울 도마도두 이꾸 다 그러치오. {큰 토마토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다 그렇죠.}
10501 @ 이 동네두 마늘 쑤깓 까튱 거도 해요? {이 동네도 마늘, 쑥갓 같은 것도 해요?}
10501 # 쑤까뚜 이꾸 마널두 이꾸 다 이찌오. {쑥갓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죠.}
10501 @ 에. {예.}
10501 # 다 허주. {다 하죠.}
10501 # 멍는 거슨. {먹는 것은.}
10502 @ 그럼 우선 그 채소들 어트게 길러 멍능 거 쭘 인나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선 그 채소들 어떻게 길러 먹는 것 좀 있나,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0502 @ 먼제 예드믄 거 우선 상추는 어트게 해서 길러서 머꾸. {먼저 예를 들면 그 우선

상추는 어떻게 해서 길러서 먹고.}
10502 # 상추는 그냥 가르믄 데유. {상추는 그냥 갈면 돼요.}
10502 @ 에. {예.}
10502 # 가르믄. {갈면.}
10502 @ 가름 어트게 되요? {갈면 어떻게 돼요?}
10502 @2 함머니 상추. {할머니, 상추.}
10502 @ 상추는 제 그 씨를 뿌려가주고. {상추는 인제 그 씨를 뿌려가지고.}
10502 # 예 씨 뿌리서 받 이러케 파 노쿠 씨 뿌리구 으냥 득뜩 글거 놔두멘 지가 나유 상추는 가꿔 머끼 쉬웁떼유. {예, 씨 뿌려서 밭 이렇게 파 놓고, 씨 뿌리고 그냥 득득 긁어 놔두면, 제가 나요 상추는 가꿔 먹기 쉽데요.}
10502 @ 예. {예.}
10502 @ 그 다메 그 배추는뇨? {그 다음에 그 배추는요?}
10502 # 배추두 그냥 가러두 허는디 지그믄 인젇 잘 라고 고루고루 심끼 위여서 저러케 포투 허지우. {배추도 그냥 갈아도 하는데 지금은 인제 잘 나고, 고루고루 심기 위해서 저렇게 포트(배추나 고추 등의 모를 담는 그릇)하죠.}
10502 @ 아 호트요? {아, 포트요?}
10502 # 배추씨 저르케 흑 따머서 포추해서 그기다 씨 하나쓱 느서 키워서 인자 퍼기나 큰 늠 저르케 컨 늠 가따 씨머유 배추. {배추씨 저렇게 흙 담아서 포트해서 거기다 씨 하나씩 넣어서 키워서 인제 퍽이나 큰 놈, 저렇게 큰 놈 갖다 심어요, 배추.}
10502 @ 그 다미 또 여기서 인지 또 하시는 무슨 머 시금치라덩가 이렁 거뚜 마니 하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인제 또 하시는 무슨 머, 시금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나요?}
10502 # 시금치 마니 허지유 시금치. {시금치 많이 하죠, 시금치.}
10502 # 이 호 장년버타 이 호바기 나와꺼드뇨. {이 호[x박x] 작년부터 이 호박이 나왔거든요.}
10502 # 근데 호박 안 나올 쩌기는 이 담배 시믄 바티다 몽::땅 다 시금치 가라써유. {근데 호박 안 나올 적에는 이 담배 심은 밭에다 몽땅 다 시금치 갈았어요.}
10502 @ 아! {아!}
10502 # 시금치 가르믄 인자 파뤌 추석 일찍 때믄 추석 때 무러비 뜯는 늠두 이꾸 추석 세먼 인자 그어 뜨끼 시작허야여. {시금치 갈면, 인제 팔월 추석 일찍 되면, 추석 때 무렵에 뜯는 놈도 있고, 추석 쇠면 인제 그거 뜯기 시작해야 해.}
=1 # 그래가주구 뜨더 노면 차가 대전 댕기는 차가 드롸유 맨 매일 여기서 가지 가는 차가. {그래가지고 뜯어 놓으면, 차가 대전 다니는 차가 들어와요, 맨, 매일 여기서 가져가는 차가.}
=1 # 그릉게 한 이식 깨구 삼십 깨구 고 저 오십 깨구 뜨더 노먼 논는 대로 가지가거드뉴. {그러니까 한 이십 개고, 삼십 개고, 고 저 오십 개고 뜯어 놓으면 놓는 대로 가져가거든요.}
=1 @ 예. {예.}
=1 # 장사덜따. {장사들이.}
=1 # 그릉게 갈지 팔러 댕기믄 모 까러. {그러니까 갈지, 팔러 다니면 못 갈아.}
10501 @ 그럼 여기두 무슨 저 아까 그 오이라덩가 수박까텅 거뚜 해? {그럼 여기도 무슨 저 아까, 그 오이라든가 수박 같은 것도 해?}

10501 # 그르추 오 오이 수바근 지그믄 저런 거 허니라구 닫:: 자기 머글 껀만 시머요. {그렇죠, 오, 오이, 수박은 지금은 저런 거 하느라고 다 자기 먹을 것만 심어요.}
10501 @ 에. {예.}
=1 # 그런디 그 저니는 오이 수바개서 달: 팔러 댕겨찌오 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오이 수박해서 다 팔러 다녔죠, 다.}
=1 @ 하셔써요? {하셨어요?}
=1 # 예. {예.}
=1 @ 아이구! {아이구!}
=1 # 장::이루 가주구 가구 지끔마냥 차나 타믄 거러 댕기써유. {장으로 가지고 가고 지금처럼 차나 타면, 걸어 다녔어요.}
=1 @ 여기 서천꺼지요? {여기 서천까지요?}
=1 # 장앙까지. {장항까지.}
=1 @ 장앙꺼지요? {장항까지요?}
=1 # 예. {예.}
=1 @ 옫 오트게 가주와유 저? {어, 어떻게 가져와요 저?}
=1 # 군산 까구 가주구 군산 팔러 가. {군산 가고, 가지고 군산 팔러 가.}
=1 @ 금 뭘로 가 시러가요? {그럼 뭐로 가, 실어가요?}
=1 # 이:구 그 바구리다 한 바구리 우이 한 접뚜 몬 니는디 그 바구리다 이구 군산 배:: 근너서 군산까지 가찌우 팔러. {이고, 그 바구니에다 한 바구니 오이 한 접도 못 이는데 그 바구니에다 이고 군산 배 건너서 군산까지 갔죠, 팔러.}
=1 # 마니 팔러 댕이씨유. {많이 팔러 다녔어요.}
=1 @ 오이 가틍 거요? {오이 같은 거요?}
=1 # 에 절머서. {예, 젊어서.}
=1 @ 수바근 무겁짜너요 근데. {수박은 무겁잖아요, 근데.}
=1 # 수바근 팔러 잘 모까유 그릉게 무거 가꾸. {수박은 팔러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무거워 가지고.}
=1 # 두 개 씨: 개만 이어따는 무군디 으트게 팔러 가. {두 개, 세 개만 이었다가는 무거운데 어떻게 팔러 가.}
=1 # 오이를 마니 해찌 그릉게. {오이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10501 @ 이런 혹씨 저 욛 요기도 고추 쫌 시먼네요 고추도 시므셔써요 옌나레요? {이런 혹시 저 요, 요기도 고추 조금 심었네요, 고추도 심으셨어요, 옛날에요?}
10501 # 옌나리 꼬추 마:니 시머찌우. {옛날에 고추 많이 심었죠.}
10502 # 내가 여기 청주 우리 망내 시누네 지비 가떠니 여런 디는 그냥 바티다 가라써써유. {내가 여기 청주 우리 막내 시누이네 집에 갔더니, 이런 데는 그냥 밭에다 갈았었어요.}
10502 @ 에. {예.}
10502 # 꼬추 전니는. {고추, 전에는.}
10502 # 그랜는디 청주 우리 시누네를 가봉게 지끔 여기 포트해서 심떼끼 그르케 허드라구유. {그랬는데 청주 우리 시누이네를 가보니까, 지금 여기 포트해서 심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10502 #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꾸 와서 하우스 지어노쿠 꼬춤 모 혀서 나두 마니 팔기두 허구 해찌우. {그래서 거기서 배워갖고 와서 하우스 지어놓고, 고추 모 해서 나도 많이 팔기도

하고 했죠.}
10502 # 그런는디 지그믄 야 거기 구차너구 해서 안 시머유 꼬추. {그랬는데 지금은 약 하기 귀찮고 해서 안 심어요, 고추.}
10502 @ 꼬추 양 마니 허야 되요? {고추 약 많이 해야 돼요?}
10502 # 에 야 거야지 따:서 말리야지 비 오구 나 란 조믄 써:거싸치 그래서 아 내유 그 저니는 마니 해써유. {예, 약 해야지, 따서 말려야지, 비 오고 날 안 좋으면 썩어쌓지, 그래서 안 해요, 그 전에는 많이 했어요.}
10502 @ 꼬추 따면 어따 말려써요 그거뇨? {고추 따면 어디다 말렸어요, 그것은요?}
10502 # 그 저니는 벼티다만 말려찌우. {그 전에는 볕에다만 말렸죠.}
10502 @ 아 바께 이 바테다만. {아, 밖에 이 밭에다만.}
10502 # 양지에다만. {양지에다만.}
10502 @ 지붕이다다는 안 너러써요? {지붕에다는 안 널었어요?}
10502 # 그 저니 인제 집 찌봉. {그 전에 인제 짚 지붕.}
10502 @ 에. {예.}
10502 # 지봉 집 찌봉이다는 인자 비가 와두 무리 싹 빠지니까 지봉에다 올라가서 너러찌우 그 저니. {지붕, 짚 지붕에다는 인제 비가 와도 물이 싹 빠지니까 지봉에다 올라가서 널었죠, 그 전에.}
10502 # 근디 건짐 말르구 비 올라구 먼 지붕이 올라가서 비찌라기루 쓰러 내리믄 미티서 줃꾸 그르케 말려찌우. {근데 거의 마르고 비 오려고 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빗자루로 쓸어내리면, 밑에서 줍고 그렇게 말렸죠.}
10502 # 근디 지끄믄 기게다 다 능게 걱쩡 업찌우. {근데 지금은 기계에다 다 넣으니까 걱정 없죠.}
10502 @ 아 고추도 기게다 너서 말려요? {아, 고추도 기계에다 넣어서 말려요?}
10502 # 그러믄뇨. {그럼은요.}
10502 @ 빨리 말르건네요 그러믄뇨. {빨리 마르겠네요, 그러면요.}
10502 # 그러므뇨. {그럼은요.}
10502 # 그퍼게 말리믄 이틀만 말리믄 빠쌱 말르는데. {급하게 말리면, 이틀만 말리면 바싹 마르는데.}
10501 @ 또 다른 머 재배해 보싱 거 머 이써요 고추 저 이런 채소 중에서? {또 다른 뭐 재배해 보신 거 뭐 있어요, 고추 저, 이런 채소 중에서?}
10501 # 채뱁 다 재배해찌우 그저니는 녹뚜두 바티서 낭게 녹뚜두 한 다서 까마니써근 해써내가. {재배, 다 재배했죠, 그전에는 녹두도 밭에서 나니까, 녹두도 한 다섯 가마니씩은 했어내가.}
10501 # 하 내 다사 까마니 그러구 참꿰 참꿰두 한 세 가마니써근 해구. {한 해 다섯 가마니 그리고 참깨 참깨도 한 세 가마니씩은 하고.}
10501 # 무지어게 그렁 거 마니 해찌 일. {무지하게 그런 거 많이 했지, 일.}
=1 @ 팬들도 마는데 언제 그렁 거 하셔써요? {팬들도 많은데 언제 그런 거 하셨어요?}
=1 @ 여기는 그 대나무가 웁써 죽쑤는 웁찌? {여기는 그 대나무가 없어 죽순은 없지?}
=1 # 우리 이게 대바시여써씨유 디껃 두에니가 전판 대바시여써써 그런디. {우리 이게 대밭이었어요, 뒤꼍 뒤꼍이 전부 대밭이었었어, 그런데.}
=1 # 하이구! 쥗 막 모기 끄러싸치 막 막 커선 누 노구 허먼 막 느러저서 땅 다 그르지. {아

이고! 쥐, 막 모기 끌어쌓지 막, 막 커서는 눈 오고 하면, 막 늘어져서 땅 다 그렇지.}
=1 # 하두 성가시러서 사람 어더서 싹:: 내라 쩌내써요. {하도 성가셔서 사람 얻어서 싹 내가 쪄냈어요.}
=1 # 거 사람 으더서 다 썰 쩌내구 포쿠레이 불러서 다 파내 버리써. {그거 사람 얻어서 다 쳐, 쪄내고 굴삭기 불러서 다 파내 버렸어.}
=1 @ 아 포크레인 불러서요. {아, 굴삭기 불러서요.}
10501 @ 그 대나무 순 나올 때 글 죽쑤니라 에 죽쑤니라구래요? {그 대나무 순 나올 때 그걸 죽순이라고 에, 죽순이라고 해요?}
10501 # 댇쑨, 에. {죽순, 예.}
10502 @ 어트게 만들 죽쑤느 냥 짤러 내능 거유? {어떻게 만들[x죠x] 죽순은 그냥 잘라 내는 거에예요?}
10502 # 왕대바시 죽쑨 나오주 자 저기 시누대는 가눌게 나오구. {왕대밭에 죽순 나오죠, 인제 저기 해장죽은 가늘게 나오고.}
10502 # 으 이건 시누대해써꼬 왕대는 저런 청때미 맹글구 허는 왕대 큰: 대가 왕대유. {음, 이건 해장죽했었고, 왕대는 저런 장대 만들고 하는 왕대, 큰 대가 왕대요.}
10502 @ 에 에. {예 예.}
10502 # 그러믄 그 왕대 죽쑨 만들라면 그 왕대 처미서 이 수니 빼조구게 나올 때. {그러면 그 왕대 죽순 만들려면 그 왕대 처음에 이 순이 뾰족하게 나올 때.}
10502 @ 에. {예.}
10502 # 거기다 꽉: 커니 뭗 장쑤래나 뭐 저렁 걷 꽉 씨여 논는대요. {거기다 꽉 하니 뭣 장독뚜껑이나 뭐 저런 것 꽉 씌워 놓는대요.}
10502 @ 아 단지 거틍 거요 에. {아, 단지 같은 거요, 예.}
10502 # 예 꽉: 씨여서 몯 떠드러지게 씨여 노면 거기서 인자 이르케 우이루 모 크구 미티루 이러케 퍼진대유 여포로. {예, 꽉 씌워서 못 쳐들어지게 씌워 놓으면, 거기서 인제 이렇게 위로 못 크고 밑으로 이렇게 퍼진대요, 옆으로.}
10502 # 눌러 이쓰니까 마 여피로 퍼저가꾸 그걸루 죽씬 죽쑨 헌다구 드라구유. {눌러 있으니까 막 옆으로 펴져갖고, 그걸로 죽순, 죽순 한다고 하더라고요.}
10502 @ 마느른 그 어트게 시머써요 마늘 시믈 때는? {마늘은 그 어떻게 심었어요, 마늘 심을 때는?}
10502 # 마느른 바티다 이느케 골 치구 한 쪽썩 쩌게서. {마늘은 밭에다 이렇게 골 치고, 한 쪽씩 쪼개서.}
10502 @ 에. {예.}
10502 # 쪼각 쪼각 쪼개서 까지 안쿠 그냥 으냥 껍떼기 채 쩌개서 그 눔 이냥 하나씨 꼬찌우. {조각 조각 쪼개서 까지 않고 그냥, 그냥 껍데기 채 쪼개서 그 놈 이냥 하나씩 꽂죠.}
10502 @ 언제? {언제?}
10502 # 간격. {간격.}
10502 # 마늘 한 치 뤌따리 놔유. {마늘 한 칠 월달에 놔요.}
10502 @ 아 개서. {아, 그래서.}
10502 # 곧 인자 올마 아 니쓰믄 놔. {곧 인제 얼마 안 있으면 놔.}
10502 @ 아 고리 기냥 쪼개 너노그만뇨. {아, 골이 그냥 쪼개 넣어 놓는구먼요.}
10502 # 예. {예.}

10502 # 그 쪽 구러케 꼬찌우. {그 쪽 그렇게 꽂죠.}
10502 @ 에. {예.}
10502 # 그르케 허구서 집 떠퍼써유 그 새는. {그렇게 하고서 짚 덮었어요, 그 사이에는.}
10502 @ 아 집. {아, 짚.}
10502 # 집 떠퍼서 그냥 핸는디 저 비니루 생기머버텀 요 차미는 비니루루 더프야 마느리 더 굴께 드러. {짚 덮어서 그냥 했는데 저 비닐 생기면서부터 요 참에는 비닐로 덮어야 마늘이 더 굵게 들어.}
10502 @ 어! {어!}
10502 # 그래서 빵: 빵 간격 마춰서 싹: 구녁 떠러진 비니루가 이써유. {그래서 빵 빵 간격 맞춰서 싹 구멍 뚤어진 비닐이 있어요.}
105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502 # 저기 에. {저기 예.}
10502 # 그래가꾸 그 눔 가따 싹: 피구서 그 구녕이다만 꼬지믄 댜. {그래갖고 그 놈 갖다 싹 펴고서 그 구멍에다만 꽂으면 돼.}
10502 @ 아 펴나게 된네요 이게 이~. {아, 편하게 됐네요, 이게 이.}
10502 # 에. {예.}
10502 @2 할머니 꼬질 때 어디로 꼬자요 마늘 그? {할머니 꽂을 때 어디로 꽂아요, 마늘 그?}
10502 # 마늘 빼:쪼건 디가 우이 이파리 나올 띵게 빼:쪼건 디가 우이로 과구 미티 뿌렝이 날 띠는 쫌 넙쩌거지 아녀 그도 도돌도도리. {마늘 뾰족한 데가 위 이파리 나올 데니까, 뾰족한 데가 위로 가고 밑에 뿌리 날 데는 좀 넙적하지 않아 그것도 도돌도돌하게.}
10502 @ 에. {예.}
10502 # 그르케서 그르케 꼬지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꽂아야지.}
10502 @ 음. {음.}
10502 @ 감자는 어트게 시머써요? {감자는 어떻게 심었어요?}
10502 # 응. {응.}
10502 # 고고마요 감 고그. {고구마요 감, 고구마.}
10502 @ 감자. {감자.}
10502 # 하지깜자. {하지감자.}
10502 @ 예 하지깜자 에. {예 하짓감자 예.}
10502 # 요 요새 하지깜자 그거는 감자루 씸찌오. {요, 요새 하지감자 그거는 감자로 심죠.}
10502 @ 감자루요? {감자로요?}
10502 # 웨 감자 큰 너믄 그 눈 이써 나오는 눈 그릉게. {예, 감자 큰 놈은 그 눈 있어, 나오는 눈 그러니까.}
10502 # 그 눈 항 개쓰기구 두 개쓰기구 눈대루 뽀개서 골치구 족 이냥 감자루 노쿠 흐기루 미:지우. {그 눈 한 개씩이고 두 개씩이 눈대로 쪼개서 골 파고 족 이냥 감자로 놓고 흙으로 메우죠.}
10502 @ 아 그람 거기서 감자가 나오나요? {아, 그럼 거기서 감자가 나오나요?}
10502 # 에 그러문 거기서 감자가 나오면 극 거기가 콩 남 마냥 이자 그 감자 이르케 수내기 나오면 여기 모미서 저기 끈 달링 건 마냥 콩 마냥 열려. {예, 그러면 거기서 감자가 나오면, 그 거기가 콩낱 마냥 인제 그 감자 이렇게 순 나오면 여기 몸에서 저기 끈 달린 것

마냥 콩처럼 열려.}
10502 @ 아! {아!}
10502 # 다 열려가꾸 인자 그 땅쏘기서 크능 거유. {다 열려갖고 인제 그 땅속에서 크는 거예요.}
10502 @ 아::! {아!}
10502 # 그리가주구 캐며는 그 그 막 이마쓰건 늠 나오지우. {그래가지고 캐면은 그, 그 막 이만큼씩 한 놈 나오죠.}
10502 @ 그 담 고구마는 그. {그 다음 고구마는 그.}
10502 # 고고마는 땅에다 저런 따순 디다. {고구마는 땅에다 저런 따뜻한 데다.}
10502 @ 네. {네.}
10502 # 저런 하우쓰 웁쓸 때는 방이다. {저런 하우스 없을 때는 방에다.}
10502 @ 에. {예.}
10502 # 흑 따머서 이러케 노며는 수니 나오자네요. {흙 담아서 이렇게 놓으면은 순이 나오잖아요.}
10502 @ 에. {예.}
10502 # 그러믄 그 순 질려가주구 그 수늘 짤러다가 두 마디나 세 마디 짤러다 땅이다 이러케 쪽 노쿠 이러케 무더줘유 흑. {그러면 그 순 길러가지고, 그 순을 잘라다가 두 마디나 세 마디 잘러다 땅에다 이렇게 족 놓고, 이렇게 묻어줘요 흙.}
10502 # 그러면 거기서 수니 나와가주구 감자 넝쿨 버드면서 음 미티루 뿌리가 드러가서 감자 미시 드러 감자 뿌리가. {그러면 거기서 순이 나와가지고 감자 덩굴 벋으면서 음, 밑으로 뿌리가 들어가서 감자 밑이 들어 감자 뿌리가.}
10502 @ 가믄 그 감 그건 제 고구마 감자 여기는 감자라구러조? {그러면 그 감, 그건 인제 고구마 감자 여기는 감자라고 그러죠?}
10502 # 예. {예.}
10502 @ 걸 겨 인제 가으레 캐지오? {그걸 겨, 인제 가을에 캐죠?}
10502 # 고구마는 가으리 캐구. {고구마는 가을에 캐고.}
10502 @ 에 하지깜자는? {예, 하지감자는?}
10502 # 하지깜자는 요새 하지 너믐 넘께 아니 캐구. {하지감자는 요새 하지 넘어, 넘게 안에 캐고.}
10502 @ 아::, 그믄 대개 보믄 하지깜자는 잘 써그니까 바로 머꼬. {아, 그러면 대개 보면 하지감자는 잘 썩으니까 바로 먹고.}
10502 @ 고고마는 겨우레 인제 시아니라고 하나요 여기 겨우른 머라 그래요? {고구마는 겨울에 인제 세안이라고 하나요, 여기 겨울은 뭐라 그래요?}
10502 # 예. {예.}
10502 @ 시 여기선. {시, 여기서는.}
10502 # 인제 겨우내 먹찌오 시안 내. {인제 겨우내 먹죠, 세안 내.}
10502 @ 에. {예.}
10502 # 시안 내. {세안 내.}
10502 @ 어따 노코 머거요 이걸료? {어디다 놓고 먹어요, 이것을요?}
10502 # 따순 디다 노야지 그언 추우믄 써거요. {따뜻한 데에다 놔야지 그건 추우면 썩어요.}

10502 @ 그냥 어트게 으 뭘. {그냥 어떻게 음, 그 뭘.}
10502 # 음. {음.}
10502 @ 뭘 하. {뭘 해.}
10502 # 그릉겝 지끄믄 지저부넌 그저니는 감자 뿌짱이라구 지비루 냥 혀서 노쿠 거기다 가따 부서서 내서 쩌머거꺼드뇨. {그러니까 지금은 지저분한 그전에는 감자 통가리라고 짚으로 그냥 해서 놓고 거기다 갖다 부어서 내서 쪄먹었거든요.}
10502 @ 아 그 부짱이라 구래요? {아, 그 통가리라고 그래요?}
10502 # 에 감자 뿌짱. {예 감자 통가리.}
10502 @ 예. {예.}
10502 # 근디 지그믄 사료 푸대 가튼 디다 다머서 따순 디다 놔 이으케. {근데 지금은 사료 포대 같은 데다 담아서 따뜻한 데다 놔 이렇게.}
10502 # 차지 아넌 디다 얼지 아늘 띠다 놔따 먹찌오. {차지 않은 데다, 얼지 않을 데다 놨다 먹죠.}
10502 @ 여기 먿 토방 지아시리 이써따메요 그런 디다 감자. {여기 뭣 토방 지하실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데다 감자.}
10502 # 굴 쏘기다 그저니 감자 굴 쏘기다 는니라구 굴 파씨유. {굴 속에다 그전에 감자 굴 속에다 넣느라고 굴 팠어요.}
10502 @ 음. {음.}
10502 # 건 방이다 놀 쑤 웁써서. {그건 방에다 놀 수 없어서.}
=1 @ 그니 감자를 마니 해떵가바요 농사를? {그러니까 감자를 많이 했던가봐요, 농사를?}
=1 # 그러치우 마니 해찌우. {그렇죠, 많이 했죠.}
=1 @ 그래 가을 래 마니 머거찌우 월래. {그래 가을 내 많이 먹었죠, 원래.}
=1 # 에 마니 머거찌오 그저니 엄는 사라믄 점신 때 감자 쩌서 그 고구마루 끄니 때우구 그르케두 해시우. {예, 많이 먹었죠, 그전에 없는 사람은 점심 때 감자 쪄서 그 고구마로 끼니 때우고 그렇게도 했어요.}

10501 @ 그 다으민 제 무말랭이 이쪼 그건 어트게 무를. {그 다음에 인제 무말랭이 있죠, 그건 어떻게 무를.}
10501 # 무말랭이는. {무말랭이는.}
10501 @ 무수 무수말랭이라고 하지. {무, 무말랭이라고 하지.}
10501 # 에 가슬 가스 무수 쓰러서 말리주 인자. {예, 가을, 가을 무 쓸어서 말리죠, 인제.}
10501 # 가으리 무수 시머가꾸 그 늠 짐장헐 때 인자 미시 들자뉴 이마::너게 커게. {가을에 무 심어갖고 그 놈 김장할 때 인제 밑이 들잖아요, 이만하게 크게.}
10501 # 그 놈 쓰:러서 양지에다 말리능 게 그게 무말랭이지우. {그 놈 썰어서 양지에다 말리는 게 그게 무말랭이죠.}
10501 @ 음. {응.}
10501 @ 그 담 제 무청이라고 하능 건? {그 다음 인제 무청이라고 하는 건?}
10501 @ 무. {무.}
10501 # 무 이파리. {무 이파리.}
10501 @ 무 입쌔나 입쌔. {무 잎사귀나 잎사귀.}
10501 # 에 무 이파리 그게 무청. {예, 무 이파리 그게 무청.}

10501 # 무 이파리로 뭐 해 멍능 게 머 그 짐치 담찌 짠지 담찌 그걸루 무청이라구드라구유. {무 이파리로 뭐 해 먹는 게 뭐, 그 김치 담지, 짠지 담지 그걸로 무청이라고 하더라고요.}
10501 @2 꺼 말려 무청 말려가지고는. {그거 말려 무청 말려가지고는.}
10501 # 씨라구. {시래기.}
10501 @ 아까 그 파두 무슨 그 대파가 이꾸 골파가 이따 그래찌오? {아까 그 파도 무슨 그 대파가 있고, 골파가 있다 그랬죠?}
10501 # 예. {예.}
10501 @ 대파느 게 어트게. {대파는 그게 어떻게.}
10501 # 크지우 굴거. {크죠, 굵어.}
10501 @ 아! {아!}
10501 # 굴꾸 이냥 요만:치 지러가꾸 신도고미 마녀가꾸 그 하애녀이 그게 큰 파구. {굵고 이냥 요만치 길어갖고 흰 줄이 많아갖고 그 하얗게 그게 큰 파고.}
10501 # 골파는 쪽파라구. {골파는 쪽파라고.}
10501 @ 네. {네.}
10501 # 자디자릉 거 이르케 바티다 이러케 씨머가꾸 쪽파 그게 쪽파구유. {자디잔 거 이렇게 밭에다 이렇게 심어갖고 쪽파 그게 쪽파고요.}
10503 @ 주로 골파아고 대파는 멍는 데 어떤 때 머거요 건? {주로 골파하고 대파는 먹는데 어떤 때 먹어요, 그건?}
10503 @ 양녀밍가요? {양념인가요?}
10503 # 양니 인자 대파는 주루 찌개허구 그렁 거 헐 때 마니 머꾸유. {양념 인제 대파는 주로 찌개하고 그런 거 할 때 많이 먹고요.}
10503 @ 네. {네.}
10503 # 인젣 골파 극 잔 쪽파 그거는 김치 다믈 때 짠지 다물 때 그걸루 김 파짠지두 당꾸 진장얼 때 그런 때 마니 쓰러 느쿠 그러지우. {인제 골파 그 잔 쪽파 그거는 김치 담을 때, 김치 담을 때 그걸로 김, 파김치도 담고 김장할 때 그런 때 많이 썰어 넣고 그러죠.}
10503 @ 그 시골써 그 저네 파전 부친다고 하능 게 근. {그 시골에서 그 전에 파전 부친다고 하는 게 그.}
10503 # 예 그 골파루 부치지우. {예, 그 골파로 부치죠.}
10503 @ 골파로 부처요? {골파로 부쳐요?}
10503 # 에. {예.}
10503 @ 게 골파가 멍는 디가 다양앤네요 멍는 그. {그게 골파가 먹는 데가 다양했네요, 먹는 그.}
10503 # 그르치우. {그렇죠.}
10503 @ 네 그러면뇨 그 채소 채소 요리를 어트게 하 하는지 금 요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쓰매 주세요. {네, 그러면요 그 채소, 채소 요리를 어떻게 하 하는지, 그럼 요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0503 @ 우선 뭐 나물 무치는 방버비라덩가 이렁 거 거쩌리 해멍능 거 이렁 거. {우선 뭐 나물 무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겉절이 해먹는 거, 이런 거.}
10503 @2 하머니 시금치. {할머니 시금치.}
10503 # 거쩌리는. {겉절이는.}

10503 @2 시금치 나물부터. {시금치 나물부터.}
10503 # 시금치나물 시금치나무른 시금치를 뜨더서 인자 시차 즐 건 다용녀누에 시처서 슫 끌른 무리다 끌른 무리다 살짝 디처. {시금치나물, 시금치나물은 시금치를 뜯어서 인제 씻어 줄 건 다용도실에서 씻어서 설 끓는 물에다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
10503 @ 아. {아.}
10503 # 그르가꾸 그 늠 무치능 게 시금치 무치능 거구. {그래갖고 그 놈 무치는 게 시금치 무치는 거고.}
10503 @ 멀로 무처요? {뭘로 무쳐요?}
10503 # 이? {잉?}
10503 @ 멀로 무처요? {뭐로 무쳐요?}
10503 # 인자 간장 느쿠 꿰소곰 느쿠 인자 고추까루는 쪼:꼼만 느:으쿠 그르케서 무치 게 시금치 나무리구. {인제 간장 넣고, 깨소금 넣고, 인제 고춧가루는 조금만 넣고 그렇게 해서 무친 게 시금치나물이고.}
10503 @2 거쩌리 가틍 거요. {겉절이 같은 거요.}
10503 # 다릉 뭗. {다른 뭣.}
10503 @ 거쩌리. {겉절이.}
10503 # 거쩌리는 배추 키워서 그 속 존 디만 여켇 쭉쭉 찌저서 금방 머글라구 이르케 무치능 게 양념 발러서 이러케 버무리능 게 거쩌리구. {겉절이는 배추 키워서 그 속 좋은 데만 이렇게 죽죽 찢어서 금방 먹으려고, 이렇게 무치는 게 양념 발라서 이렇게 버무리는 게 겉절이고.}
10503 @ 모 너요 거다 양념 느쿠 또 간장을 러요 그람 소그물 러요 건녀? {뭐 넣어요, 거기다 양념 넣고 또 간장을 넣어요, 그럼 소금을 넣어요, 그건요?}
10503 # 저깔 느야 조치오. {젓갈을 넣어야 좋죠.}
10503 @ 저까를료. {젓갈을요.}
10503 # 에 새우저시나 자젇. {예, 새우젓이나 자리젓.}
10503 @ 아. {아.}
10503 # 그렁 거 느쿠 으냥 버무리믄 버무려서 응 꿰소곰 느쿠 혀서 머그믄 금방 멍능 거른. {그런 거 넣고 그냥 버무리면, 버무려서 응, 깨소금 넣고 해서 먹으면 금방 먹는 거는.}
10503 @ 거이다 꼬 꼬추 뿌리고 꼬추까루 느쿠. {거기다 고, 고추 뿌리고, 고춧가루 넣고.}
10503 # 예 꼬추까루어고. {예, 고춧가루하고.}
10503 @ 거쩌리::는. {겉절이는.}
10503 # 마늘 찡 건 느쿠. {마늘 찐 것 넣고.}
10503 @ 그 배추루 만드나 부지오 그러니까? {그 배추로 만드나 보죠, 그러니까?}
10503 # 예. {예.}
10503 # 배추로 거쩌리. {배추로 겉절이.}
10503 @ 그람 배추김치는 어트게 다머요 배추김? {그럼 배추김치는 어떻게 담아요, 배추김[x치x]?}
10503 # 배추귐치는 배추 쪼개가꾸 크머는 크며는 인제 쪼개서 간꾹 간무리다 소금 허처서 저려가꾸. {배추김치는 배추 쪼개갖고 크면은, 크면은 인제 쪼개서 간국 간물에다 소금 흩어서 절여갖고.}
10503 @ 네. {네.}

10503 # 그 늠 또 인자 다시 시처유. {그 놈 또 인제 다시 씻어요.}
10503 # 그래가주구 인자 양념 마널 고추 파 양파 저렁 걷 인자 막 막 무체유. {그래가지고 인제 양념, 마늘, 고추, 파, 양파 저런 것 인제 막, 막 무쳐요.}
10503 # 저꾸게다가 저까리다가 무처서 그 늠 이르케 발러서 담:능 게 에 짠지 담능 거주. {젓국에다가 젓갈에다가 무쳐서 그 놈 이렇게 발라서 담는 게 응, 김치 담는 거죠.}
10503 @ 짠지 담능 거요 에. {김치 담는 거예요, 예.}
10503 # 에. {예.}
10503 @ 그러믄 제 소그메 소금물 인제 처메 소금무레 널 때. {그러면 인제 소금에 소금물 인제 처음에 소금물에 넣을 때.}
10503 # 에. {예.}
10503 @ 그게 너무 짜면 배추김치가 짜질 찌 모르겐네 그 자러야 건네 그러. {그게 너무 짜면 배추 김치가 짜질 지 모르겠네, 그 잘해야 겠네 그러[x니까x].}
10503 # 그르치우 너머 짜주 더기 저기어먼. {그렇죠, 너무 짜죠, 저기 저기하면.}
10503 # 그릉게 찌거머거 바서 짭짤헐 만치 간 이만치만 주구믄 갠찬커따 어구 인제 이르케 저리자뉴. {그러니까 찍어먹어 봐서 짭짤할 만큼, 간 이만큼만 주면 괜찮겠다 하고, 인제 이렇게 절이잖아요.}
10503 # 그러믄 보먼 송:니빈 송:니븐 들: 저려질 쩡도로. {그러면 보면 속잎은, 속잎은 덜 절여질 정도로.}
10503 @ 아 건니만? {아, 겉잎만?}
10503 # 에 송니븐 쪼금 들: 저려질 정도로 저려서 시처서 인자 담찌우. {예, 속잎은 조금 덜 절여질 정도로 절여서, 씻어서 인제 담죠.}
10503 @ 금 무레다 씨서요? {그럼 물에다 씻어요?}
10503 # 에 무리다 시처서 물 쪽 빠지게 건제 놔따가 그 늠 그 양념 헌 늠 발르능 게 짠지 담능 거유. {예, 물에다 씻어서 물 쪽 빠지게 건져 놨다가 그 놈, 그 양념 한 놈 바르는 게 김치 담는 거예요.}
10503 @ 나박낌치라구 이써요? {나박김치라고 있어요?}
10503 # 나박낌치는 무수물 납짱납짜::게 이러케 잘쪽잘쪽::허게 납짱납짜거게 쓰러서 멀국 낌치 이르케 멀궁 느쿠 담능 게 그게 나바낌치지우. {나박김치는 무를 납작납작하게, 짤막짤막하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국물김치 이렇게 국물 넣고 담는 게 나박김치죠.}
10503 @ 건 하야나케 다머요 그럼뇨? {그건 하얗게 담아요, 그럼요?}
10503 @2 고추까루 안 너요 거기는? {고춧가루 안 넣어요, 거기는?}
10503 # 고추까루 안:: 느믄 흐연네서 들 조니까 쪼::꿈만. {고춧가루 안 넣으면 하얘서 덜 좋으니까 조금만.}
10503 # 쪼꿈만 새죠깔 쪼꿈 볼고로::머게 쪼꿈만 느서 다므믄 조치오. {조금만 색깔 조금 볼그스름하게 조금만 넣어서 담으면 좋죠.}
10503 @ 열:무김치지 열무 이쪼 열무김치? {열무김치지, 열무 있죠, 열무김치?}
10503 # 예. {예.}
10503 # 열무 열무는 무 이파리만 인 이써가꾸. {열무, 열무는 무 이파리만 있, 있어갖고.}
10503 @ 에. {예.}
10503 # 뿌리는 베랑 웁쭈 열무는. {뿌리는 별로 없죠, 열무는.}
10503 @ 아 그람 무가 어려쓸 때. {아, 그럼 무가 어렸을 때.}

10503 # 어려쓸 때. {어렸을 때.}
10503 @ 에. {예.}
10503 # 인자 이파리 이러케 조:케 크구 놔: 두야 뿌리가 드는디 인제 열무 이파리 나서 이내 에 인제 뿌리 웁능 거 그게 열무:루 짠지 담찌. {인제 이파리 이렇게 좋게 크고, 놔 둬야 뿌리가 드는데 인제 열무 이파리 나서 이내 에, 인제 뿌리 없는 거, 그게 열무로 김치 담지.}
10503 @ 그거뚜 담는 과정은 또까터 소금. {그것도 담는 과정은 똑같아 소금.}
10503 # 그러치유 그건 인잗 소굼꾹 타서 살짝 살짝 저리야지. {그렇죠, 그건 인제 소금국 타서 살짝, 살짝 절여야지.}
10503 @ 살짝 저려요? {살짝 절여요?}
10503 # 에 쪼꿈만 살짝 저려서 헝겨 가꾸선 자 짠지 담찌오. {예 조금만 살짝 절여서 헹궈 갖고서 인제 김치 담죠.}
10503 @ 그거뚜 다시 헝:궈서. {그것도 다시 헹궈서.}
10503 # 에. {예.}
10503 @ 다믈 때는 또 또 다 다시 담꼬. {다물 때는 또, 또 다, 다시 담고.}
10503 # 그 양념 다 발러서 이러케 담찌오. {그 양념 다 발라서 이렇게 담죠.}
10503 @ 양념 발러서 아! {양념 발라서 아!}
10503 @2 그거 이르믄 열무짠지조 할머니 열무짠지? {그거 이름은 열무김치죠, 할머니 열무김치?}
10503 # 그르치. {그렇지.}
10503 @ 토란::두 해써요 토란꾸기라고 이써요? {토란도 했어요, 토란국이라고 있어요?}
10503 # 으~ 토라::는 바티다 저런 디다 시무문 그게 믿 뜰드라구유. {응, 토란은 밭에다 저런 데다 심으면 그게 밑 들더라고요.}
10503 # 감자처럼 쪼꼬만쓰거게 미 트러 그. {감자처럼 조그만씩하게 밑 들어 그.}
1050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503 # 에 그런 그거 끄러 느 쓰러 느쿠 국 끄리능 게 토란꾸기지오. {예, 그런 그거 끄러넣, 쓸어 넣고 국 끓이는 게 토란국이죠.}
10503 @ 음:: 그래요? {음, 그래요?}
10503 # 에. {예.}
10503 @ 그 다메 연근 연근::두 조려 먹쪼? {그 다음 연근, 연근도 졸여 먹죠?}
10503 # 연그는 방죽. {연근은 방죽.}
10503 @ 예. {예.}
10503 # 방주기다 시 시머 가꾸 그거 막 캘라믄 어렵뜨만. {방죽에다 시, 심어 갖고 그거 막 캐려면 어렵더구먼.}
10503 # 그 캐서 허믄 그으시 송송 구먹 뜨러저찌우.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이 송송 구멍 뚫어졌죠.}
10503 @ 아 예. {아 예.}
10503 # 송개송개송개 글 극 그걷 인자 얄쏭얄쫑어게 쓰러서 저런 디 멜치 쪼리데끼 그냥 쪼리데요. {송골송골송골 글, 극 그것 인제 얄팍얄팍하게 썰어서 저런 데 멸치 졸이듯이 그냥 졸이데요.}
10503 @ 뭐아고 쪼려요 그레 양녀믄? {뭐하고 졸여요, 그래 양념은?}

10503 # 양념 웨간장 느쿠 설탕 느쿠. {양념 왜간장 넣고, 설탕 넣고.}
10503 @ 아 설탕. {아, 설탕.}
10503 # 어 그렁 걷 양념 주주 느서 짜글짜글짜글 끌리믄 여뚜 드르가구 그르케서 끌리면 쫄기쫄기더게 연근. {어, 그런 것 양념 주로 넣어서 자글자글자글 끓이면, 엿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끓이면 쫄깃쫄깃하게 연근.}
10503 @ 그렝께 마시 잘짜찌그나구만뇨? {그러니까 맛이 달짝지근하구먼요?}
10503 # 예. {예.}
10503 @ 에 자체가 다릉 건 아니구 음. {예, 자체가 단 건 아니고 응.}
10503 # 예. {예.}
10503 @ 우엉이라구 이써요 우엉 우엉이라구? {우엉이라고 있어요, 우엉 우엉이라고?}
10503 # 우엉두 저기 토란 마냥 생겨짜뉴. {우엉도 저기 토란처럼 생겼잖아요.}
10503 @ 그르치우. {그렇죠.}
10503 # 그르 그래. {그려 그래.}
10503 @ 이피 그게 쭉 파라쿠. {잎이 그게 쭉 파랗고.}
10503 # 예 입싸구가 널:버가꾸. {예, 입사귀가 넓어갖고.}
10503 @ 에 그 줄기를 멍는 거지오 그언. {예, 그 줄기를 먹는 거죠 그건.}
10503 # 에. {예.}
10503 # 우 우엉 시머서 그 줄거리 멍우때처럼 에 이냥 쌀머서 그냥 찌저 말리드라구요. {우, 우엉 심어서 그 줄기 머위 줄기처럼 에, 그냥 삶아서 그냥 찢어 말리더라고요.}
10503 @ 에. {예.}
10503 # 안 쌍꼬 그냥 찌저 말려가꾸 머글 때 쌀머서 먹뜨라구유. {안 삶고 그냥 찢어 말려갖고, 먹을 때 삶아서 먹더라고요.}
10503 @ 내가 요새 쫌 사네를 가다 보니까요 근 저 대전서요. {내가 요새 좀 산에를 가다 보니까요, 그 저 대전에서요.}
10503 @ 고고마 입쓰 아까 마란 그 여서 고구마 감자랑 그 이. {고구마 잎새 아까 말한 그 여기서 고구마 감자란 그 이.}
10503 # 에 에. {예 예.}
10503 @ 줄기를 짤로 이플 따 가드라구 그거뚜 먹 고구마욘. {줄기를 잘라 잎을 따 가더라고 그것도 먹[x으려고x] 고구마요.}
10503 # 그어뚜 먹찌우. {그것도 먹죠.}
10503 @ 아 걸 어트게 머거요 걸료? {아,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것을요?}
10503 # 그걸 그냥 으~ 저기 대공 껍떼기 빼껴서 짠지두 다머 머꾸. {그걸 그냥 응, 저기 줄기 껍데기 벗겨서 짠지도 담아 먹고.}
10503 @ 아::! {아!}
10503 # 그냥 쓰 저기 으ㅡ는 디 치 쌀머서 쩌서 쌈싸머끼두 허구. {그냥 쓰, 저기 연한 데 치 삶아서, 쪄서 쌈 싸 먹기도 하고.}
10503 @ 어:: 그래요? {아, 그래요?}
10503 # 예 너물 나물두 해머꾸 쌀머서. {예, 나물 나물도 해먹고 삶아서.}
10503 @ 그래서. {그래서.}
10503 @2 또 말려서 할무니. {또 말려서 할머니.}
10503 # 말려서 앙쿠 그냥. {말려서 않고 그냥.}

10503 @ 기냥 멍는. {그냥 먹는.}
10503 @ 말려서도 먹찌오? {말려서도 먹죠?}
10503 # 응 말려서두 먹 말려서두 먹꼬. {응, 말려서도 먹, 말려서도 먹고.}
10503 @ 그 다민제 호박 호박구걸 끄린다 구라네요 호박꾸걸. {그 다음 인제 호박, 호박국을 끓인다 그러네요, 호박국을.}
10503 @ 아니 호바꾹뚜 이꾸 호박 무침도 인네 호바꾸건 어트게? {아니 호박국도 있고, 호박 무침도 있네, 호박국은 어떻게 [x끓이나요x]?}
10503 # 호박 호박구근 늘근 호바기루 국끄리능 게 호바꾸긴디. {호박, 호박국은 늙은 호박으로 국끓이는 게 호박국인데.}
10503 # 호방 나무런다구지 호방 너물. {호박 나물한다고 하지, 호박 나물.}
10503 @ 에 호방 너무른 뭐예요? {예 호박 나물은 뭐에요?}
10503 # 호방 너무른 이 지끔 푸도박 이르케 인능 거 이짜뉴? {호박 나물은 이 지금 풋호박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10503 @ 에. {예.}
10503 # 그거 쓰러서 새우저시나 뭐 느쿠서나 냥 짜잘짜자러게 허능 게 호방 너물. {그거 썰어서 새우젓이나 뭐 넣고서는 그냥 자잘자잘하게 하는 게 호박 나물.}
10503 @ 아! {아!}
10503 @ 그럼 호바꾸건 늘근 호박 느쿠요? {그럼 호박국은 늙은 호박 넣고요?}
10503 # 호박구근 늘근 호박 으 껍떼기 글거서 그 늠 푹푹 쌀머서 국짜루나 뭘로 이르케 이르케 눌르믄 호박국 댜. {호박국은 늙은 호박 음, 껍데기 긁어서 그 놈 푹푹 삶아서 국자로나 뭘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호박국 돼.}
10503 # 그어 그어뚜 짠지 느쿠 머그믄 마시써 그어뚜 호박국뚜. {그거 그것도 짠지 넣고 먹으면 맛있어, 그것도 호박국도.}
10503 @ 그가고 보니까 호박 입 이비쪼 호방 닙쌔기. {그러고 보니까 호박 잎, 잎 있죠 호박 잎사귀.}
10503 # 예. {예.}
10503 # 호방 닙싸 쩌먹쭈. {호박 잎사귀 쪄먹죠.}
10503 @ 어트게. {어떻게.}
10503 # 껍떼기 호방 닙싸 머끼 졸 만::치 수넹이 요만치 버더썰라믄 이 아네 아네 그르케 순 냉기구서 거기 치 알마::진 늠 따가지고 그 베끼며는 껍떼기 나와요. {껍데기 호박 잎사귀 먹기 좋을 만큼 순이 요만큼 벋었으면, 이 안에, 안에 그렇게 순 남기고서 거기치 알맞은 놈 따가지고 그 벗기면은 껍데기 나와요.}
10503 @ 에. {예.}
10503 # 긍게 베껴가꾸 쩌서 쌈 싸 머꾸. {그러니까 벗겨갖고 쪄서 쌈 싸 먹고.}
10503 @ 뭘루 까 싸 머거요 싸믄? {뭘로 까, 싸 먹어요, 쌈은?}
10503 # 금 쩌서 밥 싸 머거요 거기다. {그놈 쪄서 밥 싸 먹어요 거기다.}
10503 @ 아니 바블 늘 때 거 바 반차는 뭘로 해요 그람 거이다. {아니 밥을 넣을 때 그 바, 반찬은 뭐로 해요 그럼 거기다.}
10503 # 밤 에 그 그 이파리 얻 피어서 여이다 노쿠 밤 노쿠. {밤 예, 그, 그 이파리에 펴서 여기다 놓고 밥 놓고.}
10503 @ 에. {예.}

10503 # 양념 간장. {양념간장.}
10503 @ 간장 에. {간장 예.}
10503 # 양념 간장 마시께 혀서 그 양념 간장 느쿠 싸서 멍넝 거지. {양념간장 맛있게 해서, 그 양념간장 넣고 싸서 먹는 거지.}
10503 @ 음::. {음.}
10503 @ 혹씨 그 호박 그 입쌔기를 국 끄리능 거 아네요 호방 닙쌔기를? {혹시 그 호박 그 잎사귀를 국 끓이는 거 아네요, 호박 잎사귀를?}
10503 # 호방 닙쌔두 그저니는 국뚜 끄리구 음 수제비두 해 머꾸 그래찌우 그거시다 인자. {호박 잎사귀도 그전에는 국도 끓이고 음, 수제비도 해 먹고 그랬죠, 그것에다 인제.}
10503 # 그거는 시처서 은자 오둑고둑 다 줴 뜨더서 엗 그냥 애서 국 끄리지우. {그거는 씻어서 인제 오독오독 다 죄 뜯어서 에, 그냥 해서 국 끓이죠.}
10503 @ 아 수제비는 어트게 해 먹어? {아, 수제비는 어떻게 해 먹어?}
10503 # 거기다 인자 밀까루 개서 주거게다 밀까루 갠 눔 놔가꾸. {거기다 인제 밀가루 개서 주걱에다 밀까가루 갠 놈 놔갖고.}
10503 @ 어~:: 호방 너쿠. {아, 호박 넣고.}
10503 # 저 수저 수저루 수저 자루 그걸루 이러케 이러케 떠서 끌른 디다 느며는 음 국쑤제비. {저 숟가락 숟가락으로, 숟가락 자루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떼어서 끓는 데다 넣으면은 음, 국수제비.}
10503 @ 음 국쑤제비. {음, 국수제비.}
10503 # 호박 국쑤제비. {호박 국수제비.}
10503 @ 거욱 그 호방 닙쌔도 보니까 어뜬 디 가니까 뒌장을 찌거 멍는 디도 이꾸 그러더라구요. {그렇고 그 호박 잎사귀도 보니까 어떤 데 가니까 된장을 찍어 먹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10503 # 예 뒌장이루두 머꾸 간장이루두 싸 머꾸. {예, 된장으로도 먹고, 간장으로도 싸 먹고.}
10503 @ 다양아게 먹나부조? {다양하게 먹나보죠?}
10503 # 예. {예.}
10503 @ 까지 심 마 여기 그 까지 옌나리 시머찌오? {가지 심, 마, 여기 그 가지 옛날에 심었죠?}
10503 # 예. {예.}
10503 @ 그 그거뚠 너물 해 먹찌오? {그 그것도 나물 해 먹죠?}
10503 # 그러초 국 그저니는 자 노인덜 이 지비 이꾸 허며는 허기 시운 거시 그 호바꾸기 젤 시워 저 곡 저기 가지꾹. {그렇죠, 국 그전에는 인제 노인들 이 집에 있고 하면은 하기 쉬운 것이 그 호박국이 젤 쉬워, 저 국 저기 가짓국.}
10503 @ 가지꾸기요? {가짓국이요?}
10503 # 에. {예.}
10503 # 거기다가 가지를 쩌개서 쌀무문 거기에 인자 건저서 무치어. {거기다가 가지를 쪼개서 삶으면, 거기에 인제 건져서 무쳐.}
10503 @ 아. {아.}
10503 # 꿰소곰 느쿠 마늘 찡 거 그렁 거 느쿠 무처서 머꾸 나머지 노인 냥반 이쓰믄 거기다 물 물 타. {깨소금 넣고, 마늘 찧은 거, 그런 거 넣고, 무쳐서 먹고 나머지 노인 양반 있

으면 거기다 물, 물 타.}
10503 @ 음. {음.}
10503 # 물 타서 가지가 농나너게 이르케 무치며는 물 타문 인자 국처럼. {물 타서 가지가 무르게 이렇게 무치면은 물 타면 인제 국처럼.}
10503 @ 아::! {아!}
10503 # 가지꾹. {가짓국.}
10503 @ 가지꾹 아::! {가짓국 아!}
10503 # 에 그르케서 노이 냥반덜 이쓰믄 자 구 기씨야 머긍게 그 저니 그래짜나요 그리서. {예, 그렇게 해서 노인 양반들 있으면 인제 국 있어야 먹으니까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10503 @ 여긴 음 여기는 물 글 오이를 무뢰라 구라데요? {여긴 음, 여기는 물, 그걸 오이를 물외라 그러데요?}
10503 # 무레. {물외.}
10503 @ 에 무레::두 무슨 제 김치 해머거찌오 아니 참 무레 소바기도 해머기찌오 무레다? {예, 물외도 무슨 인제 김치 해먹었죠, 아니 참 물외 소박이도 해 먹었죠, 물외에다.}
10503 # 그르초 속빼기 저기 부추 느쿠 음 무레 잘쪽잘쪼어게 짤러서 뽀개서 가내가주구 간 가녀서 다물 때 근 부추::루 양녀먼 사이 사이 느서 이르케 다므믄 속빼기. {그렇죠, 소박이 저기 부추 넣고 음, 물외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쪼개서 간해가지고 간, 간해서 담을 때 그 부추로 양념한 사이사이 넣어서 이렇게 담으면 소박이.}
10503 @ 음. {음.}
10503 @ 그거 마시써요? {그거 맛있어요?}
10503 # 오이 짠지 속빼기. {오이 김치 소박이.}
10503 @ 오이지라구 그게 뭐냐면. {오이지라고 그게 뭐냐면.}
10503 # 오이지. {오이지.}
10503 @ 오이지조? {오이지죠?}
10503 # 예. {예.}
10503 @ 그 다미 오이 쩌 어떤 집 까니까 오이를 무슨 뒌장인가 어따 쩌 바가서 글 짠지라고 아나 그 뭐라 구래요 거? {그 다음에 오이 저 어떤 집 가니까 오이를 무슨 된장인가 어디다 저 박아서 그걸 짠지라고 하나, 그 뭐라 그래요 그?}
10503 @2 장아치. {장아찌.}
10503 @ 장아찌. {장아찌.}
10503 # 네 장아치. {네, 장아찌.}
10503 @ 그렁 거뚜 하나요 오이지? {그런 것도 하나요, 오이지?}
10503 # 예 그르치오. {예 그렇죠.}
10503 # 그걷슨 인제 소굼꾹 타 노쿠서. {그것은 인제 소금국 타 놓고서.}
10503 @ 네. {네.}
10503 # 음 오이를 알마::즐 때 너머 새두 안 종게 머끼 알마::즐 때 따다 그기 자꾸 저려유. {음, 오이를 알맞을 때, 너무 익어도 안 좋으니까 먹기 알맞을 때 따다 거기 자꾸 절여요.}
10503 @ 소금꾸기다 아. {소금국에다 아.}
10503 # 그 소금꾸기다 느쿠 느쿠 저려따가 그 늠 양중이 인자 노라너::게 돼아요. {그 소금국에다 넣고, 넣고 절였다가 그 놈 나중에 인제 노랗게 돼요.}

10503 # 거기다 저리면 쪼글쪼그래가꾸 노라너지. {거기다 절이면 쪼글쪼글해갖고 노랗지.}
10503 # 그러면 그기다 웨간장 일본 간장 짜지 앙케 새깔도 으ㅡ너게 그르케 해서 소굼꾸거구 호아배가주구 부서 놔따 멍넌 사람두 이꾸. {그러면 거기다 왜간장, 일본 간장 짜지 않게, 색깔도 연하게 그렇게 해서 소금국하고 혼합해가지고 부어 놨다가 먹는 사람도 있고.}
10503 @ 아::! {아!}
10503 # 그 늠 시처서 그냥 양녀미루 무처붜서 멍는 사람두 이꾸. {그 놈 씻어서 그냥 양념으로 무쳐서 먹는 사람도 있고.}
10503 @ 그게 오이지구나! 그너이까 그지? {그게 오이지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10503 # 예. {예.}
10503 @ 오이 짠지라능. {오이지라는 [x것이x].}
10503 @ 다른 뭐 또 채소로 만드는 음식 읍써써요 혹씨 인자 생 뭗 쑥깓꺼틍 건::는? {다른 뭐 또 채소로 만드는 음식 없었어요, 혹시 인제 생, 뭣 쑥갓 같은 거는?}
10503 # 쑥깓 쑤까슨 저기조 쑤깓 나물. {쑥갓, 쑥갓은 저기죠 쑥갓나물.}
10503 @ 아. {아.}
10503 # 거뚜 내내 시금치마냥 살짝 디처서 무처서 렁게 나물리구 쑤깐 너물. {그것도 내내 시금치처럼 살짝 데쳐서 무쳐서 그러니까 나물이고 쑥갓나물.}
10503 # 쑤까 짠지. {쑥갓 짠지.}
10503 @ 아 짠지 다머써요 쑤까또? {아, 짠지 담았어요, 쑥갓도?}
10503 # 예 짠지 그 참 버무려서 멍능 거 그 참 머그야지 오래 다머 놔두능 건 안 조쿠. {예, 짠지 그 참 버무려서 먹는 거, 그 참 먹어야지 오래 담아 놔두는 건 안 좋고.}
10503 @ 바로 멍능 거조 쑤까슨 예. {바로 먹는 거죠 쑥갓은 예.}
10503 # 예. {예.}
10503 # 그러고 찌개. {그리고 찌개.}
10503 @ 아. {아.}
10503 # 무슨 생선 찌개 그런 디다 쑥깓 느며는 향그던 냄새 낭게 조 조쿠. {무슨 생선찌개 그런 데에다 쑥갓 넣으면은 향긋한 냄새 나니까 좋, 좋고.}
10502 @ 버섣 꺼틍 거뚜 재배를 아 나조 이 동네는 버섣 째배는? {버섯 같은 것도 재배를 안 하죠, 이 동네는 버섯 재배는?}
10502 # 버섣 재배 허는 디두 이꾸 허여유 저 지비어구 저 쪽 지버구는 버서 째배 허는디. {버섯 재배 하는 데도 있고 해요, 저 집하고 저 쪽 집하고는 버섯 재배 하는데.}
10502 # 그 저니는 버서슬 헐라면 지블 꽉 무꺼가꾸 춤 요만::쓰거게 딱 짤러쎄유. {그 전에는 버섯을 하려면 짚을 꽉 묶어갖고 춤 요만큼씩하게 딱 잘랐어요.}
10502 # 기게루 다 짤러서 그걸루 버서슬 해꺼드뉴. {기계로 다 잘라서 그걸로 버섯을 했거든요.}
10502 @ 네. {네.}
10502 # 근디 지끄믄 꼭 저 솜처럼 생견는디 그 저니 메나 모캐씨마냥. {그런데 지금은 꼭 저 솜처럼 생겼는데 그 전에 면화, 목화씨처럼.}
10502 @ 에. {예.}
10502 # 생깅 거시 막 큰:: 등칭이루 이떼 그게 뭥가 그거 가따가 물 루쿠 인자 버무려 노테유. {생긴 것이 막 큰 덩어리로 있데, 그게 뭔가 그것 갖다가 물 넣고 인제 버무려 놓데요.}
10502 @ 아. {아.}

10502 # 그래가꾸 그걷 다머다 노쿠 거기다 버섣 허드라구유. {그래갖고 그것 담아다 놓고 거기다 버섯 하더라고요.}
10502 @ 그렁 거 하기 저네는 사네 가서 좀 버서슬 딴나요? {그런 거 하기 전에는 산에 가서 좀 버섯을 땄나요?}
10502 # 그 저니는 사니서 자연산 나는 늠 따서 머그믄 마시쩌찌우 그른디 지끄믄 참나무. {그 전에는 산에서 자연산 나는 놈 따서 먹으면 맛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참나무.}
10502 @ 네. {네.}
10502 # 어 머서 참나무 짤러서 다 기게루 구녁 뜨러가주구 거기닥 규늘 느트라구유. {어, 어디서 참나무 잘라서 다 기계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균을 넣더라고요.}
10502 # 버섣 종자 균. {버섯 종자 균.}
10502 @ 예 에. {예 예.}
10502 # 규늘 느며는 물 이러케 가끔 축추거게 주며는 저기 나와. {균을 넣으면 물 이렇게 가끔 축축하게 주며는 저기 나와.}
10502 @ 버서시요? {버섯이요?}
10502 # 저기 버서시 극. {저기 버섯이 그.}
10502 @ 손 뭐라구라지. {손 뭐라고 하지.}
10502 # 느타리버섣. {느타리버섯.}
10502 @ 아. {아.}
10501 # 아니 그 지비루 헝 게. {아니 그 짚으로 한 게.}
10501 @ 느타리버서시고. {느타리버섯이고.}
10501 # 느타리시구 그 참나무버서슨 뭐 빼서시라고 핸는디. {느타리고 그 참나무버섯은 뭔 버섯이라고 했는데.}
10501 @2 송이? {송이?}
10501 @2 송이. {송이.}
10501 # 송이버서 아냐. {송이버섯 아냐.}
10501 @ 아 송이버서슨 사네 나능 거구 응. {아, 송이버섯은 산에 나는 거고 응.}
10501 # 송이버서슨 송이버서슨 하야내가꾸 막 무::뚜기 더 크드라구 장이 나는 늠 보먼 건 비싸. {송이버섯은, 송이버섯은 하얘갖고 막 뭉뚝하게 더 크더라고 장에 나는 놈 보면 그건 비싸.}
10501 # 근디 참나뫼다 헝 게 뭐신디 이~ 금방. {근데 참나무에다 한 게 뭣인데 잉, 금방.}
10501 @ 저두 잘 에 에. {저도 잘 예 예.}
10501 # 안 나오네 더 당채 이런 디두 메 토막썩 혀서 노쿠 따머꺼드뉴 버섣. {안 나오네, 다 당최 이런 데도 몇 토막씩 해서 놓고 따먹거든요 버섯.}
10501 @ 음 사네서는 버서슬 주로 옌날 뭐 버서시라고 하나요 사네 가믄? {음, 산에서는 버섯을 주로 옛날 뭐 버섯이라고 하나요 산에 가면?}
10501 # 사니는 버서시 이~ 싸리버섣 서리버섣 퍼리버섣 그런 여러 가지 이써써유. {산에는 버섯이 잉, 싸리버섯, 서리버섯, 퍼리버섯 그런 여러 가지 있었어요.}
10501 @ 게 입 싸리버섣 꺼틍 건 좀 따와써요 가서? {그게 잎 싸리버섯 같은 건 좀 따왔어요, 가서?}
10501 # 따 와찌요. {따 왔지요.}
10501 # 싸리버섣::뚜 따서두 머꾸. {싸리버섯도 따서도 먹고.}

10501 # 싸리버섣시 싸리버서슨 막 잘게 종장종장종장 나가주구 냥 덩어리루 이써유 싸리버서슨 냥. {싸리버섯이 싸리버섯은 막 잘게 종장종장종장 나가지고 그냥 덩어리로 있어요, 싸리버섯은 그냥.}
10501 # 그르케두 따루 머꾸. {그렇게도 따 먹고.}
10501 # 서리버서시라구 서리 올 무러비 데며는 솔라무 미티 그런 디가 버서시 나거드뉴 뽈쏙뽈쏙어게. {서리버섯이라고 서리 올 무렵이 되면은 소나무 밑에 그런 데 버섯이 나거든요 볼쏙볼쏙하게.}
10503 # 그러믄 그걷 따다 덴장 해머그믄 마시써. {그러면 그것 따다 된장 해먹으면 맛있어.}
10503 # 서리버섣 참 마시써. {서리버섯 참 맛있어.}
=1 @ 그 싸리버서슨 도기 이따 구라데요 그래서 뭐 싼 쌈는다구 하덩 거 거튼데 처메. {그 싸리버섯은 독이 있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뭐 삶, 삶는다고 하던 거 같은데 처음에.}
=1 # 그렁 걷 따다 싸리버서시 지끔 저기 버섣처럼 생겨 팽이버섣. {그런 것 따다 사리버섯이 지금 저기 버섯처럼 생겨 팽이버섯.}
=1 # 팽이버섣 이짜뉴 그거 거버듬 쭘 굴거가주구. {팽이버섯 있잖아요, 그거 그거보다 좀 굵어가지고.}
=1 @ 예. {예.}
=1 # 그르케 생기뜨라구유 근디 그걷 도기 이씅게 디처서 먹찌우 쌀머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독이 있으니까 데쳐서 먹죠, 삶아서.}
=1 @ 쌀마서. {삶아서.}
=1 # 에. {예.}
=1 @ 데처 머거요? {데쳐 먹어요?}
=1 # 예. {예.}
=1 # 쌀머서. {삶아서.}
=1 # 퍼리버서슨 버섣 등어리가 째끄 째끄만::써건디 깜작깜작깜작허게 점 니써요. {퍼리버섯은 버섯 등허리가 조금, 조그만씩한데 깜작깜작깜작하게 점 있어요.}
=1 @ 오::!. {오!.}
=1 # 근디 그거는 머그믄 중는대요 사람. {그런데 그거는 먹으면 죽는대요, 사람.}
=1 @ 몸 머 몸 멍는. {못 먹, 못 먹는.}
=1 # 몸 멍는 버서시요. {못 먹는 버섯이에요.}
=1 @ 독빠서싱가비요? {독버섯인가 봐요?}
=1 # 예. {예.}
=1 # 퍼리 퍼리버서슨 머그먼 주거 안 머거. {퍼리, 퍼리버섯은 먹으면 죽어 안 먹어.}

1.5.3. 밑반찬의 조리

10513 @ 금 오저네 인제 해떵 건데요. {그럼 오전에 인제 했던 건데요.}
10513 @ 아까는 제 국쑤꺼지 만드넌는데. {아까는 인제 국수까지 만들었는데.}
10513 @ 이 지역에서 주로 해멍는 반찬을 만드는 그 재료하고 그 만드는 방버베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지역에서 주로 해먹는 반찬을 만드는 그 재료하고,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0513 @ 예드머 선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 어트게 하능 경가요? {예를 들면 무슨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513 # 고치장 만드는 방버뵤? {고추장 만드는 방법요?}
10513 @ 예. {예.}
10513 # 고치장은 고추까루 빠숴서 쌀:: 빠수구 그래가주구 그 싸를 여찌름이루 세켜유. {고추장은 고춧가루 빻아서 쌀 빻고 그래가지고 그 쌀을 엿기름으로 삭혀요.}
10513 # 여찌름 물루 세켜가지구 그 놈 팔::팔 끌려서 인자 볼고로머게 여뗄라구 인자 끌커드뉴 그러면 그 눔. {엿기름물로 삭혀가지고 그 놈 팔팔 끓여서, 인제 볼그스름하게 엿 되려고 인제 끓거든요, 그러면 그 놈.}
10513 # 거기다 고추까루 느쿠 이케 저서서 만들지우. {거기다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저어서 만들죠.}
10513 @ 예. {예.}
10513 # 근디 지그믄 엉:: 거기다 쏘주두 느테유? {그런데 지금은 응, 거기다 소주도 넣데요?}
10513 # 인자 방부제 드러서 괴지 아느라구 그러나벼. {인제 방부제 들어 있어서 괴지 않으라고 그러나 봐요.}
10513 @ 음. {응.}
10513 # 소주 노쿠 그러케 다머유 지끄믄. {소주 넣고 그렇게 담아요, 지금은.}
10513 @ 그믄 고 다마서 감 인제 그 소 소그물 르나요 그기다가 그면? {그러면 고 담아서 그럼 인제 그 소, 소금을 넣나요, 거기다가 그러면?}
10513 # 예 소구미나 소굼꾹. {예, 소금이나 소금국.}
10513 @ 음. {응.}
10513 # 소굼꾹 팔팔 끌려서 인자 놔두먼 착 가라안지믄 그 눔 부스야 조치오. {소금국 팔팔 끓여서 인제 놔두면, 착 가라앉으면 그 놈 부어야 좋죠.}
10513 # 찌끼 좀 가랑꾸. {찌꺼기 좀 가라앉고.}
10513 @ 금 그 그 버무링 걸 어따 너요? {그럼 그, 그 버무린 걸 어디다 넣어요?}
10513 @ 기냥 붜. {그냥 부어.}
10513 # 단지유. {단지요.}
내 10513 @ 단지다 너서. {단지에다 넣어서.}
10513 @ 예. {예.}
10513 @ 이제 바로 먹찐 모타조? {이제 바로 먹진 못하죠?}
10513 # 메주까루 는: 누문 뜬내 나서 바루 몸 먹꾸 메주까루 안 누쿠 헌 누문 바루 머글 쑤 이써유. {메줏가루 넣은 놈은 뜬내 나서 바로 못 먹고, 메줏가루 안 넣고 한 놈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1051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513 # 에. {예.}
10513 @ 메주까루 능 건 한 얼마나 둬따 머거요? {메줏가루 넣은 건 한 얼마나 두었다 먹어요?}
10513 # 메주까루 능 거슨 아마 한 둬달 이씨야 그 메주까루 램새가 웁써질 껄려 아마. {메줏가루 넣은 것은 아마 한 두어 달 있어야 그 메줏가루 냄새가 없어질 걸요 아마.}

10513 @ 옌나레는 고추장이 참:: 큰 반차니여쪼? {옛날에는 고추장이 참 큰 반찬이었죠?}
10513 # 그르치우. {그렇죠.}
10513 # 고치장 큰 반차인디 지끔더른 고치장 잘루 암 머거유. {고추장 큰 반찬인데 지금들은 고추장 잘 안 먹어요.}
10513 @ 그럼 된장 만드능 거요 장 만드능 거. {그럼 된장 만드는 거요, 장 만드는 거.}
10513 # 메주 쒀서 만들지오 된장은. {메주 쒀서 만들죠, 된장은.}
10513 # 메주 인자 콩이루 메주 쒀:서 그 늠 빠숴서 이르케 메주뗑이를 맨드러 놔따가 간장이루 우려내구 된장 맨들기두 허구. {메주 인제 콩으로 메주 쒀서, 그 놈 빻아서 이렇게 메줏덩이를 만들어 놨다가 간장으로 우려내고, 된장 만들기도 하고.}
10513 # 간장 아 누려내구 그냥 메주뗑이루 그냥 된장을 그냥 만들기두 허구 그래요. {간장 안 우려내고, 그냥 메줏덩이로 그냥 된장을 그냥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10513 @ 그니까 예 드문 그 콩얼 쩌서 메주를 만드러서 어트게 걍 다러 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콩을 쪄서 메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냥 달아매[x나요x]?}
10513 # 근디 에 에 다르 매지오. {그런데 예 예, 달아매죠.}
10513 @ 어따 다러 매써요? {어디다 달아맸어요?}
10513 # 지비루 지비루 이케 무꺼서 이런 디다 다러 매둬요 처마 끄티 그런 디다. {짚으로, 짚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런 데다 달아매둬요, 처마 끝에 그런 데다.}
10513 # 다러 매 놔따가 어~ 아 너머 안 뜨면 인저 떠서 박쓰 그런 디다 다머 놔 두지유. {달아매 놨다가 잉, 아 너무 안 뜨면 인제 띄워서 상자 그런 데다 담아 놔두죠.}
10513 # 집 한 채쓱 느쿠 다머 놔둬 그러먼. {짚 한 채씩 넣고 담아 놔둬 그러면.}
10513 # 한:: 달 쩡도 그르케 다머 노면 떠유. {한 달 정도 그렇게 담아 놓으면 떠요.}
10513 @ 옌나레 봄 시골 가니까 선반 방에다 매다라 논 디뚜 이뜨라고요? {옛날에 봄에 시골 가니까 선반, 방에다 매달아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10513 # 뜬내 나유. {뜬내 나요.}
10513 @ 냄새 나요? {냄새 나요?}
10513 # 에. {예.}
10513 @ 금 그 노물 제 다물 때는 이제 뭐가 곰팡이 낑 거. {그럼 그 놈을 인제 담을 때는 인제 뭐가 곰팡이 낀 거.}
10513 # 시치야지우 다. {씻어야죠, 다.}
10513 @ 씨처서. {씻어서.}
10513 # 인자 솔로 따꺼서. {인제 솔로 닦아서.}
10513 @ 어. {응.}
10513 # 머 인자 물 쪽 빠지게 써놔서 말려 말려가주구 그 늠 쩌개서 된장허구. {뭐 인제 물 쪽 빠지게 세워놔서, 말려, 말려가지고 그 놈 쪼개서 된장하고.}
10513 @ 어따 너여 다물 때? {어디다 넣어요, 담을 때?}
10513 # 쩌 쩌개서 인잗 저런 다라 그런 디다가 음 심시머게 소굼물 타서 징거지게 당거유. {쪼, 쪼개서 인제 저런 대야 그런 데에다가 음, 심심하게 소금물 타서 잠겨지게 담가요.}
10513 # 한 니틀 당거따가 그 물 쪽 따러 내비리구 그 누믈 치대야 인자 부:러서 치대지지 메주떵어리 그 참 허머는 안 치대지거드뇨. {한 이틀 담갔다가 그 물 쪽 따라 내버리고, 그 놈을 치대야 인제 불어서 치대지지 메줏덩어리 그 참 하며는 안 치대지거든요.}
10513 # 그냥 해서 치대 놔서 간 맏께 이냥 치대노믄 간장 암 빠진 느미 마시따구 마시써

유. {그냥 해서 치대 놔서 간 맞게 이냥 치대놓으면 간장 안 빠진 놈이 맛있다고, 맛있어요.}
10513 # 간장 뺀 늠보다. {간장 뺀 놈보다.}
10513 @ 이 단지 거튼 디다 너따가 그거다가 소굼물두 느코. {이 단지 같은 데다 넣었다가 그거에다가 소금물도 넣고.}
10513 @ 그 뭐지? {그 뭐지?}
10513 # 에. {예.}
10513 @ 그 수떵어리 노트 노트라고요? {그 숯덩어리 넣더, 넣더라고요?}
10513 @ 꼬추둔 누쿠? {고추도 넣고?}
10513 @ 그애서 한참 지난 뒤에 고기선 간장 우려 내서 간장도 하고 치대고 그러 거뚜 하나요? {그래서 한참 지난 뒤에 거기선 간장 우려 내서 간장도 하고 치대고 그런 것도 하나요?}
10513 # 예 그냥 해찌유 나도 그냥 해요. {예, 그냥 했죠, 나도 그냥 해요.}
10513 # 간장 뗘:서 그냥 따꺼서 소궁꾹 바탱이여다. {간장 띄워서 그냥 닦아서 소금국 바탱이에다.}
10513 @ 네. {예.}
10513 # 인저 느쿠 소궁꾹 타서 붜유. {인제 넣고 소금국 타서 붜요.}
10513 @ 그러초. {그렇죠.}
10513 # 그러믄 닌자 짠무리니까 메주가 다 뜨지유 위루. {그러면 인제 짠물이니까 메주가 다 뜨죠, 위로.}
10513 # 그러믄 짱가 싱경가 몰롤 쩌기는 싱거며는 고래기 찌구 안 조커드뇨 그렁게. {그러면 짠가, 싱거운가 모를 적에는 싱거우면은 골마지 끼고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10513 # 게란 느 보먼 게라니 뜰 쩡도먼 겐찬타 구러더라구유. {계란 넣어 보면, 계란이 뜰 정도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10513 # 그냥 해서 거이다 순 누쿠 꼬추 누쿠 창꽤 쪼꿈 허치구 그냥 해서 딱 봉해서 놔두믄 한 달 찜 되먼 한 달 약 한 달찜 되며는 메주가 다 부:러요. {그냥 해서 거기다 숯 넣고, 고추 넣고, 참깨 조금 흩이고 그냥 해서 딱 봉해서 놔두면 한 달쯤 되면은 메주가 다 불어요.}
10513 @ 음. {음.}
10513 # 그래가주구 그 늠 건저서 거기다 보리쌀 쌀무구 콩 메주 쑤:구 콩 쪼매 둬:따 그 눔 메주 쑤:구 보리쌀 폭:: 고와지게 쌀마서 그 놈 건진 느머구 가치 치대놔유. {그래가지고 그 놈 건져서 거기다 보리쌀 삶고, 콩 메주 쑤고, 콩 뒀다가 그 놈 메주 쑤고, 보리쌀 폭 고아지게 삶아서 그 놈 건진 놈하고 같이 치대놔요.}
10513 @ 보리쌀. {보리쌀.}
10513 # 에. {예.}
10513 # 그러먼 마시써유. {그러면 맛있어요.}
10513 @ 아. {아.}
10513 # 덴장. {된장.}
10513 @ 그럼 간장 그 아까 마런 그 그 머야 된 저 머야 바탱이다 능 걸 거기서 인제 물 그 국 무리 이쓸 꺼 아녀요 그람 무리. {그럼 간장 그 아까 말한, 그, 그 뭐야 된, 저 뭐야 장독에다 넣은 걸 거기서 인제 물, 그 국 물이 있을 거 아네요, 그럼 물이.}

10513 # 예 그언 간장. {예, 그건 간장.}
10513 @ 그걸 어트게 기냥 해 머 아니먼. {그걸 어떻게 그냥 해 먹어, 아니면?}
10513 # 간장 이자 그 느문 저기지오. {간장 인제 그 놈은 저기죠.}
10513 # 머 메주 다 건지구서 그 노물 인자 메주떵어리 그릉 거시 쏘다징 거 드러쓰니까 체루 짝 바처가주구 대려유. {뭐 메주 다 건지고서 그 놈을 인제 메줏덩어리 그런 것이 쏟아진 거 들었으니까 체로 짝 밭여가지고 달여요.}
10513 # 소티다. {솥에다.}
10513 @ 아. {아.}
10513 # 팔::팔 끌케 대려 그냥 해서. {팔팔 끓게 달여 그냥 해서.}
10513 # 장꽝에 그 바탱이다 가따 부서 놔두먼 일 려니구 이 녀니구 그냥 이써요. {장독대에 그 바탱이에다 갖다 부어 놔두면 일 년이고 이 년이고 그냥 있어요.}
10513 @ 뜨거 저 뜨거웅 걸. {뜨거, 저 뜨거운 걸.}
10513 @ 예. {예.}
10513 # 뜨건 놈 가따 부서서 딱 더퍼노쿠. {뜨거운 놈 갖다 부어서 딱 덮어놓고.}
10513 @ 오래 이써도 되는군뇨 간장은 음. {오래 있어도 되는군요, 간장은 음.}
10513 @ 된장은 오래 모 디써요 된장은? {된장은 오래 못 있어요, 된장은?}
10513 # 된장두 일 련 무거두 상과 늡찌오. {된장도 일 년 묵어도 상관없죠.}
1051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513 @ 그럼 제 구걸 만드능 건 어트게 만드셔써요 국? {그럼 인제 국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셨어요, 국?}
10513 # 구규? {국요?}
10513 @ 예 밥 국 할 때. {예, 밥, 국 할 때.}
10513 # 국헐 쩌기 인자 씨라구 그렁 걸루 구끌 끄릴라면 된장찐 허구 된장 쪼꿈 푸러서 된장찐 허구. {국할 적에 인제 시래기 그런 걸로 국을 끓이려면, 된장진하고 된장 조금 풀어서 된장진하고.}
10513 # 시라구 아니구 무수꾹 그렁 거는 그냥 끄리구유. {시래기 아니고 무국 그런 거는 그냥 끓이고요.}
10513 @ 아. {아.}
10513 # 그냥 간장 느쿠 간장 에. {그냥 간장 넣고, 간장 예.}
10513 @ 된장 안 드러가 간장 느코 음. {된장 안 들어가 간장 넣고 음.}
10513 @ 게 주로 마니 멍는 게 씨라구꾹 무수꾹. {그게 주로 많이 먹는 게 시래기국, 무국.}
10513 # 예 예. {예. 예.}
10513 @ 음. {음.}
10513 @ 그 아까 마란 쑥 쑥뚜 국끄려 머그신다고 그래쪼? {그 아까 말한 쑥, 쑥도 국끓여 먹으신다고 그랬죠?}
10513 # 보미는 쑥 일를 때 그 보미 어릴 때는 쑥국 끄리지우. {봄에는 쑥 이를 때, 그 봄에 어릴 때는 쑥국 끓이죠.}
10513 @ 에. {예.}
10513 # 츠미 나서. {처음 나서.}
10513 @ 쑤꾸 쑤 꾸릴 때는 된장을 좀 느나요? {쑥국, 쑥 끓일 때는 된장을 좀 넣나요?}
10513 # 그르치우. {그렇죠.}

10513 @ 네. {네.}
10513 # 그늠 찌개::를 해 잡쑤조? {그럼 찌개를 해 잡수죠?}
10513 @ 네. {네.}
10513 @ 찌개는 주로 무슨 찌개를 잡써요? {찌개는 주로 무슨 찌개를 잡숴요?}
10513 # 명태찌개를 이냥 비싸지 아넝 거 명태찌개 지금 조기찌개 가틍 거 머 그렁 거뚜 혀지유 다 조기찌개 아구찌개. {명태찌개를 이냥 비싸지 않은 거 명태찌개, 지금 조기찌개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하죠, 다 조기찌개, 아구찌개.}
10513 # 이~ 꼬깨찌개 그릉 거 다 허 허는디 비링 걷 안 조아 허는 사람은 명태찌개. {잉, 이 꽃게찌개 그런 거 다 하, 하는데 비린 거 안 좋아 하는 사람은 명태찌개.}
10513 @ 음. {음.}
10513 @ 그믄 보끔 보끄능 거 이쪼 그건? {그러면 볶음, 볶는 거 있죠, 그건?}
10513 @ 아까 인제 멸치보끔도 이쓸 꺼고. {아까 인제 멸치볶음도 있을 거고.}
10513 # 고추 보꾸구. {고추 볶고.}
10513 @ 고추 보꾸고. {고추 볶고.}
10513 # 고 그 쪼 꽈루꼬추 찌까넝 거 그거 으 새우 느쿠 보꾸지우 그거뚜. {고, 그 쪼 꽈리고추 조그만 거 그거 응, 새우 넣고 볶죠 그것도.}
10513 # 그러구 멸치두 보꾸구 저기 먿 뭗 뿌려 그게 뭗 구녁 떠러징 거 그 뭗. {그리고 멸치도 볶고, 저기 뭣, 뭣 뿌리야, 그게 뭣 구멍 뚫어진 거 그 뭣.}
10513 @2 연근. {연근}
10513 # 연근 그거뚜 보꿀 쑤 읻꾸. {연근 그것도 볶을 수 있고.}
10513 # 짜질짜질허게 그냥 간장 느쿠 보꽈서 먹찌우. {자글자글하게 그냥 간장 넣고 볶아서 먹죠.}
10513 @ 그 담 제 그 구이 구이는 제 주로 생선구이가 이쓸 꺼고. {그 다음 인제 그 구이, 구이는 인제 주로 생선구이가 있을 거고.}
10513 # 예 구 구능 거는 으 꽁치나 어 먿 조기두 궈 머꾸 다 생선 말링 거는 다 궈 머글 쑤 이써유 궈 머거유. {예, 굽, 굽는 거는 음, 꽁치나 어, 뭣 조기도 구워 먹고, 다 생선 말린 거는 다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구워 먹어요.}
10513 # 궁 걷 쪼아 하는 사라믄 구구 쩌서 이 멍는 걷 조아허는 사라믄 쩌구 그냥 해서 먹찌우. {구운 것 좋아 하는 사람은 굽고, 쪄서 이,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찌고 그냥 해서 먹죠.}
10513 @ 아 글 또 어째 찔 땐 어트게 쩌요 바 바 밥. {아, 그걸 또 어떻게 찔 때는 어떻게 쪄요, 밥, 밥, 밥.}
10513 # 찔 때는 그저니는 큰 가마소싱게 그 그르시다 다머서 밥 한 쪽 구텡이다 놔 두문 잘 쩌지거드뉴. {찔 때는 그전에는 큰 가마솥이니까, 그 그릇에다 담아서 밥 한 쪽 구석에다 놔두면 잘 쪄지거든요.}
10513 # 근디 지그믄 저런 밥통얼 사용허닝게 그르케 모: 찌구 그냥 이 그르시다 물 다머서 이게 구녁 송송 떠러징 건 이썬는디 거기다 디려노쿠 거기다 찌지오 찌능 거슨. {그런데 지금은 저런 밥통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못 찌고, 그냥 이 그릇에다 물 담아서 이렇게 구멍 송송 뚫어진 건 있는데 거기다 들여놓고 거기다 찌죠, 찌는 것은.}
10513 @ 그 다메 조리능 거 쪼려 멍능 거 생선쪼림도 이꼬. {그 다음에 조리는 거, 조려 먹는 거 생선조림도 있고.}

10513 # 콩조림 생선쪼림 그릉 거는 그냥 간장 느쿠 짜글짜글:: 해서 조리 먹찌우. {콩조림, 생선조림 그런 거는 그냥 간장 넣고 자글자글 해서 조려 먹죠.}
10513 @ 콩조림도 해머꾸요? {콩조림도 해먹고요?}
10513 # 예. {예.}
10513 @ 생채 생걸로 저 채소 막 버무려 멍는 거. {생채, 생걸로 저 채소 막 버무려 먹는 거.}
10513 # 그게 거쩌린디 마러자너먼 생채라 고는디 생채는 무수 무수 이르케 가셔서 그 무수루 거쩌리마냥 금방네 이르케 만드러 노능 게 생채. {그게 겉절이인데, 말하자면 생채라고 하는데, 생채는 무, 무 이렇게 썰어서 그 무로 겉절이처럼 금방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생채.}
10513 @ 그엄 무수 채카링가요 걸 가르먼 쭉쭉 빠지조? {그럼 무 채칼인가요, 그걸 갈면 쭉쭉 빠지죠?}
10513 # 예. {예.}
10513 @ 그걸로 해 하지? {그걸로 해 하지?}
10513 # 아이그. {아이고.}
10513 # 그걸루는 김장헐 때 마::니 가실 때나 고걸루 허루 그냥 칼루 가셔요 여내 그냥 가셔서. {그걸로는 김장할 때 많이 썰 때나 고걸로 하고, 그냥 칼로 썰어요. 여내 그냥 썰어서.}
10513 @ 그 담 뭔 제 튀겨 멍능 거또 이쪼 여기서요 음씩 그. {그 다음 뭐 인제 튀겨 먹는 것도 있죠, 여기서요, 음식 그.}
10513 # 그치우 고둥어 가틍 거 그렁 거 투기는 후라이파니 이때유 지그먼? {그렇죠, 고등어 같은 거, 그런 거 튀기는 프라이팬이 있데요 지금은?}
10513 # 딱 더퍼저가꾸 이쪼기루 놔따 이쪼기루 놔따 허능 거시 이써 그래가꾸. {딱 덮어져 갖고 이쪽으로 놨다, 이쪽으로 놨다 하는 것이 있어 그래갖고.}
10513 # 거기다 느쿠 기름 안 너두 그기다 느쿠 인자 끄느르머게 오래 놔두문 다 투겨지더라구유. {거기다 넣고, 기름 안 넣어도 거기다 넣고 인제 끄느름하게 오래 놔두면 다 튀겨지더라고요.}
10513 @ 그저네 보먼 또 그 다시마라능가 이런 또 미역 꺼튼 말링 거 이쪼 그렁 거또 좀 야깐 기르미다 튀겨가지고 반찬두 해머꾸 그러능 거 가떼요? {그전에 보면 또 그 다시마라던가 이런 또 미역 같은 말린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약간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반찬도 해먹고 그러는 거 같데요?}
10513 # 파래 말링 거뚜 튀기구 기 기르메다 그렁 거뚜 투기지유. {파래 말린 것도 튀기고, 기, 기름에다 그런 것도 튀기죠.}
10513 @ 음. {음.}
10513 @ 그 다메 그 머 채소 거틍 거 이켜서 멍 하능 음식또 이써요 채솔 이켜서? {그 다음에 그 뭐 채소 같은 거 익혀서 먹, 하는 음식도 있어요, 채소를 익혀서?}
10513 # 채소 이켜서 멍능 거는. {채소 익혀서 먹는 거는.}
10513 @ 가지. {가지.}
10513 # 그러치우 가지 그렁 거슨 다 채소 저기서 쑤까시니 무슨 저기 시금치니 그릉 거뚜 다:: 이켜서 머거요. {그렇죠, 가지 그런 것은 다 채소 저기서 쑥갓이니, 무슨 저기 시금치니 그런 것도 다 익혀서 먹어요.}

10513 # 이냥 생이루 상추 가틍 거 쑤깓 생이루두 멍는디 이켜서 마니 먹찌오. {그냥 생으로 상추 같은 거 쑥갓 생으로도 먹는데 익혀서 많이 먹죠.}
10513 # 꽨닙뚜 이켜서 만 생늠두 머꾸 이켜서두 머꾸. {깻잎도 익혀서 많[x이 먹고x], 생놈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10513 @ 아까 참. {아까 참.}
10513 # 꽨닙. {깻잎.}
10513 @ 꽨닙또 이 이 이켜서. {깻입도 이, 이, 익혀서.}
10513 # 그거는 인자 으 수넹이 짤러다가 쌀머서 그게 무칭 거드마뉴. {그거는 인제 응, 순 잘라다가 삶아서 그게 무친 거더구먼요.}
10513 @ 아. {아.}
10513 @ 그러믄 그건 뭐여? {그러면 그건 뭐야?}
10513 @ 이 자반 만들 때는 겔 아까 말씀드린 콩자반도 만든다 그래쪼? {이 자반 만들 때는 그걸 아까 말씀드린 콩자반도 만든다고 그랬죠?}
10513 # 그러치우 콩 콩자반도 허지우. {그렇죠, 콩, 콩자반도 하죠.}
10513 @ 요 요새 콩을 보까가지고 혹씨 보끈 디다가 무슨 간장 가틍 거 이케 잠깜 버무려서 머끼도 하나요 그 조리지 안 앙코 옌나레 혹씨 콩? {요, 요새 콩을 볶아가지고 혹시 볶은 데에다가 무슨 간장 같은 거 이렇게 잠깐 버무려서 먹기도 하나요, 그 조리지 않, 않고 옛날에 혹시 콩?}
10513 # 보까서는 앙쿠 콩을 쌈:뜨라구유. {볶아서는 않고 콩을 삶더라고요.}
1051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513 # 이~ 쌀머서 인자 딱따거지 아널 망큼 부루면 그거 이러케 조리지오. {잉, 삶아서 인제 딱딱하지 않을 만큼 불면 그거 이렇게 조리죠.}
10513 # 연 느쿠 간장 느쿠 그냥 양넘 너서 끄느르머게 짜글짜글쪼골 쪼리애서 먹찌우. {엿 넣고, 간장 넣고 그냥 양념 넣어서 끄느름하게 자글자글자글 조리해서 먹죠.}
10513 @ 그 다메 장 짱아치 마니 담쪼? {그 다음에 장, 장아찌 많이 담죠?}
10513 # 그러치우 그저니는 장아치두 마니 다머 머건는디. {그렇죠, 그전에는 장아찌도 많이 담아 먹었는데}
10513 # 지끄믄 짱 걷 암 멍는다구 인저 허니까 장아치 허면 짜자내유 그넝게. {지금은 짠 것 안 먹는다고 인제 하니까 장아찌 하면 짜잖아요, 그러니까.}
10513 # 지끄믄 자 란 다머 장아치두. {지금은 잘 안 담아 장아찌도.}
10513 @ 장아치는 무슨 장아치를 주로 옌나레 다마써요? {장아찌는 무슨 장아찌를 주로 옛날에 담았어요?}
10513 # 옌나리는 무뜽 무통 누미루 된장이다 찔러 놔두먼 장아치가 되구 대개는 된장이다 마니 느따가 차메장아치두 차메두 그 새퍼라넌 늠 싹 갈러서 인제. {옛날에는 뭉떵뭉떵한 놈으로 된장에다 찔러 놔두면 장아찌가 되고, 대개는 된장에다 많이 넣었다가 참외장아찌도, 참외도 그 새파란 놈 싹 갈라서 인제.}
10513 # 속 서:러서 쓴:게 쏘글 글거내구 간 저려따가 소구미다 간 저려따 인자 쪼골쪼골 가니 주그면 그 늠 시처서 물끼 쪼꿈 말려가주구 된장이다 이냥 찔러 놔두문 장아치가 돼씨우. {속 설어서 쓰니까 속을 긁어내고 간 절였다가, 소금에다 간 절였다 인제 쪼글쪼글 간이 죽으면, 그 놈 씻어서 물기 조금 말려가지고 된장에다 이냥 찔러 놔두면 장아찌가 됐어요.}
10513 @ 그래요? {그래요?}

10513 # 예. {예.}
10513 # 근디 지금더른 안테요. {그런데 지금들은 않데요.}
10513 # 그러믄 덴장 인자 물 생기고구 그런다구 자 라내먹찌. {그러면 된장 인제 물 생기고 그런다고 잘 안 해먹지.}
10513 @ 더둑뚜 장아치 담쪼? {더덕도 장아찌 담죠?}
10513 # 더더근 고추장이다 담찌우. {더덕은 고추장에다 담죠.}
10513 @ 음. {응.}
10513 # 더더근 고추장이다가 이너케 버무려 노트라구유. {더덕은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버무려 놓더라고요.}
10513 # 꼬치장. {고추장.}
10513 @ 건데 어트게 껍찌를 까요 다 일리리? {그런데 어떻게 껍질을 까요, 다 일일이?}
10513 # 껍찔 더덕 껍찌리 두터유 제법. {껍질, 더덕 껍질이 두꺼워요 제법.}
10513 # 그걷 다 베끼야지우. {그것 다 벗겨야죠.}
10513 @ 아 예. {아 예.}
10513 # 음 칼루 이너 뺑:: 도라 버서저유. {음, 칼로 이렇게 뺑 돌아 벗겨져요.}
10513 # 똥골::똥고러게 이냥 뗘:내먼. {동글동글하게 이냥 떼어내면.}
10513 # 그르케서 더덕 그르케서 더덕 더덕짱아치 이써유 혀유. {그렇게 해서, 더덕 그렇게 해서, 더덕, 더덕장아찌 있어요, 해요.}
10513 # 더덕짱아치두 고추장이다가 다머 노치우 버무려서 놔 두매. {더덕장아찌도 고추장에다가 담아 놓죠, 버무려서 놔두며.}
10513 @ 마늘짱아치도 다먼나요? {마늘장아찌도 담았나요?}
10513 # 예 마널두 까서 그 소팽마느리라구 지끔 장아치마느리 따로 이써유. {예, 마늘도 까서 그 소팽마늘이라고 지금 장아찌마늘이 따로 있어요.}
10513 # 그건 쪼기 마니 부터써. {그건 쪽이 많이 붙었어.}
10513 # 근디 그거시 으-너더라고유 머거보믄. {그런데 그것이 연하더라고요 먹어보면.}
10513 # 근디 그걸루 그냥 송아리 채 껍찔만 베끼구 마늘 부땡긴 쪽찌 채 그냥 당끼두 호구 그래따 인자 가온데 이르케 여피로 싹 쓰러서 그 마늘씨만 이냐케 빼먹찌우 장아치 바그먼. {그런데 그걸로 그냥 송아리 채 껍질만 벗기고 마늘 붙은 쪽 채 그냥 담기도 하고, 그랬다가 인제 가운데 이렇게 옆으로 싹 쓸어서 그 마늘씨만 이렇게 빼먹죠, 장아찌 박으면.}
10513 # 그러구. {그리고.}
10513 @ 음 어따 음 음. {음, 어디다 음 음.}
10513 # 간장어구 인자 짜지 앙케 거기다 저기 사이다나 소주나 느가꾸 다머유. {간장하고 인제 짜지 않게 거기다 저기 사이다나 소주나 넣어갖고 담아요.}
10513 @ 오. {오.}
10513 # 인저 그러믄 그냥 머거지구 인자 마늘씨 아주 까서 식초에다 좀 당거놔따 왜간장어구 사이다나 그릉 거 소주나어구 서꺼서 부서 놔두문 마늘 장아치 데지우. {인제 그러면 그냥 먹어지고, 인제 마늘쪽 아주 까서 식초에다 좀 담가 놨다 왜간장하고, 사이다나 그런 거 소주나하고 섞어서 부어 놔두면 마늘장아찌 되죠.}
10513 # 고기 먹꾸 헐 때 막 생마늘 머그먼 막 에리지오. {고기 먹고 할 때 막 생마늘 먹으면 막 아리죠.}
10513 # 매꾸 그렁게 그 매꾸 에린 마시 웁찌 그냥 허며는. {맵고 그러니까 그 맵고, 아린

맛이 없지, 그냥 하며는.}

1.7. 질병과 민간요법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1 @ 할머니 그 버지미짜나요 버짐 옌나레 피부에 버짐. {할머니, 그 버짐 있잖아요, 버짐, 옛날에 피부에 버짐.}
10701 # 버듬. {버짐.}
10701 @ 예 버듬. {예, 버짐.}
10701 @ 버드믄 주로 피부 어디에 나 나능 게. {버짐은 주로 피부 어디에 나 나는 게.}
10701 # 마름버듬 얼구리가 마니 나지. {마른버짐 얼굴에 많이 나지.}
10701 # 흐::연허여. {허연 해.}
10701 @ 아무 나이나 애나 어르니나 다. {아무 나이나, 애나, 어른이나 다.}
10701 # 어어어 마름버듬이라고 그 저네 지끄믄 그릉 거 웁뜨라고 그런디 그저니는. {어어어, 마른버짐이라고 그 전에 지금은 그런 거 없더라고, 그런데 그전에는.}
10701 # 영양 부처서 그러나 에, 마름버듬 생긴다고 어 이르케 얼구리가 이르케 흐::여너게 이르케 자꾸 똥골똥골허게 냥 흐여너더라고 마름버드미. {영양 부쳐서 그러나 에, 마른버짐 생긴다고 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자꾸 동글동글하게 그냥 허옇더라고 마른버짐이.}
10701 @ 어느 날 자고 이러나서 갑짜기 생기능 건 아닐 꺼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701 # 구치 춤:버터 어치게 스사루 안 조와가주구 자꾸자꾸 그르케 생기능 거지. {그렇지 처음부터 어떻게 서서히 안 좋아가지고 자꾸자꾸 그렇게 생기는 거지.}
10701 @ 이케 커지 머 커지면서 이르케 버드미 나요? {이렇게 커지며, 커지면서 이렇게 버짐이 나요?}
10701 # 그치 그게 얼구리 널::께 생깅 게 아니고 쪼꼼썩 쪼꼼썩 이케 여기저기가. {그렇지 그게 얼굴에 넓게 생긴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여기저기가.}
10701 @ 얼굴 여기저기가. {얼굴 여기저기가.}
10701 # 어어어 그르케 생기드라고. {어어어, 그렇게 생기더라고.}
10701 @ 허여케. {허옇게.}
10701 # 어 허여네 긍게 무슨 매끈 앙코 비눌 부틍 검마냥 이 이르케 생겨. {어, 허연 해 그러니까 무슨 매끈하지 않고 비늘 붙은 것처럼 이 이렇게 생겨.}
10701 # 껄꺼::리. {껄끄럽게.}
10701 @ 애나 애나 어르니나? {애나, 애나, 어른이나?}
10701 # 으~ 으~ 껄꺼::래가꼬 그르케 생기드라고. {응 응, 껄끄러워갖고 그렇게 생기더라고.}
10701 @ 주로 어떵 게저레? 그렁게.{주로 어떤 계절에? 그러니까.}
10701 # 봄파네. {봄날에.}

10701 @ 보메. {봄에.}
10701 # 에. {응.}
10701 @ 음 초 초보메? {응, 초, 초봄에?}
10701 # 보메 이제 나리 건조허구 막 이러케 저기헐 때 보미 마름버듬 생긴다구 애더리 그르케 생기고 오른두 그르케 얼구리 그르케 생기구 그러데. {봄에 이제 날이 건조하고, 막 이렇게 저기할 때 봄에 마른버짐 생긴다고, 애들이 그렇게 생기고, 어른도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생기고 그러데.}
10701 @ 그럼 그게 마름버드미라고 하면 짐버듬두 이써요 그러면? {그럼 그게 마른버짐이라고 하면, 진버짐도 있어요, 그러면?}
10701 # 진버드문 웁써 뭐 그건 몯 뜨꾸 얼구리 호::여니 히뜩히뜩히뜩허게 허걸게 그냥 마름버드미 생겨 그거떠러 마름버드미라구더라고. {진버짐은 없어, 뭐 그건 못 듣고, 얼굴에 허옇게 히뜩히뜩히뜩하게 허옇게 그냥 마른버짐이 생겨 그것더러 마른버짐이라고 하더라고.}
10701 @ 뭐 때매 마름버드미라고 하조? {뭣 때문에 마른버짐이라고 하죠?}
10701 # 뭐 진물 안 나고 그냥 생깅게 그렁 거지. {뭐 진물 안 나고 그냥 생기니까 그런 거지.}
10701 @ 주로 그렁 게 나면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주로 그런 게 나면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10701 @ 가렴나요? {가렵나요?}
10701 @ 따검나요? {따갑나요?}
10701 # 따갑:따::구 나는 안 생겨바써 근디. {따갑다고 나는 안 생겨봤어 근데.}
10701 @ 에 뭐에요? {예 뭐예요?}
10701 # 따갑따구두 앙쿠 그냥 얼구리 히뜩히뜩히뜩 그르케 생기데 근디 아이구 저 사람 저 사람 왜냥. {따갑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얼굴이 히뜩히뜩히뜩 그렇게 생기데 근데 아이구, 저 사람 저 사람 왜 이냥.}
10701 @ 매우 가렴나? {매우 가렵나?}
10701 # 가랴끼두 헐테지 저 사람 마름버듬 생견네 이러케 허더라구. {가렵기도 할 테지 저 사람 마른버짐 생겼네, 이렇게 하더라고.}
10701 @ 그럼 그게 옴나요 할머니? {그럼 그게 옮나요, 할머니?}
10701 @ 올마요? {옮아요?}
10701 @ 옴능 거 같아? {옮는 거 같아?}
10701 # 옴:는 중은 몰르거떼. {옮는 줄은 모르겠데.}
10701 @ 그럼 식꾸 중에도 나는 사라미 이꼬 아닌 사라미 이꼬. {그럼 식구 중에도 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10701 # 응. {응.}
10701 @ 뭐 그러케 옴능 거 가찌는 앙코? {뭐 그렇게 옮는 거 같지는 않고?}
10701 # 응 근디 도장뼝은 애들 올르드라구. {응, 근데 도장병은 애들 옮더라고.}
10701 @ 그게 뭐에요? {그게 뭐예요?}
10701 # 도장뼝은. {도장병은.}
10701 @ 그게 뭐에요? {그게 뭐예요?}
10701 # 그 도장뼝은 도장 찌근 검마냥 도돌도돌도돌 해가지구 똥골똥골해 똥골똥골혀 도장

찌근 거처럼. {그 도장병은 도장 찍은 것처럼 도돌도돌도돌 해갖고, 동골동골해, 동골동골해 도장 찍은 것처럼.}
10701 # 그러믄 지그::믄 요전::만 해도 그 도장뼝 애들 올리먼 병워니 가믄 막 남쌕 그거 발러 주더라고 남쌕 돈넝 거. {그러면 지금은 요전 만해도 그 도장병 애들 옮으면, 병원에 가면 막 남색 그것 발라 주더라고 남색 도는 것.}
10701 @ 도장뼝은 주로 피부 어디에 나요? {도장병은 주로 피부 어디에 나요?}
10701 # 얼구리가 나지. {얼굴에 나지.}
10701 # 잉잉 애덜 응. {응응, 애들 응.}
10701 @ 와! 점부 점부 애들 얼구레만? {와! 전부, 전부 애들 얼굴에만?}
10701 # 얼굴 모가지 얼굴 흔히 거가 나. {얼굴, 목, 얼굴 흔히 거기에 나.}
10701 @ 아 거기에만? {아, 거기에만?}
10701 # 어. {응.}
10701 @ 그면 아까 그 마름버드믄? {그러면 아까 그 마른버짐은?}
10701 # 얼구리가 나지 그거뚜. {얼굴에 나지 그것도.}
10701 @ 도장뼝두 보메 나등가요 주로? {도장병도 봄에 나던가요, 주로?}
10701 # 도장뼝은 봄 여름 갸릴 껃 옵씨 오쩌다 보먼 애더리 그르케 도장뼝 올르더라구. {도장병은 봄, 여름 가릴 것 없이 어쩌다 보면 애들이 그렇게 도장병 옮더라고.}
10701 @ 금 버듬하고 도장뼝이 가치 나진 앙코? {그럼 버짐하고 도장병이 같이 나진 않고?}
10701 # 가치 안 가치 안 나고 애덜 흔히 애더리 마니 나 도장뼝은 응. {같이, 안 같이 안 나고, 애들 흔히 애들이 많이 나 도장병은 응.}
10701 @ 버드믄 애 어른 할 꺼 업씨 나고? {버짐은 애, 어른 할 것 없이 나고?}
10701 # 이~ 버 마름버드문. {잉, 버, 마른버짐은.}
10701 @ 버드믄? {버짐은?}
10701 # 응 애들 으:른두 그러코. {응, 애들 어른도 그렇고.}
10702 @ 그러면 할머니 그 버듬 그러케 나면 어떠케 이제 치료를 주로 해요? {그럼 할머니 그 버짐 그렇게 나면 어떻게 이제 치료를 주로 해요?}
10702 @ 야기 가까이 업꼬 그러며는 주로 지베서는 어트게 치료가? {약이 가까이 없고, 그러면 주로 집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10702 # 그릉게 뭐 지비서 뭐 발르구 그러싸트만.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바르고 그래쌓더구먼.}
10702 # 뭐 지름끼 인능 거 뭐 발르구 이자 흐여니 태석태석헝게 그르 그르지 그릉게 뭐. {뭐 기름기 있는 것, 뭐 바르고 이제 허옇게 태석태석하니까 그러, 그러지 그러니까 뭐. }
10702 # 여 짜능 거 뭐 발러 사다노쿠 발르구 약 그렁 거 그러데. {여 짜는 것 뭐 발라 사다놓고 바르고, 약 그런 것 그러데.}
10701 @ 그럼 그렁 거 지금? {그럼 그런 것 지금?}
10701 # 그 업써지드라구 얼마 이쓰믄. {그 없어지더라고 얼마 있으면.}
10701 @ 저절로 그냥 시가니 좀 지나면 상나요? {저절로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삭나요?}
10701 # 업써저. {없어져.}
10701 @ 나따가? {났다가?}
10701 # 허여튼 저 어터게 야게서 나선나 어쩐나 응 업써저. {하여튼 저 어떻게 약 해서 나

았나, 어쨌나 응, 없어져.}
10701 @ 그게 왜 나는 지는 잘 모르게꾸? {그게 왜 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10701 # 몰르지 그렁 건. {모르지 그런 건.}
10701 @ 왜냐며는 그게 뭐 잘 먹꾸 인는 지븐 뭐 안 난다거나 뭐 쫌 몸 먹는 집 아이드리 더 마니 난다거나 뭐 이러친 앙코? {왜냐면은 그게 뭐 잘 먹고 있는 집은 뭐 안 난다거나, 뭐 좀 못 먹는 집 아이들이 더 많이 난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고?}
10701 # 피:부가 어터게 너머 건조해가지구 어치게 생기능가 비더라구 그건. {피부가 어떻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어떻게 생기는가 보더라고 그건.}
10701 @ 그럼 그 버드미 생전 안 나는 사라믄 절대 안 나고 그래요? {그럼 그 버짐이 생전 안 나는 사람은 절대 안 나고 그래요?}
10701 # 그치 그릉 거. {그렇지 그런 거.}
10701 # 아냐 머리 머리 수기 막 비눌 생겨서 막:: 쏘다지구 막 개러우꾸 이런 사람덜또 그냥 허는 사라미 이써. {아냐, 머리, 머리 속이 막 비듬 생겨서 막 쏟아지고 막 가렵고, 이런 사람들도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
10701 @ 그런 사라미 이꾸 아닌 사라믄 아닌 거구? {그럼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고?}
10701 # 에. {응.}
10701 # 아닌 사라믄 그릉 거 안 생기구. {아닌 사람은 그런 것 안 생기고.}
10701 @ 응 이거 버듬 가틍 거뚜 안 나는 사라믄 생전 안 나는데 나는 사라미 나요? {응, 이거 버짐 같은 것도 안 나는 사람은 생전 안 나는데 나는 사람이 나요?}
10701 # 그르치. {그렇지.}
10701 @ 할머니 그이 여두루문 그러면 여드르미라능 게 여기서 여드르믄 뭐라고 해요? {할머니 그 여드름은 그러면 여드름이라는 게 여기서 여드름은 뭐라고 해요?}
10701 @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10701 @ 이드르미라고 하나? {여드름이라고 하나?}
10701 # 사춘기 시저리 여드르미 나드라구 애덜뚜. {사춘기 시절에 여드름이 나더라고 애들도.}
10701 @ 할머니도 마느셔써요? {할머니도 많으셨어요?}
10701 # 나는 여드름 안 나써. {나는 여드름 안 났어.}
10701 @ 에. {예.}
10701 # 얼구레 여드름 피는 안 난는디 우리 망내 아드리 그냥 여드름 나드랑게. {얼굴에 여드름 피지는, 안 났는데 우리 막내아들이 그냥 여드름 나더라니까.}
10701 @ 아 유나니 망내 아들만? {아, 유난히 막내아들만?}
10701 # 굴:께. {굵게.}
10701 # 이~ 망내만. {잉, 막내만.}
10701 @ 어트게 나요? {어떻게 나요?}
10701 # 이런 디가 막 워시 찌끄만::쓱 허게 톡톡 나: 그냥 막. {이런 데가 막 뭣이 조그만씩하게 톡톡 나 그냥 막.}
10701 @ 그럼 짜요? {그럼 짜요?}
10701 @ 짜야 되요? {짜야 돼요?}
10701 @ 뭐가 망 나면? {뭐가 막 나면?}

10701 # 그러치 그거 짜며는 막 그 소기 그냥 저거시 뭐시 나와. {그렇지 그거 짜면, 막 그 속이 그냥 저것이 뭣이 나와.}
10701 # 인저 흐여넝 거 뭐 이러케 꾹:: 짜며는. {인제 허연 거 뭐 이렇게 꾹 짜면은.}
10701 @ 압, 되게 아프겐네? {아, 되게 아프겠네?}
10701 # 이 그른디 그거시 지끄믄 웁써저뜨라구 {응,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10701 @ 되게 사춘기 때 나요? {대개 사춘기 때 나요?}
10701 # 어~. {응.}
10701 @ 여자들뚜 나요? {여자들도 나요?}
10701 # 여자 여자 애드름 나는 여자덜 마녀. {여자, 여자 여드름 나는 여자들 많아.}
10701 @ 에 그럼 제게 대게 사춘기 때 나 나등가요? {음, 그럼 대개, 대개 사춘기 때 나 나던가요?}
10701 # 에 안 근디 피부가 그냥 안 나는 사람 안 나는디 나는 사라믄 학생덜뚜 막 보며는 경장이 마니 나는 학생더리 이써. {응, 안 근데 피부가 그냥 안 나는 사람 안 나는데 나는 사람은 학생들도 막 보면 굉장히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있어.}
10701 @ 음 그게 사충기 지나면서 저절로 업써저요? {음, 그럼 그게 사춘기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져요?}
10701 @ 이제 안 나요? {이제 안 나요?}
10701 # 게 안 나데. {그게 안 나데.}
10701 @ 저절로? {저절로?}
10701 # 업써지데. {없어지데.}
10701 # 근디 그 그걷 짜 싸쿠 나:슨 디는 쏙쏙 드르가. {근데 그 그것 짜쌓고, 나은 데는 쏙쏙 들어가.}
10702 @ 그럼 그렁 거 여드르메는 뭐 지베서 뭐 여드르메는 뭐 뭐 조타 뭐 이런 음시기나 뭐 그릉 건 업써써요? {그럼 그런 것 여드름에는 뭐, 집에서 뭐, 여드름에는 뭐뭐 좋다 뭐, 이런 음식이나 뭐 그런 것 없었어요?}
10702 @ 뭘 발라본다등가 지베서? {뭘 발라본다든가 집에서?}
10702 # 응 그저니는 그게 업써 움는디 먼저 요주문 창꽤여고 저기 꺼먹 창꽤여고 거먹콩 자디::잔 거먹콩 그거더구. {응, 그전에는 그게 없어 없는데 먼저 요즘은 참깨하고, 저기 검은깨하고, 검은콩 자디잔 검은콩 그것하고.}
10702 # 가루혀서 늘 그걸루 냥 물 타서 보굥허구 먹구 그냥 허먼 그게 그런 디가 조타구 마른 허드만. {가루로 해서 늘 그걸로 그냥 물 타서 복용하고 먹고 그냥 하면, 그게 그런 데가 좋다고 말은 하더구먼.}
10702 @ 음 생 생 거를 생깨하고 생콩? {음, 생, 생것을 생깨하고 생콩?}
10702 # 아니 보까서. {아니 볶아서.}
10702 @ 보까가지고? {볶아가지고?}
10702 # 빠숴서 차 차 끄려 먹때끼. {빻아서 차, 차 끓여 먹듯이. }
10702 @ 미수까루처럼? {미숫가루처럼?}
10702 # 잉. {응.}
10702 @ 응. {음.}
10702 # 그르케 혀서 늘 머그면 조타구 그 소리는 드러찌. {그렇게 해서 늘 먹으면 좋다고 그 소리는 들었지.}

10702 @ 음. {음.}
10702 # 머리 머리가 이르케 빠지는 사람. {머리,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
10702 @ 예. {예.}
10702 # 그 사람두 그 시금자 꿰여고 그 거먹콩허고 혀서 늘 머그면 머리가 난댜 조댜. {그 사람도 그 검은깨하고 그 검은콩하고 해서 늘 먹으면 머리가 난대 좋대.}
107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702 # 엉. {응.}
10702 @ 머리 그니까 나이 머거서 머리 빠지는 사람들 아니며는? {머리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머리 빠지는 사람들 아니면은?}
10702 # 아니 나이 암 머거써두 머리가 자꾸 빠지는 사람 이짜너. {아니, 나이 안 먹었어도 머리가 자꾸 빠지는 사람 있잖아.}
10702 @ 예. {예.}
10702 # 그런 사람덜. {그런 사람들.}
10702 @ 음 그며는 긍까 그렁 거 하면 쫌 덜 빠진대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좀 덜 빠진대요?}
10702 # 에. {응.}
10701 @ 음 자꾸 자꾸 머리 빠저서 대머리 댈까바 걱정이자나요? {음, 자꾸자꾸 머리 빠져서 대머리 될까봐 걱정이잖아요?}
10701 # 그르치. {그렇지.}
10701 # 남자더른 흐니 그르지 대머리 대지. {남자들은 흔히 그렇지 대머리 되지.}
10701 @ 땀띠는 여르메 애드리 마니 나껜네요 할머니? {땀띠는 여름에 애들이 많이 나겠네요, 할머니?}
10701 # 땀띠기? {땀띠?}
10701 @ 예 땀때기. {예, 땀띠.}
10701 # 아이구, 옌나리 애덜 키고 어른네 키고 막 더운 디서 보리 찌어서 보리쌀 쌀머서 바배머꾸 그냥 헝게 막 땀띠기가. {아이구, 옛날에 애들 키우고, 어린 아이 키우고 막 더운 데서 보리 쪄서 보리쌀 삶아서 밥 해먹고, 그냥 하니까 막 땀띠가.}
10701 # 아효 나는 땀때기가 말도 모더게 나써. {아휴, 나는 땀띠가 말도 못하게 났어.}
10701 @ 애 어른 할 꺼 업씨 땀때기가? {애 어른 할 것 없이 땀띠가?}
10701 # 막 이런 디도 막 크::드란쓱 허게 요만쓱 허게 막 땀띠기가 얼::마나 마니 나서 각씨 때 친정이 가써 인자 쪼매 쉴라고. {막 이런 데도 막 커다랗게 요만큼씩 하게 막 땀띠가 얼마나 많이 나서, 각시 때 친정에 갔어, 인제 좀 쉬려고.}
10701 # 그이땡 친정이 가땡 한 사흘두 모 때서 댈러 와떼. {그랬더니 친정에 갔더니 한 사흘도 못 돼서 데리러 왔데.}
10701 @ 누가? {누가?}
10701 # 실랑. {신랑.}
10701 @ 하하. {하하.}
10701 @ 할머니 보고 십따고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요?}
10701 # 보구 시펀나 어쩐다 보구 십끼두 현꺼찌. {보고 싶었나, 어쨌나 보고 싶기도 했겠지.}
10701 # 메칠 대두 아내서 델러 와뜨라구 이런 디가 막 마니 나서 지비 가 쉴라고 가써 친

정. {며칠 되지도 안 해서 데리러 왔더라고, 이런 데가 막 많이 나서 집이 가 쉬려고 갔어, 친정.}
10701 # 그래뗑 금::방 델러 와가주구 와써. {그랬더니 금방 데리러 와가지고 왔어.}
10702 @ 거 그르케 땀때기가 나면 어트케 지베서 방펴느로 어트게 하면 좀 가라앙꼬 그래요? {거 그렇게 땀띠가 나면 어떻게 집에서 방편으로 어떻게 하면, 좀 가라앉고 그래요?}
10702 @ 찬무레 씬나 씬나? {찬물에 씻나, 씻나?}
10702 # 가란능 거 업써. {가라앉는 거 없어.}
10702 # 어:름미로 문질르먼 겐찬타구싸코 해두 그 저니 뭐 어르미 이써 여새? {얼음으로 문지르면 괜찮다고 해쌓고 해도 그 전에 뭐 얼음이 있어 요새?}
10702 # 지끄밍게 냉동이다 어름 너치 누구 오디가 어름 이써? {지금이니까 냉장고에다 얼음 넣지, 누가 어디가 얼음 있어?}
10702 # 방::법 옵써 벨시런 방법 땀때기 분 사서 발러 봐두 안 대구. {방법 없어 별스런 방법 땀띠 분 사서 발라 봐도 안 되고.}
10701 # 안 대 막 땀때기가 어시지면 인자 부슬막마냥 생겨 자디잔 부슬막마냥 막:: 이런 디가 마니 나구. {안 돼 막 땀띠가 심해지면 인제 부스럼처럼 생겨 자디잔 부스럼마냥 막 이런 데가 많이 나고.}
10701 # 더우먼 막 그 얼구리 빨가너게 그 땀때기가 다 승나가꾸 막 아휴 징그러. {더우면 막 그 얼굴이 빨갛게 그 땀띠가 나 성나갖고 막 아휴, 징그러워.}
10701 # 그러케. {그렇게.}
10701 @ 그 어른 어르는 참기나 하지 애기드른 어뜨케요? {그 어른, 어른은 참기나 하지,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10701 # 애기드른 그르케 굴:께는 안 나지 인자 더우니까 애기더리 사람다 이러케 안:꾸 허먼 그 막 손 이르케 다꾸 허는 디가 뽈속뽀쏙뽀쏙뽀쏙 막 이르케. {애기들은 그렇게 굵게는 안 나지, 이제 더우니까 애기들이 사람이 이렇게 안고 하면 그 막 손 이렇게 닿고 하는 데가 볼쏙볼쏙볼쏙볼쏙 막 이렇게.}
10701 # 나다가 이제 시워::너먼 또 그게 드러가 그냥 허지 어른네더런. {나다가 이제 시원하면, 또 그게 들어가 그냥 하지 어린애들은.}
10701 # 그럳코. {그렇고.}
10702 @ 땀 땀때기가 심할 때 뭐 무슨 무레 이 엉덩이 씨서주고 뭐 이게 몸 씨서주고 이러면 좀 간 가라안는다 뭐 이렁 건 업써요? {땀, 땀띠가 심할 때 뭐 무슨 물에 이 엉덩이 씻어주고, 뭐 이렇게 몸 씻어주고, 이러면 좀 가, 가라앉는다 뭐 이런 건 없어요?}
10702 @ 뭐 소금무레 씬 씬는다든지? {뭐 소금물에 씻, 씻는다던지?}
10702 # 간꾹 간 간물 소금무리다 시처주먼 겐찬타구 혀두 소영웁써 그렁 거 해바두 소용웁뜨라구. {간국 간, 간물 소금물에다 씻어주면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런 거 해봐도 소용없더라고.}
10701 # 아이구! 땀때기 그 늘긍게 땀때기도 안 나고. {아이구! 땀띠 그 늙으니까 땀띠도 안 나고.}
10701 @ 조아요? {좋아요?}
10701 # 이 히씨 저기 지그믄 땀때기 나게 더운 디가 이또 안치만 그르케 더웁께 안 사릉게 그러나 땀대기도 안 나구. {응 히히, 저기 지금은 땀띠 나게 더운 데가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덥게 안사니까, 그러나 땀띠도 안 나고.}

10701 # 옌나리는 소니 얼마나 터전나 몰라 손 터저 손뜽이 막. {옛날에는 손이 얼마나 터졌나 몰라, 손 터져 손등이 막.}
10701 # 춘 디서 빨래허구 인자 물 무친 놈 그냥 말르구 허니까 막 잉:: 소니 다 터저서 겨우레 막:: 아퍼 인자 막. {추운 데서 빨래하고, 이제 물 묻힌 놈 그냥 마르고 하니까 막 잉, 손이 다 터져서 겨울에 막 아파 이제 막.}
10702 # 터지먼 쩍쩍 버러저까꾸 피나구 아퍼 그러먼 뒈지지름 화리뿌리다 뜨뜨::더게 뒈지자버서 그 지름 하야넝 거 무꺼서 둬 다러 매놔따 그 눔 뜨뜨::던 눔 막 이르케 문질르구. {터지면 쩍쩍 벌어져갖고 피나고 아파, 그러면 돼지기름 화롯불에다 따뜻하게 돼지 잡아서 그 기름 하얀 거 묶어서 둬 달아 매놨다가 그 놈 따뜻한 놈 막 이렇게 문지르고.}
10702 # 화리뿔 늑씬 쬐:구 그러고서나 이르케 손 이르케 다릉 걸로 지름 안 묻께 따끄구 그러구 자먼 쫌 나:찌. {화롯불 실컷 쬐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손 이렇게 다른 걸로 기름 안 묻게 닦고, 그러고 자면 좀 낫지.}
10701 # 절머서는 살두 통통헝게 더 터전능가봐. {젊어서는 살도 통통하니까 더 터졌나봐.}
10701 # 지끄믄 손 터진 사람 어디가 이써 겨우리? {지금은 손 터진 사람 어디에 있어 겨울에?}
10701 # 그저니는 바까티서 으시허게 소니다 물대따 그냥 말르구 설거지헐 때 그냥 말르구 그냥 헝게 손 터저서 얼::마나 욕빤나 몰라. {그전에는 바깥에서 으스스하게 손에다 물댔다 그냥 마르고, 설거지할 때 그냥 마르고 그냥 하니까 손 터져서 얼마나 욕봤나 몰라.}
10701 @ 그런 건 인제 주로 물리라는 여자드리 그래껜네요? {그런 건 이제 주로 물일하는 여자들이 그랬겠네요?}
10701 # 그러치 남자는 안 터지지 여자가 손 터지지 더. {그렇지 남자는 안 터지지, 여자가 손 터지지 더.}
10701 # 물 마처쌍게 물 무처싸쿠 그 눔 으썩 말르구 그냥 해쌍게 막 터지구. {물 만져쌓으니까, 물 무쳐쌓고 그 놈 바싹 마르고 그냥 해쌓으니까 막 터지고.}
10701 # 남자덜또 그 저니 소 부릴라문 다리 이런 디가 막 다 터저써 이자 노니 소 가는 대루 인자. {남자들도 그 전에 소 부리려면 다리 이런 데가 막 다 터졌어, 이제 논에 소 가는 대로 이제.}
10701 # 보미 보미 더군다나 일른 봄파니 이거 걷꾸 소룰 따러 댕이먼 이런 디가 물 테배자너 구정물 홍물 그느미 인자 말르지 그렁게 터지능 거여. {봄에, 봄에 더군다나 이른 봄에 이거 걷고 소를 따라 다니면, 이런 데가 물 튀기잖아 구정물, 흙물 그 놈이 인제 마르지, 그러니까 터지는 거야.}
10701 # 막:: 씯꾸 저녀기 잘라먼 빨::가내가꾸 만지도 모더게 허고 막 이 온만 다두 막 아푸구 그르케 욕 바써 소 부리는 사람덜. {막 씻고 저녁에 자려면 빨개 갖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 옷만 닿아도 막 아프고 그렇게 욕 봤어, 소 부리는 사람들.}
10701 # 지끄믄 장화 이씅게 장화나 신찌 그 저니는 그냥 알발루 해짜녀 알다리루. {지금은 장화 있으니까 장화나 신지, 그 전에는 그냥 맨발로 했잖아 맨다리로.}
10702 @ 금 그때도 뒈지기르미 괜찬나요? {그럼 그때도 돼지기름 괜찮아요?}
10702 # 응? {응?}
10702 @ 그러케 터징 거또 뒈지기르미 괜차나요? {그렇게 터진 것도 돼지기름 괜찮아요?}
10702 # 구치 뒈지지름 그거 지름기 약뚜 옵꾸 그릉게 화리뿌리다 노겨서 막 그거 이냥 발르구 그러구 자면 따그랭이 지구 난 나아따 또 터지구 그려. {그렇지 돼지기름 그거 기름기

약도 없고 그러니까, 화롯불에다 녹여서 막 그거 그냥 바르고, 그러고 자면 딱지 지고 낫, 나았다가 또 터지고 그래.}
10701 @ 금 여자드른 그니까 주로 겨우레? {그럼 여자들은 그러니깐 주로 겨울에?}
10701 # 그러치 여자는 손 터지능 게 겨우리 물 들 말른 늠 손 이구 물똥이 이구 댕기지 설거지 허다 그냥 오디 나댕기지 헝게 얼마나 터저. {그렇지 여자는 손 터지는 게 겨울에 물 덜 마른 놈 손 이고, 물동이 이고 다니지, 설거지 하다 그냥 어디 나다니지 하니까 얼마나 터져.}
10701 @ 남자드른 주로 봄 여르메 무노네 일? {남자들은 주로 봄, 여름에 무논에 일?}
10701 # 이이이 남자더른 물로니 가 이렁게 터지고. {응응응, 남자들은 무논에 가 일하니까 터지고.}
10701 @ 근데 그럴 때마다 인제 뒈지기르미 효꽈가 이써써요 그냥 막? {근데 그럴 때마다 인제 돼지기름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냥 막?}
10701 @ 그면 그러며는 할머니 그 저기 두두레기 이렁 거또 옌나레 저 왕 왕왕 식꾸가 마느니까 나고 그랟써요? {그러면 그러면은 할머니 그, 저기 두드러기 이런 것도 옛날에 저 왕 왕왕 식구가 많으니까 나고 그랬어요?}
10701 # 그치 두드레기는 고여니 개라서 글그면 막 툭툭툭툭 다 소사가지구 두두레기 나먼 막 몸대기가 에::군정그려서 모 싸러 막 엔 막. {그렇지 두드러기는 괜히 가려워서 긁으면 막 툭툭툭툭 다 솟아가지고 두드러기 나면 막 몸이 에, 군시러워서 못 살아 막, 웬, 막.}
10702 # 근지근지 군절 군시러 군시렁 거려 그르케 허먼 소금 뿌려가머. {근질근질, 근질 군시러워, 군실거려 그렇게 하면 소금 뿌려가며.}
10702 @ 피부에? {피부에?}
10702 # 응? {응?}
10702 @ 피부에? {피부에?}
10702 # 음음음 소금 뿌려가머 그냥 비찌라기루 쓰러싸쿠 그러데. {응응응, 소금 뿌려가며 그냥 빗자루로 쓸어쌓고 그러데.}
10702 @ 아::! 그럼 가려우미 인제 좀? {아! 그럼 가려움이 인제 좀?}
10702 # 그러먼 그거 가라안는다 구러드라구 그른디 그게 고야니 형식쩌기로 허능 거지 소용엄는 거실 꺼여. {그러면 그거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소용없는 것일 거야.}
10702 # 양 머거야 가라안찌 그게 소용움는디 그리두. {약 먹어야 가라앉지, 그게 소용없는데 그래도.}
10702 @ 야기 그때 야기 가까이 업쓸 때. {약이 그때 약이 가까이 없을 때.}
10702 # 에 그러케라두 그냥 허구 쓰러주구 비찌라기루 소그 허치구 쓰러주구 그래싸트라구. {응, 그렇게라도 그냥 하고 쓸어주고, 빗자루로 소금 흩이고, 쓸어주고 그러더라고.}
10701 @ 응 두두래기도 옴능 건 아니고? {응, 두드러기도 옮는 건 아니고?}
10701 # 옴:넝 건 아녀 두두래기는. {옮는 건 아냐, 두드러기는.}
10701 @ 그거는 뭐 음식 때매 그러나요? {그것은 뭐 음식 때문에 그러나요?}
10701 # 그릉게 지끄믄 음식 짤 몬 머그먼 두두래기 난다 고더라구 식쭝독 그렁 거시. {그러니까 지금은 음식 잘 못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고 하더라고, 식중독 그런 것이.}
10701 @ 옌나레도 음식 때매 그러튼가? {옛날에도 음식 때문에 그렇던가?}
10701 # 그러니 그 지끔 그러케 허능 거 뽕게 엔나리두 뭐 음식 때미네 그렁 거시 이러나능

가바 막. {그러니 그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도 뭐 음식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봐 막.}
10701 @ 머 이르케 풀 들풀 가틍 거에 쫌 예미난 사람 풀숩 지나다녀도 이르케 뭐 나고? {뭐 이렇게 풀, 들풀 같은 것에 좀 예민한 사람 풀숲 지나다녀도 이렇게 뭐 나고?}
10701 # 풀똑이라 고드라구. {풀독이라고 하더라고.}
10701 @ 그건 그건 어트게 어트게 달라요 할머니? {그건, 그건 어떻게 달라요, 할머니?}
10701 @ 풀또기라능 거는 어떠틍가요 증상이 풀똑 오르면? {풀독이라는 것은 어떻던가요, 증상이 풀독 오르면?}
10701 # 풀또::기라구 바티서 풀매구 이렁 거 허며는 막 가랴께 막 가랴꾸 이렁 거시 막 두들두들 뭐 나. {풀독이라고 밭에서 풀매고 이런 것 하면은 막 가렵게, 막 가렵고 이런 것이 막 두둘두둘 뭐 나.}
10701 # 그러면 아주 옌나리는 그렁 거또 몰란는디 그러타구 병워니 가며는 풀바티서 풀맨냐구 그게 풀또기라구 그러 그르케 허드라구. {그러면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병원에 가면 풀밭에서 풀 맸느냐고 그게 풀독이라고 그러, 그렇게 하더라고.}
10701 @ 그럼 저 그 예미난 사람만 그런 니리 생겨써요? {그럼 저 그 예민한 사람만 그런 일이 생겼어요?}
10701 # 어 그릉게 인자 피부가 음 건조혀 건선 피부라구 이써가꾸 알레르기 피부 그런 사람더리 더 흔히 그르케 마니 생겨. {어, 그러니까 인제 피부가 음, 건조해, 건성 피부라고 있어갖고 알레르기 피부 그런 사람들이 더 흔히 그렇게 많이 생겨.}
10701 @ 금 우선 임시방펴느로 병워네 가기 저네 지베서 뭐 어트게 해주능 건 업써써요 할머니? {그럼 우선 임시방편으로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뭐 어떻게 해주는 건 없었어요, 할머니?}
10701 @ 풀또게 확 올라쓸 때? {풀독에 확 올랐을 때?}
10701 # 지비서 뭐 허능 거 웁찌 인저 야꾸기나 어디 가서 이자 그러타구 허며는. {집에서 뭐 하는 게 없지, 인제 약국에나 어디 가서 인제 그렇다고 하면은.}
10701 # 아주 옌나리는 그렁 거뚜 몰라찌만 병원두 우꾸 그래찌만.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몰랐지만, 병원도 없고 그랬지만.}
10701 # 인자 중가네 나가튼 사라문 이런 디가 막 두둘그려서 병워니 가면 풀또기라구 풀:: 바티서 풀: 맨 닐 인냐구구 그러더라고. {인제 중간에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데가 막 두둘두둘해서 병원에 가면 풀독이라고 풀밭에서 풀 맨 일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10701 @ 그러믄 제 어때요 피부가 벌거케 이러나요 가렵꾸 그래요? {그러면 인제 어때요, 피부가 벌겋게 일어나요 가렵고 그래요?}
10701 #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저 저기 나오지 이르케 도돌도돌헝 거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 저, 저기 나오지, 이렇게 도돌도돌한 것이.}
10701 # 땀때기마냥 도돌도돌헝 거시 나와 그러구 그 봄파니 그냥 생기면 모가지 이런 디가 막 두둘두둘룰두두래 개랴 뭐 나구. {땀띠처럼 도돌도돌한 것이 나와, 그리고 그 봄에 그냥 생기면 목 이런 데가 두둘두둘두둘해, 가려워 뭐 나고.}
10701 # 그러면 꼬쌈 때 알레리기 피부는 그 꼳까루 널르고 헐 때 그르케 생긴다구드라구 알레리기 피부. {그러면 꽃샘 때, 알레르기 피부는 그 꽃가루 날리고 할 때 그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 알레르기 피부.}
10702 @ 그러 그렁 거 이제 보메 인제 나쓸 때 그렁 거뚜 뭐 지베서 뭐 임시로 우선 해주

고 이럴 마낭 건 업써써요? {그러, 그런 거 이제 봄에 인제 났을 때, 그런 것도 뭐 집에서 뭐 임시로 우선 해주고 이럴 만한 건 없었어요?}
10702 # 지비서 뭐 약헐 마넝 거 업써찌. {집에서 뭐 약할 만한 거 없었지.}
10701 @ 할머니 그 문둥뼝이라능 거 이짜나요? {할머니, 그 문둥병이라는 것 있잖아요?}
10701 @ 여기서도 그렁 거 머라고 해요 그런 병? {여기서도 그런 거 뭐라고 해요, 그런 병?}
10701 # 문둥뼝은 안 난는다 고더라구. {문둥병은 안 낫는다고 그러더라고.}
10701 @ 근데 여기 이 도 이 할머니도 인제 지금까지 사라오시면서 그런 병에 걸려따는 사람 어디 보셔써요? {근데 여기 이, 도, 이 할머니도 인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병에 걸렸다는 사람 어디 보셨어요?}
10701 # 여기 시집 와서는 암 봔는디 나 어릴 때 우리 친정 똥네가 우리집써 그냥 멀:지도 아는디. {여기 시집 와서는 안 봤는데, 나 어릴 때 우리 친정 동네가 우리 집에서 그냥 멀지도 않은데.}
10701 # 용천배기라 구지 그걷떠러 용천배기라구 그저니 우덜 어려서 진달리꼳 꺼끄러 사니 이런 디 가믄 아유 저기 용총배기 와따 용총배기 와따 그러거든. {나환자라고 하지, 그것더러 나환자라고, 그 전에 우리들 어려서 진달래꽃 꺾으러 산에 이런 데 가면 아휴, 저기 용천배기 왔다 용천배기 왔다 그러거든.}
10701 # 그게 문둥뼝자랴 용촌배기가 근디 그 사라믄 항::시 뭐시 나드라고 모미. {그게 문둥병자래 나환자가,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뭣이 나더라고 몸에.}
10701 @ 온 모메? {온 몸에?}
10701 # 잉 그래가지고 오디 나댕기두 자 랑쿠. {응, 그래가지고 어디 나다니지도 잘 않고.}
10701 @ 가튼 동네 사는 사라미언는데?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었는데?}
10701 # 잉 그러 그러케 항시 그냥 지비 가마니 늘 이꾸 그러드라구 근디 지끔 생가거먼 그게 용촌 들려따구 싸터만 그게 문둥뼝잔가 보더라구. {응, 그러, 그렇게 항상 그냥 집에 가만히 늘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병 들렸다고 해쌓더구먼, 그게 문둥병자인가 보더라고.}
10701 @ 용천 들린 사라믈 용촌배기라고? {나병 들린 사람을 나환자라고?}
10701 # 으. {응.}
10701 @ 이르케 하능군뇨. {이렇게 하는군요.}
10701 @ 그때 그사라믄 남자여써요 여자여써요? {그때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 {남자.}
10701 @ 음 결혼 안 하고? {음, 결혼 안 하고?}
10701 # 겨론 그르케 생여씅게 장가갈 쑤 이깐? {결혼, 그렇게 생겼으니까 장가갈 수 있나?}
10701 @ 음 금 그 사라믄. {음, 그럼 그 사람은.}
10701 # 그릉께 총가기지. {그러니까 총각이지.}
10701 @ 그 사라믄 뭐 아주 어려쓸 때부터 그러케 용천 들려따등가요? {그 사람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병 들렸다던가요?}
10701 # 그게 인자 허다::허다 죽능가비드만? {그게 인제 하다하다 죽는가보더구먼?}
10701 # 그때는 주께는 안 생겨썬는디 그냥 늘:: 지비 가 이꾸 문둥뼝 걸려따이싸쿠 그러드라구. {그때는 죽게는 안 생겼었는데 그냥 늘 집에 가 있고, 나병 걸렸다고 해쌓고 그러더라

고.}
10701 @ 그니깐 그 사라믄 아주 어려쓸 때부터 그래따구 하드냐구? {그러니깐 그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냐고?}
10701 # 아니 중가네 그러치 중가네. {아니 중간에 그렇지 중간에.}
10701 @ 다 다 자라서? {다, 다 자라서?}
10701 # 에 중가네 다 커가주구. {응, 중간에 다 커가지고.}
10701 @ 그 사라믄 그 사라믄 뭐 부모 형제는 업꼬?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뭐 부모 형제는 없고?}
10701 # 부모 형제 이써도 도리웁찌. {부모 형제 있어도 도리 없지.}
10701 @ 아 긍까 그 사람드른 갠창코? {아, 그러니깐 그 사람들은 괜찮고?}
10701 # 으 다른 사라믄 갠창코 고 한 사라만 그르케 생기드라구. {응, 다른 사람은 괜찮고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생기더라고.}
10701 @ 그럼 유저는 아니네요 할머니 그조? {그럼 유전은 아니네요, 할머니 그죠?}
10701 # 그렁가바 근디 지끄믄 그 병 섬: 오디다 가따 노차너 다 문둥뼝잔 중 아르먼? {그런가봐 근데 지금은 그 병, 섬 어디다 갖다 놓잖아 다 문둥병자인 줄 알면?}
10701 @ 개도 그 사라믄 별루 안 심해떵가 보지? {그래도 그 사람은 별로 안 심했던가 보지?}
10701 @ 무슨 가끔 마으레 다니기도 하고? {무슨 가끔 마을에 다니기도 하고?}
10701 # 근디 막 그 저니 드르믄 용춘배기는 눈썹뚜 빠진다 구드라구 눈썹뚜 다 옵써진다구. {근데 막 그 전에 들으면 문둥병자는 눈썹도 빠진다 그러더라고, 눈썹도 다 없어진다고.}
10701 # 막 그러타구 무섭따 해싸쿠 그래써 어려서 긍께 어려서 이리라 잘 몰르지. {막 그렇다고 무섭다 해쌓고 그랬어, 어려서 그러니까 어려서 일이라 잘 모르지.}
10701 @ 할머니 그 어려쓸 때는 그 한 사람 정도 이써서요 동네에서? {그럼 할머니 그 어렸을 때는 그 한 사람 정도 있었어요, 동네에서?}
10701 #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10701 @ 저 어 저 우리 할머니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용촌배기들만 따로 이레 산 소게 모여서 사라써요. {저 어, 저 우리 할머니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문둥이들만 따로 이렇게 산속에 모여서 살았어요.}
10701 # 음. {응.}
10701 @ 근데 마으렌 몬 내려오니까 따로 산 소게 산 속 아네 드러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고 다글 길러써요. {근데 마을에는 못 내려오니까 따로 산 속에, 산 속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고, 닭을 길렀어요.}
10701 @ 그래서 우린 인제 달 다기 아를 나차나요? {그래서 우린 닭, 닭이 알을 낳잖아요?}
10701 @ 그래 그 달갸를 인제 마으레서 파라가지고 그 도느로 머꼬 사라써요. {그래 그 달걀을 인제 마을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10701 @ 그래서 사람드리 인제 시장에 가서 달걀 안 사고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일부러 인제 사느로 드러가서 그 사람들 닥 다갈 댤걀 사오고 그래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시장에 가서 달걀 안사고,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일부러 인제 산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닭, 닭알 달걀 사오고 그랬어요.}
10701 # 음. {응.}

10701 @ 근데 네 뭐 사람들 그래도 달갸른 뭐 안 찝찌패 하고 거기서 사먹 사먹능 거 보니까 그게 뭐? {근데 뭐 사람들 그래도 달걀은 뭐 안 찝찝해 하고 거기서 사먹, 사먹는 거 보니까 그게 뭐?}
10701 # 달가리야 뭐 무슨 저기 허거써 사람 피부허구 닥 피부허구 가또 안쿠. {달걀이야 뭐 무슨 저기 하겠어, 사람 피부하고 닭 피부하고 같지도 않고.}
10701 @ 인제 그르케 몰려서 인제 수머 수머서 사능 거 이제 말하자면 참 그러케 사는? {인제 그렇게 몰려서 인제 숨어, 숨어서 사는 거 이제 말하자면 참 그렇게 사는?}
10701 # 수머서 사능 거지 인자 그게 난치병이라구 인자 모 꼬칭게 자기네들까지 그냥 수머서 사능거지. {숨어서 사는 거지 인제 그게 난치병이라고 인제 못 고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숨어서 사는 거지.}
10701 @ 그 이제 흉쯔카니까 마으레 몬 내려오니까 산 소게서 인제 모여서 이러케 사라써요. {그 이제 흉측하니까, 마을에 못 내려오니까, 산 속에서 인제 모여서 이렇게 살았어요.}
10701 # 근디 그 상처가 여기저기 툭툭 손능가 보드라구. {근데 그 상처가 여기저기 툭툭 솟는가 보더라고.}
10701 @ 할머니 그런 용춘 용천 들리능 게 그 뭐 어떤 어떤 지여게 어떤 지방에 더 마니 그런 사라미 이따거나 뭐 이런 얘긴 안 하셔요? {할머니 그런 문둥, 문둥병 들리는 게 그 뭐 어떤, 어떤 지역에, 어떤 지방에 더 많이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긴 안 하셔요?}
10701 # 그렁 건 몰라요 에 그렁 건 몰르구 음 그 그 사람 한 사라미 그냥 생겨서 항::시 지비가 이고 그러드라구. {그런 건 몰라요 에, 그런 건 모르고 음, 그,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생겨서 항상 집에 가 있고 그러더라고.}
10702 @ 그런 사람들안테는 뭐 뭐가 조타거나 그런 사람드리 뭐 어떠터다 어떠터라 라더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뭐가 좋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떠하다, 어떠하더라 하더라거나?}
10702 # 그런 사람더른 용춘배기는 송장 뻭따구가 야기라구 송장 뻭따구가 야기라구. {그런 사람들은 용천배기는 송장 뼈다귀가 약이라고, 송장 뼈다귀가 약이라고.}
10702 # 그러구 사니 이~ 해골 사람 이 골 이~ 궁동모지 그런 디 오디 가며는 그 이 골뚜껑 이따데 사라미. {그리고 산에 잉, 해골 사람 이 골 잉, 공동묘지 그런 데 어디 가며는 그 이 골뚜껑 있다하데, 사람이.}
10702 # 혹씨 혹씨 인능 거 이따데 거기가 비 오구 허먼 무리 고여 이쨔. {혹시, 혹시 있는 거 있다하데, 거기가 비 오고 하면 물이 고여 있대.}
10702 # 그러먼 그 무리 인자 오래 되며는 이끼쩌서 새퍼란허다고대 그러믄 그 물 머그믄 난는다이싸쿠. {그러면 그 물이 인제 오래 되면은 이끼 껴서 새파랗다고 하데, 그러면 그 물 먹으면 낫는다 해쌓고.}
10702 # 송장 뻭따구 가루 구정해서 머그믄 난는다구 허는 해싸쿠 그러드라구 그저네 송장 뻭다구. {송장 뼈다귀 가루 귀정해서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해쌓고 그러더라고, 그전에 송장 뼈다귀.}
10702 @ 누가 그렁 걸 해먹기가 쉽찌 안차나요? {누가 그런 걸 해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10702 # 구러치 그러구 사람 애기 나문 태 그 태. {그렇지 그리고 사람 애기 낳으면 태, 그 태.}
10702 @ 태를 어쩐대요? {태를 어쩐대요?}

10702 # 머그먼. {먹으면.}
10702 @ 어트게 먹찌? {어떻게 먹지?}
10702 # 난는다고 그러더라구. {낫는다고 그러더라고.}
10702 @ 구어 구어 멍나? {구워, 구워 먹나?}
10702 @ 어트게 멍나? {어떻게 먹나?}
10702 # 근디 지끔 태반 주사 나오능 거 봉게 그 태가 조키는 종가봐. {근데 지금 태반 주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태가 좋기는 좋은가봐.}
10702 # 근디 누가 애기 나코 그거 태 머그라고 누가 줘? {근데 누가 애기 낳고, 그거 태 먹으라고 누가 줘?}
10702 # 매쩌 저니는 매쩌 부리다 무더노코 태워찌. {왕겨 전에는 왕겨 불에다 묻어놓고 태웠지.}
10702 # 그이 누가 그 태 머그라구 주남? {그 누가 그 태 먹으라고 주나?}
10702 # 긍게 구정헐 쑤가 웁찌 근디 그런 병 인는 동네는 애기 나서 그 태를 인자 가운데다 노쿠서 매쩌 이르케 노쿠 태워꺼든. {그러니까 귀정할 수가 없지, 근데 그런 병 있는 동네는 애기 낳아서 그 태를 인제 가운데다 놓고서 왕겨를 이렇게 놓고 태웠거든.}
10702 # 빼간다대 몰래 몰래 인제 누가 안 주니까 야기로 머글라구 빼간다구드라구. {빼간다고 하데 몰래, 몰래 인제 누가 안 주니까 약으로 먹으려고 빼간다고 하더라고.}
10702 @ 그걸 긍까 뭐 어트게 먹찌? {그걸 그니까 뭐 어떻게 먹지?}
10702 @ 구워 먹나? {구워 먹나?}
10702 @ 뭐 쌀마 먹나? {뭐 삶아 먹나?}
10702 # 몰라 워터게 멍나는 그 태 머그먼 난는다 쏘린 드러써 근디. {몰라 어떻게 먹느냐는, 그 태 먹으면 낫는다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1 # 그게 영양부니 망코 조키는 헝가바 이 무릅 아퍼서 내가 지끔 가마～::이 그 생가거믄 그리서 그랜능가부라구. {그게 영양분이 많고 좋기는 한가봐, 이 무릎 아파서 내가 지금 가만히 그 생각하면 그래서 그랬는가봐.}
=1 # 저기 애기 나믄 산뿔 필 때 그거 지키얀다구으싸쿠 으 그 우리 동네서는 그래써 그저니 그. {저기 애기 낳으면 산불 필 때 그거 지켜야 한다고 해쌓고 음, 그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어, 그전에 그.}
=1 @ 그렁 건 누가 지켜요 주로 할머니? {그런 건 누가 지켜요 주로 할머니?}
=1 # 얼라 사 임:자가 그거 빼가까 무서니까. {어린애, 사, 임자가 그거 빼갈까 무서우니까.}
=1 @ 아 금방 애기 난 삼모가 걸 어터게 지켜요? {아, 금방 애기 난 산모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1 # 인자 치꾸더리 지키야지 시꾸더리 산뿔 핀 사라미 긍게 인자. {인제 식구들이 지켜야지, 식구들이 산불 핀 사람이 그러니까 인제.}
=1 # 혹씨라도 야걸라고 빼갈라나 동네가 그런 사람 이씅게 그거뚜 으심데자냐 그릉게 지키얀다해싸쿠 그러데 우덜 어려서 드르문. {혹시라도 약하려고 빼가려나 동네에 그런 사람 있으니까, 그것도 의심되잖아 그러니까 지켜야한다고 해쌓고 그러데, 우리들 어려서 들으면.}
=1 # 근디 지끔 나 이 무릅 아퍼서 병워니 간는디 태반 주사라구 노트라구 이 마넌씩 바더 함 번 노키 태반 주사 병워네서 그걸 구정해 오능가봐. {근데 지금 나 이 무릎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태반 주사라고 놓더라고, 이만 원씩 받아 한 번 놓기 태반 주사 병원에서 그걸

귀정해 오는가봐.}
=1 # 소 태반::두 야기고 소는 태바니 소는 사라미나 가따구 허자너 열 딸마이 나쿠. {소 태반도 약이고, 소는 태반이 소는 사람이나 같다고 하잖아 열 달만에 낳고.}
=1 # 그렁게 소 태반 주사두 이꼬 그냥 태반 주사두 이꾸 그러타구드라구 근디. {그러니까 소 태반 주사도 있고, 그냥 태반 주사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1 # 서천 병워니 가떠니 무릅 아풍게 이건 영양젠게 마저두 상관옵따구 사람게 종 거라구 그러먼서나 태반 주사라구 노아주는데 함 번 노문 이마넌씩 빠더. {서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아프니까, 이건 영양제니까 맞아도 상관없다고 사람에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는 태반 주사라고 놓아주는데, 한 번 놓으면 이만 원씩 받아.}
10702 @ 아무튼 그 용천들린 사람 사람드리 그게 조타구 그런 얘기도 이써써요? {아무튼 그 나병 걸린 사람,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1 # 나 세:번 네:번 마저써. {나 세 번, 네 번 맞았어.}
10702 # 에 그릉게 그리서 그랜능가부드드라구.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가 보더라고.}
=1 # 지끔 가마이 생각해보믄 태가 그르케 종 거신가배 그 영양부니 다 거가 이따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봐 그 영양분이 다 거기에 있다며.}
=1 # 아 애기가 으이 그. {아, 애기가 음 그.}
=1 @ 열 딸똥안 그 영양부느로 사라쓰니까. {열 달 동안 그 영양분으로 살았으니까.}
=1 # 그거 머꼬 사릉게 그랜능가바. {그것 먹고 사니까 그랬는가봐.}
10702 @ 할머니 그러며는 인제 뭐 뭐 그렁 거 그렁 거 이제 용천배기한테 조타고 뭐 땅 거는 뭐 업써써요 용천배기? {할머니, 그러면은 인제 뭐, 뭐 그런 거, 그런 거 나환자한테 좋다고 뭐 딴 거는 뭐 없었어요, 나환자?}
10702 # 땅 건 몰르지. {딴 건 모르지.}
=1 @ 그러며는 용천배 용처는 왜 들린다고 뭐 그런 얘기는 업써써요? {그러면은 용천배, 나병은 왜 들린다고 뭐 그러 얘기는 없었어요?}
=1 @ 어터케 하면 어떤 사라미 용천 들린다든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나병 들린다던지?}
=1 # 몰르지오 그거뚜 그거뚜 왜 들린다구 그렁 건 몰르구. {모르죠, 그것도, 그것도 왜 들린다고 그런 건 모르고.}
=1 @ 긍까 어떤 사라미 용천 들린다더라 뭐 이런 전해 오는 얘기가틍 건 업써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병 들린다더라 뭐 이런 전해 오는 얘기 같은 건 없었어요?}
=1 # 그런 전해 오는 얘기는 몰르구. {그런 전해 오는 얘기는 모르고.}
=1 @ 그렁 건 업꼬? {그런 건 없고?}
=1 # 으 그 용총배기 용춘놈 배기라고 해싸쿠 용천 드러따 해싸쿠 그 소리는 드러써 어리쓸 때. {응, 그 용천배기, 용천놈배기라고 해쌓고, 나병 들었다 해쌓고 그 소리는 들었어, 어렸을 때.}
=1 # 나 한 열 쌀찜 그르케 머거쓸 때 열 쌀 더 댄나? {나 한 열 살쯤 그렇게 먹었을 때, 열 살 더 됐나?}
=1 # 그런 때 그런 마리 이써써 그래서 그 사람 저:께 가 서쓰문 그께 앙 가구 그래지 무섭따구. {그런 때 그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 저기 가 섰으면 거기 안 가고 그랬지 무섭다고.}
=1 @ 그 사람 나중에 어트게 대는지 모르능 거조?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1 # 그릉게 그 사람 나 인자 떠나서 나오구 저기허구 헝게 우리 친정 똥넨디 그 그르케 헝게 그 사람 몰라 어뜨케 핸나. {그러니까 그 사람, 나 인제 떠나서 나오고 저기하고 하니까, 우리 친정 동네인데 그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몰라 어떻게 했나.}
10701 @ 할머니 아까 얼구레 주로 나는 그 이 버듬 버듬 비드밍가 뭐지 뭐여찌 버듬? {할머니 아까 얼굴에 주로 나는 그 이 버즘, 버즘, 버즘인가 뭐지, 뭐였지 버짐?}
10701 # 버듬? {버즘?}
10701 @ 마름버듬? {마른버즘?}
10701 # 잉. {응.}
10701 @ 에 그렁 거하고 부시럼하고는 어트게 달라요 할머니? {예, 그런 거하고 부스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할머니?}
10701 @ 부시러믄 머에요 부스러밍가? {부스럼은 뭐예요, 부스럼인가?}
10701 # 부스러믄 머시 뽈록 내미러가주구 곰찌. {부스럼은 뭣이 볼록 내밀어가지고 곪지.}
10701 @ 그럼 주로 어디 나요? {그럼 주로 어디 나요?}
10701 # 그어. {그거.}
10701 @ 옴 모메 다 날 쑤 인나? {온 몸에 다 날 수 있나?}
10701 # 이거 아문디나 나 날 쑤 나지 부술모근. {이거 아무데나 나, 날 수, 나지 부스럼은.}
10701 # 일리 머 암 디나. {이리 뭐, 아무 데나.}
10701 # 그르구 송꾸라기가 나서 막 생인손 알차녀? {그리고 손가락에 나서 막 생인손 앓잖아?}
10701 @ 에. {예.}
10702 # 송꾸라기서 막 머 곰:꾸 에 인자 뭗 골마가꾸 인자 머 짜먼 난는디. {손가락에서 막 뭐 곪고 에, 인제 뭣 곪아갖고, 인제 뭐 짜면 낫는데.}
10702 # 안 나슬라고 우선 막:: 욱씬그리구 아프면 머 배겨. {안 나으려고, 우선 막 욱신거리고 아프면 뭐 배겨.}
10702 # 근 배긴다구 그거시 배겨 그러믄 나찌두 앙쿠 먼 야게두 나찌두 안녀. {근 배긴다고 그것이 배겨, 그러면 낫지도 않고, 뭔 약해도 낫지도 않아.}
10702 # 그래가꾸 막 그저니는 고약 부처싸쿠 그래꺼든 그 근 배긴다구. {그래갖고 막 그전에는 고약 붙여쌓고 그랬거든 그 근 배긴다고.}
10701 @ 생인손 지금 얘기하능 거조? {생인손 지금 얘기하는 거죠?}
10701 # 음 손 부술망 난 디가 뭐 난 그 난 배기문 뭗 배기지 아느면 고롬 골무문 짜먼 나꺼든. {음, 손 부스럼 난 데가 뭐 난, 근 안 배기면, 뭣 배기지 않으면, 고름 곪으면 짜면 낫거든.}
10701 @ 부스러미? {부스럼이?}
10701 # 이이~ 부술마기 근디 근 배기능 거시 뭐 뭐 뽈쏙뽈쏙하게 무슨 이런 티염 배기데끼 그렁 거시 생겨서 배기면 아프기만 허지 안 나서. {응응, 부스럼이 근데 근 배기는 것이 뭐, 뭐 볼쏙볼쏙하게 무슨 이런 티눈 박이듯이 그런 것이 생겨서 배기면 아프기만 하지 안 나아.}
10701 @ 부슬망 난 자리에? {부스럼 난 자리에?}
10701 # 에 안 나서. {예, 안 나아.}
10701 @ 그니 배기먼 안 나서요? {근이 배기며 안 나아요?}

10701 # 근 배기문 안 나서 그래가꼬 막 더 사도개가꾸 막 더 아푸구 그러지 안 나떠라구. {근 배기면 안 나아 그래갖고, 막 더 사독해갖고, 막 더 아프고 그러지 안 낫더라고.}
10702 @ 그를 때 뭐 지베서 뭐 전해 오는 처방가능 거 업써요? {그럴 때 뭐 집에서 뭐 전해 오는 처방 같은 것 없어요?}
10702 # 그저니는 지비서는 몯 쩌기허구 고약 뿌치구 고약 사다 고약 뿌처 인자 막 찐덕찐덕건 고야기써. {그전에는 집에서는 못 저기하고, 고약 붙이고 고약 사다 고약 붙여, 인제 막 진득진득한 고약 있어.}
10702 @ 음. {음.}
10702 # 고. {고.}
10702 @ 까만색. {까만색.}
10702 # 까마내가꼬 그거 그거 일케 부리다 따따더게 혀서 이르케 이르케 늘리문 늘어나자너. {까매갖고 그거, 그거 이렇게 불에다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잖아.}
10702 # 그거 빠러내라구 그거 부치지 고약 그렁 거 부치구구. {그거 빨아내라고 그거 붙이지, 고약 그런 거 붙이고.}
10701 @ 그럼 부 부스락 나며는 고름도 가치 늘 나능 거에요 할머니? {그럼 부, 부스럼 나면 고름도 같이 늘 나는 거예요, 할머니?}
10701 @ 부스락 나면? {부스럼 나면?}
10701 # 부술망 나서 골물라문 그냥 아퍼따가 인자 노랑케 골무문 짜먼 나찌. {부스럼 나서 곪으려면 그냥 아팠다가 인제 노랗게 곪으면, 짜면 낫지.}
10701 @ 그게 고때 짜서 나오능 게 고르미에요? {그게 그때 짜서 나오는 게 고름이에요?}
10701 # 고룸. {고름.}
10701 @ 음. {응.}
10701 @ 주로 인제 그 고약 부처가지구 부스 부스럼? {주로 인제 그 고약 붙여가지고 부스, 부스럼?}
10701 # 그저니는 젇뚜 알라써 젇. {그전에는 젖도 앓았어, 젖.}
10701 # 애기 나서 인자 전 매기자너. {애기 낳아서 인제 젖 먹이잖아.}
10701 # 그럼 막 전몸살 허고문 추꾸 막 떠리 나고 아러. {그럼 막 젖몸살하고 하면, 춥고 막 떨고 앓아.}
10701 # 그러면 저시 띤::띠너게 몽울 드러. {그러면 젖이 딴딴하게 멍울이 들어.}
10701 # 그래가주구 인자 그 저시 아 골물라먼 얼마나 죽께 아푸나 몰라 막 사라미. {그래가지고 인제 그 젖이 아, 곪으려면 얼마나 죽게 아프나 몰라, 막 사람이.}
10701 # 그냥 아푸문 으연네 지비 가서 그저니는 으여난티 대패침 납짜::건 막 큰 치미로 째써. {그냥 아프면 의원네 집에 가서, 그전에는 의원한테 바소(피침) 납작한 막 큰 침으로 쨌어.}
10701 # 병워니 지끄믄 병워니서 그릉게 올마나 잘허저. {병원에 지금은 병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줘.}
10701 # 그러잔 그저니는 이런 돌파리 으연덜 그런 사람덜따 막 가믄 치미루 골무 골마따구 막 푹 찔러서 짜믄 고르미 마::이썩 나오지 그러먼 막. {그렇잖, 그전에는 이런 돌팔이 의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가면, 침으로 곪으, 곪았다고 막 푹 찔러서 짜면 고름이 많이씩 나오지, 그러면 막.}
10701 # 거기다가 인자 음 심 바거 인자 양 무처서 영사까루라구 양 무처서 에 백찌나 머시

다 이르케 야글 무처서 돌돌 마라가주구. {거기에다 인제 음, 심지박아 인제 약 묻혀서 영사가루라고, 약 묻혀서 에, 백지나 뭣에다 이렇게 약을 묻혀서 돌돌 말아가지고.}
10701 # 고룸 나오구 치미루 따서 고룸 나온 자리다 심 바거 냥냥 느서 바거. {고름 나오고, 침으로 따서 고름 나온 자리에다 심지박아, 이냥이냥 넣어서 박아.}
10701 # 그르케서 놔둬따 인자 그기서 고룸두 나오구 더 안 매키구 고로미 자꾸 나오구 짜지구 그냥 허믄 인자 난능 거여. {그렇게 해서 나뒀다 인제 거기서 고름도 나오고, 더 안 막히고, 고름이 자꾸 나오고, 짜지고 그냥 하면 인제 낫는 거야.}
10701 @ 아무러서 인제 떠러저요 그게? {아물어서 인제 떨어져요, 그게?}
10701 # 응 응. {응, 응.}
10701 # 나두 저 다러써 함 번. {나도 젖 앓았어, 한 번.}
10701 @ 아니 그거 얼마나 아플까! {아니, 그거 얼마나 아플까!}
10701 # 아퍼가꼬 막 몸살라서 막:: 잉:: 토허구 알쿠 머 불떵어리처럼 알쿠 막 왠 삭씨니 다 아프구. {아파갖고 막 몸살 나서 막 잉, 토하고, 앓고 뭐 불덩이처럼 앓고, 막 온 삭신이 다 아프고.}
10701 @ 전 몸살라며는뇨? {젖몸살 나면은요?}
10701 열라구 그냥 아러 저다를라먼 검나게 아퍼. {열나고 그냥 앓아, 젖 앓으려면 겁나게 아파.}
10701 @ 애기는 저또 몬 머꼬? {애기는 젖도 못 먹고?}
10701 # 애기는 인자 저또 한 쫑만 머꼬 몸 머꾸. {애기는 인제 젖도 한 쪽만 먹고, 못 먹고.}
10701 @ 그 점 몸살도 하는 사라 미꾸 아 나는 사라 미꾸 그래요? {그 젖몸살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그래요?}
10701 # 그르치. {그렇지.}
10701 # 지끄믄 전몸살 안태 전 매겨도. {지금은 젖몸살 않데, 젖 먹여도.}
10701 @ 점 몸사른 근데 왜 하능 거 가타요? {젖몸살은 근데 왜 하는 거 같아요?}
10701 @ 아 나는 사라믄 아 나는데 왜 하능 거 가타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왜 하는 것 같아요?}
10701 # 몰라 워츠게서 그냥 점몸사를 허나. {몰라 어떻게 해서 그냥 젖몸살을 하나.}
10701 # 대게 전몸살허믄 다 주거가 그르가꾸 나두 함 번 여기 미티 걷 골마서 저:: 월포라구 그기가서 으연네 가서 따구. {되게 젖몸살하면 다 죽어가 그래갖고, 나도 한 번 여기 밑에 젖 곪아서 저 월포라고 거기 가서 의원네 가서 따고.}
10701 # 심지 바꾸. {심지 박고.}
10701 @ 저즐 나올 때 제때 제때 안 짜줘서 그렁가 전몸사리? {젖을 나올 때 제때, 제때 짜줘서 그런가, 젖몸살이?}
10701 # 너머 부러두 그러치 저시 애기가 너머 부러두. {너무 불어도 그렇지 젖이, 애기가 너무 불어도.}
10701 @ 할머니 금 머리에 머 이케 가렵꼬 머 히게 떠러지능 거 그거 머라고 하셔쪼 아까 애기 잠깐 애기 하면서? {할머니 그럼 머리에 뭐 이렇게 가렵고, 뭐 희게 떨어지는 거, 그거 뭐라고 하셨죠, 아까 애기 잠깐 애기 하면서?}
10701 # 머리 비듬. {머리 비듬.}
10701 @ 음 그렁 거또 그냥 머 이유는 모르게꼬? {음, 그런 것도 그냥 뭐 이유는 모르겠

고?}
10701 # 응 머리 쏘기 허::여내가꾸 그냥 이런 디루 막 흐연케 쏘다저. {응, 머릿속이 허연해갖고 그냥 이런 데로 막 허옇게 쏟아져.}
10701 @ 여자 남자 할 꺼 업씨?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10701 # 이 머리 비듬 생기믄 그게 그냥 쏘다저 그른디 나는 그런 비드믄 안 생겨반는디. {응, 머리 비듬 생기면 그게 그냥 쏟아져, 근데 나는 그런 비듬은 안 생겨봤는데.}
10701 # 저기 이 근너서 사는 얼마 안 데네 막 비듬 생겨따구 개라 중는다구 개라서 글거쌈 막 허::연케 쏘다지구 그러드라구. {저기 이 건너에서 사는 얼마 안 되네, 막 비듬 생겼다고 가려워 죽는다고 가려워서 긁어쌓으면, 막 허옇게 쏟아지고 그러더라고.}
10701 # 그러 그러댕 저이 아드리 병워니가 이써 그릉게 인자 먼 야글 핸나 쌍 나서뜨라구 안 생기구. {그러, 그러더니 제 아들이 병원에 있어, 그러니까 인제 뭔 약을 했나 싹 나았더라고 안 생기고.}
10702 @ 그면 인제 그 옌날 옌날 가트며는 야기 가까이 업쓸 때는 머 뭘로 머 특벼리 머 까무면 조타등가 뭐 이렁 거 업써써요? {그러면 인제 그 옛날, 옛날 같으면은 약이 가까이 없을 때는 뭐 뭐로, 뭐 특별히 뭐 감으면 좋다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10702 @ 뭘 바른다등가? {뭘 바른다던가?}
10702 @ 무슨 무리 조타등가? {무슨 물이 좋다던가?}
10702 # 그릉게 인제 연고 그릉 거 사다 발르구. {그러니까 인제 연고 그런 거 사다가 바르고.}
10702 # 머리가 잘 지르라구 아주까루 대 쌀머서 그 물로 머리들 강꾸 그저니는 그래지 근디. {머리가 잘 기르라고, 아주까리 대 삶아서 그 물로 머리들 감고 그전에는 그랬지, 근데.}
10702 @ 머리 가려움 업쌔주는 머 약초 가틍 거 이릉 건 업써써요? {머리 가려움 없애주는 뭐 약초 같은 거, 이런 건 없었어요?}
10702 @ 푸리나 머 이렁 거는? {풀이나 뭐 이런 거는?}
10702 # 그렁 건 내가 아 녀봐씅게 몰라 그릉 건. {그런 건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런 건.}
10702 @ 그렁 거는 머? {그런 거는 뭐?}
10702 # 머 살구씨 살구씨 지름짜는 디가 이뜨라구. {뭐 살구씨, 살구씨 기름 짜는 데가 있더라고.}
10702 # 근디 그 살구씨 지름짜구 그 뻔데기 나오넝 거 그거 따순 무리다 당거따가 그 물루 가무문 갠찬타구싸구 그러데. {근데 그 살구씨 기름 짜고 그 번데기(살구깻묵) 나오는 거, 그거 따뜻한 물에다 담갔다가 그 물로 감으면 괜찮다고 해쌓고 그러데.}
10701 @ 그거는 머 음식 음식 때무네 그런 비 머리 삐듬 생길까요 할머니? {그거는 뭐 음식, 음식 때문에 그런 비, 머리비듬 생길까요, 할머니?}
10701 @ 그냥 지절로 생기나? {그냥 저절로 생기나?}
10701 # 뷔 몰라 참 뭐때미 생기나는. {뭐 몰라 참 뭣 때문에 생기나는.}
10701 @ 음. {음.}
10701 # 그냥 머리 비듬 마니 막 쏘다저싸쿠 허는 사람 이써. {그냥 머리비듬 많이 막 쏟아져쌓고 하는 사람 있어.}
10701 # 근디 건선 피부가 그런다구드라구 건선 피부. {근데 건성 피부가 그런다고 하더라고, 건성 피부.}

10701 @ 할머니 아까 도장뼝은 얼구레 마니 생기는 거여짜나요? {할머니 아까 도장병은 얼굴에 많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10701 # 어. {응.}
10701 @ 도장 찌거노은 거처럼 그케. {도장 찍어놓은 거처럼 그렇게.}
10701 # 어어~. {응응.}
10701 @ 근데 기게총은 머에요 할머니? {근데 기계총은 뭐예요?}
10701 # 엉? {엉?}
10701 @ 기 기게총이라능 거는? {기, 기계총이라는 거는?}
10701 # 기게총은 암 보던 소리 안 드러본 소리네. {기계총은 안 보던 소리, 안 들어본 소리네.}
10701 @ 아. {아.}
10701 # 도장삥 쏘리는 드러써도. {도장병 소리는 들었어도.}
10701 @ 음 머리에 애드리 이케 애들 머리 난다는? {음, 머리에 애들이 이렇게 애들 머리 난다는?}
10701 # 무덕무덕 빠지는 사람두 이써. {무덕무덕 빠지는 사람도 있어.}
10701 @ 그걷 그걸 여기서 머라구 해요? {그것,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해요?}
10701 @ 주로 애들 때 이르케 난다 난다는데? {주로 애들 때 이렇게 난다, 난다는데?}
10701 # 몰라 그거는. {몰라 그거는.}
10701 @ 기게총은 여기서는 별루 업써써요 할머니? {기계총은 여기서는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
10701 # 에 울 우리 애더리 그러케 안 생겨봐서 그렁 건 몰라. {응, 우리, 우리 애들이 그렇게 안 생겨봐서 그런 거는 몰라.}
10701 @ 할머니 그 눙 눙꼬비 보통 자고나면 눙꼽 끼지만 밸쓰럽께 아파서 이르케 머 끼능 거 이짜나요? {할머니, 그 눈, 눈곱이 보통 자고나면 끼지만, 별스럽게 아파서 이렇게 뭐 끼는 거 있잖아요?}
10701 @ 그렁 건 눈뼝 나쓸 때 눙꼽 끼나요 할머니? {그런 건 눈병 났을 때 눈곱 끼나요, 할머니?}
10702 # 눈뼝 나쓸 쩌기는 아냑 싸다 느야지 눙꼽 껴사코먼. {눈병 났을 적에는 안약 사다 넣어야지 눈곱 껴쌓고 하면.}
10701 @ 할머니 눈뼝은 눈뼝 누네 머 탈랑 거 주로 이름 이름드른 뭐 이써요? {할머니, 눈병은 눈병 눈에 뭐 탈난 거 주로 이름, 이름들은 뭐 있어요?}
10701 # 눈다라기. {.}
10701 @ 그건 눈다라기는 뭐 뭐 잘몬 만지고 비벼서 그렁 거에요? {그건 눈 다래끼는 뭐, 뭐 잘못 만지고 비벼서 그런 거예요?}
10701 # 아니여 고여니 나 눈다락찌는. {아니야, 공연히 나 눈 다래끼는.}
10701 @ 왜 나요? {왜 나요?}
10701 @ 어트게 나요? {어떻게 나요?}
10701 # 마른 머 나며는 그 눈다락찌 나문 떠 거더머글라 구런다 해싸쿠 사람더리 그냥 해찌. {말은, 뭐 나며는 그 눈 다래끼 나면, 떡 얻어먹으려고 그런다 해쌓고, 사람들이 그냥 했지.}
10701 # 그런디 자고 이러나믄 고여::니 거가 가려가꼬 어츠게 생겨 그러문 자꾸 그거시 소

사가꾸 골마.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공연히 거기가 가려워갖고 어떻게 생겨, 그러면 자꾸 그것이 솟아갖고 곪아.}
10701 @ 골마요? {곪아요?}
10701 # 엉 눈다락찌가 가시가 인자 머 나가꾸. {응, 눈 다래끼가 가장자리가 인제 뭐 나갖고.}
10701 # 그러믄 노랑께 골무면 그거 이러::케 눌러서 짜면 나뜨라구. {그러면 노랗게 곪으면, 그게 이렇게 눌러서 짜면 낫더라고.}
10701 @ 야근 머 아래 위 다 아무데나 나요? {약은, 뭐 아래 위 다 아무데나 나요?}
10701 @ 위나 아래나 이케 아무데나 다 다락찌가 이써써요? {위나 아래나 이렇게 아무데나 다 눈 다래끼가 있었어요?}
10701 # 에 위두 날 쑤 이꾸 아래두 날 쑤 이꾸. {응, 위도 날 수 있고, 아래도 날 수 있고.}
10701 @ 음 그면 그. {음, 그러면 그.}
10701 # 나두 눈다락찌 잘 라써써 각씨 때. {나도 눈 다래끼 잘 났었어, 각시 때.}
10701 @ 아::. {아.}
10701 # 그러뎅 그거또 나이 머궁게 안 나드라구. {그러더니 그것도 나이 먹으니까 안 나더라고.}
10702 @ 그럼 눈다락찌는 뭐 뭐 뭐 조응 건 업써요? {그럼 눈 다래끼는 뭐, 뭐, 뭐 좋은 것 없어요?}
10702 @ 지베서 머 바르먼 상는다등가? {집에서 바르면 삭는다든가?}
10702 # 업써 발르능 거. {없어 바르는 거.}
10701 @ 어 눈다락찌는 왜 나능 거 가찌두 안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 눈 다래끼는 왜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0701 # 갑짜기 고여니 개라믄 나. {갑자기 공연히 가려우면 나.}
10702 # 그러구 인자 눈다락찌 나면 거께치 눈썹 송눈써벌 빼면 갠찬타구 그러드라구. {그러고 인제 눈 다래끼 나면 겉에 치 눈썹, 속눈썹을 빼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10702 # 그런디 그거 빼두. {그런데 그거 빼도.}
10702 @ 아 쏭눈 쏭:눈 눈 쏭눈서블 뺀다구요? {아, 속눈, 속눈, 눈, 속눈썹을 뺀다고요?}
10702 # 이 거기 나는 디 치 송눈썹 그기 치 빼내면 갠찬타구 그래싸트만. {응, 거기 나는데 치, 속눈썹 거기 치 빼내면 괜찮다고 그래쌓더구먼.}
10701 # 그어또 막 크게 나문 월매나 욱씬욱씨니 골물라머 아프다구. {그것도 막 크게 나면 얼마나 욱신욱신하니 곪으려면 아프다고.}
10702 # 골머먼 노란케 보야 골뭉 거시 그러믄 그기 이르케서 짜면 나때. {곪으면 노랗게 보여 곪은 것이, 그러면 거기 이렇게 해서 짜면 낫데.}
10701 @ 그건 머 옹꺼나 하나요? {그건 뭐 옮거나 하나요?}
10701 # 오오 옴능 거 아녀. {오, 오, 옮는 거 아냐.}
10701 @ 아. {아.}
10701 # 에. {예.}
10701 # 에 눈다라기. {예 눈 다래끼.}
10701 @ 누눈 그러면 누네 옴는 병은 머 이써요 누네? {눈은 그러면, 눈에 옮는 병은 뭐 있어요, 눈에?}
10701 # 누네피. {눈병).}

10701 @ 그건 머에요 할머니? {그건 뭐예요, 할머니?}
10701 # 누네피는 누니 막 끄리구 눈아리 빨가내가꾸 눈 뚜구 떠두 막 눈아리 빨강코 누구 체다볼래두 누니 시구 그러 그런 누네피는 올라. {눈병은 눈에 막 끌이고 눈알이 빨개갖고 눈 뜨고 떠도 막 눈알이 빨갛고, 누구 쳐다보려고 해도 눈이 시고 그려, 그런 눈병은 옮아.}
10701 @ 아 금 에기 피때가 막 서능 거에요? {아, 그럼 여기 핏대가 막 서는 거예요?}
10701 # 에 에. {예 예.}
10701 @ 아::! {아!}
10701 # 누네피는 눈 눈 나쁜 사라믄 처다보믄 올라. {눈병은 눈, 눈 나쁜 사람은 쳐다보면 옮아.}
10701 @ 처다만 바도 올마요? {쳐다만 봐도 옮아요?}
10701 # 에 올라. {응, 옮아.}
10701 # 그저니 막 누네피 학생덜뚜 누네피 하나가 올르기 시자겨서 마니 버드믄 학꾜도 중단허자너. {그전에 막 눈병 학생들도 눈병 하나가 옮기 시작해서 많이 번지면 학교도 중단하잖아.}
10702 @ 할머니 머 지베서 머 임시로 머 씨서주는 무리 이따등가? {할머니, 뭐 집에서 뭐 임시로 뭐 씻어주는 물이 있다든가?}
10702 # 소금물로. {소금물로.}
10702 # 소금물 타서 자꾸 씨뜨라구 근디 그건 형식쩌기지 무슨 소금무리 야기여? {소금물 타서 자꾸 씻더라고, 근데 그건 형식적이지 무슨 소금물이 약이야?}
10701 # 지끄믄 누네피두 웁써 안약떨 렁게 그러나. {지금은 눈병도 없어, 안약들 넣으니까 그러나.}
10701 # 웁뜨라구 그저니는 누네피 올른 사람 마내찌. {없더라고 그전에는 눈병 옮은 사람 많았지.}
10701 # 누네피 올라서 그 사람 안 처다볼라 애싸쿠. {눈병 옮아서 그 사람 안 쳐다보려고 해쌓고.}
10701 @ 할머니 바렌 무좀 이짜나요? {할머니, 발에는 무좀 있잖아요?}
10701 # 에. {응.}
10701 @ 그 인제 주로 여름 여르메 나나요 무조믄? {그, 인제 주로 여름 여름에 나나요, 무좀은?}
10701 # 그치 무좀 인는 사라믄 송꾸락 새배기두 막 무좀 이써서 헐 허는 사람 이떼. {그렇지, 무좀 있는 사람은 손가락 사이에도 막 무좀 있어서 헐, 허는 사람 있데.}
10701 @ 아 솜발 할 꺼 업씨? {아, 손발 할 거 없이?}
10701 # 에. {응.}
10701 # 여자두 막 무좀 생기문 이 송꼬락 새이가 뻘거내가꾸 막 허는 사람 이써. {여자도 막 무좀 생기면, 이 손가락 사이가 뻘개갖고 막 허는 사람 있어.}
10701 @ 그거는 습찐하 습찌니냐능 거허고 어트게 달라요 할머니? {그것은 습진하, 습진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할머니?}
10701 # 숩찡은 음 소니 허물벋꾸. {습진은 음, 손에 허물 벗고.}
10701 @ 그릉 거 여자만 그릉가 습찡은? {그런 건 여자만 그런가, 습진은?}
10701 @ 습징은 여자만? {습진은 여자만?}
10701 # 흔이 여자가 그러데. {흔히 여자가 그러데.}

10701 @ 음 그거뚜 물릴 하느라구? {음, 그것도 물일 하느라고?}
10701 # 물릳 물 무처쌍게 그러나? {물일, 물 묻혀쌓으니까 그러나?}
10701 # 여자가 어 저기 우리 동네 저 미티 싸람 하는디 잉::. {여자가 어, 저기 우리 동네 저 밑에 사람 하는데 잉.}
10701 # 무조미라구 막 손 이런 디 새도 막 가랴서 문질루문 막 뻘::거니 막 헐더라구. {무좀이라고, 막 손 이런 데 사이도 막 가려워서 문지르면 막 뻘겋게 막 헐더라고.}
10701 # 근디 반찬 뭐두 만들구 허먼 껄쩍찌근허데. {근데 반찬 뭐도 만들고 하면 꺼림칙하데.}
10702 @ 인제 그렁 거는 뭐 지베서 무슨 물 우려낸 무레 당그면 조타거나 뭐 이렁 거 업써요 할머니? {인제 그런 거는 뭐 집에서 무슨 물, 우려낸 물에 담그면 좋다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할머니?}
10702 @ 무조미나 이렁 거는? {무좀이나 이런 거는?}
10702 # 무좀 약 싸서 발르야지 소용웁써. {무좀 약 사서 발라야지 소용없어.}
10702 # 담배 담배 으~ 꽁초 그걷 이르케 문질르먼 갠찬타구. {담배, 담배 응, 꽁초 그것 이렇게 문지르면 괜찮다고.}
10702 @ 고 가루 그거? {고 가루 그거?}
10702 # 에 인자 그 실타에가 드릉 거 그렁 거. {응, 인제 그 필터에 든 거, 그런 거.}
10702 # 그렁 거 담배 발르믄 난는다구 그렁 거 발러싸쿠 그래싸트라구. {그런 거 담배 바르면 낫는다고, 그런 거 발라쌓고 그래쌓더라고.}
10701 @ 그럼 무조문 주로 물 무를 만저서 나는 나나요? {그럼 무좀은 주로 물, 물을 만져서 나는, 나나요?}
10701 @ 무를 마니 만저서요? {물을 많이 만져서요?}
10701 # 아니여 무좀 생기는 사라미 이써 물 만저도. {아니야, 무좀 생기는 사람이 있어, 물 만져도.}
10701 # 다 가치 물 만처두 갠차는 사람두 이꾸. {다 같이 물 만져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10701 @ 사철 라요 무조믄? {사철 나요, 무좀은?}
10701 # 무조문 여름처리가 더 허지. {무좀은 여름철에 더 하지.}
10701 # 그 선생님두 무조 민는가부대 발꼬락. {그 선생님도 무좀 있는가 보데 발가락.}
10701 # 저기 이 이르케 이르케 생긴 양발 시능 거 봉게. {저기 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양말 신은 거 보니까.}
10701 @ 발꼬랑 양말. {발가락 양말.}
10701 # 이~ 그래서 내 소기루 발꼬랑 양발 시느믄 사라미 쫌 잘 암 안 조케 비여. {응, 그래서 내 속으로 발가락 양말 신으면 사람이 좀 잘 안, 안 좋게 보여.}
10701 # 가마이 보니까 그걷 양발 신뜨라구 그런데 무조 민는 사라믄 그려. {가만히 보니까 그것 양말 신더라고, 그런데 무좀 있는 사람은 그래.}
10701 @ 할머니 그 손 트능 거 주로 겨우레 마니 트자나요? {할머니 그 손 트는 거 주로 겨울에 많이 트잖아요?}
10701 @ 근데 그냥 트기만 하능 게 아니라 어능 거 이짜나요 왜 손하고 바리? {근데 그냥 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는 거 있잖아요, 왜 손하고 발이?}
10701 # 음. {음.}
10701 @ 겨우레 머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겨울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10701 # 손 시럽. {손 시려.}
10701 @ 손시령 머 나따구래요 손시렁 들려따구래요 머라구래요? {손시렁 뭐 났다고 그래요, 손시렁 들렸다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10701 # 손 어러 소 소니 그냥 어러따구지 소니 어러. {손 얼어, 소, 손이 그냥 얼었다고 하지, 손이 얼어.}
10701 @ 그니까 그 그러케 그런 병 이르문 머라고 하냐구? {그니까 그, 그렇게 그런 병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고?}
10701 @ 어 어러서 된 소니나 바리 어러버링 거? {어, 얼어서 된 손이나 발이 얼어버린 거?}
10701 # 그게 병이간? {그게 병인가?}
10701 # 추먼 얼지 추문 막 소니 손 어는 병은 업찌. {추우면 얼지, 추우면 막 손이, 손 어는 병은 없지.}
10701 @ 머 익 동상이라거나 이르케 부르진 앙코? {뭐, 익, 동상이라거나 이렇게 부르진 않고?}
10701 # 그거 동상 걸린 거슨 어름 배깅 거. {그거 동상 걸린 것은 얼음 박힌 거.}
10701 @ 어름 배깅 거? {얼음 박힌 거?}
10701 # 어름 배겨. {얼음 박혀.}
10701 @ 그건 어떵 게? {그건 어떤 게?}
10701 # 추워서 부대껴싸며는 막 부서가꾸 가렵꾸 그러가꾸 어름 배겨. {추워서 부대껴쌓으면은 막 부어갖고, 가렵고 그래갖고 얼음 박혀.}
10701 @ 그건 어디에? {그건 어디에?}
10701 # 저 너머 추워서 부대끼면 어름 배기면 해마더 출 때는 가럅구 붇:꾸 그려 어름 배깅 거. {저, 너무 추워서 부대끼면, 얼음 박히면 해마다 추울 때는 가렵고 붓고 그래, 얼음 박힌 거.}
10701 @ 금 병이네 그니까? {그럼 병이네 그러니까?}
10701 # 그거야 그르치 그게 동상 걸링 거여. {그거야 그렇지, 그게 동상 걸린 거야.}
10701 @ 아 그게 동상이에요? {아, 그게 동상이에요?}
10701 # 어 엉. {응 응.}
10701 @ 어름 배깅 거? {얼음 박힌 거?}
10701 # 잉 어름 배깅 거 그런디 그 어름 빠질라면. {응, 얼음 박힌 거, 그런데 그 얼음 빠지려면.}
10701 @ 아니 할머니 그 왜 왜 그런 니리 왜 생겨요? {아니, 할머니 그 왜, 왜 그런 일이 왜 생겨요?}
10701 @ 추운데 오래 나가 이써서? {추운데 오래 나가 있어서?}
10701 # 너머 어러싸먼 소니. {너무 얼어쌓으면 손이.}
10701 # 너::머 손 시러서 부대끼구 부대끼구 자꾸 손 시러서 부대끼구 지끄믄 그릉 거 웁짜녀 그르케 안 추니까. {너무 손 시려서 부대끼고, 부대끼고 자꾸 손 시려서 부대끼고,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그렇게 안 추우니까.}
10701 @ 바레두 난 바레두 나는데? {발에도 나, 발에도 나는데?}
10701 @ 그러면 추우니까 할머니? {그러면 추우니까, 할머니?}
10701 # 발두 발두 추워서 어름 배기믄 그르지 발 시려 싸믄. {발도, 발도 추워서 얼음 박히

면 그러지, 발 시려쌓으면.}
10701 # 머 얄께 시너가주구 자::꾸 발 시려서 부대껴싸면 어름 배겨. {뭐 얇게 신어가지고 자꾸 발 시려서 부대껴쌓으면, 얼음 박혀.}
10701 @ 어름 배기면? {얼음 박히면?}
10701 # 그게 어름 배기문 가끔 가다 막 아푸고 저기허여 아무 때나. {그게 얼음 박히면, 가끔 가다 막 아프고 저기해 아무 때나.}
10701 # 그게 잘 안 나서 어름 배기먼. {그게 잘 안 나아 얼음 박히면.}
10701 @ 그럼 머 더운 데 손 너면 가렵꾸 그러나요? {그럼 뭐 더운 데 손 넣으면 가렵고 그러나요?}
10701 @ 어름 배긴 손 따뜨탄 데 너면? {얼음 박힌 손 따뜻한 데 넣으면?}
10701 # 그르치 막 개럅꾸 붇:꾸 막 이 섬섬섬섬서미 막 그런댜. {그렇지 막 가렵고, 붓고 막 이 섬섬섬섬섬 막 그런대.}
10701 @ 그런 거이 겨우레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런 것이 겨울에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10701 @ 어름 배깅 거는 증상이? {얼음 박힌 거는 증상이?}
10701 # 어름 배깅 건 겨우리 추::워서 부대껴싸믄 보미 가서 그런 형상이 나타나따구더라구. {얼음 박힌 건 겨울에 추워서 부대껴쌓으면, 봄에 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10701 @ 매년 인제? {매년 인제?}
10701 # 으이 매년 인자. {응, 매년 인제.}
10701 @ 나타나구 또 나타나구.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10701 # 추꾸 그러케 생기먼 또 그러케 생기구 그러케 생기구. {춥고 그렇게 생기면, 또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생기고.}
10702 @ 그렁 건 어트케 하믄 떠러진다구 해요 할머니?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떨어진다고 해요, 할머니?}
10702 @ 머? {뭐?}
10702 # 어토게야 난는 야근 찯. {어떻게 해야 낫는 약은 찾.}
10702 @ 조타 하는 방펴는 엄나? {좋다 하는 방편은 없나?}
10702 @ 옌날부터 어름 배깅 거는? {옛날부터 얼음 박힌 거는?}
10702 # 동상 걸링 건 잘 안 난는다구더라구. {동상 걸린 건 잘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
10702 # 콩에다가 콩::에다 소널 당거 놔두면 드런다나? {콩에다, 콩에다 손을 담가 놔두면 덜 한다고 하나?}
10702 @ 그냥 콩 생콩? {그냥 콩, 생콩?}
10702 # 에 그 콩이다. {응, 그 콩에다.}
10702 @ 생콩 사이에 소늘 지버 넌는다고요? {생콩 사이에 손을 집어 넣는다고요?}
10701 # 에. {응.}
10702 # 그냥 허먼 드런다구 그러늘 허드만 그르케써서 나꺼써 인자? {그냥 하면 덜 한다고 그렇게들 하더구먼, 그렇게 해서 낫겠어, 인제?}
10702 # 무순 야글 치 치료해야지. {무슨 약을 치, 치료해야지.}
10701 @ 할머니 감기? {할머니 감기?}
10701 # 동 동상 걸려서 마니 시머면 써거 드러가 이 이. {동, 동상 걸려서 많이 심하면 썩

어 들어가 이, 이.}
10701 # 이 저기가 강가기 옵써가주구 동상 올케 어르물 마니 배겨서 동상 걸리문 약뚜 우꾸 그 썽는다구더라구. {이 저기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동상 옳게 얼음이 많이 박혀서 동상 걸리면 약도 없고, 썩는다고 하더라고 그.}
10701 @ 할머니 아까 어름 배깅 거 말구 또 아 아까 머라구 핻지? {할머니, 아까 어름 박힌 거 말고, 또 아 아까 뭐라고 했지?}
10701 @ 손 머 송씨랑 송시랑이라고 핸나 무슨 씨랑? {손 뭐 손시랑, 손시랑이라고 했나 무슨 시랑?}
10701 # 손 시러. {손 시려.}
10701 @ 음 손. {음, 손.}
10701 # 아이 출 쩌기 막 손 시러서 후 이냥 허자너 그게 손 시렁 거지. {아이, 추울 적에 막 손 시려서 후, 이냥 하잖아 손 시린 거지.}
10701 @ 할머니 감기 이짜나요? {할머니, 감기 있잖아요?}
10702 @ 에 요새는 워낙 흔하지만 옌나레는 병원까지 앙 가고 지베서 머 어트게 나순는 무슨 방법 업써써요? {예, 요새는 워낙 흔하지만 옛날에는 병원까지 안 가고 집에서 뭐 어떻게 낫는 무슨 방법 없었나요?}
10702 @ 음시그로나? {음식으로나?}
10702 # 가 강기 드르문 생강 끄려서 머꾸 무수 글거서. {가, 감기 들리면 생강 끓여서 먹고 무 긁어서.}
10702 @ 생무수? {생무?}
10702 # 이~ 생무수 글거서 꿀 루쿠 이르케 서꺼서 재놔따가 그 물 머그믄 난는다구 그이 그러드라구 강기. {응, 생무 긁어서 꿀 넣고 이렇게 섞어서 재어놨다가 그 물 먹으면 낫는다고 그, 그러더라고 감기.}
10702 # 그게. {그게.}
10702 @ 생무수를 써러가지고 꾸레 재어. {생무를 썰어가지고 꿀에 재어.}
10702 # 글거서. {긁어서.}
10702 @ 아 글거서. {아, 긁어서.}
10702 # 수재로 글거서 꿀루 서꺼서 재놔따 그 물 머그믄 강기 낟꾸 생강 끄려서 머그믄 나꾸 마른 그러 그러드라구. {숟가락으로 긁어서 꿀로 섞어서 재어놨다가 그 물 먹으면 감기 낫고, 생강 끓여서 먹으면 낫고 말은 그러, 그러더라고.}
10701 @ 또 머 땅 건 업써요? {또 뭐 딴 건 없어요?}
10701 @ 감기나 할머니 할머니 감기가 여러 가지 종뉴가 이짜나요? {감기나 할머니, 할머니 감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10701 # 그치. {그렇지.}
10702 @ 에 머 어떤 어떵 거 이써요? {예, 뭐 어떤, 어떤 것 있어요?}
10701 # 모깡기. {목감기.}
10701 @ 또? {또?}
10701 # 코강기. {코감기.}
10701 @ 코감기는 머지? {코감기는 뭐지?}
10701 # 코 콤물 라오고 코 코 코강기 목꾸녕 아푼 강기. {코, 콧물 나오고 코, 코, 코감기, 목구멍 아픈 감기.}

10701 @ 게속 기침만 해대는 감기는? {계속 기침만 해대는 감기는?}
10701 # 응 지침 나는 강기도 이꼬. {응, 기침 나는 감기도 있고.}
10701 @ 또 인제 여리 막 펄펄? {또 인제 열이 막 펄펄?}
10701 # 머리 아푸구 열라구 허는 강기도 이꾸 그러치. {머리 아프고, 열나고 하는 감기도 있고 그렇지.}
10702 @ 근데 증상이 다 쪼금씩 다른데 기치믈 연신 해대는 감기는 머 기침 멈추는 데 머 머 조타 이렁 건 업써요? {근데 증상이 다 조금씩 다른데 기침을 연신 해대는 감기는 뭐 기침 멈추는 데 뭐, 뭐 좋다 이런 건 없어요?}
10702 @ 머 끄려 머꺼나? {뭐 끓여 먹거나?}
10702 # 배:: 가러서 꿀루 재놔따 머그먼 지침 가란는다구 그러구 으냉 으냉. {배 갈아서 꿀로 재놨다가 먹으면, 기침 가라앉는다고 그러고 은행, 은행.}
10702 @ 으냉은 어트게 머거요? {은행은 어떻게 먹어요?}
10702 # 으냉 머그먼. {은행 먹으면.}
10702 @ 어트게 머거요? {어떻게 먹어요?}
10702 # 기침. {기침.}
10702 @ 보까 멍나? {볶아 먹나?}
10702 # 으냉 으냉 보까서 으냉 하루여 세 개쓰깅가 그냥 게:속 보굥허며는 조탸 사람게 강기에두 조쿠 지침허는 디두 조쿠 가래가 상는다구더라구. {은행, 은행 볶아서 은행 하루에 세 개씩인가 그냥 계속 복용하면은 좋대, 사람에게 감기에도 좋고, 기침하는 데도 좋고, 가래가 삭는다고 하더라고.}
10701 @ 아 차 가래 나는 감기가 이꼬? {아, 참 가래 나오는 감기가 있고?}
10701 # 어 가래 나오능 강기 이꾸 지침강기 이꾸 여러 가지 강기가 이찌 감기두. {응, 가래 나오는 감기 있고, 기침감기 있고, 여러 가지 감기가 있지 감기도.}
10701 @ 할머니 중 여기서두 중풍이라고나요? {할머니, 중, 여기서도 중풍이라고 그러나요?}
10701 @ 바람든다고 하나? {바람 든다고 하나?}
10701 @ 머라고 하나 나이 드셔서 요즈믄 절믄 사람들또 풍이라구 하나? {뭐라고 하나, 나이 드셔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풍이라고 하나?}
10701 @ 풍이 와따고? {풍이 왔다고?}
10701 # 혀라비라구대 지끄믄 그거떠러 혀라비라구는디 그게 마러자믄 풍이여. {혈압이라고 하데, 지금은 그것더러 혈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풍이야.}
10701 @ 으. {응.}
10701 @ 풍이 풍이 와따그래요 풍이 드러따 그래요 뭐라 그래요? {풍은 풍이 왔다 그래요, 풍이 들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10701 # 풍을 풍이 와따구지 마비대는 풍. {풍이, 풍이 왔다고 그러지 마비되는 풍.}
10701 @ 마비대는 마비대 마비대는 응 긍깐 풍이 와따 그러나? {마비되는, 마비되, 마비되는 응, 그러니깐 풍이 왔다 그러나?}
10701 # 어 그러치. {어, 그렇지.}
10701 @ 풍이 와서 저 사람 풍이 와서 마비대따 그러나? {풍이 와서, 저 사람 풍이 와서 마비됐다 그러나?}
10701 # 응응응 풍. {응응응, 풍.}

10701 # 그거 참 무성 거여 한 쪼기 마비대서 심 몯 써 한 쪼곤. {그거 참 무서운 거야, 한 쪽이 마비돼서 힘 못 써, 한 쪽은.}
10701 # 에 머리에서 피쭈리 터지먼 그런다구더라구. {에, 머리에서 핏줄이 터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
10701 # 터지믄 한 쪼글 쓰덜 모 뎌. {터지면 한 쪽을 쓰질 못 해.}
10701 @ 머 남자 여자. {뭐 남자, 여자.}
10701 # 뒤룽뒤룽 주근 거처럼. {뒤룽뒤룽 죽은 것처럼.}
10701 @ 남자 여자 할 꺼 업씨?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10701 # 그러치 남자 여자 헐 꺼 없씨 함 번 쓰러저서 풍 마지믄 마자따구대 풍 마지믄 션차녀. {그렇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한 번 쓰러져서 풍 맞으면 맞았다고 하데, 풍 맞으면 시원치 않아.}
10701 # 한 쪽 수조굴 모 쓰던지 그려. {한 쪽 수족을 못 쓰든지 그래.}
10701 @ 머 주로 나이 드셔서 생기는 이링가요 그런 이른? {뭐 주로 나이 드셔서 생기는 일인가요, 그런 일은?}
10701 @ 나이 드신 어르신분만? {나이 드신 어르신분만?}
10701 # 나이 드른 사라미 흐니 더 마녀. {나이 든 사람이 흔히 더 많아.}
10701 # 그게 그러구 절문 사람두 그런 사람 이때 안타깝대 참::. {그게 그리고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 있데, 안타깝데 참.}
10701 @ 그렁 건 머 유전 가뜽가요 헐머니? {그런 건 뭐 유전 같던가요, 할머니?}
10701 @ 아닌가? {아닌가?}
10701 @ 시꾸 중에서? {식구 중에서?}
10701 # 혀라븐 유저니여 풍두 유저니여 풍이 혀라빈디. {혈압은 유전이야, 풍도 유전이야, 풍이 혈압인데.}
10701 # 부모가 이마 버서저가주구 풍이루 고생허는 사라믄 그 미티 사 즈기 자여질뚜 머리가 막 버서지구 대머리 대구 그 유저니 대더라구. {부모가 이마 벗겨져가지고 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그 밑에 사, 저기 자녀들도 머리가 막 벗겨지고, 대머리 되고, 그 유전이 되더라고.}
10702 @ 그럼 풍 만능 걸 좀 마가주는 음시기라등가 머머 이릉 건 엄나요 할머니? {그럼 풍 맞는 걸 좀 막아주는 음식이라든가 뭐뭐 이런 건 없나요, 할머니?}
10702 @ 풍을 좀 예방하거나 그런 운동이 이꺼나 머? {풍을 좀 예방하거나 그런 운동이 있거나 뭐?}
10702 # 풍에 조타구 그 지끔 그 전 소리가 아니구 지끔 소리여. {풍에 좋다고 그 지금 그 전 소리가 아니고, 지금 소리야.}
10702 # 그런디 지그믄 풍이 안 온다구 예방이라구 그러드라구 우리서 그게 머냐궁게. {그런데 지금은 풍이 안 온다고, 예방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게 뭐냐고 하니까.}
10702 # 매실 한 개 장닥 이씨 난 알 유정난. {매실 한 개, 수탉 있게 난 알, 유정란.}
10702 # 장닥 옵씨 난는 알두 이꼬 암탁만 매겨서 난는 알두 이꼬 유정나니라고 장닥 이씨 장닥 허구 가치 교배혀서 난는 알 그거 하나. {수탉 없이 낳는 알도 있고, 암탉만 먹여서 낳는 알도 있고, 유정란이라고 수탉 있게 수탉하고 같이 교배해서 낳는 알, 그거 하나.}
10702 # 매실 하나 증종 세 수깔 멍우 이파리 착착 찌여서 그걷 세 수깔 그르케서 싹싹 인자 서꺼서 호납혀서 머그면. {매실 하나, 정종 세 숟갈, 머위 이파리 착착 찧어서 그것 세

숟갈, 그렇게 해서 싹싹 섞어서 혼합해서 먹으면.}
10702 @ 아른 아른 쌩달걀 깨가지구? {알은, 알은 생달걀 깨가지고?}
10702 # 생달갈 신자만 그르케서 서꺼서 머그믄 풍이 예방댄댜. {생달걀 흰자만 그렇게 해서 섞어서 먹으면, 풍이 예방된대.}
10702 @ 찌어 가주구? {찧어 가지고?}
10702 # 어. {어.}
10702 @ 써꺼서 그냥 인제? {섞어서 그냥 인제?}
10702 # 나두 그거 해머거써 오리. {나도 그거 해먹었어, 올해.}
10702 @ 건더기를 이케 씨버머거요 그러면 인제? {건더기를 이렇게 씹어 먹어요, 그러면 인제?}
10702 # 아니. {아니.}
10702 @ 찌어 가지고? {찧어 가지고?}
10702 @ 그면? {그러면?}
10702 # 매시른 가라서 느쿠. {매실은 갈아서 넣고.}
10702 @ 에. {예.}
10702 # 증종은 무리구 멍우 찐 물두 무리구 네 가지여. {정종은 물이고, 머위 찧은 물도 물이고 네 가지야.}
10702 @ 힌 자위? {흰 자위?}
10702 # 음 게란 신자허고 매실 하나 가라서 느쿠 증종 네 수깔 세 수깔. {음, 계란 흰자하고 매실 하나 갈아서 넣고, 정종 네 숟갈, 세 숟갈.}
10702 # 멍우 이파리 세 숟갈 쌀머서 그러케서 저기 가라서 서꺼서 머그면 풍이 예방이랴. {머위 이파리 세 숟갈 삶아서 그렇게 해서, 저기 갈아서 섞어서 먹으면, 풍이 예방이래.}
10702 @ 함 범만 땅 머거도? {한 번만 딱 먹어도?}
10702 # 에 한 번 머거도 그려서. {응, 한 번 먹어도 그래서.}
=1 @ 그럼 멍우 이파리는 어떤 처레 제일 조아요? {그럼 머위 이파리는 어떤 철에 제일 좋아요?}
=1 @ 그거 해먹끼 어떤 처리 제일 조아요? {그거 해먹기 어떤 철이 제일 좋아요?}
=1 # 아무때나 조 쩌먹찌 매실 이쓸 때 허야지 매실 읻 여러쓸 때. {아무 때나 좋, 찧어먹지, 매실 있을 때 해야지, 매실 있, 열었을 때.}
10702 # 저거 멍우 이파리 아무때나 따서. {저거 머위 이파리 아무 때나 따서.}
10702 @ 매실 신선할. {매실 신선할.}
10702 # 깨까이 시처가꼬. {깨끗이 씻어갖고.}
10702 @ 매실 신설할 때. {매실 신선할 때.}
10702 # 응? {응?}
10702 @ 매시를 이근 매시리? {매실을 익은 매실이?}
10702 # 이 이 이그 매실 인자 따고 헐 무러비. {이, 이, 익어 매실 인제 따고 할 무렵에.}
10702 @ 에. {예.}
10702 # 매실 이쓸 때 그르케서 머그면. {매실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먹으면.}
10702 @ 얼마나 마시고 얼마나 마시면 존나? {얼마나 마시고, 얼마나 마시면 좋나?}
10702 # 읻? {응?}
10702 @ 그냥 그 고 힌자위하고 고 양망큼만 세 술깔하고 고 땅 나누면? {그냥 그 고 흰자

위하고 고 양만큼만 세 숟갈하고 고 딱 나누면?}
10702 # 그치 네 수깔 레 수깔 세 수까리라고 덩가? {그렇지 네 숟가락, 네 숟가락, 세 숟가락이라고 하던가?}
10702 # 그러케 허고 게란 신자 느코 매실 하나 가러 느코 헝게 머 양이라고 찌끄미지. {그렇게 하고 계란 흰자 넣고, 매실 하나 갈아 넣고 하니까, 뭐 양이라고 조금이지.}
10702 @ 마시 머 어떠틍가요 할머니? {맛이 뭐 어떻든가요, 할머니?}
10702 # 쬐끔. {조금.}
10702 @ 비리게따! {비리겠다!}
10702 # 암시랑 안태. {아무렇지도 않데.}
10702 @ 그래요? {그래요?}
10702 # 응. {응.}
10702 @ 머글만 하셔써요? {먹을 만하셨나요?}
10702 # 어 머거 머글만혀 아무나 먹거. {응, 먹어, 먹을 만해, 아무나 먹어.}
10702 # 그이 나이 드른 사라믄 그게 노이나껴서 그걸 다 일러 주더랴. {그, 나이 든 사람은 그게 노인학교에서 그걸 다 알려 주더래.}
10702 # 노이나껴서 그게 예방이라고 조타구 해머그라구 그러더랴. {노인학교에서 그게 예방이라고 좋다고 해먹으라고 그러더래.}
10702 # 그러타구 그거 프린트해서 우리 시누랑이 주데. {그렇다고 그거 프린트해서 우리 시누이랑 주데.}
10702 # 그래서 그걷 혀서 저 집 그 칭구허구 나허구 친구네 으-ㅇ가머구 그냥 혀서 머거써. {그래서 그것 해서, 저 집 그 친구하고 나하고 친구네 영감하고 그냥 해서 먹었어.}
10702 @ 음:: 그래요? {음, 그래요?}
10702 # 그게 그 그게 조타건다구 혀서 근디 게란 장닥 인는 유정나니 구허기가 어렵때. {그게, 그 그게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근데 계란 수탉 있는 유정란이 구하기가 어렵대.}
10702 # 장이서 난 나능 거슨 다 그게 부어 저기서 이 앵 양교장이서 막 암탕만 이써써 그냥 알 란능거여 그거는. {장에서 난, 낳는 것은 다 그게 부화 저기서 이 양, 양계장에서 막 암탉만 있어서 그냥 알 낳는 거야, 그거는.}
10702 # 그런디 암타거고 장다거고 하냥 키워가주구 난는 알:리야 헌댜. {그런데 암탉하고 수탉하고 함께 키워가지고 낳는 알이어야 한대.}
10702 # 거서 그걷 구정혀찌 닥짱사한티. {거기서 그것 귀정했지, 닭장사한테.}
10702 # 닥짱사 저 가 이써서 그기는 막 장닥또 벌::거내. {닭장사 저기에 있어서 거기는 막 수탉도 벌개.}
10702 # 큰:: 장닥 만녀 팔러 댕깅게. {큰 수탉 많아 팔러 다니니까.}
10702 # 그렁게 부아장이서 이~ 병아리 깨는 사람더리 다 가지간댜 아를. {그러니까 부화장에서 응 병아리 깨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대 알을.}
10702 # 그런다개서 거기서 구정해다 해머거써.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귀정해다가 해먹었어.}
10702 @ 또 머 땅 거 머 업써요 할머니? {또 뭐 딴 거 뭐 없어요, 할머니?}
10702 @ 그런 음식 쪼코 또 머? {그런 음식 좋고, 또 뭐?}
10702 # 땅 건 몰라 풍이 조타개서 그거슨 해머거 봐써. {딴 건 몰라 풍에 좋다고 해서 그것은 해먹어 봤어.}

10702 @ 그믄 할머니 훨씬 더 절무셔쓸 때 엔나레는 머 어르신드리 하던 애기 업써써요? {그러면 할머니 훨씬 더 젊으셨을 때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이 하던 애기 없었어요?}
10702 @ 머에 조타 풍 드는 데는? {뭐에 좋다 풍 드는 데는?}
10702 # 그렁 건 몰르구. {그런 건 모르고.}
10701 # 내가 입 삐트러저써써. {내가 입 삐어졌었어.}
10701 # 이비 한 쪼기루 확 또라가드라구 그서. {입이 한 쪽으로 확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10701 @ 어느 날 아치메? {어느 날 아침에?}
10701 # 어느 날 아치미 이~:: 어디 갈라구 누주룰 글르 그 발르라구 이르케 해봉게 한 쪼기로 이냥 트러저써 쪼매. {어느 날 아침에 어디 가려고 루주를 그리, 그 바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쪽으로 그냥 틀어졌어, 조금.}
10701 # 이상허다 왜 왜 그러까 그냥 허구 인자 누주 그리구 그냥 이사가꺼든. {이상하다 왜 왜 그럴까 그냥 하고, 인제 루주, 그리고 그냥 이사 갔거든.}
10701 # 장항써 먼 행사헐 땐디 그냥 가써 그래떠니 저녁 때 뎅게 인자 더 확 삐트러 지능 거여. {장항에서 뭔 행사할 땐데 그냥 갔어, 그랬더니 저녁 때 되니까 인제 더 확 비틀어지는 거야.}
10701 # 그래서 병워니를 갈랑게 그 나리 또 이료이리더라구. {그래서 병원에를 가려니까 그 날이 또 일요일이더라고.}
10701 # 그서 인자 갈 띠가 엄때 그래서 인자 하느여니라구 침 노쿠 허는 지비 전화해 봉게 본다고대 그래서 거기를 가써. {그래서 인제 갈 데가 없데, 그래서 인제 한의원이라고 침을 놓고 하는 집에 전화해 보니까 본다고 하데, 그래서 거기를 갔어.}
10701 # 그래땡 치믈 막 사방이다 노쿠 그래가꾸 막 침짜리가 막 툭툭 다 내미러가꾸 시커머케 멍들드라구 침짜리가. {그랬더니 침을 막 사방에다 놓고, 그래갖고 막 침자리가 막 툭툭 다 내밀어갖고, 시커멓게 멍들더라고 침자리가.}
10701 # 그냥 생인데 도저히 안 대거써. {그냥 생겼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10701 # 그래서 인자 우리 아들 딸들허구 애기해써. {그래서 인제 우리 아들딸들하고 애기했어.}
10701 # 그냥 입 삐트러저 갑자기 이냥 입 삐트러진다 그래떠니. {그냥 입 비틀어져, 갑자기 그냥 입 비틀어진다고 그랬더니.}
10701 # 응:: 따리랑 이 말::짱 와가주구 막 날리란네 인자 얼른 가자구. {응, 딸이랑 이, 말끔(모두) 와가지고 막 난리 났네, 인제 얼른 가자고.}
10701 # 나 그래서 병워니 가따 완는디 거기서 하냐글 지어서 머거 가면서 시보마눠니랴. {나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약을 지어서 먹어 가면서 십오만 원이래.}
10701 # 머거가며서 치물 마꾸 치료를 바드라구두라구 그이서. {먹어가면서 침을 맞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10701 # 그펑게 하냑 지라구 해찌 그래떠니. {급하니까 한약 지으라고 했지, 그랬더니.}
10701 # 잉:: 막 와가꾸 대전이루 가자구 막 대저니루 데로꾸 가데. {잉, 막 와갖고 대전으로 가자고, 막 대전으로 데리고 가데.}
10701 # 그래 가써 그래뎅 저 구민는 따리 또 구미루 오랴 막:: 그래싸서 인자 구미루 갈라고 해떠니. {그래 갔어, 그랬더니 저 구미 사는 딸이 또 구미로 오래 막 그래쌓아서 구미로 가려고 했더니.}
10701 # 청주서 사는 망내 씨누가 또 거기 병오이서두 모 꼬치는디 대악 뼝오이서두 모 꼬

치는디 그 사람다 고처따구 또 그루 오랴. {청주에서 사는 막내 시누이가 또 거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대학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그 사람이 고쳤다고 또 거기로 오래.}
10701 # 그래서 인자 그 청주 고모네를 가짜녀 나 참:: 사연 기퍼. {그래서 인제 그 청주 고모네를 갔잖아, 나 참 사연 깊어.}
10701 # 거기를 가뗑 할머니 하나가 인자 그 고친다는 지비를 데르고 가대 저녁 때. {거기를 갔더니 할머니 하나가 인제 그 고친다는 집에를 데리고 가데, 저녁 때.}
10701 # 그래 할머니 인는 디루 데루 가. {그래 할머니 있는 데로 데리고 가.}
10701 # 그러뎅 내가 이느케 이비 삐트러저따구 해떠니 보뎅이 하창케 생각허더라구 그럼서.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입이 비틀어졌다고 했더니, 보더니 하찮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면서.}
10701 # 담배 펴 그 할머니가 그래가머 그러냐고 그러뎅. {담배 펴, 그 할머니가 그래가면서 그러냐고 그러더니.}
10702 # 바까티 나가서나 그 마늘 빠수는 디다 머슬 콩 콩 콩 콩 찌태. {바깥에 나가서는 그 마늘 빻는 데다 뭣을 콩 콩 콩 콩 찧데.}
10702 # 그러더니 도토리 껍떼기 반절 딱 갈러써 도토리 껍떼기. {그러더니 도토리 껍데기 반으로 딱 갈랐어, 도토리 껍데기.}
10702 # 거기다가 그 빵궁 거슬 냥 다머서 가꼬 와가주구 여기다 부처줘. {거기다가 그 빻은 것을 그냥 담아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줘.}
10702 # 여기다 그게 뭉가 몰라 그게 할미꼳뿌링 거 가터 내 생가기. {여기다 그게 뭔가 몰라, 그게 할미꽃 뿌리인 것 같아 내 생각이.}
10702 # 가따 여다 부채주고 제돌마니 띠라구 그려. {갖다 여기에다 붙여주고 하루 만에 떼라고 그래.}
10702 # 인자 오놀 저녁 때 부처쓰믄 내일 저녁 때 떠라 이거여. {인제 오늘 저녁 때 붙였으면, 내일 저녁 때 떼어라 이거야.}
10702 # 그래서 그거를 인자 고모네서 돈 심마넌두 더 줜네 그러구서나 그거를 부치구 난써. {그래서 그것을 인제 고모네서 돈 십만 원도 더 줬네, 그러고서는 그것을 붙이고 났어.}
10701 # 그래뗑 구미서 사는 따리 또 막 그루 오라루 야단나써 그리서 인자 그기다 이걸 부치구 거기를 가써. {그랬더니 구미에서 사는 딸이 또 막 거기로 오라고 야단났어, 그래서 인제 거기다 이걸 붙이고 거기를 갔어.}
10702 @ 어트게 부터 인나 이게? {어떻게 붙어 있나, 이게?}
10702 # 인저 인저 인저 여기다 자 톡 솓께 그거를 부치구서 반창쿠 그렁 걸루 인자 안 떠러지게 부채노코서 띠지 말구 제돌마니 띠랴. {인제, 인제, 인제 여기다 인제 톡 솟게 그것을 붙이고서, 반창고 그런 걸로 인제 안 떨어지게 붙여놓고서 떼지 말고 하루 만에 떼래.}
10702 # 그래서 인자 그기를 가써 그래뗑. {그래서 인제 거기를 갔어, 그랬더니.}
10702 # 제돌마니 인자 막 군실군시리 그냥 아프두 안테 그리서. {하루 만에 인제 막 군실군실이 그냥 아프지도 않데 그래서.}
10701 # 제돌마니 떠 봐찌 저녁 때 인자 딸래 망내딸래 가가주구. {하루 만에 떼 봤지 저녁 때 인제 딸네, 막내딸네 가가지고.}
10701 # 꽈로마냥 막 불::룩 부루터서 물 재핑 거여. {꽈리처럼 막 불룩, 부르터서 물 잡힌 거야.}
10701 @ 아이~깡 그냥 맨사레? {아, 그러니깐 그냥 맨살에?}

10701 # 이? {응?}
10701 @ 그냥 부치기만 핸는데? {그냥 붙이기만 했는데?}
10701 # 그냥 사리다 부천는디. {그냥 살에다 붙였는데.}
10701 @ 부치기만 핸는데도? {붙이기만 했는데도?}
10701 # 이~ 그거를 인자 제돌마니 저녁 때 부천는디 저녁 때 뗘 봉게 뽈::로기 노랑 무리 막 하나 드러가꼬. {응, 그것을 인제 하루 만에 저녁 때 붙였는데 저녁 때 떼보니까, 뽈록하게 노란 물이 막 하나 들어갖고.}
10701 # 뽈록 나오나가꾸 막 알르날른허게 막 인자 케 부러낭 거여 부르터써. {뽈록 나와갖고 알른알른하게 막 인제 불어난 거야, 부르텄어.}
10701 # 그래서 인자 그 무룰 그기다 놔 두먼 안 데거떼. {그래서 인제 그 물을 거기다 놔 두면 안 되겠데.}
10701 # 톡 소사가주구 밀룽밀룽해서 그서 그 무를 인자 바늘 끄시루 찔러서 빼찌. {톡 솟아가지고 물렁물렁해서, 그래서 그 물을 인제 바늘 끝으로 찔러서 뺐지.}
10701 # 또 괴야 자꾸 또 괴야 그래서 인자 여기를 그르케 하구 이자 이러케 부처써 그래뗑. {또 괴어, 자꾸 또 괴어, 그래서 인제 여기를 그렇게 하고, 인제 이렇게 붙였어 그랬더니.}
=1 # 입 삐트러징 거뚜 안 나서가꾸 그기 그냥 생여따구 인자 따리 막 병워니를 가쟈 늘꾸 뇌사진 찍짜구. {입 비틀어진 것도 안 나아갖고 거기 그냥 생겼다고, 인제 딸이 막 병원에를 가재 자꾸 뇌 사진 찍자고.}
=1 # 입 삐트러지는 디 뇌가 워츠게 생겨씅게 그러느믈 보야 안다구 그래서 뇌사진 찌그러 병워니를 가써 구미서. {입 비틀어지는데 뇌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그런 가를 봐야 안다고 그래서 뇌 사진 찍으러 병원에를 갔어, 구미서.}
=1 # 그래뗑 우리 사위가 은행 차장이여 어 홍차장님 오션냐구 막 그냥 인사를 허대 그러뎅 뇌사지늘 거기서 찡는디. {그러더니 우리 사위가 은행 차장이야, 어, 홍차장님 오셨냐고 막 그냥 인사를 하데, 그러더니 뇌 사진을 거기서 찍는데.}
=1 # 차장님::이시냐구 그래가머 그 원장이 그려. {차장님이시냐고 그래가면서 그 원장이 그래.}
=1 # 그러뎅 참 뇌사진 찡는 디 비싸더구만? {그러더니 참 뇌 사진 찍는 데 비싸더구먼?}
=1 # 그런디 돈두 확씨리 들 받떼 그릉게. {그런데 돈도 확실히 덜 받데 그러니까.}
=1 @ 차장니미라고? {차장님이라고?}
=1 # 잉:: 차장니미::냐시냐구 그릉게 우리 딸 마리. {응, 차장님이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딸 말이.}
=1 # 엄마 홍 저기 홍서방 시미 그냥 큰 중 몰란네! {엄마 홍, 저기 홍 서방 힘이 그렇게 큰 줄 몰랐네!}
=1 # 우스머 그러드라우 인자 병원 오니까 돈 가따 느쿠 이르케 은행이 마니 댕깅게 잘 알드라구 그 이를. {웃으며 그러더라고 인제 병원 오니까, 돈 갖다 넣고 이렇게 은행에 많이 다니니까 잘 알더라고 그 이를.}
=1 # 그래서 그래뗑 시 뇌사진 찌거봉게 뇌사지는 참:: 확씨러구 아무 이상어꾸 늘께 치매 걸리구 이럴 염녀가 업따구 걱쩡 말라구 그러드라구. {그래서 그랬더니 시 뇌 사진 찍어보니까 뇌 사진은 참 확실하고 아무 이상 없고, 늘그막에 치매 걸리고 이럴 염려가 없다고, 걱정 말라고 그러더라고.}

=1 # 그리서 거기 병워니 가서 치료헝게 인자 그러타는 애기를 해주야자녀 여 왜 그러냐구 헝게 여기도 치료허야거꾸. {그래서 거기 병원에 가서 치료하니까, 인제 그렇다는 애기를 해줘야 하잖아,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기도 치료해야겠고.}
=1 # 그래서 그 소리해뗑 우서 중는다구 우뜨라구 그 사람더리 그르뎅 병워니서 마리 귀 뒤에서 잠꽌 마비가 되며는 이비 삐트러진댜. {그래서 그 소리했더니 우스워 죽는다고 웃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병원에서 말이 귀 뒤에서 잠깐 마비가 되면은 입이 비틀어진대.}
=1 # 근자 뇌에서 이상 이써서 입 삐트러진 사라믄 얼름 안 낟꾸 뇌는 아무 이상 엄는디 귀에서 마비된 사라믄 한 달찜 되믄 도라 온다구더라구. {그 인제 뇌에서 이상 있어서 입 비틀어진 사람은 얼른 안 낫고, 뇌는 아무 이상 없는데 귀에서 마비된 사람은 한 달쯤 되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1 # 이렁 걷 아내도 도라온댜 그리서 대저니루 인자 그냥 허구 사진 찌꾸 와꺼든 대전 딸래루 그래뗑. {이런 것 안 해도 돌아온대, 그래서 대전으로 인제 그냥 하고 사진 찍고 왔거든 대전 딸네로 그랬더니.}
=1 # 대전 딸래 옹게 들꾸 싱경외꽈를 가쟈 그리서 인자 싱경외꽈 가찌. {대전 딸네 오니까 자꾸 신경외과를 가재, 그래서 인제 신경외과 갔지.}
=1 # 그름 강게 다:: 이런 디 만저주구 입 삐트러진 디 이러케 저기혀서 마싸지를 해주고 전기루 치료해주고 그러드라구. {그래 가니까 다 이런 데 만져주고, 입 비틀어진 데 이렇게 저기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전기로 치료해주고 그러더라고.}
=1 # 그래서 이 집 그 소리를 또 해써 인자 여기 왜 그러냐구쌍게 그냥 싸매씅게 나서씅게 그러지 무서께 생겨써써. {그래서 이 집 그 소리를 또 했어, 인제 여기 왜 그러냐고 해쌓으니까, 그냥 싸맸으니까, 나았으니까 그러지 무섭게 생겼었어.}
=1 # 그 소리 해뗑 그런 사람두 그르케 허구 온 사람두 더러 이뜨라구 허면서 우서싸 그 사람두. {그 소리 했더니,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고 온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 하면서 웃어쌓아, 그 사람도.}
=1 # 사시른 치료 안 해두 입 삐트러징 거는 한 달짐 데며는 귀 뒤에 마비뎅 건 도라온다구 제들로 그러뎅. {사실은 치료 안 해도 입 비틀어진 것은 한 달쯤 되면은 귀 뒤에 마비된 건 돌아온다고 저절로 그러더니. }
=1 # 거기서 한 이 중가 이번해따 태워내서 와써. {거기서 한 이 주인가 입원했다 퇴원해서 왔어.}
10701 # 그래뗑 스::사루 도라오뎅 제대로 완저니 도라오더라구. {그랬더니 서서히 돌아오더니 제대로 안전히 돌아오더라고.}
10701 # 그래두 여기는 그 사람 마리 이걷 나스며 이분 나승게 걱정헐 꺼 업땨 그드 그이 마리 이거 부채준 사람 마리. {그래도 여기는 그 사람 말이 이것 나으면 입은 나으니까 걱정할 거 없대, 그드, 그이 말이 이거 붙여준 사람 말이.}
10701 # 그러뎅 애기 쏘리 드릉게 한 달찜 데문 자연간 도라오농 걸 아라뜨라구 그 사라믄. {그랬더니 애기 소리 들으니까 한 달쯤 되면 자연히 돌아오는 걸 알았더라고 그 사람은.}
10702 # 그래가주구 그이네 으-ㅇ가미 요런 약뿌리 할미꼬뿌리여 이게 보나마나 그게시 도켜 할미꼬뿌리가. {그래가지고 그이네 영감이 요런 약 뿌리 할미꽃 뿌리야, 이게 보나마나 그것이 독해 할미꽃 뿌리가.}
10702 # 산꼬링게 그 할미꼳뿌리 쩌서 부채줘써. {산골이니까 그 할미꽃 뿌리 찧어서 붙여

췄어.}
=1 # 그 으-ㅇ가미 그걸 고치다가 으-ㅇ가미 주궁게 마느라가 허능 거여. {그 영감이 그걸 고치다가 영감이 죽으니까 마누라가 하는 거야.}
=1 # 그리가주구 여기가 이르케 멀쩡헌 디가 숭저땅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멀쩡한데가 흉 졌다니까.}
=1 # 여기 심쭐린는 디라 올마나 무서께 생겨썬나 몰라 나서씅게 그러지. {여기 힘줄 있는데라 얼마나 무섭게 생겼었나 몰라, 나았으니까 그렇지.}
=1 @ 그니까 그 할머니가 아무거또 안 해줘떠라도 나아쓰 나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줬더라도 나았어, 나아[x쓰x]?}
=1 # 이 그 이르 거 암 부치구 이르케 숭 안 저써도 병워니만 그냥 가서. {응, 그 이런 거 안 붙이고 흉 안 졌어도 병원에만 그냥 가서.}
=1 # 놔:둘 쑤는 웁찌 까까벙게 입 삐트러저씅게 긍게 병워니만 스사루 댕겨써도 난는디. {놔둘 수는 없지 갑갑하니까, 입 삐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만 서서히 다녔어도 낫는데.}
=1 # 매 싸라미 날리가 난네 인자 엄마 입 삐트러저따구 막. {몇 사람이 난리가 났네, 인제 엄마 입 삐뚤어졌다고 막.}
=1 # 고모 엄마 입 삐트러저따구싸쿠 머 그냥 헝게. {고모, 엄마 입 삐뚤어졌다고 해쌓고 그냥 하니까.}
=1 # 그냥 서로가 잘 고칠라구 인자 서두러서 이르케 생깅 거여. {그냥 서로가 잘 고치려고 인제 서둘러서 이렇게 생긴 거야.}
=1 @ 할머니 그 그 할미꼬뿌리가 또 딴 데도 어디 머 약초처럼 써요? {할머니 그, 그 할미꽃 뿌리가 또 딴 데도 어디 뭐 약초처럼 써요?}
=1 @ 어디 딴 이상 이쓸 때도? {어디 딴, 이상 있을 때도?}
=1 # 그저니 할미꼳뿌리를 왜 도컨지 여기다 부친 중 아냐먼. {그전에 할미꽃 뿌리를 왜 독한지 여기다 붙인 줄 아냐면.}
=1 @ 어특 아셔써요 도칸지? {어떻게 아셨어요, 독한지?}
10705 # 그저네 하루거리 마니 아를 때 하루거리 떠러지라구 엽쩐 똥루라넌 엽쩐 니모징 거이짜너? {그전에 하루거리 많이 앓을 때, 하루거리 떨어지라고 엽전 네모난 거 있잖아?}
10705 # 그 엽쩐 부치구 대구. {그 엽전 붙이고 대고.}
10705 # 이 다리나 오디다가 그 하루거리 마니 아러쌈서 안 떠러지믄 그 할미꼬찝 꼬리 뿌리를 찌여서. {이 다리나 어디다가 그 하루거리 많이 앓아쌓아서 안 떨어지면, 그 할미꽃집 꼬리, 뿌리를 찧어서.}
10705 # 그 엽쩐 대구 거이다 부치문 거가 부르터가주구 이르케 상처이써가꾸 난는다구 그때 그르케 혀써 나 어려서. {그 엽전 대고 거기에다 붙이면 거기가 부르터가지고, 이렇게 상처 있어갖고 낫는다고 그때 그렇게 했어, 나 어려서.}
10705@ 하루거리가 떠러진다구. {하루거리가 떨어진다고.}
10705 # 하리 아룰 때 하루거리 아를 때. {하루 앓을 때, 하루거리 앓을 때.}
10705 @ 하루거리 떠러진다구? {하루거리 떨어진다고?}
10705 # 이 하루거리를 내가 무지허게 아러써꺼든 옌나리. {응 하루거리를 내가 무지하게 앓았었거든 옛날에.}
10705 # 막 다리 미구녀기루 무서께 드러가라구 막 달 미티 드러감 뱜 그릉 거 인능가꾸 무

섭짜너 그릉게 막 거기 드러가라구두 허구. {막 다리 밑구멍으로 무섭게 들어가라고, 막 다리 밑에 들어가면 뱀 그런 거 있는 거 같고 무섭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 들어가라고도 하고.}
10705 # 나 두러논서 뉘여노쿠 소가 나를 근너가라구두 허구 놀래먼 떠러진다구 그냥두 허구 그래써. {나 드러눕히고서 뉘어놓고, 소가 나를 건너가라고도 하고, 놀라면 떨어진다고 그냥도 하고 그랬어.}
10705 # 우리 오빠덜뚜 이꾸 우리 어머이랑 아버지랑이 다 그르케 하루거리 아라싸서 하루 걸러서 함 버씩 한추거구 아러싸서 옌나리는 그래써. {우리 오빠들도 있고,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이 다 그렇게 하루거리 앓아쌓아서, 하루 걸러서 한 번씩 한축하고 앓아쌓아서 옛날에는 그랬어.}
=1 # 그래서 이게 할미꼬싱 거이구나 할미꼳뿌리구나 핻 생가기 드르가드라구. {그래서 이게 할미꽃인 거구나, 할미꽃 뿌리구나 했,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10705 @ 그니까 그 할미꼬뿌리를 하루거리 때 그르케? {그러니까 그 할미꽃 뿌리를 하루거리 때 그렇게?}
10705 # 하루거리 그저니 아러쓸 때 그걸 해찌 그서 난는다구. {하루거리 그전에 앓았을 때 그걸 했지, 그래서 낫는다고.}
10705 @ 네. {네.}
10701 @ 그럼 할머니 이케 머 이비 삐뚜러지거나 머 누니 머 이르케 머 끼거나. {그럼 할머니 이렇게 뭐 입이 삐뚤어지거나, 뭐 눈에 뭐 이렇게 뭐 끼거나.}
10701 @ 머 아무튼 어디가 좀 이르케 삐뚜러지거나 하는 거를 거를 옌나레도 머 그런 니리 이써쓸 꺼 아니에요? {뭐 암튼 어디가 좀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하는 거를, 거를 옛날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701 @ 옌날 어르신들두? {옛날 어르신들도?}
10701 # 근디. {근데.}
10701 @ 혹시 머 찬 차거 차거운 바다게 자고나면 머 이비 삐뚜러진다거나 이런 이리 읻썯써요? {혹시 뭐 찬, 차거, 차가운 바닥에 자고나면 뭐 입이 삐뚤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701 # 이~ 다드미똑 비구 두러누믄 입 삐트러진다고구 참 차게 허구 자믄 이비 삐트러진다구 그래찌 그랜는디 그게 아니고. {응, 다듬잇돌 베고 드러누우면 입 삐뚤어진다고 하고, 참 차게 하고 자면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랬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10701 # 이러케 이비 삐트러저서 치료를 혀보구 허는 결과 그걸 느껴써. {이렇게 입이 삐뚤어져서 치료를 해보고 하는 결과 그걸 느꼈어.}
10701 # 암시랑 아내도 이 시 이 심쭈리 귀 뒤에서 마비가 댄댜 잠꽌 귀 뒤에서 이러케 멈춰서 마비대문 이비 삐트러진다구더라구 병워니서. {아무렇지도 안 해도 이, 시, 이 힘줄이 귀 뒤에서 마비가 된대, 잠깐 귀 뒤에서 이렇게 멈춰서 마비되면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러더라고 병원에서.}
10701 @ 음 그저 연 연세가 드셔서 그렁 가요 그렁 거는? {음, 그 저 연, 연세가 드셔서 그런 가요, 그런 것은?}
10701 @ 절문 사람들도 그렁가? {젊은 사람들도 그런가?}
10701 # 절문 사람두 그 마비가 데면 그런댜 절문 사람두. {젊은 사람도 그 마비가 되면 그런대, 젊은 사람도.}

10701 # 나는 늘거서 인자 입알래 삐트러지구 입 삐트러저가꾸 항시 요로::케 생긴 사람도 이써 안 나꾸. {나는 늙어서 인제 입까지 삐뚤어지고, 입 삐뚤어져갖고 항시 요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 안 낫고.}
10701 # 그 사라믄 뇌가 이상이 이꾸 뇌가 안 조와서 그러케 안 나꾸 뇌 암시랑 아넌 사라믄 귀 뒤에서 마비대서 한 달대면 도라온댜 암::시랑 안 탸. {그 사람은 뇌가 이상이 있고 뇌가 안 좋아서 그렇게 안 낫고, 뇌 아무렇지 안한 사람은 귀 뒤에서 마비돼서 한 달되면 돌아온대, 아무렇지도 안 하대.}
10702 @ 할머니 그럼 그 이 할머니 어려쓸 때 긍까 그 이전 어르신드른 그르케 삐뚜러지면 뭐 뭐 이르케 하면 조타 이렁 거? {할머니, 그럼 그 이 할머니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 어르신들은 그렇게 삐뚤어지면 뭐,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거?}
10702 # 그저니는 삐트러지면 대추나무 알고지 대추나무 꺼꺼서 알괭이 맹그려가꾸 귀여다혀서. {그전에는 삐뚤어지면 대추나무 알구지 대추나무 꺾어서 알구지 만들어갖고 귀에다 해서.}
10702 # 인자 이 쪼기로 삐트러저쓰먼 이 쪼기루 자부댕겨서 거러너찌 냥 엔나리는. {인제 이쪽으로 삐뚤어졌으면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걸어 넣지 그냥 옛날에는.}
10702 # 그래 그러. {그래 그려.}
10702 @ 수물 레 시간 내내? {스물 네 시간 내내?}
10702 # 으 이~ 그 인자 머글 때만 빼구. {응 잉, 먹을 때만 빼고.}
10702 # 이~ 이까 여케 얼가서 이르케 거러나둬써 그러 그러믄. {잉, 이렇게,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걸어놔 뒀어, 그러, 그러면.}
10702 @ 그루구 잠 잘 때도 그러고 자고? {그러고 잠 잘 때도 그러고 자고?}
10702 # 이~ 그러믄 난는다구 그래써 그랜는디. {응, 그러면 낫는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1 # 싱경꽈에서 싱경치료를 혀서 그러나 잘 도라와써 나는 암씨랑 안케. {신경과에서 신경치료를 해서 그러나 잘 돌아왔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1 # 한 달찜 뎅게 완전히 도라와서 제대로 되드라구. {한 달쯤 되니까 완전히 돌아와서 제대로 되더라고.}
10702 @ 옌나레는 그 대추나무 그르케 해써꼬? {옛날에는 그 대추나무 그렇게 했었고?}
10701 # 이~ 그릉게 엔나리두 침 그렁 거 신경꽈에서는 하뉘한티 치믈 마찌 말라구더라구. {응, 그러니까 옛날에도 침 그런 거 신경과에서는 한의한테 침을 맞지 말라고 하더라고.}
10701 # 치물 야수기 마지며는 안 댄다구 침 마찌 말라구. {침을 함부로 맞으면은 안 된다고, 침 맞지 말라고.}
10701 # 침 암 마저두 사시른 병워니서 마리 한 달찜 대먼 도라온다구. {침 안 맞아도 사실은 병원에서 말이 한 달쯤 되면 돌아온다고.}
10701 # 어 츠미 삐트러지믄 놀래서 그냥 놔둘 쑤는 업찌만 인자 그냥 치료받꾸 그저 그러면 난는다구 절때 한방이 가서 침 막 마꾸 이르케 허지 말라구 그러더라고. {어, 처음에 삐뚤어지면 놀라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만, 인제 그냥 치료받고 그저 그러면 낫는다고, 절대 한방에 가서 침 막 맞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1 @ 그래두 머 치미 머 여러 가지 병 고친다잔하요 머 이런? {그래도 뭐 침이 뭐 여러 가지 병 고친다잖아요, 뭐 이런?}
=1 # 그르치 마른 그려 그런디. {그렇지 말은 그래 그런데.}
=1 # 내가 인자 야걸 시보마너니 지라고 마춴네. {내가 인제 약을 십오만 원에 지으라고 맞

췄네.}
=1 # 인자 따리 데려가써 대전써 그래서 내가 약 그거 마춰서 어츠겐다니 그래뎅. {인제 딸이 데려갔어 대전에서, 그래서 내가 약 그거 맞춰서 어떻게 한다니 그랬더니.}
=1 # 엄마는 그게 크냐구 야기 크냐구 내가 저놔헐 팅게 걱정어지 말라 그러뎅 전화허데. {엄마는 그게 크냐고, 약이 크냐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전화하데.}
=1 # 긍게 야글 차자가야지 마춴는디 어트갸느냐구 헝게 여기서 가서 머글 새:두 오꾸 대전 와서 며 딸 이따 갈 꺼라구. {그러니까 약을 찾아가야지 맞췄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서 가서 먹을 새도 없고 대전 와서 몇 달 있다 갈 거라고.}
=1 # 약 딴 사람 주라구 그냥 취소해 뻐리드랑게. {약 딴 사람 주라고 그냥 취소해 버리더라니까.}
=1 # 그래가꾸 입 삐트러저따 나서써 그래가꼬냥 내가 숭할래 움썬는디 이르케 숭 저써. {그래갖고 입 삐뚤어졌다 나았어, 그래갖고 그냥 내가 흉까지 없었는데 이렇게 흉 졌어.}
=1 @ 크게 전네요? {크게 졌네요?}
=1 # 커:게 저땅게 막 잉::그때는 안 나서쓸 때는 막 마니 널버써써. {크게 졌다니까 막 잉, 그때는 안 나았을 때는 막 많이 넓었었어.}
=1 # 긍게 그런 얘기를 허구 치료를 바드야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1 # 멀 부채줜나 몰로니까. {뭘 붙여줬나 모르니까.}
=1 # 그래뎅 우서싸트랑게 그걸 그. {그랬더니 웃어쌓더라니까 그걸 그.}
10705 @ 할머님 그 옌나레 그 얼굴 옴능거요? {할머님, 그 옛날에 그 얼굴 얽는 거요?}
10705 # 어. {응.}
10705 # 그거는 긍까 호녁 아라쓸 때만 그런 니리 이러나능 겅가요? {그것은 그러니까 홍역 앓았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10705 # 혼녀기 아니구 얼굴 얼근 거슨 손니미여. {홍역이 아니고, 얼굴 얽은 것은 손님이야.}
10705 @ 아 소니미 와서? {아, 손님이 와서?}
10705 # 음 손니미 시덕 쏜니미라고 손니미여. {음, 손님이 시댁 손님이라고 손님이야.}
10705 # 그래가꼬 시머게 아를 쩌게 어른네 보는디 그 아푼 사람 보는디 극떤지 뭘 먹떤지 그러믄 막 그 시늉을 헌댜. {그래갖고 심하게 앓을 적에 어린애 보는데, 그 아픈 사람 보는데 긁든지, 뭘 먹든지 그러면 막 그 시늉을 한대.}
10705 # 그래가꼬 막 오디 글그면 막 파능 거여 인자 막 어른네가. {그래갖고 막 어디 긁으면 막 파는 거야, 인제 막 어린애가.}
10705 @ 가려워서? {가려워서?}
10705 # 그 그 자기 그거를 막 가량게 그냥 혀서 그 그러케 혀서 그 나슨 자리가 곰보대능 거여. {그, 그 자기 그것을 막 가려우니까 그냥 해서, 그 그렇게 해서 그 나은 자리가 곰보되는 거야.}
10705 @ 음 긍까 곰보는 그럴 때만? {음, 그러니깐 곰보는 그럴 때만?}
10705 # 그게 그게 곰보 는 다 글케 아른 사라미지 곰보논. {그게, 그게 곰보는 다 그렇게 앓은 사람이지 곰보는.}
10705 @ 그를때 그 가 안 글께 좀 가려웅 거 좀 예방해 주는 무슨 그런 방도는 엄는지?

{그럴 때 그, 가, 안 긁게 좀 가려운 거 좀 예방해 주는 무슨 그런 방도는 없는지?}
10705 # 으: 병워니서 지끔 가트믄 예방허지 그런디. {응, 병원에서 지금 같으면 예방하지 그런데.}
10705 @ 지베서? {집에서?}
10705 # 그때는 그런 예방이 이써? {그때는 그럼 예방이 있어?}
10705 # 지끔 애더른 곰보 웁짜너 그릉게. {지금 애들은 곰보 없잖아 그러니까.}
10705 # 그른 예방도 우꾸 막 목 글그믄 모 끌께 소눌 무꺼노쿠 그래찌. {그런 예방도 없고, 막 못 긁으면, 못 긁게 손을 묶어놓고 그랬지.}
10705 # 그저니는 막 혼넉 어이서 저기헐 때두 꼰 나서 막 뻘::거니 개라서 글그문 무꺼놔찌. {그전에는 막 홍역 어디서 저기할 때도 꽃 나서 막 뻘겋게 가려워서 긁으면 묶어놨지.}
10705 # 무꺼놔써. {묶어놨어.}
10705 @ 곰보 될까바? {곰보 될까봐?}
10705 # 이잉 그르고 소눌 꼼짝 모더게 무꺼노아써. {응. 그러고 손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았어.}
10705 # 그릉게 개라끼는 허구 얼마나 주꺼꺼써 어른네가. {그러니까 가렵기는 하고 얼마나 죽겠겠어 어린애가.}
10705 # 그저니 그르갸꾸 곰보대능 거지 손님. {그전에 그래갖고 곰보 되는 거지, 손님.}
10705 @ 할머니 그르케 손님 오면 뭐 머꼬 이제 그거 나서야 대요? {할머니, 그렇게 손님 오면 뭐 먹고, 이제 그거 나아야 돼요?}
10705 @ 머 어트케 해야 대요 할머니? {뭐 어떻게 해야 되요, 할머니?}
10705 # 막 손님 이라구 시루해줘싸쿠 떡. {막 손님 이라고 시루 해줘쌓고, 떡.}
10705 # 신무리 쩌서 혀주고. {흰무리 쪄서 해주고.}
10705 @ 긍까 예를 들며는 하루거리 하며는 놀래키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거리 하면은 놀라게 하잖아요?}
10705 # 에. {응.}
10705 @ 근데 손님 오믄 모 어트게 해줘써요? {근데 손님 오면, 뭐 어떻게 해줬어요?}
10705 @ 시루 시루에다가? {시루, 시루에다가?}
10705 # 시루 떡 해주구 빌:구. {시루 떡 해주고 빌고.}
10705 # 막 바베노쿠 삼신께다 빌:구 옌나리는 그래짜너 그르케 혀줘싸쿠 헌디 방도가 옵씅게 그냥 곰보 지능 거여 안 나승게. {막 밥해놓고 삼신께 빌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그렇게 해줘쌓고 하는데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곰보 지는 거야, 안 나으니까.}
10705 @ 삼신 삼신한테? {삼신, 삼신한테?}
10705 # 그러다 그러다 나스믄 곰보재찌. {그러다, 그러다 나으면 곰보졌지.}
10705 @ 삼시난테 인제 빈다고요? {삼신한테 이제 빈다고요?}
10705 # 그저니는 삼시께다 바베노쿠 비:러찌 맨날. {그전에는 삼신께다가 밥해 놓고 빌었지 만날.}
10705 # 애 나두 삼신께다 바베노쿠 이렌 날 다 바베쿠코. {애 낳아도 삼신께다가 밥해놓고, 이렛날 다 밥해 놓고.}
10705 @ 삼시난테? {삼신한테?}
10705 # 에 삼시난테 배길 때까지 우리 애기 잘 머구 머꾸 자구 머꾸 자구 수너게 무렁무럭 잘 크구 그러라구. {응, 삼신한테 백일 때까지 우리 애기 잘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순

하게 무럭무럭 잘 크고 그러라고.}
10705 # 바베노쿠 빌:구 미여꾹 끄려다 노쿠 그래써 엔나리는. {밥해놓고 빌고, 미역국 끓여다 놓고 그랬어, 옛날에는.}
10705 @ 그럼 주로 애기하고 괄려내서는 삼시늘 차꼬? {그럼 주로 애기하고 관련해서는 삼신을 찾고?}
10705 # 음. {응.}
10705 @ 삼시늘 차꼬? {삼신을 찾고?}
10705 # 음. {응.}
10612 @ 그 다메 땅 거 머 지바네 머 조은 닐 라쁜 닐 읍쎄기 위해서? {그 담에 딴 거 뭐 집 안에 뭐 좋은 일, 나쁜 일 없애기 위해서?}
10612 # 지바니 존 닐. {집 안에 좋은 일.}
10612 @ 어떤 모시는 신드른 머 업써써요? {어떤 모시는 신들은 뭐 없었어요?}
10612 # 왜 저며가꾸 인자 정 닐그라고믄 정 닐꾸 비:소노라거구. {왜 점해갖고 인제 경 읽으라고 하면 경 읽고, 비손하라고 하고.}
10612 @ 뭐 정 일그러 안 정 일그러 구지 앙 가도 그냥 평소에 머 삼신 모시드시 평소에 모시는 시는 업써써요 지베서? {뭐 경 읽으러 안, 경 읽으러 굳이 안 가도 그냥 평소에 뭐 삼신 모시듯이 평소에 모시는 신은 없었어요, 집에서?}
10612 # 저기 동투 나따고문 오야샌내끼 꽈서 노쿠 동투는. {저기 동티났다고 하면, 왼 새끼 꽈서 놓고, 동티는.}
10612 @ 그게 뭔데요 할머니? {그게 뭔데요, 할머니?}
10612 # 인자 안:: 가따 놀 껃 가따 노믄 그거시 동투나따구. {인제 안 갖다 놓을 것 갖다 놓으면 그것이 동티났다고.}
10612 @ 예를 들며는? {예를 들면은?}
10612 # 에를래 들면 이제 이런 토지 지신 이런 성주 그렁 거시 안 두롤 껃 디려 놔씅게 내받치능 거여 말허자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토지지신, 이런 성주 그런 것이 안 들어올 것 들여놨으니까 내받치는 거야 말하자면.}
10612 @ 앙 까 우리 지베 안 와야 할 시니?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 와야 할 신이?}
10612 # 이~. {응.}
10612 @ 드러와서? {들어와서?}
10612 # 그렁 거시 물겨니 드롸쓰니까 그게 동투라. {그런 것이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동티라.}
10612 # 그래가꾸 사라미 인자 알래 알턴지. {그래갖고 사람이 인제 앓아, 앓든지.}
10612 @ 시꾸 중에 누가? {식구 중에 누가?}
10612 # 이 인자 시꾸 중이 누가 아프던지 허먼 저머먼 머 저런 디가 나무를 쩌따던지 저런 디가 슨 나무를 빈다든지 집 싸방이 그러먼 그게 동투라구 혀. {이 인제 식구 중에 누가 아프든지 하면 점하면, 뭐 저런 데가 나무를 쪘다든지, 저런 데가 선 나무를 벤다든지 집 사방에 그러면 그게 동티라고 해.}
10612 @ 음 긍까 그 나무에 시니 사는데 인제 그 베 버려서 그래따능 거조? {응, 그러니까 그 나무에 신이 사는데 인제 그 베어 버려서 그랬다는 거죠?}
10612 # 이~ 인자 동투 나따고지 그 나무 벼서 동투나. {응, 인제 동티났다고 하지, 그 나무 베어서 동티나.}

10612 # 인자 그저니는 막 배암 자버서 동투 나따. {인제 그전에는 막 뱀 잡아서 동티났다.}
10612 @ 나무 뱀 또 머 이써요? {나무, 뱀 또 뭐 있어요?}
10612 # 저런 디써 인자 안 가저올 껃 가따놔서 그게 동투다 그러거던. {저런 데서 인제 안 가져올 것 갖다놔서 그게 동티다 그러거든.}
10706 # 그러문 저며서 인자 정 닐거. {그러면 점해서 인제 경 읽어.}
10706 # 정 닐거서 막 대 자버서. {경 읽어서, 막 대 잡아서.}
10706 # 인자 막 정::쟁이가 뭐시 어쩌쿠 어쩌쿠 뭐시 오따 오트게 노쿠 헝 거시 동투냐 그러냐 그러냐 허며는 막. {인제 막 점쟁이가 뭐 어쩌고, 어쩌고 뭣이 어디다, 어디다 놓고 한 것이 동티냐, 그러느냐, 그러느냐 하면은 막.}
10706 # 대 자븐 사람 영:시니 막:: 대를 흔드러가꾸 응:: 거기 가서 막 그걸 때리허구 와 막이냥 혀. {대 잡은 사람 영신이 막 대를 흔들어갖고, 응 거기 가서 막 그걸 때리고 와, 막이냥 해.}
10706 # 그러면 그게 동투라고 그렁 걷 다 인자 내가구 그냥 허문 낟:꾸 마므루 그럳찌. {그러면 그게 동티라고 그런 것 다 인제 내가고, 그냥 하면 낫고 마음으로 그러지.}
10706 @ 긍깐 이유업씨 시꾸 중에 하나가 아프면 정쟁이를 차자 가능구나! {그러니깐 이유없이 식구 중에 하나가 아프면 점쟁이를 찾아 가는구나!}
10706 @ 가가주구 인제 무러바요? {가가지고 인제 물어봐요?}
10706 # 에. {응.}
10706 @ 여긴 왜 아프냐? {여긴 왜 아프냐?}
10706 # 에. {응.}
10706 @ 여기 동투 나따구. {여기 동티났다고.}
10706 # 그러면 인자 공투나구 또 이 주근 사람 누가 만저봐따다구던지 눈 떠봐따구던지 인자 방갑따구 씨다드머따든지 그러믄 그 사라미 아퍼. {그러면 인제 동티나고, 또 이 죽은 사람 누가 만져봤다든지, 눈 떠봤다든지, 인제 반갑다고 쓰다듬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아파.}
10706 # 아풍게 인자 정 닐꾸 허야 나서 난는다기여. {아프니까 인제 경 읽고 해야 나아, 낫는다고 해.}
10706 # 그러문 청 릭찌 정쟁이 데려다 영신 데려다 떠게노쿠 뭐 사다 노쿠 덩 인자 장구 덩덩 덩그 덩그 덩그 덩그러 허머. {그러면 경 읽지 점쟁이 데려다, 영신 데려다 떡 해놓고, 뭐 사다 놓고, 덩, 인제 장구 덩덩, 덩그, 덩그, 덩그, 덩그렁 하며.}
10706 # 징: 뚜드러 가머 정 닝는단 마려 지비서. {징 두드려 가며 경 읽는단 말이야, 집에서.}
10706 # 그러고 그리야 난는다 궁게 그러기두 허구. {그러고 그래야 낫는다고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10706 # 인자 신수 바가주구 수가 안 조타구 허며는 안태 건다구지 인자. {인제 신수 봐가지고 수가 안 좋다고 하면은 안택한다고 하지 인제.}
10706 # 이~ 지바니 잘 대라구 안태건다구 그러믄 인자 또 그때 정 닝능 거여 덩덩허고 정 닐꼬. {응, 집안이 잘 되라고 안택한다고, 그러면 인제 또 그때 경 읽는 거야 덩덩하고 경 읽고.}
10706 @ 그러며는 평소에 에는 주로. {그러면은 평소에 예는 주로.}
10706 # 주군 사라미 워니 댜서 그럳 그 사랑게 부터따구 그냥 하며는 그 사람 정 닐거서

인자. {죽은 사람이 원혼이 돼서 그렇, 그 사람에게 붙었다고 그냥 하면은 그 사람 경 읽어서 인제.}
10706 # 저성이 가라구 질 다꺼준다구 인자 뭐 포먹 떠서 쪽:: 까러노쿠 질 다꺼서 그루 이르케 보내는 시기루 그르케 보내구 그래써. {저승에 가라고 길 닦아준다고 인제, 뭐 포목 떠서 쪽 깔아놓고, 길 닦아서 그리로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보내고 그랬어.}
10706 # 그저니. {그전에.}
10612 @ 그럼 할머니 주로 정초에 할텐데 올 한 해 똥안 인제 머 우리 집 시꾸드리 머 나쁜 일 액 액 끼는 일 업씨 조케 해달라구 주로 정초에 인제 할텐데. {그럼 할머니 주로 정초에 할 텐데 올 한 해 동안 인제, 뭐 우리 집 식구들이 뭐 나쁜 일 액, 액 끼는 일 없이 좋게 해달라고 주로 정초에 인제 할 텐데.}
10612 @ 평소에 늘 이르케 모시는 신주딴지나 머 시는 업써써요 할머니? {평소에 늘 이렇게 모시는 신줏단지나 뭐 신은 없었어요, 할머니?}
10612 @ 할머니 어려쓸 때는 지바네? {할머니 어렸을 때는 집안에?}
10612 # 우리 지비? {우리 집에?}
10612 @ 에. {예.}
10612 # 우리 지비 그저니 성주라구 이케 쌀 끄리는 성주 그르시 인자 쌀 이르케 떼는 뜨는 주먼지 그걸 방꾸탱이다 다러 놔둬뜨라구. {우리 집에 그전에 성주라고 이렇게 쌀 끓이는 성주 그릇이 인제 쌀 이렇게 뜨는, 뜨는 주머니 그걸 방구석에다 달아 놔뒀더라고.}
10613 @ 어디다 둬써요? {어디에다 뒀어요?}
10613 @ 암방 암방? {안방, 안방?}
10613 # 에 암빵 구탱이다. {응, 안방 구석에다.}
10613 @ 에. {예.}
10613 # 그러구 삼신께는 붝쌤문 나가는 디 그게 삼신께여 으레. {그러고 삼신께는 부엌 샛문 나가는 데 그게 삼신께야 으레.}
10613 @ 긍까 그걸 항상 거러 거기다 두고? {그러니까 그걸 항상 걸어 거기다 두고?}
10613 # 그걸 그르케 허구. {그걸 그렇게 하고.}
10613 @ 그거는 정실. {그것은 정실.}
10613 # 어 그거는 늘 그냥 다러 매여 어 이씨꾸. {어, 그것은 늘 그냥 달아 매어, 어 있었고.}
10613 # 성주 바더따구 인자 성주 끄랭이혀서 그냥 다러 매 두능 거지 옌나레 그. {성주 받았다고 인제 성주 꾸러미해서 그냥 달아 매 두는 거지, 옛날에 그.}
10613 @ 땅 거는 머 머 업써써요 지바네서 머 모시는 시니? {딴 것은 뭐, 뭐 없었어요, 집안에서 뭐 모시는 신이?}
10613 # 다릉 건 우꾸 성조 성조허구 삼신께여구 그래찌 그러구서는 인자 제사 때는 마당이 도구통 위다 치 노쿠 바베다 노쿠. {다른 건 없고 성주, 성주하고 삼신께 하고 그랬지, 그리고서는 인제 제사 때는 마당에 절구통 위에다 키 놓고 밥 해다 놓고.}
10613 # 명절 때 두꺼티 장꽝에다 또 뭔 오봉 그런 디다 해서 가따 바베다 노쿠. {명절 때 뒤꼍에, 장독대에 또 뭔 쟁반 그런 데다 해서 갖다 밥 해다 놓고.}
10613 @ 인제 시니 와서 머그라구? {인제 신이 와서 먹으라고?}
10612 # 엉 그러케 그래찌. {응, 그렇게 그랬지.}
10613 @ 도구통이나 장꽝 가튼 데? {절구통이나 장독대 같은 데?}

10613 # 그러구 제사 제사 지내구. {그러고 제사, 제사 지내고.}
10613 # 방이서는 인자 제사 지내구 그러구 다 제사 지내믄 그렁 거 디려오지 인자 아니루. {방에서는 인제 제사 지내고, 그러고 다 제사 지내면 그런 거 들여오지 인제 안으로.}
10612 # 나 온 디루두 얼::마 해써 그렁 거. {나 온 뒤로도 얼마 했어 그런 거.}
10612 # 그러구 인자 지 꼬치구 이렁 거 헐 쩌기는 이자 그렁 거 다 버려찌 싹. {그러고 인제 집 고치고 이런 거 할 적에는 인제 그런 거 다 버렸지 싹.}
10612 @ 그땐 집 꼬치구 난 뒤부터는 신주딴지를? {그땐 이 집 고치고 난 뒤부터는 신줏단지를?}
10612 # 에 그렁 거 다 업씨구 다 다 버리구. {응, 그런 거 다 없애고 다, 다 버리고.}
10612 # 그때만해두 인자 지끔보덤 더 구시글 해찌만 다 그렁 거 웁쌔써. {그때 만해도 인제 지금보다 더 구식을 했지만 다 그런 거 없앴어.}
10612 # 그리두 동투나구 어쩌쿠 안태. {그래도 동티나고 어쩌고 않데.}
10705 @ 할머니 이거 볼 이르케 이르케 임 이따마네지능 거 애드리 주로 애드리 이케 그머라고 하조? {할머니, 이거 볼 이렇게, 이렇게 임, 이따만 해지는 거 애들이 주로 애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10705 # 그거는 항아리 손님. {그것은 항아리 손님.}
10705 # 애다리. {애들이.}
10705 @ 그거또 그냥 무심 무심히 그냥 이케? {그것도 그냥 무심, 무심히 그냥 이렇게?}
10705 # 이~ 손니미여 그거뚜. {응, 손님이야 그것도.}
10705 # 시도쏜님처럼 엉넝 거 손님처럼 그어뚜 손니미여 근디. {시도손님처럼 얽는 거 손님처럼 그것도 손님이야 근데.}
10705 @ 애드른 다:: 함 번씩 해요? {애들은 다 한 번씩 해요?}
10705 # 음 그젇 그래찌. {음, 그저 그랬지.}
10705 # 여가 항아리 손니미라구 여가 막 어머::치 부서서. {여기가 항아리 손님이라고 여기가 막 이만큼 부어서.}
10705 # 아이 제가 왜 그런댜 허믄 항아리 손님 허느라구 그려. {아이, 재가 왜 그런대 하면, 항아리 손님 하느라고 그래.}
10705 # 여가 막 몽울 드러가주구 냥:: 부서가꾸 그래꺼든. {여기가 막 멍울 들어가지고 그냥 부어갖고 그랬거든.}
10705 @ 그럼 밥뚜 멈 멍나요? {그럼 밥도 못 먹나요?}
10705 @ 아픈가 이러케 씹꼬? {아픈가, 이렇게 씹고?}
10705 # 아니 그래두 바번 먹찌 이냥 여기만 내미러가꾸 아푸지. {아니, 그래도 밥은 먹지 이냥 여기만 내밀어갖고 아프지.}
10705 # 그런디 지끄믄 항아리 소니미 오디써? {그런데 지금은 항아리 손님이 어딨어?}
10705 # 그렁 거 나 옵써두. {그런 거 나 없어도.}
10705 @ 그러케 대모 오트게요 할머니?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할머니?}
10705 @ 지베서 머 해주능 건 업나 임시방펴느루라도? {집에서 뭐 해주는 건 없나 임시방편으로라도?}
10705 # 지비서 그게 하나::리 손니미라구 허구 밸 걷 혀주지 안트라구 그건. {집에서 그게 항아리 손님이라고 하고, 별 것 해주지 않더라고 그건.}
10705 # 나는 애들 항아리 손님 알쿠 그릉 거 아 내봐써. {나는 애들 항아리 손님 앓고 그

런 거 안 해봤어.}
10705 # 나두 나두 그릉 거 아 내보구. {나도, 나도 그런 거 안 해보고.}
10705 # 근디 그르케 생긴 애더리 마녀써 그저니는. {근데 그렇게 생긴 애들이 많았어, 그전에는.}
10705 @ 그냥 자여니 사가요? {그냥 자연히 삭아요?}
10705 # 자여니 삭찌 그러구는 인자 거기 밤침 발르먼 난는다구. {자연히 삭지, 그러고는 인제 거기 밤침 바르면 낫는다고.}
10705 @ 밤? {밤?}
10705 # 밤 바미 인자 밤 새 입 오무리구 잔 침. {밤, 밤에 인제 밤 새 입 오므리고 잔 침.}
10705 @ 아! {아!}
10701 # 그이 침 이냥 발러주구. {그 침 이냥 발라주고.}
10705 # 그게 야기라구. {그게 약이라고.}
10705 @ 지 지꺼 지꺼 지 치믈? {제, 제 것, 제 것, 제 침을?}
10705 # 잉:: 여 아니 으른덜 꺼뚜 발러주구 지꺼뚜 발르구 그래찌. {응, 여 아니 어른들 것도 발라주고, 자기 것도 바르고 그랬지.}
10705 # 게 침 약 검나게 써 그 치미. {그 침 약 겁나게 써, 그 침이.}
10705 @ 아치메 바르겐네요 아치메? {아침에 바르겠네요, 아침에?}
10705 # 그릉게 인자 치미루 이르케 서꺼서 깨미러서 머그면 소화가 데자너 사라미 멍넝거. {그러니까 인제 침으로 이렇게 섞어서 깨물어서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 사람이 먹는 거.}
10705 # 그릉게 치미 멀 이르케 부술막 뭐 날라구먼 음 해서 침 발르자너. {그러니까 침이 뭘, 이렇게 부스럼 뭐 나려고 하면 음, 해서 침 바르잖아.}
10705 # 그 치미 상는::다고 혀가주구 그르케 발르능가바 아마. {그 침이 삭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르는가봐 아마.}
10705 @ 긍까 밤치미니깐 아치메 바르겐네요? {그러니까 밤침이니까, 아침에 바르겠네요?}
10705 # 잉 바미 인자 밤새 오고리구 잔 치물 발르면 난는다구 그러케 혀주주 그래찌. {응, 밤에 인제 밤새 오그리고 잔 침을 바르면 낫는다고, 그렇게 해주고 그랬지.}
10705 @ 할머니 이건 날 때부터 여기 이르케 터징 거는 그렁 건 그런 사람 이짜나요? {할머니, 이건 날 때부터 여기 이렇게 터진 거는, 그런 건 그런 사람 있잖아요? }
10705 # 올챙이. {언청이.}
10705 @ 에 그렁 거는 머 특벼리 머? {예, 그런 것은 뭐 특별히 뭐?}
10705 # 그렁 건 약 옵지. {그런 건 약 없지.}
10705 @ 근데 인제 그러 그러케 대능 거 머 특벼리 머 머 어트게 해끼 때무네 저래따 이런 건 업써요? {근데 인제 그러, 그렇게 되는 거, 뭐 특별히 뭐,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랬다 이런 건 없어요?}
10705 # 에 그거는 어크케 혀서 그렁 게 아니구. {응,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10705 @ 뭐 뭐 부정 타서? {뭐, 뭐 부정 타서?}
10705 # 유전. {유전.}
10705 # 즈이네 누구 시꾸가 오이가라던지 저이 친가라던지 누가 어트게 생기 그르케 생긴 사라미 나오면 후:대여 가서 어니 땡가는 그게 나와. {자기네 누구 식구가 외가라든지, 자기 친가라든지 누가 어떻게 생기, 그렇게 생긴 사람이 나오면 후대에 가서 어느 땐가는 그게

나와.}
10705 @ 그렁 건 모 무슨 부정 타거나 이런 애기는 업꼬? {그런 건 뭐 무슨 부정 타거나 이런 얘기는 없고?}
10705 # 부정혀서 그렁 게 아니구 그건 얼챙이 생기능 거슨 즈이네 먼 족 누구라두 유저니 이써.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언청이 생기는 것은 자기네 먼 친족 누구라도 유전이 있어.}
10705 # 그래가꾸 그 유저니루 어: 얼챙이 생긴다구더라구. {그래갖고 그 유전으로 어, 언청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10705 @ 그르코 할머니 머 곱싸등이 곱싸 대거나 머 이르케 올챙이 대거나 곱쌔 알조 할머니? {그렇고 할머니, 뭐 곱사등이 곱사 되거나, 뭐 이렇게 언청이 되거나 곱사 알죠, 할머니?}
10705 @ 등이 이르케 굼는 굼는 등이 이르케 구버서 나는 나는 사람? {등이 이렇게 굽는, 굽는 등이 이렇게 굽어서 낳는, 낳는 사람?}
10706 # 꼽쌔. {곱사등이.}
10706 @ 꼽쌔나 얼챙이나 아니면 머 인제 머 귀가 안 들리거나 누니 안 보이게 태어나거나 머 이렁 거 이짜나요? {곱사등이나, 언청이나 아니면 뭐 인제 뭐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706 @ 긍까 그르케 태어나는 게 뭐 뭐 부정 타서 그러타 이런 애기 혹씨 업써요? {그러니깐 그렇게 태어나는 게 뭐, 뭐 부정 타서 그렇다 이런 얘기 혹시 없어요?}
10706 @ 그렁 건 업써요? {그런 건 없어요?}
10706 # 그렁 거는 부정 타서 그렁 거시 아니구 유전 유저니여 유전. {그런 거는 부정 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전, 유전이야, 유전.}
10706 # 꼽쌔:: 난는 거뚜 유저니구 쌍둥이두 유저니구. {곱사등이 낳는 것도 그게 유전이고, 쌍둥이도 유전이고.}
10706 # 쌍둥이 난는 거두 자 지끄믄 인공수정혀서 난는 거선 유저니 아니지. {쌍둥이 낳는 것도 지금은 인제 인공수정해서 낳는 것은 유전이 아니지.}
10706 # 쌍댕이 둘 저기가 드러가씅게 나오농 거구 잉::. {쌍둥이 둘 저기가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거고, 잉.}
10706 # 즈이 부모가 쌍댕이 즈이 하라부지 쩌기나 온제 쌍댕이 나며는 그이 유저니 대서 나온댜 어니 땡가는 쌍댕이 나온댜. {자기 부모가 쌍둥이 자기 할아버지 적이나 언제 쌍둥이 나면은 그 유전이 돼서 나온대, 어느 때인가는 쌍둥이 나온대.}
10706 # 그르구 말 모더는 벙어리 이짜너.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있잖아.}
10706 # 얼챙이 벙어리. {언청이, 벙어리.}
10706 # 그런 거뚜 유전썽이라구더라구. {그런 것도 유전성이라고 하더라고.}
10706 # 그런 즈이네 누구 친척 각 저기 헌 사라미 그 바루 단 대에서는 안 나와도 후:대에 가서 어니 땡가는 재슴머리 웁씨 나온댜 그게. {그런 자기네 누구 친척, 각 저기 한 사람이 그 바로 다음 대에서는 안 나와도 후대에 가서 어느 때인가는 재수 없이 나온대 그게.}

1.8. 세시 풍속과 놀이

1.8.1. 세시 풍속

10801 @ 할머니 그러면 정월 딸부터 인제 서딸까지 할머니 기억 기억 나시는 대로 기어글 하셔가지고 어 할머니 뭐 시집 오시기 저네도 조코. {할머니, 그러면 정월달부터 인제 섣달까지 할머니 기억,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을 하셔갖고 어, 할머니 뭐 시집오시기 전에도 좋고.}
10801 @ 더 옌날 기어길쑤록 조케찌요. {더 옛날 기억일수록 좋겠지요.}
10801 @ 기어카셔가지고 뭐 주로 이제 정워레는 주로 어떤 노르믈 하고 노라꼬? {기억하셔갖고 뭐 주로 인제 정월에는 주로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고?}
10801 @ 뭐 주로 주로 뭐 정월 때는 정워레 꼭 해야 되는 무슨 요기난 무슨 농사꺼리가 이써따등가? {뭐 주로, 주로 뭐 정월 때는 정월에 꼭 해야 되는 무슨 요긴한 무슨 농사거리가 있었다든가?}
10801 @ 아니면 살림 살면서 정월 때는 꼭 뭘 뜨더놔야 됀다등가 정월 때는 뭐 이렁 건 꼭 삼가야 됀다등가? {아니면 살림 살면서 정월 때는 꼭 뭘 뜯어놔야 된다든가, 정월 때는 뭐 이런 건 꼭 삼가야 된다든가?}
10801 @ 이렁 거뜰 기엉나시는 대로 할머니 정월부터 이러케 쭉 함번 서딸까지 함번 기억나시는 대로 함번 말쓰매주시조. {이런 것들 기억나시는 대로 할머니, 정월부터 이렇게 쭉 한번 섣달까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시죠.}
10801 @ 정워레 젤 큰 행사는 뭐여요 할머니 지바네서? {정월에 제일 큰 행사는 뭐예요, 할머니 집안에서?}
10801 @ 명저링가? {명절인가?}
10801 # 정워레 큰 행사가 명 명절 쇠능 거지 정월딸. {정월에 큰 행사가 명, 명절 쇠는 거지 정월달.}
10801 # 명절 쇠는 거시구. {명절 쇠는 것이고.}
10801 @ 명질 쇠려면 인제 어떤 준비를 슬슬 해요? {명절 쇠려면 인제 어떤 준비를 슬슬 해요?}
10801 @ 정월 명절 쇠려면? {정월 명절 쇠려면?}
10801 # 명절 쇨 때? {명절 쇨 때?}
10801 @ 에. {네.}
10801 @ 여자드리 주로 인제? {여자들이 주로 인제?}
10801 # 지비서 명질 쇨 준비 헐라먼 인자 식꾸덜 모이먼 머글 꺼 제사쌍이 놀 꺼 그렁 거 장만허지. {집에서 명절 쇨 준비 하려면 인제 식구들 모이면 먹을 것, 제사상에 놀 것, 그런 것 장만하지.}
10801 # 반차니구 머이구 그렁 거 장만해서 떡 허구 그렁 거 준비를 미리버터 혀:따가 인자 딱 당허문 허지. {반찬이고 뭣이고 그런 거 장만해서 떡 하고, 그런 거 준비를 미리부터 했다가 인제 딱 당하면 하지.}
10801 @ 요새는 머 머든지 다 시장 가면 바로바로 사올 쑤 이찌만. {요새는 뭐 뭐든지 다 시장에 가면 바로바로 사올 수 있지만.}
10801 # 그러치 에. {그렇지 응.}
10801 @ 더 옌나레는 어트게 써써요? {더 옛날에는 어떻게 썼어요?}

10801 # 옌나리는 다:: 지비서 혀찌.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지.}
10801 @ 그럼 미리미리 쫌 하셔야 되요 할머니? {그럼 미리미리 좀 하셔야 돼요, 할머니?}
10801 # 건짐 다 일리리 검짐 다 지비서 혀꾸 떡 그렁 거 허러 갈라면 식꾸는 여러시구 마니 허야니까 막 스 말쓱 쌀 그르케 마니 이구 가야 허구. {거의 다 일일이 거의 다 집에서 했고, 떡 그런 거 하러 가려면 식구는 여럿이고 많이 해야 하니까 막 서 말씩 쌀, 그렇게 많이 이고 가야하고.}
10801 # 그르케 혀찌. {그렇게 했지.}
10801 # 그저니는 거:러서 이구 가야지 차가 옵쓰니까. {그전에는 걸어서 이고 가야지 차가 없으니까.}
10801 # 지끄믄 차에다 실쿠 막 먼: 디 가서두 허구 헐 쑤 이찌 근디 그때는 꼬박꼬박 이구 가찌. {지금은 차에다 싣고 먼 데 가서도 하고 할 수 있지, 근데 그때는 꼬박꼬박 이고 갔지.}
10801 # 이구 가깐 디두 아니구 저::기 화송. {이고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저기 화송.}
10801 # 굴따리 그기서 쑥 오면 거 그어 동네 인는 디까지 모랭이 이러케 돌아오는 디 거께까지 이구 가써 떡 해써. {굴다리 거기서 쑥 오면 그, 그 동네 있는 데까지, 모퉁이 이렇게 돌아오는 데 거기까지 이고 갔어, 떡 했어.}
10801 @ 여자드리 다 이고 가야 돼요? {여자들이 다 이고 가야 돼요?}
10801 # 여자더리 이고 가찌 남자야 지게에다 지구 가는 사람두 이찌만 우리집 남자더런 그렁 거 지구 가 안 강게 다 내라 여다가 혀찌 여 여다. {여자들이 이고 갔지, 남자야 지게에다 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집 남자들은 그런 거 지고 안 가니까 다 내가 여다가 했지, 여, 여다.}
10801 @ 에 명절 멩일 랄 마출려면 다 미리미리 하셔야 되겐네요? {에, 명절 명일 날 맞추려면 다 미리미리 하셔야 되겠네요?}
10801 # 인자 초하룬날까지 초이튼날 여뉴댄는 대로구 인자 그르케 혀서 식구덜 모여서 인자 머꾸 갈 쩌기 다:: 싸 주지 인자. {인제 초하룻날까지 초이튿날 연휴 되는 대로고, 인제 그렇게 해서 식구들 모여서 인제 먹고 갈 적에 다 싸 주지 인제.}
10801 # 지비 가서 머그라구 다:: 떠기구 음식 나믄 거시구 이거 다 싸줘 가주가라구. {집에 가서 먹으라고 다, 떡이고 음식 남은 것이고 이거 다 싸줘 가져가라고.}
10801 # 혼자 놔두야 머 머거저? {혼자 놔둬야 뭐 먹어져?}
10801 # 그릉게 다 싸주지. {그러니까 다 싸주지.}
10801 @ 그면 제 그 어 명일 명일 명절 쇨려고 이제 뭐 그 정워레는 제일 킁 게 인제 설 명저리고. {그러면 인제 그 어, 명일, 명일 명절 쇠려고, 인제 뭐 그 정월에는 제일 큰 게 설 명절이고.}
10801 @ 그럼 그때는 주로 인제 어떤 노름 노름하고 애나 어르니나 남자나 여자나무슨 노름? {그럼 그때는 주로 인제 어떤 놀이, 놀이하고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무슨 놀이?}
10801 # 정월 멩저레? {정월 명절에?}
10801 @ 예. {예.}
10801 # 윤: 놀고 노라찌. {윷 놀고 놀았지.}
10801 @ 음. {음.}
10801 # 정워리. {정월에.}

10801 @ 할머니 할머니 처자 때도? {할머니, 할머니 처녀 때도?}
10801 @ 그때도? {그때도?}
10801 # 처녀 때도. {처녀 때도.}
10801 @ 주로 하던 노리가 윤노리여써요? {주로 하던 놀이가 윷놀이였어요?}
10801 # 그러치 윤:노리. {그렇지 윷놀이.}
10801 @ 어떠케 해요 할머니 윤노리 설명 좀 해주세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해요, 할머니 윷놀이 설명 좀 해주세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데.}
10801 # 윤:노리 허능 거슨 응 돈내기 허며는 더 시끄러꾸. {윷놀이 하는 것은 응, 돈내기 하면 더 시끄럽고.}
10801 @ 돈 돈내기도 해요? {돈 돈내기도 해요?}
10801 # 그르치 돈 돈내기 뭐 사 먹끼루 가자 허자고구. {그렇지 돈, 돈내기 뭐 사 먹기로 하자, 하자고 하고.}
10801 # 이르케 돈내기 내기허지 그러 그렁 거는 서루 이길라구 더 시끄러꾸. {이렇게 돈내기 내기하지, 그런, 그런 것은 서로 이기려고 더 시끄럽고.}
10801 # 그냥 재미루 노라 우 나는 여태 내기 아 내봐써. {그냥 재미로 놀아, 우, 나는 여태 내기 안 해봤어.}
10801 @ 대개 펴는 어찌 짜고 노라써요 할머니 펴는? {대게 편은 어떻게 짜고 놀았어요, 할머니 편은?}
10801 # 펴는 느:이 허먼 두리썩 편. {편은 넷이 하면 둘씩 편.}
10801 # 이르케 똥그라너게 안저서 느이 노르먼 이러케 이러케가 편 이러케 이러케가 한편. {이렇게 동그란 하게 앉아서 넷이 놀면 이렇게, 이렇게가 편 이렇게, 이렇게가 한편.}
10801 # 하나쓱 걸러서 한펴니지. {하나씩 걸러서 한편이지.}
10801 # 여서시 허면 냥 걸러서 한편. {여섯이 하면 그냥 걸러서 한편.}
10801 # 지끔도 윤:노라 여기는. {지금도 윷놀아 여기는.}
10801 @ 할머니 처자 때는 할머니 처녀 쩌게는 어트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윤노라써요? {할머니 처녀 때는, 할머니 처녀 적에는 어떻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윷놀았어요?}
10801 @ 여자드리? {여자들이?}
10801 @ 처녀들끼리? {처녀들끼리?}
10801 # 처녀덜끼리 모시허다가 모시허느라 그때는 유:뚜 몬 노라써. {처녀들끼리 모시하다가 모시하느라 그때는 윷도 못 놀았어.}
10801 # 모시허구 인자 두레 노룰 때 인자 저녀기 안자서 모시허다가 밥뚜레 허자구 그러먼 인자. {모시하고 인제 도리기하고 놀 때 인제 저녁에 앉아서 모시하다가 밥 도리기 하자고 그러면 인제.}
10801 # 쌀 쪼매썩 가꾸 나가주구 바버서 저녀기 누구네 김치 마시께 인자 한 디다 동치미 다머 노먼 그렁 거 가따가 누구네 바티 가 마늘 뽀바 오구. {쌀 조금씩 갖고 나와가지고 밥 해서 저녁에 누구네 김치 맛있게 인제 한 데다 동치미 담아 놓으면, 그런 거 갖다가 누구네 밭에 가 마늘 뽑아 오고.}
10801 # 그런 건 막 너미 꺼 인자 가서 장꽝이 가 장또기 가 떠드러서 내:다가 바 베서 막 여::레 머거 그름 그 마실꾼덜까지 여러시 머그먼 마시써! {그런 것, 막 남의 것 인제 가서 장독대에 가서 장독에 가 열어서 내어다가 밥 해서 막 여럿이 먹어, 그럼 그 마을꾼들까지 여럿이 먹으면 맛있어!}

10801 # 여::레 재미써. {여럿이 재밌어.}
10801 @ 그렁 걸 두레라고 해요? {그런 걸 두레라고 해요?}
10801 # 그르치 두레. {그렇지 두레.}
10801 @ 왜 두레라고? {왜 두레라고?}
10801 # 게 여러시 해먹짜능 거시 두레지 밥뚜레. {그게 여럿이 해먹자는 것이 도리기지, 밥 도리기.}
10801 @ 밥뚜레도 이꼬 또 무슨 두레두? {밥 도리기도 있고, 또 무슨 도리기도?}
10801 # 떡뚜레두 이꼬. {떡 도리기도 있고.}
10801 @ 또? {또?}
10801 # 떡뚜레 허자구문 떠게서 인자 다 나눠 가찌. {떡 도리기 하자고 하면 떡 해서 인제 다 나눠 갖지.}
10801 # 다서시 허먼 다서시루 난꾸. {다섯이 하면 다섯으로 나누고.}
10801 # 스:이 허먼 스:이에서 난꾸 그냥 두레에서 나눠서 머꾸. {셋이 하면 셋이서 나누고, 그냥 도리기해서 나눠서 먹고.}
10801 @ 또 어떤 두레가 이써써요 할머니? {또 어떤 도리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10801 @ 막 두레 먹능 검만 인나? {막 도리기 먹는 것만 있나?}
10801 # 그르치 먹능 검만 허지. {그렇지 먹는 것만 하지.}
10801 # 음 우리 시집 와서두 우리 시누 키는디두 인자 떡뚜레 허자구 지더리 뭗 헐 쭝 아러 애덜 땡게. {음, 우리 시집 와서도 우리 시누이 키우는데도 인제 떡 도리기 하자고, 자기들이 뭣 할 줄 알아 애들 때니까.}
10801 # 혀서 쌀만 가따 노면 내라 다:: 혀서 다 나눠서 줘찌. {해서 쌀만 갖다 놓으면 내가 다 해서 다 나눠서 줬지.}
10801 # 그릉게 지끔두 그 우리 시누가 시집가써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우리 시누이가 시집갔어, 지금.}
10801 # 항갑 또로오는디 구찬시러서 어트게 그냥 성은 핸나 몰른다구. {환갑 돌아오는데, 귀찮아서 어떻게 그냥 형은 했나 모른다고.}
10801 @ 음 어트게 해줜냐고? {음, 어떻게 해줬냐고?}
10801 # 어~ 그러 그러고 칭구 데루구 인자 오이 여기가 흔타 공게. {응, 그러, 그러고 친구 데리고 인제 오이 여기가 흔하다고 하니까.}
10801 # 오이마기루 친구덜 데리구 오먼 성 다 수제비 혀서 여다가 그 애덜 다 메겨따구. {오이막으로 친구들 데리고 오면, 형 다 수제비 해서 여다가 그 애들 다 먹였다고.}
10801 # 오트게 지끔 생각허믄 나는 구찬시러 모 더거뜨만 어트게 그냥 핸나 몰른댜.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귀찮아서 못 하겠더구먼, 어떻게 그냥 했나 모른대.}
10801 # 그래가머 그냥 지끔두 참 친저려 시노 올케찌리. {그러면서 그냥 지금도 참 친절해 시누이 올케끼리.}
10801 # 지끔까지 여태 다퉈보구 그런 니리 웁써. {지금까지 여태 다퉈보고 그런 일이 없어.}
10801 @ 그럼 할머니 그 두레는 인제 일년 일년 내 저런 아무 때나 하능 거에요? {그럼 할머니 그 도리기는 인제 일 년, 일 년 내 저런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10801 @ 그 두레가? {그 도리기가?}
10801 @ 밥뚜레니 떡뚜레니 하능 건 뭐? {밥 도리기니, 떡 도리기니 하는 건 뭐?}

10801 # 그리치. {그렇지.}
10801 @ 아무 처리나? {아무 철에나?}
10801 # 아무 때나. {아무 때나.}
10801 # 그런디 인자 그 때는 겨울처리 밥뚜레는 겨울처리 모시허구 밤 질구 그럴 때. {그런데 인제 그 때는 겨울철에 밥 도리기는 겨울철에 모시하고, 밤 길고 그럴 때.}
10801 # 이냥 여레 안저 모시허다 밥뚜레 해먹짜구 왜 그냥 해서 밥뚜 해머꾸. {이렇게 여럿이 앉아 모시하다가 밥 도리기 해먹자고, 왜 그냥 해서 밥도 해먹고.}
10801 # 인자 이: 여름처리는 모여서 서리. {인제 이 여름철에는 모여서 서리.}
10801 # 콩 콩서리 혀서 콩 쩌먹짜구 인자 콩깨비 꺼꺼다가 쌀머서 인자 까멍능 거지. {콩, 콩서리해서 콩 쪄먹자고 인제 콩꼬투리 꺾어다가 삶아서 인제 까먹는 거지.}
10801 # 콩꼬치. {콩꼬투리.}
10801 # 그거 그렁 거뚜 혀서 머꾸. {그거 그런 것도 해서 먹고.}
10801 # 옥쑤수 몰래 너미꺼 따다가 서리 허능 거여 그거는 인자. {옥수수 몰래 남의 거 따다가 서리하는 거야, 그거는 인제.}
10801 # 옥쑤수 서리. {옥수수 서리.}
10801 # 그냥 해서 옥쑤수두 따다 쩌먹꾸. {그냥 해서 옥수수도 따다 쪄먹고.}
10801 # 옥쑤수 따다 은젠가 우리 여기 이 아피다 막 찌어써써. {옥수수 따다 언젠가 우리 여기 이 앞에다 막 지었었어.}
10801 # 오이막. {오이막.}
10801 # 지끔 부셔씅게 그러지 우리. {지금 부쉈으니까 그렇지, 우리.}
10801 @ 할머니 이 마당? {할머니 이 마당?}
10801 # 이~ 접 가로동 미티 반마당이다가. {응, 저 가로등 밑에 밭마당에다가.}
10801 # 그래서 옥쑤수 따다 인자 서리혀서 그 마기 올라가서 먹는디. {그래서 옥수수 따다가 인제 서리해서 그 막에 올라가서 먹는데.}
10801 # 에 한 사라미 불숴 노쿠 먹어두 된댜 해가꾸 우더리 얼::마나 우선나 몰라! 하하 허하! {에, 한 사람이 불 켜 놓고 먹어도 된대, 해갖고 우리들이 얼마나 웃었나 몰라! 하하 허하!}
10801 @ 그르케 서리 해먹꾸 두레 햄 해 먹능 게 친구들끼리 큰 노름 중에 하나여써요? {그렇게 서리 해먹고 도리기 해, 해 먹는 게 친구들끼리 큰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10801 # 에 너미네 배 여르먼 그기 가 몰래 바미 가서 배 따다 먹꾸. {에, 남의 배 열면 거기 가서 몰래 밤에 가서 배 따다 먹고.}
10801 @ 그렁 게 옌나렌 다 괜차나써요 할머니? {그런 게 옛날에는 다 괜찮았어요, 할머니?}
10801 # 구치 지금두 얼마 안 댜 지금 감 이 아피 감나무 인는 지비 감. {그렇지 지금도 얼마 안 돼, 지금 감, 이 앞에 감나무 있는 집에 감.}
10801 # 감 따다 먹짜구 그러구서는 가서 아 한 사람당 감까지를 자부대잉게 뚝:: 떠러저서 꺼꺼지네 놀래가꾸 막 다 도망을. {감 따다 먹자고 그러고서는 가서 아, 한 사람당 감 가지를 잡아당기니까 뚝 떨어져서 꺾어지네, 놀라갖고 막 다 도망을.}
10801 # 도망가구 어 그런 서리혀서 머그문 재미써. {도망가고 어, 그런 서리해서 먹으면 재밌어.}
10801 # 누구네 떠게서 인자 오따 내노먼 그거 가따먹짜::구 해가꾸 가서 가따머꾸. {누구네

떡 해서 인제 어디다 내놓으면, 그거 갖다먹자고 해갖고 가서 갖다먹고.}
10801 @ 에 그럼 할머니 그 이제 정워레 인제 설 설 동아네 아까 그 윤노리 애기 해써 해써짜나요? {예, 그럼 할머니, 그 인제 정월에 인제 설, 설 동안에 아까 윷놀이 애기 했었, 했었잖아요?}
10801 @ 그럼 설 동아네 사람드리 제일 마니 노는 노르믄 그냥 윤노리여써요? {그럼 설 동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노는 놀이는 그냥 윷놀이였어요?}
10801 # 그치 윤:노리여찌 남자덜뚜 정월 인자 정월 보롬 때 시보일 랄 대보롬 때 각 너물 하구 막 파빱배서 머꾸 그러자녀. {그렇지 윷놀이였지, 남자들도 정월 인제 정월 보름 때, 십오일 날 대보름 때 각 나물 하고, 팥밥 해서 먹고 그러잖아.}
10801 # 그때두 인자 저레 모여서 윤: 놀구 구래찌 그러찌. {그때도 인제 저래 모여서 윷 놀고 그랬지, 그랬지.}
10801 @ 음 인제 마당에다가 뭐 이러케? {음, 인제 마당에다가 뭐 이렇게?}
10801 # 에. {예.}
10801 # 인제 지끄문 회:과니 널브니깐 회과니서 놀구. {인제 지금은 회관이 넓으니까 회관에서 놀고.}
10801 @ 할머니 옌나레는 그럼 마당이 맨마당이에요? {할머니, 옛날에는 그럼 마당이 맨마당이에요?}
10801 @ 맨마다에서 윤노리? {맨마당에서 윷놀이?}
10801 # 그치 알마당이지. {그렇지 알마당이지.}
10801 # 쎄멘 앙쿠 알마당. {시멘트 안하고 알마당.}
10801 # 거기다 인자 멍석 까러 노쿠 놀지. {거기다 인제 멍석 깔아 놓고 놀지.}
10801 @ 그럼 할머니 처녀 때 이 처녀 총각 어울려서도 놀 놀 쑤 이써써요? {그럼 할머니 처녀 때, 이 처녀 총각 어울려서도 놀, 놀 수 있었어요?}
10801 # 그때는 모대찌. {그때는 못했지.}
10801 # 으른드리 아르먼 혼낭게. {어른들이 알면 혼나니까.}
10801 @ 금 처녀드른 인제? {그럼 처녀들은 인제?}
10801 # 머슴애더러구 논다구 혼나꺼등. {머슴애들하고 논다고 혼났거든.}
10801 # 그릉게 인자 몰::래. {그러니깐 인제 몰래.}
10801 @ 금 따로 놀 따로 노라요? {그럼 따로 놀, 따로 놀아요?}
10801 # 에 이~:. {에 응.}
10801 @ 몰래? {몰래?}
10801 # 몰::래 인자 그네 타러 가치 가구 근디 매달라 오구. {몰래 인제 그네 타러 같이 가고, 그네 매달러 오고.}
10801 # 우더리 남자덜떠러. {우리들이 남자들더러.}
10801 @ 그네는 주로 언제 타 타고 노라써요 할머니? {그네는 주로 언제 타, 타고 놀았어요, 할머니?}
10801 # 샥씨 때. {색시 때.}
10801 @ 그니까 어느? {그러니까 어느?}
10801 # 오월 다노 때 그네 매서 놀지 오월 다노 때. {오월 단오 때, 그네 매서 놀지 오월 단오 때.}
10801 # 그면 인자 우더리 집터매 그릉 거 가따주구 남자덜따 이거 동아질 이러케 이러케

트러서 트러가꾸 꼬아서 그네 매주구. {그러면 인제 우리들이 짚뭇 그런 거 갖다주고, 남자들이 이거 동아줄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틀어갖고 꼬아서 그네 매주고.}
10801 # 남자들따 그러게두 그네 매줘써 근디 타라구. {남자들이 그렇게 해도 그네 매줬어, 그네 타라고.}
10801 # 그냥 해서먼 각씨더리 인자 몬 나오니까 우더리 델러 가지 인자. {그냥 하면 각시들이 인제 못 나오니까, 우리들이 데리러 가지 인제.}
10801 # 샥:씨더리 그네 타러 가자구 그러먼 인자 각씨더리 즈더리 먼저는 모 더자녀 시집싸리 헝게. {색시들이 그네 타러 가자고 그러면 인제 각시들이 자기들이 먼저는 못 하잖아, 시집살이 하니까.}
10801 # 긍게 샥씨더리 와서 데리가먼 보냐. {그러니까 색시들이 와서 데려가면 보내.}
10801 @ 음 새악씨는 시집 앙 간 처 처녀? {음, 색시는 시집 안 간 처, 처녀?}
10801 # 이~ 앙 간 처녀더리구. {응, 안 간 처녀들이고.}
10801 @ 새악씨고 각씨는? {색시고 각시는?}
10801 # 각씨는 시지 본 각씨고. {각시는 시집 온 각시고.}
10801 # 그래가꾸 그르케 노라찌 다노 때. {그래갖고 그렇게 놀았지 단오 때.}
10801 @ 그믄 다노 때 여자드리 젤 큰 노르믄 그네 타능 거 그렁 거여써요? {그럼 단오 때 여자들의 제일 큰 놀이는 그네 타는 거 그런 거였어요?}
10801 # 그네 타고 인자 정워리는 윤:놀구 이:월 따리는 그네 타구 인자. {그네 타고, 인제 정월에는 윷놀고, 이월 달에는 그네 타고 인제.}
10801 @ 할머니 정워레 대보름 끼여 이짜나요? {할머니 정월에 대보름 끼어 있잖아요?}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음 그며는 그 대보롬 마춰 가지고 노는 노린 노린 뭐 큰 노리가 업썬나요? {예 , 그러면은 그 대보름 맞춰 가지고 노는 놀이는, 놀이는 뭐 큰 놀이가 없었나요?}
10801 # 대보롬 나른 그저니는 늘: 떠찌. {대보름날은 그전에는 널 뛰었지.}
10801 # 판자 이러케 노코 늘:. {판자 이렇게 놓고, 널.}
10801 # 이 짜기 올라가따 이 짜기 올라가따 이케 늘: 발루 탕 굴르머 이 짜게서 올라가구 탕. {이쪽이 올라갔다, 이쪽이 올라갔다 이렇게 널, 발로 탕 구르면, 이쪽에서 올라가고, 탕.}
10801 @ 너른 어디 뭐 한데 나가서 뛰고 노라요? {널은 어디 뭐 한데 나가서 뛰고 놀아요?}
10801 # 마당이서 인자 가운데다가 늘: 띠넝 게 이러케 생기능 거여. {마당에서 인제 가운데다가 널뛰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10801 # 널빤지에 널빤지에 그 시렁 매고구 허는 널빤지. {널빤지에, 널빤지에 그 시렁 매고 하는 널빤지.}
10801 # 가온데다 집터매나 뭐 이러케 노쿠 여기 가 올라서서 냅때 굴르먼 이 쪽 사라미 후::떡 올라가서 냅때 굴르먼 이 쪼기 올라가고 왜 재미써. {가운데다 짚뭇이나 뭐 이렇게 놓고 여기 가 올라서서 냅다 구르면, 이쪽 사람이 훌떡 올라가서 냅다 구르면, 이쪽이 올라가고 왜 재밌어.}
10801 # 그런 걷 허구. {그런 것 하고.}
10801 @ 그거또 새악씨드른 집바께 몬 나가고 자기 지바네서만? {그것도 색시들은 집밖에 못 나가고 자기 집안에서만?}
10801 # 에에 인자 그러 거 혀노쿠 우리집 가 늘 띠자허구 그네 매서 그네 띠구 놀구. {에

에, 인제 그런 거 해놓고 우리 집 가서 널 뛰자하고, 그네 매서 그네 뛰고 놀고.}
10801 # 그러고 이:월 따리는 인자 먹넝 게. {그러고 이월 달에는 인제 먹는 게.}
10801 @ 할머니 그 대보로메 무슨 달보기 달 보고 빌기 뭐 이렁 거 하셔써요 대보름 때? {할머니, 그 대보름에 무슨 달보기, 달 보고 빌기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대보름 때?}
10801 # 우덜 처:녀 때는. {우리들 처녀 때는.}
10801 @ 잘 달 잘 잘 뜨는 곧 어디로 가서. {잘 달, 잘, 잘 뜨는 곧 어디로 가서.}
10801 # 달 뜰 달 보구 빌구 어쩌구 앙쿠 그냥 보롬딸 뜨문 조와서 그냥 바까티 도라댕이구 놀구 그래찌. {달, 뜰 달 보고 빌고 어쩌고 않고, 그냥 보름달 뜨면 좋아서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고 놀고 그랬지.}
10801 # 오 이:워리는 인자 이월 초하룬날 노래긴나리라구 콩 보까 멍는 나리여. {오, 이월에는 인제 이월 초하룻날 노래깃날이라고 콩 볶아 먹는 날이야.}
10801 # 콩. {콩.}
10801 @ 음녁 이월 초하루가? {음력 이월 초하루가?}
10801 # 이~ 이:월 초하루가 콩 보까 멍는 날. {응, 이월 초하루가 콩 볶아 먹는 날.}
10801 @ 노래긴날? {노래깃날?}
10801 # 이 노래긴날. {응, 노래깃날.}
10801 # 긍게 이월 초하룬나른 보리 보꾸 콩 보꾸. {그니까 이월 초하룻날은 보리 볶고, 콩 볶고.}
10801 # 인자 보끔질혀서 멍는 나리여 이월 초하루가. {인제 볶음해서 먹는 날이야, 이월 초하루가.}
10801 # 그릉게 인자 복. {그러니깐 인제 볶.}
10801 @ 어디다 보까써요 할머니? {어디다 볶았어요, 할머니?}
10801 @ 옌나레는? {옛날에는?}
10801 # 응? {응?}
10801 @ 어디다 보까써요? {어디다 볶았어요?}
10801 # 소티다 소티다 불 때서. {솥에다, 솥에다 불 때서.}
10801 @ 소당에? {솥뚜껑에?}
10801 # 아니. {아니.}
10801 @ 그냥 소테? {그냥 솥에?}
10801 # 솓 바다기다 불 때서 보끄믄 탁탁탁탁 튀지. {솥 바닥에다 불 때서 볶으면, 탁탁탁탁 튀지.}
10801 # 콩두 튀구 보리두 탁탁 뒤지버지게 허::여케 인자 탁탁 튀지. {콩도 튀고, 보리도 탁탁 뒤집어지게 허옇게 인제 탁탁 튀지.}
10801 # 그냥 해서 쪼::꼼썩 지비서 보리바슴헝 겅게 이냥 이냥 주거기루 저서가머 불 따숩께 때며는 다 튀먼 그놈 퍼서 이자 그거 머꾸. {그냥 해서 조금씩 집에서 보리바심한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걱으로 저어가며, 불 따뜻하게 때면은 다 튀면 그놈 퍼서 인제 그거 먹고.}
10801 @ 왜 하필 이월 초하룬날? {왜 하필 이월 초하룻날?}
10801 # 이월 초하루가 보꼼지래서 멍넌 나리거든. {이월 초하루가 볶음해서 먹는 날이거든.}
10801 # 이월 초하루가 노래긴 날. {이월 초하루가 노래깃날.}

10801 @ 그 때 주로 뭐뭐 콩 보리? {그 때 주로 뭐뭐 콩, 보리?}
10801 # 보리. {보리.}
10801 # 그거빼기 더 이써? {그것밖에 더 있어?}
10801 # 쌀두 보꾸문 조치만 싸른 그 때는 구영게 안 보까 머꾸. {쌀도 볶으면 좋지만, 쌀은 그 때는 귀하니까 안 볶아 먹고.}
10801 # 콩어구 보리어구 보까서 머거찌. {콩하고 보리하고 볶아서 먹었지.}
10801 @ 또요 할머니? {또요 할머니?}
10801 # 그게. {그게.}
10801 @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10801 # 사뭘 사뭘 따른 인자 뭐 그르케 특삐러게 혀서 머꾸 그러든 앙쿠. {삼월, 삼월 달은 인제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해서 먹고 그러진 않고.}
10801 @ 인자 농사철 시작되나요? {인제 농사철 시작되나요?}
10801 @ 사뭘 되면? {삼월 되면?}
10801 # 사뭘 되문 인자. {삼월 되면 인제.}
10801 @ 음녁 사뭐리면? {음력 삼월이면?}
10801 # 제:비 음녁 사뭐리믄 제:비더리 나오지. {제비 음력 삼월이면, 제비들이 나오지.}
10801 # 강남 가따가 제:비더리 인자 도라오는 때여. {강남 갔다가 제비들이 인제 돌아오는 때야.}
10801 # 긍게 그 때는 제:비가 마:내써 지끄믄 제:비 웁써저써. {그러니까 그 때는 제비가 많았어, 지금은 제비 없어졌어.}
10801 # 제:비가 처마에다 막:: 집 지쿠 새끼까구. {제비가 처마에다 막 집 짓고, 새끼 까고.}
10801 # 새끼 나가꾸 막 저 전기쭈리가 촉:: 안저. {새끼 낳아갖고 막 저 전깃줄에 가 족 앉아.}
10801 # 그러먼 막 전지쭈리 무거서 이러케 흔들흔들흔드러지. {그러면 막 전깃줄이 무거워서 이렇게 흔들흔들흔들하지.}
10801 # 그러데니 제:비가 싹 웁써저써. {그러더니 제비가 싹 없어졌어.}
10801 @ 시끄러껜네요 할머니? {시끄럽겠네요, 할머니?}
10801 @ 제비가 막 짇. {제비가 막 짖[x어x].}
10801 # 이:: 제:비가 찌쯔찌쯔찌찌찌 지주구리 지:비 지주그리 그르믄 시끄럽짜너! {응, 제비가 짹짹짹짹짹짹짹 지저귀고, 제비 지저귀고 그러면 시끄럽잖아!}
10801 @ 똥도 막 쌀까? {똥도 막 쌀까?}
10801 # 으 똥 싸고 저런 디 안 주리가 막 휘어지게 안찌. {응, 똥 싸고 저런 데 안, 줄이 막 휘어지게 앉지.}
10801 # 촉:: 저런 전기쭈리가. {족 저런 전깃줄에가.}
10801 # 그링 제:비가 싹:: 웁써저써. {그러더니 제비가 싹 없어졌어.}
10801 # 한:: 삼년 저니두 제:비 이써써 멘 마리썩. {한 삼년 전에도 제비 있었어, 몇 마리씩.}
10801 # 지그믄 아주 웁네 인자. {지금은 아주 없네, 인제.}
10801 @ 제비가 그르케 와서 집 지쿠 째째꺼려싸면? {제비가 그렇게 와서 집 짓고 짹짹거려쌓으면?}
10801 # 새끼까구. {새끼까고.}

10801 @ 그냥 그케 내비둬요 그냥?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요 그냥?}
10801 # 구치. {그치.}
10801 # 인자 질 때에는 똥 싸싸쿠 구차너구 막 홍:: 널러오문 비눌 럴러싸쿠 마리이서 밥 머꾸 얼라먼 성가시러 그릉게 모: 찌케 허지. {인제 지을 때에는 똥 싸쌓고 귀찮고, 막 흙 날아오면 비늘 날려쌓고, 마루에서 밥 먹고 하려면 성가시어, 그러니까 못 짓게 하지.}
10801 # 모: 찌케. {못 짓게.}
10801 @ 어트게 모 찌케? {어떻게 못 짓게?}
10801 # 거기다 신문지나 뭐 종이나 질라구 허는 디다 이냥 부체 노먼 몯 찌어. {거기다 신문지나 뭐 종이나 지으려고 하는 데에 붙여 놓으면 못 지어.}
10801 # 안 지어 모 찌케. {안 지어, 못 짓게.}
10801 # 그래서 우리두 저 짝 사름방 마리다 천장이다 제비집 지어꺼던. {그래서 우리도 저쪽 사랑방 마루에다, 천장에다 제비집 지었거든.}
10801 # 지끄먼 아주 웁써저써. {지금은 아주 없어졌어.}
10801 # 제:비가. {제비가.}
10801 @ 그니까 사뭐레는 제비가 오는 처린데 사람드른 주로 뭐 얻 뭐? {그러니까 삼월에는 제비가 오는 철인데 사람들은 주로 뭐, 얻[x어x] 뭐?}
10801 # 강낭 가떤 제:비가 도라온다네 사뭘 따른 그르 그르꾸.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네, 삼월 달은 그르, 그렇고.}
10801 @ 그럼 사람드른 사뭐레 주로 뭐 어트게 보내써요? {그럼 사람들은 삼월에 주로 뭐 어떻게 보냈어요?}
10801 @ 농사 준비하며 하느라고 보내써요 사뭐른 주로? {농사 준비하며 하느라고 보냈어요, 삼월은 주로?}
10801 # 그:: 저네는. {그 전에는.}
10801 @ 나물 뜨드러 다녔나? {나물 뜯으러 다녔나?}
10801 # 사뭘 따레 그르치. {삼월 달에 그렇지.}
10801 # 너물 뜨드러 댕이구. {나물 뜯으러 다니고.}
10801 @ 사뭘 되면? {삼월 되면?}
10801 # 어~그래 농사 준비두 추어서 잘 아 내찌만 인제 사월 오월대야 나리 풀려서 따숭게. {응, 그래 농사 준비도 추워서 잘 안 했지만, 인제 사월, 오월 돼야 날이 풀려서 따뜻하니까.}
10801 # 뭔 풀리비 다 싹터서 나오구. {뭔 풀잎이 다 싹터서 나오고.}
10801 @ 긍까 할머니 사뭐레는 주로 뭘 하면서 애드른 소일하고 노라써요? {그러니까 할머니, 삼월에는 주로 뭘 하면서 애들은 소일하고 놀았어요?}
10801 @ 애드른 주로? {애들은 주로?}
10801 # 사뭐리는 그냥. {삼월에는 그냥.}
10801 @ 별 꺼 업썯꼬? {별 것 없었고?}
10801 # 나리 풀리니까 자꾸 인자 날두 따수꾸 헝게 한::디서 그냥 뗨박찌러구 노라찌 그저니 우덜 어려서는. {날이 풀리니까 자꾸 인제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한데에서 그냥 뛰박질하고 놀았지, 그전에 우리들 어려서는.}
10801 # 팔방. {사방치기.}
10801 @ 돌? {돌?}

10801 # 땅빼끼. {땅뺏기.}
10801 # 저기 고무 고무줄루 고모다리 그걷 허구 그냥 노라찌 뗘서 한디서. {저기 고무, 고무줄로 고무줄놀이 그것 하고 놀았지 뛰어서, 한데에서.}
10801 @ 그 다으메 인자 사월로 너머 가보까요 할머니? {그 다음에 인제 사월 넘어 가볼까요, 할머니?}
10801 # 사워리는. {사월에는.}
10801 # 음 사월 딸두 인자 내내 사뭘 따리나 그런 때처럼 그냥 나리 확 따수꾸 풀링게. {음, 사월 달도 인제 내내 삼월 달에나 그런 때처럼 그냥 날이 확 따뜻하고 풀리니까.}
10801 # 그냥 어려서는 일 걱정을 허까 뭐더까 그냥 댕기머 대어구 어른네 보는 사라믄 애 어꾸 댕기구. {그냥 어려서는 일 걱정을 할까 뭣할까 그냥 다니며 사방치기하고, 어린애 보는 사람은 애 업고 다니고.}
10801 # 지끄믄 애 어꾸 노:는 사람 웁써. {지금은 애 업고 노는 사람 없어.}
10801 # 그저니는 즈이 동생덜 이씅게 연연 자꾸 낭게 다:: 애 어꾸 댕기머 노라찌 어른네. {그전에는 자기 동생들 있으니까, 연년 자꾸 낳으니까 다 애 업고 다니며 놀았지 어린애.}
10801 @ 사워레는 초파일 드러인네? {사월에는 초파일 들어있네?}
10801 # 사월 초파일랄 인자 관등 불 쑨다고 저리서. {사월 초파일날 인제 관등 불 켠다고 절에서.}
10801 # 저리 댕이는 사라먼 인제 초파일 때 이런 지비서두 뭐 떡두 해머꾸.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인제 초파일 때 이런 집에서도 뭐 떡도 해먹고.}
10801 # 사월 초파이링게 에 떡뚜 해머꾸 그래찌 그랜는디. {사월 초파일이니까 에, 떡도 해먹고 그랬지 그랬는데.}
10801 # 벨시러께 특별헌 거슨 몰르구 그냥 초파일 때 부천님 오신 나리라구 명절처럼 그냥 뛰댕이며 놀:구 그래써. {별스럽게 특별한 것은 모르고, 그냥 초파일 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명절처럼 그냥 뛰어다니며 놀고 그랬어.}
10801 @ 이제 오월 대며는 다노가 제일 큰 노는 나리여써요? {이제 오월 되면은 단오가 제일 큰 노는 날이었어요?}
10801 # 응 응. {응, 응.}
10801 # 다노 때 인자 놀구. {단오 때 인제 놀고.}
10801 @ 다논날 여자드른 머리 윤끼 이써지라고 여자드른? {단옷날 여자들은 머리 윤기 있어지라고, 여자들은?}
10801 # 다논날른. {단옷날은.}
10801 @ 할머니 처자 때도 머리 길게 이르케. {할머니, 처녀 때도 머리 길게 이렇게.}
10801 # 이~ 땓 따찌. {응, 땋, 땋았지.}
10801 # 댕기 디려서. {댕기 들여서.}
10801 # 그러고 막 풀루 이케 첻 트러서 혀서 저기 허구 널:구. {그러고 막 풀로 이렇게 채 틀어서 해서 저기 하고, 널고.}
10801 @ 할머니 그럼 그러면 할머니 처녀 때 마내도 머리 길::게 다들 너나 할 꺼 업씨 여자드리 새악씨드리 머리 길::게 해짜나요? {할머니, 그럼 그러면 할머니 처녀 때 만해도 머리 길게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여자들이 색시들이 머리 길게 했잖아요?}
10801 @ 뭐 각시들뚜 비녀 찔러뜬데? {뭐 각시들도 비녀 찔렀던데?}
10801 # 각씨더른. {각시들은.}

10801 # 응 낭자는 업써저쓸 때여. {응, 낭자는 없어졌을 때야.}
10801 # 우덜 처녀 때는 인자 지저가주구 소도마끼혀서 인자 까미혀써. {우리들 처녀 때는 인제 지져가지고 바깥 말이 해서 인제 까미(쪽진 머리) 해서.}
10801 # 이냥:: 해서 조::기 삔 찔러서. {이렇게 해서 족, 이 핀 질러서.}
10801 @ 그면 새악? {그면 색[x시x]?}
10801 # 나두 그느케 해구 낭자는 아 내봐써. {나도 그렇게 하고 낭자는 안 해봤어.}
10801 @ 새악씨드른 머리를 여저니 길::게 댕기머리 해써요? {색시들은 머리를 여전히 길게 댕기머리 했어요?}
10801 @ 새악씨드른? {색시들은?}
10801 # 댕기머리 현:는디 우더른. {댕기머리 했는데 우리들은.}
10801 # 우덜 커서 나 나 샥시 때 뎅게는 지지능 거 츰 생겨꺼든 불루 지저써. {우리들 커서 나, 나 색시 때 되니까는 볶는 거 처음 생겼거든 불로 지졌어.}
10801 # 그저니는 수떵걸 요만써 거게 순 나오넝 거 이러케 물리는 디다 하나씩 너 가주구 물려놔서 깨따거먼 타구 머리가 그냥 해찌 그. {그전에는 숯등걸(불잉걸) 요만씩 하게 숯 나오는 거 이렇게 물리는 데다 하나씩 넣어 가지고 물려놔서 까딱하면 타고 머리가 그냥 했지, 그.}
10801 @ 할머니 그러면 머리를 길::게 느러 뜨리고 다닐 때는 그런 시저레는. {할머니, 그러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때는, 그런 시절에는.}
10801 @ 그 처녀드리 새악씨드리 그 머리를 좀 융끼이께 치장하느라고 뭐 어떤 어떤 거리글 해써요? {그 처녀들이, 색시들이 그 머리를 좀 윤기 있게 치장하느라고 뭐 어떤, 어떤 거리를 했어요?}
10801 # 그릉게 막 윤끼이께 치장헐라면 머리 아주까루 아주까루루 지름 짜서 그거 발러서 매끈허게 허구. {그러니까 막 윤기 있게 치장하려면, 머리 아주까리, 아주까리기름 짜서 그거 발라서 매끈하게 하고.}
10801 # 아주까루 대공 저기 혀서. {아주까리 대 저기 해서.}
10801 @ 그러며는 인제 머리 좀 융 융기이께 가꾸느라고 처녀드리 아주까루? {그러면은 인제 머리 좀 윤, 윤기 있게 가꾸느라고 처녀들이 아주까리?}
10801 # 아주까루 대공. {아주까리 대.}
10801 @ 그 나올 처레 인제 막 준비 준빌해요? {그 나올 철에 이제 막 준비 준빌 해요?}
10801 # 이~ 쌀머서 두어따 말려서 인자 그 늠 쌀머가꾸 그 늠 물루 머리 가므믄 머리결 조타구 그냥 허구 그래찌. {응, 삶아서 뒀다 말려서 인제 그 놈 삶아갖고, 그 놈 물로 머리 감으면 머릿결 좋다고 그냥 하고 그랬지.}
10801 @ 머리 치장하는 데는 아주까리를 해꼬? {머리 치장하는 데는 아주까리를 했고?}
10801 @ 그럼 또 새악씨드리 얼굴 좀 이쁘게 치장하고 이러느라고 뭐 미리미리 챙겨따가 치장하는 데 쓰고 이렁 건 업써써요 할머니? {그럼 또 색시들이 얼굴 좀 예쁘게 치장하고 이러느라고, 뭐 미리미리 챙겼다가 치장하는 데 쓰고 이런 건 없었어요, 할머니?}
10801 # 그릉게 인자 다논날 그런 때 물:: 바더다가 쌈 바티 가서 물 바더다가. {그러니까 인제 단옷날 그런 때 물 받아다가 쌈 밭에 가서 물 받아다가.}
10801 # 그 덩어리 분 옌나레는 요만::썩허게 덩어리 부니 이써써. {그 덩어리 분, 옛날에는 요만큼씩 하게 덩어리 분이 있었어.}
10801 # 그거 인자 그 물루 개:가꾸 얼구리 발르구. {그거 인제 그 물로 개갖고 얼굴에 바르

고.}
10801 @ 다노 때만? {단오 때만?}
10801 # 어~::. {응.}
10801 # 땀때기 안 난다구 그르케 해서 발르먼 그르케 해서 발르구 그르케 크구. {땀띠 안 난다고 그렇게 해서 바르면, 그렇게 해서 바르고 그렇게 크고.}
10801 # 각씨풀 뜨더서 각씨 만든다구 가꾸 댕이머 그걷 허구 째까널 때 바끔사리 헌다구 지끄믄 바끔사리 허넝 거시 다 나오자녀. {각시풀(갈대) 뜯어서 각시 만든다고 갖고 다니며 그것 하고, 조그만 할 때 소꿉놀이한다고 지금은 소꿉놀이하는 것이 다 나오잖아.}
10801 # 그런디 우덜 때는 새금파리 깨트러서 그 믿 이르케 구빋는 디는 소시라구 거러노쿠. {그런데 우리들 때는 사금파리 깨트려서 그 밑, 이렇게 굽 있는 데는 솥이라고 걸어놓고.}
10801 # 감 넙싸 그렁 건 도:니라구 인자 따구. {감 잎사귀 그런 건 돈이라고 인제 따고.}
10801 # 그러케 해서 인자 할먼네 오이가찝 깐다구 이우찝 인자 따로 사는디 오이가찝 깐다구 가구. {그렇게 해서 인제 할머니네 외갓집 간다고, 이웃집 인제 따로 사는데 외갓집 간다고 가고.}
10801 # 그런 장난허구 커찌. {그런 장난하고 컸지.}
10801 @ 할머니 바끔사리는 인제 쪼꼬만 애드리 이르케 하고 노는 노는 거에요? {할머니, 소꿉놀이는 인제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하고 노는, 노는 거예요?}
10801 # 그르치 쪼끄마널 때지. {그렇지 조그만 할 때지.}
10801 @ 그게 제 남자 여자 할 꺼 업씨 가치 노라도 되겐네 바끔사리? {그게 인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같이 놀아도 되겠네, 소꿉놀이?}
10801 # 바끔사리헐 때는 째까넝게 인자 한 다서 쌀 위루 그 쪼꼬만헐 땡게 남자더러구 머스매가 이쓰먼 가치 놀:구. {소꿉놀이할 때는 조그만 하니까, 인제 한 다섯 살 위로 그 조그만 할 때니까 남자들하고 머슴애가 있으면 같이 놀고.}
10801 # 한 지비서 가치 크니까 그르지. {한 집에서 같이 크니까 그렇지.}
10801 # 그렁 거바께. {그런 거밖에.}
10801 # 그릉게 머스매는 그때두 머스매는 아버지네구 여자는 엄해네구 그냥 그냥 해가머 장난해찌.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때도 남자애는 아버지네고, 여자는 엄마네고 그냥, 그냥 하면서 장난했지.}
10801 @ 오워레는 다노가 아주 큰 노는 나리여꼬? {오월에는 단오가 아주 큰, 노는 날이었고?}
10801 # 에. {응.}
10801 @ 또 오워레는 머 사람드른 인제 농사 진는 사람들 오워레 주로 머 분주하게 움지기나요? {또 오월에는 뭐 사람들은 인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오월에 주로 뭐 분주하게 움직이나요?}
10801 @ 뭐 뭐 하나요? {뭐, 뭐 하나요?}
10801 # 그치 분주허게 인자 오월 하월 딸버터 모짜리 사월딸버터 모짜리 허구. {그렇지 분주하게 인제 오월, 사월 달부터 못자리, 사월 달부터 못자리 하고.}
10801 # 오워리 오월 유워리 모 싱꾸. {오월에 오월 유월에 모 심고.}
10801 @ 그면 인제 유월 드러서면 할머니 머 유워레는 머 머 어떤 노는 나리 이써요? {그러면 인제 유월 들어서면 할머니, 뭐 유월에는 뭐, 뭐 어떤 노는 날이 있어요?}

10801 # 유월? {유월?}
10801 @ 유둔날 유둔나리 유둔날 챙기셔써요 할머니 이 동네도? {유둣날, 유둣날이, 유둣날 챙기셨어요, 할머니 이 동네도?}
10801 # 인자 그런 때는 유월따리 그런 때는 더우꾸 저기 헝께 그런 걷 치두 앙쿠. {인제 그런 때는 유월 달에 그런 때는 덥고 저기 하니까 그런 것 치지도 않고.}
10801 # 농산닐 인자 저기 헝게 그냥 우더른 처럽씅게 그냥 뛰댕기머 팔방허구 저 고무쭐루 고무다리허구 그렁 걷 놀러 댕이구. {농사 일 인제 저기 하니까, 그냥 우리들은 철없으니까 그냥 뛰어다니면서 사방치기하고, 저 고무줄로 고무줄놀이하고 그런 것 놀러 다니고.}
10801 @ 그럼 유워레는 유월 읻 할머니 처녀 친 결혼하기 저니나 지그미나 시집와서나 유 유둔나른 별로 머 크게 안 치고? {그럼 유월에는 유월 있, 할머니 처녀 친, 결혼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시집와서나 유, 유둣날은 별로 뭐 크게 안 치고?}
10801 # 에 에. {예 예.}
10801 @ 그냥 별 꺼 업썬나바요? {그냥 별거 없었나봐요?}
10801 # 그르쿠 칠썽 나른. {그렇고 칠석날은.}
10801 @ 칠썽날? {칠석날?}
10801 # 겨누 징녀가 만나는 나리라고 칠썽 때 우여는 사라믄 칠썽 때 시루 혀.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 칠석 때 위하는 사람은 칠성 때 시루 해.}
10801 # 떡. {떡.}
10801 # 떡 쩌서 올리구. {떡 쪄서 올리고.}
10801 @ 어디다가? {어디다가?}
10801 # 우여는 디가 이찌 인자. {위하는 데가 있지 인제.}
10801 @ 아 집찜마다? {아, 집집마다?}
10801 # 이. {응.}
10801 @ 할머니 그 성주딴지 인는 거처럼? {할머니 그 성주단지 있는 거처럼?}
10801 # 이. {응.}
10801 # 두꺼티다 응 세발라게 이르케서 잔 혀서 올려 놔두는 사람두 이꾸. {뒤꼍에다 잉, 세 발 나게 이렇게 해서, 잔 해서 올려 놔두는 사람도 있고.}
10801 # 그런 디다 인자 떠게서 노쿠 칠썽나리라구. {그런 데다 인제 떡 해서 놓고 칠석날이라고.}
10801 @ 음 칠썽나레? {음, 칠석날에?}
10801 # 인자 그냥 해서 머꾸. {인제 그냥 해서 먹고.}
10801 @ 비나 비나요? {비나, 비나요?}
10801 @ 머 떡 올려 노코 아페서? {뭐 떡 올려놓고 앞에서?}
10801 @ 빌기도 하나요? {빌기도 하나요?}
10801 # 인자 모꼭허구 절:허구 그 시루혀서 너믄 거기서 인자 공을 디리는 거지. {인제 목욕하고 절하고 그 시루해서 놓으면, 거기서 인제 공을 들이는 거지.}
10801 # 칠씅날 머 잘 머꾸 그러야 한다구 칠썽날. {칠석날 뭐 잘 먹고 그래야 한다고, 칠석날.}
10801 @ 사람드리? {사람들이?}
10801 # 음. {응.}
10801 @ 칠썽날 잘 머거야 한다고? {칠석날 잘 먹어야 한다고?}

10801 # 잘 혀서 머꾸 인자 여르밍게 여름 지낼라먼 글력 웁꾸 헝게. {잘 해서 먹고, 인제 여름이니까 여름 지내려면 근력 없고 하니까.}
10801 # 그저니는 그래써. {그전에는 그랬어.}
10801 # 그게 인자 봉날 차저서 인자 뭗 머그얀다구 복날떨 뭐 혀:먹구. {그게 인제 복날 찾아서 인제 뭣 먹어야 한다고 복날들 뭐 해먹고.}
10801 # 지끄미 그렁 건 더 잘 먹어 지끄미 그전 가찌 앙쿠. {지금이 그런 건 더 잘 먹어, 지금이 그전 같지 않고.}
10801 @ 멍는 거야 머 요새가 더 잘 먹찌요. {먹는 거야, 뭐 요새가 더 잘 먹지요.}
10801 # 지끄미. {지금이.}
10801 @ 할머니 인제 파뤌 음녁 파뤌 되며는? {할머니, 인제 팔월 음력 팔월 되면은?}
10801 # 인제 파뤌 보롬 명일 쇠야지. {인제 팔월 보름 명절 쇠어야지.}
10801 # 명질 인자 그 때도 멩일 주 준비를 허구. {명절 인제 그때도 명절 주, 준비를 하고.}
10801 @ 멩일 되면 할머니 인제 머 차레쌍 바야 되니까 음식 짱만도 장마니지만 먿 인제 새옫 이르케 해 임는 거? {명절 되면 할머니 인제 뭐 차례 상 봐야 되니까 음식 장만도 장만이지만, 뭐 인제 새 옷 이렇게 해 입는 거?}
10801 # 그치. {그렇지.}
10801 # 그저니는 인자 다:: 뭗 감: 떠다 소니루 꼬매 이벋씅게. {그전에는 인제 다 뭣 감 떠다 손으로 꿰매 입었으니까.}
10801 # 꼬매서 이북 애덜 혀서 이피야구. {꿰매서 의복 애들 해서 입혀야 하고.}
10801 @ 애들만 핸나요 할머니? {애들만 했나요, 할머니?}
10801 @ 애들만? {애들만?}
10801 # 그 으른더른 머 특뼐허게 막 멩일 때라구 잘 립꾸 그냥 앙쿠. {그 어른들은 뭐 특별하게 막 명일 때라고 잘 입고 그냥 않고.}
10801 @ 애드리 새로? {애들이 새로?}
10801 # 애덜::른 인자 고:구 저기헝 거 새로 해 이피야 조아헝게. {애들은 인제 곱고 저기한 것 새로 해 입혀야 좋아하니까.}
10801 @ 그 머 이르미 이써요? {그 뭐 이름이 있어요?}
10801 @ 그 옫 이르미? {그 옷 이름이?}
10801 @ 보름날 적 파뤌 보름날 특뼈리 해 임는 새옫 이름 가틍 게 이써요? {보름날 적, 팔월 보름날 특별히 해 입는 새 옷 이름 같은 게 있어요?}
10801 # 그치 색똥저구리 가틍 거. {그렇지, 색동저고리 같은 것.}
10801 # 팔워리는 갑싸. {팔월에는 갑사.}
10801 # 그저니가 그게 첼 비다니여. {그전에는 그게 제일 비단이야.}
10801 # 남 갑싸. {남색 갑사.}
10801 @ 저도 갑싸 저기 함 함번 이버 바써요. {저도 갑사 저기 한, 한번 입어 봤어요.}
10801 # 빨강 갑싸. {빨간 갑사.}
10801 # 에 갑싸치마 혀:서 입꾸. {응, 갑사치마 해서 입고.}
10801 # 색똥저구리 여서 입꾸. {색동저고리 해서 입고.}
10801 @ 긍가 주로 애드란테 오슬 새로 함 벌 인제 만드러 해 이피는군뇨? {그러니까 주로 애들한테 옷을 새로 한 벌 인제 만들어 해 입히는군요?}
10801 # 응. {응.}

10801 @ 이제 파뤌 보르미면? {이제 팔월 보름이면?}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파뤌 도로믄. {팔월 돌아오면.}
10801 @ 금 애드른 신나껜네요? {그럼 애들은 신났겠네요?}
10801 # 애더린 신나찌. {애들은 신났지.}
10801 # 긍게 인자 쌍뎅이처럼 인는 사라믄 하나 혀서 처 노쿠 또 하나 해서 처 노쿠 이냥 모더구. {그러니까 인제 쌍둥이처럼 있는 사람은 하나 해서 치워 놓고, 또 하나 해서 치워 놓고, 이렇게 못하고.}
10801 # 하나 허다 내 꺼는 안느냐구 해쌍게. {하나 하다 내 것은 안하느냐고 해쌓으니까.}
10801 # 이 두뚜 또가튼 사람 두리먼 또하나 그 사람 껃 쪼매 허다 이 사람 꺼 쪼매 허다 그냥 해서 해노얀댜 서로가 싸매쌍게. {이 둘 또 똑같은 사람 둘이면 또 하나 그 사람 것 조금 하다가, 이 사람 거 조금 하다 그냥 해서 해놓아야 한대, 서로가 싸움해쌓으니까.}
10801 # 그냥 해따고드라구.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
10801 # 으른덜. {어른들.}
10801 @ 오슨 인제 그니까 파뤌 보름되면 애들 옫 해 주능 거 아주 큰 이리네요? {옷은 인제 그러니까 팔월 보름 되면 애들 옷 해 주는 거 아주 큰일이네요?}
10801 @ 지베서? {집에서?}
10801 # 구치 애덜 옫 해주구 으:른덜뚜 다드미 혀서 모시걷 멩지걷 그렁 걷 다드미루 혀서 파뤄리 해 이피양게 해 이부양게. {그렇지, 애들 옷 해주고 어른들도 다듬이 해서 모시 것, 명주 것, 그런 것 다듬이로 해서 팔월에 해 입혀야 하니까, 해 입어야 하니까.}
10801 @ 인제 파뤄리 되면 집찜마다 며느리드리 아주 주거나는 때군뇨 할머니? {인제 팔월이 되면 집집마다 며느리들이 아주 죽어나는 때군요, 할머니?}
10801 # 그르치 인자 막 다디미 쏘리가 집찌비 나구 빨래쏘리 빨래 뚜디는 소리. {그렇지, 인제 막 다듬이 소리가 집집에 나고 빨래소리, 빨래 두드리는 소리.}
10801 @ 옫? {옷?}
10801 # 직 지그믄 그런 소리 웁찌만 그저니는 집찌비서 다디미 허는 소리 두리가 뚜두루먼 군정 마처서 다드미 허는 소리가 참 드끼 조아찌. {지, 지금은 그런 소리 없지만 그전에는 집집에서 다듬이 하는 소리 둘이 두드리면 박자 맞춰서 다듬이질 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지.}
10801 @ 파뤄레요 할머니 베 이사글 다는 무슨 이런 풍스비 이써써요 혹씨? {팔월에요 할머니, 벼 이삭을 다는 무슨 이런 풍습이 있었었어요, 혹시?}
10801 # 팔. {팔.}
10801 @ 그렁 건 업써꼬? {그런 건 없었고?}
10801 # 파뤄레? {팔월에?}
10801 @ 에. {예.}
10801 @ 할머니 파뤄레 파뤄레는 그럼 인제 머글꺼리는? {할머니 팔월에, 팔월에는 그럼 인제 먹을거리는?}
10801 @ 어떵 거뜨를 주로 파뤄레 특뼈리 멍는 음시근 뭐 어떵 거 이써써요? {어떤 것들을 주로 팔월에 특별히 먹는 음식은 뭐 어떤 거 있었어요?}
10801 # 파뤌 명지리는 머::이고 해껃. {팔월 명절에는 뭣이고 햇것.}
10801 # 오리 헝 거. {올해 한 것.}

10801 # 대추두 씨::푸런 해도 해때추. {대추도 시퍼래도 햇대추.}
10801 # 감두 해캄. {감도 햇감.}
10801 # 파뤌 추서기는 쌀두 베 비여다 쩌서 말려서 찐 쌀 해서 바베서 그르케서 지사 지내찌. {팔월 추석에는 쌀도 벼 베어다 쪄서 말려서 찐 쌀 해서, 밥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 지냈지.}
10801 # 다 해껃. {다 햇것.}
10801 @ 할머니 금 파뤄레만 특뼈리 해 멍는 떡 까틍 거또 이써써요? {할머니, 그럼 팔월에만 특별히 해 먹는 떡 같은 것도 있었어요?}
10801 # 파뤄리 해뭉 뭉는 떠근 송펴니지. {팔월에 해먹, 먹는 떡은 송편이지.}
10801 # 특뼐루 혀 멍는 떠근 파뤄리 송편. {특별히 해 먹는 떡은 팔월에 송편.}
10801 # 송편 만드러 머거찌 파뤄리는. {송편 만들어 먹었지, 팔월에는.}
10801 @ 송편는 주로 뭘로 속 하셔써요 할머니? {송편은 주로 뭐로 속 하셨어요, 할머니?}
10801 # 송펴는 쌀루. {송편은 쌀로.}
10801 @ 아니 속 속? {아니, 속 속?}
10801 # 속? {속?}
10801 # 속 고무른 인자 각쫑 고루고루. {속 고물은 인제 각종 고루고루.}
10801 # 팓뚜 쌀머서 느:쿠 콩꼬물 복 콩 보까서 그 눔 버무려서 응 꽤 쫌 느쿠 설탕 느쿠 이르케서 속 느먼 마지써. {팥도 삶아서 넣고 콩고물 볶, 콩 볶아서 그 놈 버무려서 응, 깨 좀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속 넣으면 맛있어.}
10801 @ 그럼 할머니 파뤄레는 특뼈리 송펴늘 머거 보자나요? {그럼 할머니 팔월에는 특별히 송편을 먹어 보잖아요?}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그럼 정워레는 특뼈리 멍는 정월 음시근? {그럼 정월에는 특별히 먹는 정월 음식은?}
10801 # 시루떡. {시루떡.}
10801 # 팓떡 시루떡. {팥떡, 시루떡.}
10801 @ 떠꾹또 드러가요 거기? {떡국도 들어가요, 거기?}
10801 @ 정워레? {정월에}
10801 # 떠꾸근 떠꾹뚜 빼서 먹찌. {떡국은 떡국도 빼서 먹지.}
10801 # 떠꾹뚜 정워리 끄려 머긍게. {떡국도 정월에 끓여 먹으니까. }
10801 # 차레쌍이 인자 국 끄리구 바버구 허기 성가시렁께 떠꾹만 끄려서 한 그른썩 퍼다 노쿠. {차례 상에 인제 국 끓이고, 밥하고 하기 성가시니까 떡국만 끓여서 한 그릇씩 퍼다 놓고.}
10801 # 맏꼬. {먹고.}
10801 @ 만두는 특뼈리? {만두는 특별히?}
10801 # 그른디 이 동네는 망두 아녀. {그런데 이 동네는 만두 안 해.}
10801 # 그런디 서울 가튼 디 그런 디는 특뼈리 만두룰 떠거더더드라구 이런 디.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그런 데는 특별히 만두를 떡 하듯 하더라고 이런 데.}
10801 @ 할머니는 친정에서나 시집와서나 만두는 안 만드러 드시고? {할머니는 친정에서나 시집와서나 만두는 안 만들어 드시고?}
10801 # 만두 아 내써. {만두 안 했어.}

10801 # 만두 안코. {만두 않고.}
10801 @ 다논나른 특뼈리 멍는 음시기 인나요 할머니? {단옷날은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나요, 할머니?}
10801 @ 다노에는? {단오에는?}
10801 @ 아니면 칠썽 나레는 특별히 칠써게 멍는 음시기 인나? {아니면 칠석날에는 특별히 칠석에 먹는 음식이 있나?}
10801 # 칠썽 나른 인자 보신탕 개 자버서 머꾸덜. {칠석날은 인제 보신탕, 개 잡아서 먹고들.}
10801 @ 그저니 개 지비서 킬 때 개고기덜 자버서 머꾸 그리찌 칠썽 때. {그전에 개, 집에서 키울 때 개고기들 잡아서 먹고 그랬지, 칠석 때.}
10801 @ 할머니 인제 구 인제 파뤌 명절 지내고 구월 되며는? {할머니, 인제 구, 인제 팔월 명절 지내고 구월 되면은?}
10801 @ 구워레 제일 큰 행사는 뭐? {구월에 제일 큰 행사는 뭐?}
10801 # 구워리먼 인자 들 곡씨기 이거강게 바뻐. {구월이면 인제 들 곡식이 익어가니까 바빠.}
10801 # 구월버터먼. {구월부터는.}
10801 # 뭐이고 인자 다 거더서 지비다 드리다 노야여 거더서. {뭣이고 인제 다 거둬서 집에다 들여다 놓아야 해, 거둬서.}
10801 # 시월 딸까지 시월 딸까지. {시월 달까지, 시월 달까지.}
10801 @ 농산 바슴하느라고 그 때가? {농사는 바심하느라고 그 때가?}
10801 # 에 인자 베 비여서 바스머구 그러니라구 바쁘지 엔나리는 노니다 비여서 까러놔따 말르먼 무꺼서 일쎠 써따 쪽:: 가려 놔따가. {응, 인제 벼 베어서 바심하고 그러느라고 바쁘지, 옛날에는 논에다 베어서 깔아 놨다 마르면 묶어서 일으켜 세웠다 족 깔아 놨다가.}
10801 # 그눔 저다 중가니 어따 사니나 오디다가 저다가 놔따 저다가 또 개려 놔따가 그늠 저다 지비서 또 훌터. {그놈 져다 중간에 어디다, 산이나 어디다가 져다가 놨다, 져다가 또 깔아 놨다가 그놈 져다 집에서 또 훑어.}
10801 # 그르케 복짜버게 혀써 지끄믄 바티서 삭: 노니서 부셔서 베만 터러 가주자나. {그렇게 복잡하게 했어, 지금은 밭에서 싹 논에서 부숴서 벼만 털어 가지고 오잖아.}
10801 @ 고 하면 인제 시비뤌 되면 인제 겨울 된다 되나요? {고 하면 인제 십일월 되면 인제 겨울 된다, 되나요?}
10801 # 인자 시비뤌 되믄 바스멍 걷 집 가꾸 이엉 여꺼서. {인제 십일월 되면 바심한 거 짚 갖고 이엉 엮어서.}
10801 # 이영두 마니 여끼양게 오래:: 또 스:사르 날 존 날루만 이엉 여꺼서 인자 비 오고는 나른 모딩게. {이엉도 많이 엮어야 하니까, 오래 또 서서히 날 좋은 날로만 이엉 엮어서 인제 비 오고 하는 날은 못하니까.}
10801 # 그냥 해서 이엉 여꺼서 눈 오기 저니 지붕 해 이를라루 막 서두능 거여 인자. {그냥 해서 이엉 엮어서 눈 오기 전에 지붕 해 이려고 막 서두는 거야, 인제.}
10801 @ 시비뤄레는 동지 드러짜나요? {십일월에는 동지 들었잖아요?}
10801 # 시비뤌 따리 인자 동지 드러찌. {십일월 달에 인제 동지 들었지.}
10801 # 그래서 동진나른 인자 파쭉 쒀 멍는 나리지. {그래서 동짓날은 인제 팥죽 쑤어 먹는 날이지.}

10801 # 동진나른. {동짓날은.}
10801 @ 여기선 할머니 파쭈게 뭐 뭐 넌 넌나요? {여기서는 할머니 팥죽에 뭐, 뭐 넣, 넣나요?}
10801 # 팓 쌀머서 그 늠 농나::내게 이깨려서 걸러가꾸 찹쌀 빠숴다 찹쌀 당거따 빠숴다 그걸루 인자 똥골똥골허게 새알처럼 이르케 똥고렁케 맹기러서. {팥 삶아서 그 놈 무르게 으깨서 걸러갖고 찹쌀 빻아다, 찹쌀 담갔다, 빻아다 그걸로 인제 동글동글하게 새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10801 @ 고 이르믄 새아리에요? {고 이름은 새알이에요?}
10801 # 에. {예.}
10801 # 새알 저 새알씨미라구. {새알, 저 새알심이라고.}
10801 # 새알주기지 인자 그걷 느쿠 파쭉 쒀서 머그믄 마시써. {새알심죽이지 인제 그것 놓고 팥죽 쑤어서 먹으면 맛있어.}
10801 @ 고 새알 새알씨믈 뭐 며 깨씩 머거야 된다 머 이렁 거 이써요 할머니? {그거 새알 새알심을 뭐 몇 개씩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할머니?}
10801 @ 음 뭐 나이대로 멍는다든지? {음, 뭐 나이대로 먹는다든지?}
10801 # 음 나이대로 암 머꾸. {음, 나이대로 안 먹고.}
10801 # 그냥 파쭉 쒀서 한 그르썩 푸며는 인자 한 사발썩 머꾸. {그냥 팥죽 쒀서 한 그릇씩 푸면은 인제 한 사발씩 먹고.}
10801 # 그저니는 씨마 시간 마춰서 동진날 시가 메 씨라::구 인자 그게 나오나 저 달려기. {그전에는 시 맞, 시간 맞춰서 동짓날 시가 몇 시라고 인제 그게 나와, 저 달력에.}
10801 # 그러면 그 시 마춰서 죽 쒀서 저런 디다 가따 냥 찌틀구 머거써. {그러면 그 시 맞춰서, 죽 쑤어서 저런데다 갖다 그냥 뿌리고 먹었어.}
10801 @ 아 시 신드란테? {아, 시, 신들한테?}
10801 # 에. {응.}
10801 # 그냥 허구 파쭉 쒀 머거찌. {그냥 하고 팥죽 쑤어 먹었지.}
10801 @ 하머니 그리구 아기 동지가 뭐에요 아기 동지? {할머니, 그리고 아기동지가 뭐예요, 아기동지?}
10801 # 이? {응?}
10801 @ 애긷 애기똥지? {애기, 아기동지?}
10801 # 애:동지. {애동지.}
10801 # 노:동지 중:동지 그거는. {노동지, 중동지 그거는.}
10801 @ 그게 뭐에요? {그게 뭐예요?}
10801 # 인제 동지따리 일찍 인자 초여를 아니 이르케 드릉 건 애:동지구. {인제 동짓달에 일찍 인제 초열흘 안에 이렇게 든 건 애동지고.}
10801 # 인자 보름끼 그런 때 드릉 건 중동지구. {인제 보름께 그런 때 든 건 중동지고.}
10801 # 노:동지는 인자 그믐끼 드릉 게 노:동지 애:동지. {노동지는 인제 그믐께 든 게 노동지, 애동지.}
10801 # 중:동지 노:동지 그러거든 동지. {중동지, 노동지 그렇거든 동지.}
10801 @ 그러문 애:동지 때는 파쭈글 안 멍는다등가 머 이렁 건 업써요? {그러면 애동지 때는 팥죽을 안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10801 # 애:동지는 떠개 먹찌 파쭉 안 쒀 멍는다 구지 마런. {애동지는 떡 해먹지, 팥죽 안

쑤어 먹는다고 하지, 말은.}
10801 @ 금 떠근 뭔: 떠그로 그냥? {그럼 떡은 뭔 떡으로 그냥?}
10801 # 파떡. {팥떡.}
10801 @ 아! {아!}
10801 @ 금 주 애:동지 때는 파쭈글 암 머꼬. {금, 주 애동지 때는 팥죽을 안 먹고.}
10801 # 이~. {응.}
10801 @ 중동지나? {중동지는?}
10801 # 떠개 멍는다. {떡 해 먹는다.}
10801 # 그러구 인자 노:동지는 보름 너머서 동지가 드르믄 게 노:동진디 그때는 파쭉 쒀머거두 파쭉 쒀 멍는 나리구. {그리고 인제 노동지는 보름 넘어서 동지가 들면 그게 노동진데, 그 때는 팥죽 쑤어 먹어도 팥죽 쑤어 먹는 날이고.}
10801 # 애:동지 때는 떡해 머꾸 노라구 해찌 마리. {애동지 때는 떡 해먹고 놓으라고 했지, 말이.}
10801 @ 하머니 동진날 파쭈근 왜 쒀 멍는다고 어른드리 그러시등가요? {할머니, 동짓날 팥죽은 왜 쑤어 먹는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던가요?}
10801 # 동진날 파쭉 쒀 머그먼 한 살 더 멍는다 해찌 나이. {동짓날 팥죽 쑤어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했지, 나이.}
10801 # 파쭉 머그먼. {팥죽 먹으면.}
10801 @ 그래가주구 저는 아마 어려쓸 때 우리 할머네집 까면 고 새알시믈 나이망큼 머그라고 하셔써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댁 가면 그 새알심을 나이만큼 먹으라고 하셨어요.}
10801 # 어:: 그기는 그런 저기두 이써떵가 보네. {아, 거기는 그런 저기도 있었던가 보네.}
10801 @ 근데 저는 새알시믈 참:: 실허 하거든뇨. {근데 저는 새알심을 참 싫어하거든요.}
10801 # 아::! {아!}
10801 @ 그래 그거 암 머글려고 암 머글려고 그래써써요. {그래서 그거 안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그랬었어요.}
10801 @ 아 잉까 인제 동지가 지나고 한 살 더 멍는 더 머그니까. {아, 그러니까 인제 동지가 지나고 한 살 더 먹는, 더 먹으니까.}
10801 # 아~. {응.}
10801 @ 새알씸도 나이마큼 머그라고 해떵가바요. {새알심도 나이만큼 먹으라고 했던가봐요.}
10801 # 동지쭉 머그먼 한 살 머그 더 먹어능는 거시나 곧 곧 한 살 머긍게. {동지팥죽 먹으면, 한 살 먹으, 더 먹는 것이나 곧, 곧 한 살 먹으니까.}
10801 # 그 그리찌 아이고 동지 도라서 한 살 또 머거따 그러지. {그, 그랬지 아이고, 동지 돌아와서 한 살 또 먹었다 그러지.}
10801 @ 아 아. {아 아.}
10801 @ 이제 서딸 되며는 서따레는 서따레 여자드른 주로 뭐 하느냐고 바쁭가요 할머니? {이제 섣달 되면은 섣달에는, 섣달에 여자들은 주로 뭐 하느냐고 바쁜가요, 할머니?}
10801 # 옌나리는 여자드리 드:릴 아 넝게 스따리는 인자 모시혀서 베 짜서 팔:구 빨래 스딸 대모기 인자 빨래 해서 이꾸 정월 쇨 걱쩡허지 인자. {옛날에는 여자들이 들일 안 하니까 섣달에는 인제 모시해서, 베 짜서 팔고, 빨래 섣달 대목에 인제 빨래해서 입고, 정월 쇨 걱

정하지, 인제.}
10801 # 정월 명일 쐴 꺽쩡. {정월 명일 쇨 걱정.}
10801 @ 할머니 서딸레 대:불로키 가튼 이런 노리가 이써써요? {할머니, 섣달에 대불놓기(쥐불놓기) 같은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10801 # 보롬날 대불. {보름날 쥐불.}
10801 @ 달찝 태우기 말고 대불로키 그거 정워레 하는 거에요? {달집태우기 말고, 쥐불놓기 그거 정월에 하는 거예요?}
10801 # 쥐불 논능 거. {쥐불 놓는 거?}
10801 @ 쥐불로키도 아니고 대불로키라는 노르미 이따는데요? {쥐불놓기도 아니고 대불놓기라는 놀이가 있다는데요?}
10801 # 대불로키두 아니구. {대불놓기도 아니고.}
10801 @ 혹씨 그렁 거? {혹시 그런 거?}
10801 # 음 그저니는. {음 그전에는.}
10801 @ 쥐불로키는 정워레 하조? {쥐불놓기는 정월에 하죠?}
10801 # 으. {응.}
10801 @ 뭐 서따레 그 대불로키라는 불 로는 불 로는 노르미 머 이썬나요 할머니? {뭐 섣달에 그 대불놓기라는 불 놓는, 불 놓는 놀이는 뭐 있었나요, 할머니?}
10801 @ 서따레? {섣달에?}
10801 # 스따리는 그냥 댕기면서 불 로치. {섣달에는 그냥 다니면서 불 놓지.}
10801 @ 어디다 어디루 부룰 롸요? {어디다, 어디로 불을 놔요?}
10801 # 저런 논뚝 그런 디다. {저런 논둑 그런 데다.}
10801 @ 왜요? {왜요?}
10801 # 인자 그냥. {인제 그냥.}
10801 @ 왜 하나요? {왜 하나요?}
10801 # 무군 놈 무궁 거시 인자 다 주거짜너? {묵은 놈, 묵은 것이 인제 다 죽었잖아?}
10801 # 그릉게 인자 껄껄허구 허니까 그걸 다 태오야 새로 농사 지찌 보미. {그러니까 인제 껄끄럽고 하니까, 그걸 다 태워야 새로 농사짓지 봄에.}
10801 # 긍게 다 그런 뚝 말른 풀 그렁 거 태오지. {그러니까 다 그런 둑 마른 풀 그런 거 태우지.}
10801 @ 그런데서 뭐 잡뻘레가틍 거뚜 죽꾸 그래요? {그런데서 뭐 잡벌레 같은 것도 죽고 그래요?}
10801 # 이~ 벌레두 죽꾸 그러라구 다 태워. {응, 벌레도 죽고 그러라고, 다 태워.}

1.8.2. 전통 놀이

10802 @ 할머니 그 고 고싸우미라는 노리 노름 어떤 건지 아세요? {할머니 그 고, 고싸움이라는 놀이, 놀이 어떤 건지 아세요?}
10802 # 음? {음?}
10802 @ 고싸움. {고싸움.}
10802 @ 남자드리 이렁 거하고 논다는데? {남자들이 이런 거하고 논다는데?}

10802 @ 고싸우미라는 노루미 노리가? {고싸움이라는 놀이는, 놀이가?}
10802 @ 앤 처음 드러 보세요? {이건 처음 들어 보세요?}
10802 # 츰 드러본데. {처음 들어보는데.}
10802 @ 도깨비노리 가튱 거는? {도깨비놀이 같은 거는?}
10802 @ 뭐 그런 노리가 이써요? {뭐 그런 놀이가 있어요?}
10802 @ 도깨비노리라능 게? {도깨비놀이라는 게?}
10802 @ 정워레 주로 하고 노라따는데? {정월에 주로 하고 놀았다는데?}
10802 # 도깨비노리가 인제 애:덜 노룰라믄 인제 내가 도깨비라구 막 무서께 허구 쪼차 댕이구 이냥 허구 노능 거지 도깨비노리지. {도깨비놀이가 인제 애들 놀려면 인제 내가 도깨비라고, 막 무섭게 하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노는 거지, 도깨비놀이지.}
10802 @ 연날리기는 정워레 해쪼 할머니? {연날리기는 정월에 했죠, 할머니?}
10802 # 그치. {그렇지.}
10802 # 옌나리 할머이덜 얘:기 자 러는 할머이더른 인자 애:더리 옌날 래기 해달라구 졸라. {옛날에 할머니들 얘기 잘 하는 할머니들은 인제 애들이 옛날이야기 해달라고 졸라.}
10802 # 할머이더러 무르파게 안 막 바짝 안저서 함 할머이 옌날 럐기 해줘 옌날 럐기 해줘 인자 이냥. {할머니더러 무릎에 안, 막 바짝 앉아서 할, 할머니 옛날이야기 해줘, 옛날이야기 해줘 인제 이렇게.}
10802 # 옌날 얘기두 재미께 허는 사라미 이써. {옛날 얘기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
10802 # 뭔 막 무선 소리 느가머. {뭔, 막 무서운 소리 넣어가며.}
10802 # 그릉게 인자 막 그냥 옌날 얘기 자 러는 사라믄 애:더리 인자 손주들 그런 애:더리 옌날 얘기 해달라 해싸먼 응 보태서두 허구 그냥 얘기 해주지. {그러니까 인제 막, 그냥 옛날이야기 잘 하는 사람은 애들이, 인제 손자들 그런 애들이 옛날이야기 해달라고 해쌓으면 응, 보태서도 하고 그냥 얘기 해주지.}
10802 @ 그리고 할머니 윤노리 읻 할머니 시지보 오기 전 저니나 시지 본 뒤로나 윤 노는 노름 그 방시기 뭐 가뜬가요? {그리고 할머니 윷놀이 있, 할머니 시집오, 오기 전, 전이나 시집 온 뒤로나 윷노는 놀이 그 방식이 뭐 같던가요?}
10802 # 다 또까치. {다 똑같지.}
10802 @ 친 친정 동네나 여기나? {친, 친정 동네나 여기나?}
10802 # 음 다 또까처. {음, 다 똑같지.}
10802 @ 함번 함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할머니? {한번,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할머니?}
10802 @ 인제 윤 논다 그러면 머 준비하조? {인제 윷 논다 그러면 뭐 준비하죠?}
10802 # 윤 노룰라먼 윤팓 유까락 말판 말 쓰는. {윷 놀려면 윷판, 윷가락, 말판 말 쓰는.}
10802 @ 말파는 멀로 만드러요 주로? {말판은 뭐로 만들어요, 주로?}
10802 # 음 조 종이로. {음, 조, 종이로.}
10802 @ 종이로? {종이로?}
10802 # 종이에다가 그:려. {종이에다 그려.}
10802 @ 옌날 옌날부터 종이가 이써써요? {옛날, 옛날부터 종이가 있었어요?}
10802 @ 할머니 아주 어려쓸 때부터? {할머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802 # 인자 멍석 바까티서 윤 노룰라먼 멍서기다 그리지 말파늘. {인제 멍석 밖에서 윷 놀려면 멍석에다 그리지, 말판을.}
10802 @ 멀로 그려요? {뭐로 그려요?}

10802 # 아주 씨 이 저기 시커머넝 걸루. {아주 시, 이, 저기 시커먼 걸로.}
10802 @ 숟 수츠로 그려? {숯, 숯으로 그려.}
10802 # 멀루 그려. {뭐로 그려.}
10802 # 꺼머거너게 페나게. {꺼멓게, 표 나게.}
10802 # 그러면 여기다 이러::케 이러케 허구서 이 구탱이 이 구탱이 이 구탱이 이 구탱이다 크게 그리구.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이 구석에, 이 구석에, 이 구석에, 이 구석에다 크게 그리고.}
10802 @ 네. {네.}
10802 # 여기다 이녀케 가온데다 두: 개 여가 세: 개 그러먼 걸:라먼 여기로 드러 가게 이러케 해노쿠 여기 또 두: 개 또 두: 개.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다 두 개, 여기가 세 개, 그러면 걸 나면 여기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또 두 개, 또 두 개.}
10802 # 여기 커::게 이르케 윧:파늘 그려 말파늘. {여기 크게 이렇게 윷판을 그려, 말판을.}
10802 # 그래가주구 모 나믄 이루 와서 여기서 인제 니: 개 그려서 다서 깨체 모. {그래서 모 나면 이리 와서, 여기서 인제 네 개 그려서 다섯 개째 모.}
10802 @ 고 고기 가능 거 고 고는 머에요? {고, 고기 가는 거, 고, 고 거는 뭐예요?}
10802 # 걸:. {걸.}
10802 @ 고 고? {고 고?}
10802 # 그 인자 말:. {그 인제 말.}
10802 @ 마른 멀로 만드러요? {말은 뭐로 만들어요?}
10802 # 말 마른 지끄미루 허먼 저기 아무 껄로나 허지 아무 껄로나 하는디 바독 바도갈루 허믄 더 조쿠. {말, 말은 지금으로 하면 저기 아무 것으로나 하지, 아무 것으로나 하는데 바둑, 바둑알로 하면 더 좋고.}
10802 @ 에. {예.}
10802 # 어. {응.}
10802 # 바도갈 꺼멍 놈 신 늠 가지구 흰 말 꺼멍 말 해서 이르케 펜 짜서 노르먼. {바둑알 까만 놈, 흰 놈 가지고 흰 말, 까만 말을 해서 이렇게 편짜서 놀면.}
10802 # 고걸루 모 걸라먼 드러가구. {그걸로 모, 걸 나면 들어가고.}
10802 @ 여기도 유까치 유까치 이써야지 유까치. {여기도 윷가락, 윷가락 있어야지, 윷가락.}
10802 # 윧:까락 유:까락 네 개 인자 나무토막 요마::너게 해서 한 뼘찜 되게 해서 딱 짤러 가주구 그 눔 짝 뽀개서 유까락 맨드러가꾸. {윷가락, 윷가락 네 개 인제 나무토막 요만하게 해서, 한 뼘쯤 되게 해서 딱 잘라가지고, 그 놈 짝 갈라서 윷가락 만들어갖고.}
10802 @ 이제 유까락하고 말판 이꼬 말 리꼬? {인제 윷가락하고 말판 있고, 말 있고?}
10802 # 말 이꾸. {말 있고.}
10802 @ 그러면 인제 윤노름 시자카는데? {그러면 인제 윷놀이 시작하는데?}
10802 # 그르치 그르치. {그렇지, 그렇지.}
10802 @ 이제 펜 짜가주고? {인제 편짜가지고?}
10802 # 펜 짜가주고. {편짜가지고.}
10802 # 그 던저서 모: 걸:. {그 던져서 모, 걸.}
10802 @ 어트게 모가 모에요? {어떻게 모가 뭐예요?}
10802 # 모는 다: 어퍼지능 게 모. {모는 다 엎어지는 게 모.}

10802 # 유까라기 다 짝 쪼개씅게 인자 하얀 디 꺼믄 디 이짜녀. {윷가락이 다 짝 쪼갰으니까 인제 하얀 데, 까만 데 있잖아.}
10802 # 다:: 어퍼지문 모. {다 엎어지면 모.}
10802 # 다섣 썩 그건 다섣 씨여 모:가. {다섯 씩 그건 다섯이야, 모가.}
10802 @ 그르카능 거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802 # 이. {응.}
10802 # 그러구 세: 개가 자처지면 걸:. {그리고 세 개가 젖혀지면 걸.}
10802 # 네: 개 다 이러케 자처지며는 윧:. {네 개 다 이렇게 젖혀지면은 윷.}
10802 # 숟 수시라고두 허구 유시라고두 허구 사륙 그거는. {숫, 숫이라고도 하고, 윷이라고도 하고 사륙 그거는.}
10802 @ 에. {예.}
10802 # 그러고 둘: 자체지고 둘: 어퍼지믄 개:. {그리고 둘 젖혀지고 둘 엎어지면 개.}
10802 # 하나가 자체지구 셀 어퍼지머는 뒈지. {하나가 젖혀지고 셋 엎어지면 돼지.}
10802 @ 아. {아.}
10802 # 토라고두 허구 돼지라구 고골고. {토라고도 하고, 돼지라고 고걸 하고.}
10802 # 그러케 해서 그 말 쓰지. {그렇게 해서 그 말 쓰지.}
10802 # 그거때루. {그것대로.}
10802 @ 마른 며 깨 주로? {말은 몇 개 주로?}
10802 # 네: 개. {네 개.}
10802 # 네: 판 나머넌 인자 서까 가구 두 까구 헨제 가구 두 까구 묵 무꺼서 가믄 두 까구서 까구 마지막 마 깐다 그이 니: 개채 가먼 막 까지. {네 판 나면은 인제 셋 가고, 둘 가고, 혼자 가고, 둘 가고, 묶, 묶어서 가면 둘 가고, 셋 가고, 마지막 막 간다 그 네 개째 가면 막 가지.}
10802 @ 근 디 네: 개가 마리 다 나면 인제 이긴다? {그런데 네 개가 말이 다 나면 인제 이긴다?}
10802 # 인제 이기넝 거지 한 쪼기. {인제 이기는 거지, 한 쪽이.}
10802 # 먼저 라는 사라미 이기넝 거지.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10802 @ 금 윤노리 하면서 주로 어떤 이리 재미써요 할머니? {그럼 윷놀이 하면서 주로 어떤 일이 재밌어요, 할머니?}
10802 @ 윤노름 하면서? {윷놀이 하면서?}
10802 # 모 나야 재미찌. {모 나야 재밌지.}
10802 @ 음::. {음.}
10802 # 모 나서 이:기야 재미찌. {모 나서 이겨야 재밌지.}
10802 @ 머 싸우기도 하고 그러겐네요? {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10802 @ 뭐 내기가 크게 되면? {뭐 내기가 크게 되면?}
10802 # 그치 잘모 쓰먼. {그렇지, 잘못 쓰면.}
10802 # 왜 그루 그르케 쓰냐구 그게 잘 몯 쓰능 거라구 인자 서로가 우기넝 거지. {왜 그리로 그렇게 쓰냐고, 그게 잘 못 쓰는 거라고 인제 서로가 우기는 거지.}
10802 # 그러먼 인자. {그러면 인제.}
10802 @ 그럼 인제 펴니 한 펴니 여러시자나요? {그럼 인제 편이, 한 편이 여럿이잖아요?}
10802 # 에. {응.}

10802 @ 그럼 마른 주로 누가 어떤 사라미 써요? {그럼 말은 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써요?}
10802 # 이 인자. {이, 인제.}
10802 @ 젤 잘 마를 잘 서는 사라미 서요? {제일 잘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써요?}
10802 # 이 말 쓰는 사라미 쓰지. {응 말 쓰는 사람이 쓰지.}
10802 @ 아 잘 쓰는 사라미 이써요? {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10802 # 에 말 쓰는 사라미. {응, 말 쓰는 사람이.}
10802 @ 이기도록? {이기도록?}
10802 # 이기도록 쓰지 마를 잘. {이기도록 쓰지 말을 잘.}
10802 # 나는 윤:노르먼 내가 말 쓰지 다른 사라미 말 안 써. {나는 윷놀면 내가 말 쓰지, 다른 사람이 말 안 써.}
10802 @ 그래요? {그래요?}
10802 @ 그니까 마를 잘 써야 이거 빨리 나능 거 이게 중요하자나요? {그러니까 말을 잘 써야 이거 빨리 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10802 # 그러치 긍게. {그렇지 그러니까.}
10802 @ 이거 잘 떤지능 거또 중요하지만 마를 잘 써야? {이거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써야?}
10802 # 이 이 마를 잘 쓰야지. {응, 응, 말을 잘 써야지.}
10802 # 그릉게 인자 모 나구 또 걸 라구 또 모 나구 그러먼 모 두: 개 두: 모여 두: 개 포개가주구 걸:구 드러가능 거지. {그러니까 인제 모 나고, 또 걸 나고, 또 모 나고 그러면 모 두 개 두 모야, 두 개 포개가지고 걸로 들어가는 거지.}
10802 # 그르케 쓰야지 하나 혀서 걸:루 드러가서 하나 빼뻐리믄 이제 뒤떠러지능 거여. {그렇게 써야지 하나 해서 걸로 들어가서 하나 빼버리면 인제 뒤떨어지는 거야.}
10802 # 모 나서 자부문 말구 모 두: 개로 혀서 이르케 드러가야지. {모 나서 잡으면 말고, 모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10802 # 긍게 포개가야지. {그러니까 포개가야지.}
10802 @ 그니까 인제 그 때 그르케 말 설 때 가튼 펻끼리도 막 실랑이를 하겐네요? {그러니까 인제 그 때 그렇게 말 쓸 때 같은 편끼리도 막 실랑이를 하겠네요?}
10802 @ 이러자 저러자? {이러자 저러자?}
10802 # 그르치. {그렇지.}
10802 # 음 긍게 씨끄러 윤:노룰라문. {음 그러니까 시끄러워 윷놀려면.}
10802 @ 윤노리는 증말 시끄러껜네요? {윷놀이는 정말 시끄럽겠네요?}
10802 # 재미써. {재미있어.}
10802 # 막 응:: 몯 짜불 띠 가 인는 늠두 모: 나구 막 윤: 나구 그렁 걷두 모 두: 개 나구 혀서 가서 자꾸 그러먼 재미찌. {막 응, 못 잡을 데 가 있는 놈도 모 나고, 막 윷 나고 그런 것도 모 두 개 나고 해서 가서 잡고, 그러면 재미있지.}
10802 @ 또 윤노름 할 때는 주로 어떤 걸로 실랑이가 버러저요 할머니? {또 윷놀이 할 때는 주로 어떤 걸로 실랑이가 벌어져요, 할머니?}
10802 @ 윤노름 할 때는 서로 서로 다른 편들끼리 이제 윤노름 할 때는 주로 뭐 때문에 실랑이가 이러나나요? {윷놀이 할 때는 서로 서로 다른 편들끼리 이제 윷놀이 할 때는 주로 뭐 때문에 실랑이가 일어나나요?}

10802 @ 주로 뭐 때매 윤노름 할 때는? {주로 뭐 때문에 윷놀이 할 때는?}
10802 # 음 말 쓰능 거 때미 그러지. {음, 말 쓰는 것 때문에 그렇지.}
10802 @ 아::! {아!}
10802 @ 그니깐 인제 뭐 마른 각짜 서자나요? {그러니까 인제 뭐 말은 각자 쓰잖아요?}
10802 @ 각짜 자기 펴니? {각자 자기 편이?}
10802 # 각찌 자기 펴는 자기가 쓰지. {각자 자기 편은 자기가 쓰지.}
10802 @ 근데 왜 말 때매 싸우게 되요? {근데 왜 말 때문에 싸우게 돼요?}
10802 # 인자 마를 잘 몯 쓰며는 그르케 써서 그루 오먼 되느냐구 이러케 해서 인자 서로가 시끄럽찌. {인제 말을 잘 못 쓰면은 그렇게 써서 그리로 오면 되느냐고 이렇게 해서 인제 서로가 시끄럽지.}
10802 @ 규칙때로 안 설 때? {규칙대로 안 설 때?}
10802 @ 상대방이 그 때 뭐라고? {상대방이 그 때 뭐라고?}
10802 # 응 규칙때로 아 널 때. {응, 규칙대로 안 할 때.}
10802 @ 아 그럴 때? {아 그럴 때?}
10802 # 인자 몬 나 모: 나믄 무조껀 그 구멍이루 모: 혀서 가야 허는디 여기 거리나 오디가 이써서 모: 나면 엉뚱어게 가며는 그런다구 또 뭐라구지. {인제 모 나, 모 나면 무조건 그 구멍으로 모 해서 가야 하는데, 여기 걸이나 어디 가 있어서 모 나면 엉뚱하게 가면은 그런다고, 또 뭐하고 하지.}
10802 @ 알면서 일부러 그르겐네? {알면서 일부러 그러겠네?}
10802 # 그러치 인제 이길라구 그릉게 몰르구 안 자블 때도 이써. {그렇지 인제 이기려고 그러니까 모르고 안 잡을 때도 있어.}
10802 # 인자 자불만 헌디 몰르구 안 잡넌 때. {인제 잡을 만한데 모르고 안 잡는 때.}
10802 # 그런 때::가 재미찌. {그런 때가 재밌지.}
10802 @ 에. {예.}
10802 # 몰르고 안 자꾸 그냥 가먼 재미찌. {모르고 안 잡고 그냥 가면 재미있지.}
10802 @ 아라도 이 쪼근 안 가르쳐주구? {알아도 이 쪽은 안 가르쳐주고?}
10802 # 안 일러주지. {안 알려주지.}
10802 @ 그러 민제 말 잘 모 써따고 가튼 편끼리 또? {그럼 인제 말 잘 못 썼다고 같은 편끼리 또?}
10802 # 이~ 말 잘 모 써서 저따구싸쿠 인자 그러게 그릉게 씨끄럽찌. {응, 말 잘 못 써서 졌다고 해쌓고 인제 그렇게 그러니까 시끄럽지.}
10802 @ 윤노린 정말 시끄러껜네요? {윷놀이는 정말 시끄럽겠네요?}
10802 # 저기 저기 갈때 신성리 갈때바티 이 그 갈때 축제헐 때 가니까 장저깨비 가주구 윤:노라. {저기, 저기 갈대 신성리 갈대밭에 이 그 갈대 축제할 때 가니까 장작개비 가지고 윷놀아.}
10802 @ 금 크잔하요 유까라기? {그럼 크잖아요 윷가락이?}
10802 @ 무거꼬. {무겁고.}
10802 # 장적 장적 뻐개씅게 크지. {장작, 장작 쪼갰으니까 크지.}
10802 @ 무거꼬. {무겁고.}
10802 # 그릉게 이러케 던저서 던저서 어퍼지믄 모.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서, 던져서 엎어지면 모.}

10802 # 던저서 자체지믄 윧. {던져서 젖혀지면 윷.}
10802 # 그르케 그르케 놀드라구 하나 가주구. {그렇게, 그렇게 놀더라고 하나 가지고.}
10802 # 장저깨비 하나 가지구. {장작개비 하나 가지고.}
10802 @ 그런 방법또 이써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10802 # 에~ 그래가주구 거이 가서 윤:노라가꾸 소곡쭈 함 병 타가꾸 와찌. {응,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윷놀아갖고, 소곡주 한 병 타갖고 왔지.}
10802 @ 아! {아!}
10802 @ 할머니 아까 얘기 장깐 해떵 거 널뛰능 거. {할머니, 아까 얘기 잠깐 했던 거 널뛰는 거.}
10802 # 이~. {응.}
10802 @ 긍까 인제 널파는 인제 남자드리 인제 만드러줘야 놀겐네 그조? {그러니까 인제 널판은 인제 남자들이 인제 만들어줘야 놀겠네, 그렇죠?}
10802 # 널:파는. {널판은.}
10802 @ 그걸 판 이르미 널파닝가요 그 뛰능 거? {그걸 판, 이름이 널판인가요, 그 뛰는 거?}
10802 # 그치 늘:파는. {그렇지 널판은.}
10802 @ 에 늘파는? {예, 널판은?}
10802 # 널빤데기가 알마즌 건 이쓰야 뛰어. {널판이 알맞은 거 있어야, 뛰어.}
10802 @ 탄타낭 거? {탄탄한 거?}
10802 # 이~ 얄부문 양 쪼기서 잘 모더먼 뿌러지자너. {잉, 얇으면 양 쪽에서 잘 못하면 부러지잖아.}
10802 # 그릉게 늘:파는 판자가 쫌 도퉏꾸 그러야 애덜 저기 노리터 가먼 씨소 탄다구자너 씨소 그거 씨기여. {그러니까 널판은 판자가 좀 두텁고 그래야, 애들 저기 놀이터 가면 시소 탄다고 그러잖아 시소, 그것 식이야.}
10802 # 가온데다 이냥 갸 노쿠 이 쪼기서 뛰믄 저 쪼기서 또 뛰구 내란꾸 내란즐 때 이 쪽 올라가구 이르케 이르케. {가운데에다 이냥 괴어 놓고, 이쪽에서 뛰면 저쪽에서 또 뛰고 내려앉고, 내려앉을 때 이쪽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10802 @ 그럼 할머니 너:를 잘 잘 뛰려면 그니간 널 상대방을 인제 얻 거기서 떠러지게 하면 이기능 거에요 내가? {그럼 할머니 널을 잘 잘 뛰려면 그러니까 널 상대방을 인제 얻, 거기서 떨어지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10802 # 그르치. {그렇지.}
10802 @ 파네서? {판에서?}
10802 @ 아 그럴려면 어떤 요령이 이써야 되요 할무니 널 잘 뛰셔써요? {아, 그러려면 어떤 요령이 있어야 돼요, 할머니 널 잘 뛰셨어요?}
10802 # 늘: 잘 떠찌 그네두 잘 타구 늘:두 잘 뛰구. {널 잘 뛰었지, 그네도 잘 타고, 널도 잘 뛰고.}
10802 @ 그럼 어쩌면 어쩐 요령이 이쓰면 조아요? {그럼 어떤, 어떤 요령이 있으면 좋아요?}
10802 @ 내가 이기려면 널뛰기 할 때? {내가 이기려면 널뛰기 할 때?}
10802 # 그렁게 가치 또::까치 잘 마춰서 굴러주야 그 쪽두 잘 올라가거던. {그러니까 같이 똑 같이 잘 맞춰서 굴러줘야, 그 쪽도 잘 올라가거든.}

10802 # 그럴 때 냅::때 굴루먼 떠러지지 삐촉끄리다 너머지지. {그럴 때 냅다 구르면 떨어지지, 비틀거리다 넘어지지.}
10802 @ 그럼 히미 쎈 사라미 더 조응가? {그럼 힘이 센 사람이 더 좋은가?}
10802 @ 널뛰기할 때는? {널뛰기할 때는?}
10802 # 음 쯤 인자 무게가 중요허지 무게가. {음, 좀 인제 무게가 중요하지, 무게가.}
10802 # 인자 가온데다 이냥 노믄 무게가 중요엉게 이 쪼기 개변 사라믄 그루 쪼매 널빤지를 가지가야구. {인제 가운데에다 이렇게 놓으면 무게가 중요하니까, 이쪽에 가벼운 사람은 그리로 조금 널빤지를 가져가야 하고.}
10802 @ 아! {아!}
10802 # 그러야 이 중량이 가찌. {그래야 이 중량이 같지.}
10802 # 안 뜽게. {안 뜨니까.}
10802 # 인자 한 쪼기 무거문 딱 부터이찌 뜨남? {인제 한 쪽이 무거우면 딱 붙어있지, 뜨나?}
10802 @ 긍게 그 중량을 마춰서 허야 이게 또까치 뛰지. {그러니까 그 중량을 맞춰서 해야, 이게 똑같이 뛰지.}
10802 @ 그릉 걸 이거 널:파늘 이제 발로 콱 하능 걸 굴른다고 그러나요 할머니? {그런 걸 이거 널판을 이제 발로 콱 하는 걸 구른다고 그러나요, 할머니?}
10802 # 예. {예.}
10802 # 탁 굴러머서 내려오먼 그 굴르는 바라미 이 쪼기 요로케 올릉게 그 때 올라가지. {탁 구르면서 내려오면, 그 구르는 바람에 이쪽이 요렇게 오르니까 그 때 올라가지.}
10802 # 그 때 올라가구 내로구. {그 때 올라가고 내려오고.}
10802 @ 할머니 그 팽이 뺑이라고 하나? {할머니, 그 팽이, 팽이라고 하나?}
10802 # 에 뺑이. {응, 팽이.}
10802 @ 금 뭘로 만드러요? {그럼 뭐로 만들어요?}
10802 @ 금 만들기 힘들겐네요? {그럼 만들기 힘들겠네요?}
10802 # 나무루. {나무로.}
10802 @ 끄치 뿔로카게 요로케 만들기가? {그 볼록하게 요렇게 만들기가?}
10802 # 거기다 몯 바거드라구. {거기다 못 박더라고.}
10802 # 몯 빠거서 뚜딜드라구 다러쌍게. {못 박아서 두드리더라고 닳아쌓으니까.}
10802 # 뺑이. {팽이.}
10802 @ 지베서 그냥 어른드리 그냥 아무 어르니나 만드러 줄 쑤 이써요? {집에서 그냥 어른들이 그냥 아무 어른이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10802 # 그르치 만드러 주지. {그렇지, 만들어 주지.}
10802 # 까끄야여 나무루 까꺼서 싹: 모따허게 벼서. {깎아야 해, 나무로 깎아서 싹 몽땅하게 베어서.}
10802 # 인자 노끄니루 뺑이채 때리능 거 막대기다 끈 노끄니루 다러. {인제 노끈으로 팽이채 때리는 거 막대기에 끈, 노끈으로 달아.}
10802 # 글로 요로케 요로케 때리문 잘 도라가지 들꾸 때리는대로. {그걸로 요렇게, 요렇게 때리면 잘 돌아가지 자꾸 때리는 대로.}
10802 @ 팽이 싸움 하자나요 애드리? {팽이 싸움하잖아요, 애들이?}
10802 # 그르치. {그렇지.}

10802 @ 그럼 팽이가 크면 조응가? {그럼 팽이가 크면 좋은가?}
10802 @ 이기나? {이기나?}
10802 # 싸움할 때는? {싸움할 때는?}
10802 # 잘 도라가야 이기지. {잘 돌아가야 이기지.}
10802 # 잘 먼저 끄치는 느미 저거던. {잘, 먼저 그치는 놈이 지거든.}
10802 @ 아 돌다가 멈춰 서능 게 지능 거에요? {아, 돌다가 멈춰 서는 게 지는 거예요?}
10802 # 어 어 어. {응 응 응.}
10802 @ 팽이 뺑이 치는 주로 어떤 아이드리? {팽이, 팽이 치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10802 @ 머스매드리 하나요? {남자애들이 하나요?}
10802 # 머스매더리 치지. {남자애들이 치지.}
10802 @ 그 쪼매 쪼끄마난 애드리? {그 조금, 조그만 한 애들이?}
10802 # 제:기차기두 머스매더리 허구. {제기차기도 남자애들이 하고.}
10802 @ 어린 애드리? {어린 애들이?}
10802 # 아니 어른네는 모더구 그어뚜. {아니, 어린애는 못하고 그것도.}
10802 @ 아 뺑이는뇨? {아, 팽이는요?}
10802 # 인자 이 궁민학쌩덜. {인제 응, 초등학생들.}
10802 # 제:기 차능 거뚜 궁민학쌩덜. {제기 차는 것도 초등학생들.}
10802 # 쪼매 크야 제기 차지. {조금 커야 제기 차지.}
10802 @ 할머니 대보름 때 거붕노리라능 게 이써요? {할머니, 대보름 때 거북놀이라는 게 있어요?}
10802 @ 거북 거부기 거붕노리라는 노리가 이써요? {거북, 거북이, 거북놀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10802 # 거붕노리는 몰르구 말타기는 허드라구. {거북놀이는 모르고, 말타기는 하더라고.}
10802 # 애더리 등허리가 쪽:: 부땡겨서 말 타믄 글루 그루 이르케 뛰어서 너머가. {애들이 등허리가 족 붙당겨서 말 타면, 그리로, 그리로 이렇게 뛰어서 넘어가.}
10802 @ 그러민자. {그러면 인제.}
10802 # 사라멀 타고. {사람을 타고.}
10802 @ 대보름 때 아니여도 인제 하긴 하고 놀게쪼? {대보름 때 아니어도 인제 하긴 하고 놀겠죠?}
10802 # 그르치 애덜 모이믄 놀지. {그렇지, 애들 모이면 놀지.}
10802 @ 할머니 대보름 때 과넌노리 뭐 이렁 거 드러 보셔써요? {할머니 대보름 때 관원놀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0802 # 뭐? {뭐?}
10802 @ 과넌노리. {관원놀이.}
10802 @ 관 과넌노리? {관, 관원놀이.}
10802 # 관. {관.}
10802 @ 무슨? {무슨?}
10802 @ 금 뭐 나무쇠싸움 이렁 거는? {그럼 뭐 나무쇠싸움 이런 거는?}
10802 @ 건 모 뜨러보셔꼬? {그건 못 들어보셨고?}
10802 # 그렁 건 아 내찌. {그런 건 안 했지.}
10802 @ 할머니 노따리발끼. {할머니 놋다리밟기.}

10802 # 잉? {응?}
10802 @ 노따리 발끼 여자드리 하능 거? {놋다리밟기, 여자들이 하는 거?}
10802 # 노타리 발끼? {놋다리밟기?}
10802 @ 놑따리 다리 다리. {놋다리, 다리, 다리?}
10802 # 다리발끼? {다리밟기?}
10802 @ 으 노따리발끼라면서 여자드리 이르케. {예, 놋다리밟기라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10802 @ 여자드리 죽:: 이 엉덩이 머리 바꼬 이케 죽 이케 애들 말타기 하드시 이르케 이꼬 그 위로 이르케 새악씨 하나가 요로케 요로케? {여자들이 죽 이, 엉덩이 머리 박고 이렇게 죽 이렇게 애들 말타기 하듯이 이렇게 있고, 그 위로 이렇게 색시 하나가 요렇게, 요렇게?}
10802 # 그 여자더런 안 해써 여자더런. {그 여자들은 안 했어, 여자들은.}
10802 @ 그 등에 발꼬 이르케 사뿐사뿐 여자들 등을 발꼬 한 명이 요로케? {그 등에 밟고 이렇게 사뿐사뿐 여자들 등을 밟고 한 명이 요렇게?}
10802 # 그릉게 머시매드리 그렁 걷 해찌 여자더런 그렁 거 아 내찌.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런 것 했지, 여자들은 그런 거 안 했지.}
10802 @ 여자더른 인자 다리 쭉:: 뻗꾸 양쪼기서 다리에 이 사이에다 하나씩 느쿠 인자 한 다리 두 다리 열뚜 다리. {여자들은 인제 다리 죽 뻗고, 양쪽에서 다리에 이 사이에다 하나씩 넣고 인제 한 다리, 두 다리, 열두 다리.}
10802 @ 그 노리 이르미 뭐에요 할머니? {그 놀이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
10802 # 그냥 허구 딱 허머는 인제 그 이 이저버련네 한 다리 두 다리 열뚜 다리. {그냥 하고 딱 하면은 인제 그 이, 잊어버렸네, 한 다리, 두 다리, 열두 다리.}
10802 @ 아니 노리 이르믄? {아니, 놀이 이름은?}
10802 # 다리 따먹끼덩가? {다리 따먹기던가?}
10802 # 그르케 해서 인자 거기다 딱 허먼 그 늠 하나 오그리구 인자 나머지 가꾸 또 한 다리 두 다리 열뚜 다리 대문 여러라 허덩가 그냥 그래가머서. {그렇게 해서 인제 거기다 딱 하면 그 놈 하나 오그리고, 인제 나머지 갖고 또 한 다리, 두 다리, 열두 다리 대문 열어라 하던가, 그냥 그래가면서.}
10802 @ 이 거리 저 거리 가꺼리? {이 거리, 저 거리, 갓 거리?}
10802 # 이이이 그 그 시기루 그르케 해서 딱 허먼 그 늠 따며는 또 인자 그 늠 오그리구 나머지 가주구 허구 그르케 그런 장난해써. {응응응, 그, 그 식으로 그렇게 해서 딱 하면, 그 놈 따면은 또 인제 그 놈 오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하고, 그렇게 그런 장난했어.}
10802 @ 할머니 봉중노리라능 거 이써요? {할머니, 봉죽놀이라는 거 있어요?}
10802 @ 봉죽 봉중노리? {봉죽, 봉죽놀이?}
10802 # 봉중노리는 아 내봐꾸. {봉죽놀이는 안 해봤고.}
10802 @ 할머니 참 정워레 그 머시매들 연? {할머니, 참 정월에 그 남자애들 연?}
10802 # 음. {음.}
10802 @ 날리 날리는 거.{날리, 날리는 거.}
10802 # 연 날리능 거. {연 날리는 거.}
10802 @ 그거는 그거 또 그냥 보통 지베서 어른드리 그냥 아무나 만드러 줄 쑤 이써요? {그것은 그거 또 그냥 보통 집에서 어른들이 그냥 아무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10802 # 그어또 여 저니 지네으ㅡㄴ도 이꾸 가오리으ㅡㄴ도 이꾸. {그거도 여, 연이 지네연도 있고, 가오리연도 있고.}

10802 # 으ㅡ니 여러 가지여. {연이 여러 가지야.}
10802 @ 만드는 기수리 조하야 되겐네요? {만드는 기술이 좋아야 되겠네요?}
10802 # 이러케 네모 빤::뜨더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10802 # 그르치 기술 조흐야 바람 잘 바랑 꾸녕을 잘 해노쿠 삐트러지장케 허야 으ㅡ니 파:: 넙씨 이러케 이러케 허는 대루 올라가지. {그렇지, 기술 좋아야 바람 잘, 바람 구멍을 잘 해 놓고 삐뚤어지지 않게 해야, 연이 한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대로 올라가지.}
10802 @ 그 고 살때 살때라고 하나요? {그 고 살대, 살대라고 하나요?}
10802 # 에 대로 으ㅡㄴ쌀 까꺼서. {응, 대로 연살 깎아서.}
10802 # 인자 창호지루 여다가 부처서. {인제 창호지로 여기에다 붙여서.}
10802 # 끈 다러서 노끈 질::게 연쭐 혀서 여늘 이르케 바람 부는 디 하나가 저::이서 올려 주며는 자꾸 이러케 이러케 허며는 으ㅡ니 올라가. {끈 달아서, 노끈 길게 연줄 해서 연을 이렇게 바람 부는 데 하나가 저기서 올려 주면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연이 올라가.}
10802 # 잘:: 올라가. {잘 올라가.}
10802 # 긍게 줄 이러::케 느처주문 착:: 가란는 거처럼 가다가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허며는 하넙씨 올라가지. {그러니까 줄 이렇게 늦춰주면 착 가라앉는 것처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한없이 올라가지.}
10802 @ 그 연쭐 감깅 거 그거는? {그 연줄 감긴 거 그거는?}
10802 # 연짜세. {얼레.}
10802 @ 자세 아. {자새, 아.}
10802 # 음. {응.}
10802 @ 금 자세는 멀로 만드러요? {그럼 자새는 뭐로 만들어요?}
10802 @ 어떵 걸로 주로? {어떤 걸로 주로?}
10802 # 연짜세는 나무루. {얼레는 나무로.}
10802 @ 아무 나무나 그냥? {아무 나무나 그냥?}
10802 # 으이 나무루 이러케 만드러서 강꾸 노믄 조루루루 풀려 나가구 허게. {응,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감고 놓으면, 조르르르 풀려 나가고 하게.}
10802 @ 그 주룬 뭘로 만드는 연쭈른? {그 줄은 뭐로 만드는, 연줄은?}
10802 # 주룬 그저니 인자 실:루 혀찌 실: 사다. {줄은 그전에 인제 실로 했지, 실 사다.}
10802 @ 그냥 바느지라는 실? {그냥 바느질하는 실?}
10802 # 에 실: 사다 굴근 실 사다 해찌 근디 자리매는 노끈 모시허는 꾸목 그걸루 인자 거러 노쿠 노끄니루 잘:: 꼬는 노끈 하라부지더른 노끈 잘 꽈써. {응, 실 사다 굵은 실 사다 했지, 근데 자리 매는 노끈, 모시하는 꾸리 그것으로 인제 걸어 놓고 노끈으로 잘 꼬는 노끈, 할아버지들은 노끈 잘 꽜어.}
10802 # 아마 이 눔 이러케 돌리구 이 눔 이러케 돌리구 혀서 소니루 이러케 이러케 비벼가머 막 연쭐 헐라먼 그 노끄널 사. {아마 이 놈 이렇게 돌리고, 이 놈 이렇게 돌리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벼가며 막 연줄 하려면 그 노끈을 사.}
10802 # 그 끄 꼰 하라부지한티 사가주구 연짜쎄다 가머서 그 노끄니루 혀찌 지끄믄 연쭈리 또 따루 이뜨라구. {그 끄, 꼰 할아버지한테 사가지고 얼레에다 감아서 그 노끈으로 했지, 지금은 연줄이 또 따로 있더라고.}
10802 # 사능 거. {사는 거.}
10802 @ 할머니 그럼 그 애드리 연쭐 서로 서로 나메 연 끄너 머끼 하자나요? {할머니, 그

럼 그 애들이 연줄 서로 서로 남의 연 끊어 먹기 하잖아요?}
10802 # 그르치 연쌈. {그렇지, 연싸움.}
10802 @ 막 연쌈 할 때는 주리 어떤 주리 조응 거에요 싸메 이길려면? {막 연싸움 할 때는 줄이, 어떤 줄이 좋은 거예요, 싸움에 이기려면?}
10802 # 그저니는 다 노끄니루 혀씅게 야컨 느미 인자 끄너지는디. {그전에는 다 노끈으로 했으니까 약한 놈이 인제 끊어지는데.}
10802 # 그냥 이서 거:러가꾸 막 이르케 자버댕기구 허며는 끄너저서 널러가는 거시. {그냥 해서 걸어갖고,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면 끊어져서 날아가는 것이.}
10802 # 지능 거지. {지는 거지.}
10802 @ 그 연쭈레 새금파리 가튱 거 발라 부치기두 해써요? {그 연줄에 사금파리 같은 거 발라 부치기도 했어요?}
10802 @ 왜냠 고건 뾰쪽뾰족캐서 나메 줄 잘 끄느니까? {왜냐하면 고건 뾰쪽뽀쪽 해서 남의 줄 잘 끊으니까?}
10802 @ 그렁 거또 해써요 할머니? {그런 것도 했어요, 할머니?}
10802 # 그렁 거는 암 맨드러 봐써 우리는 우리지비서 으ㅡㄴ덜 맹기러서 가지가구 넘덜두 으ㅡㄴ 맨드러 달라구 오구. {그런 거는 안 만들어 봤어, 우리는 우리 집에서 연들 만들어서 가져가고, 남들도 연 만들어 달라고 오고.}
10802 # 그냥 해두 그런 새금파리 느쿠 그렁 건 아 내써 연싸멀라구 게옥때구 허는 사라미 그걸 혀꺼찌. {그냥 해도 그런 사금파리 넣고 그런 것은 안 했어, 연싸움하려고 기를 쓰고 하는 사람이 그걸 했겠지.}
10802 @ 긍까 제일 조은 여는 할머니 동네에서는 노끄느루 고로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연은 할머니 동네에서는 노끈으로 고렇게.}
10802 # 에. {응.}
10802 @ 하라부지가 요거는 산 산. {할아버지가 요거는 산, 산.}
10802 # 노꼰 하라부지라 자리 여끌라구 꾸:는 노꾼. {노끈, 할아버지가 자리 엮으려고 꼬는 노끈.}
10802 @ 할머니 대보름 때 사자노리라능 게 이써써요? {할머니 대보름 때 사자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10802 @ 사자노리. {사자놀이.}
10802 @ 사자 사자. {사자, 사자.}
10802 # 사자? {사자?}
10802 @ 에. {예.}
10802 # 사자노리 아 내봔는디 사자노리라구 지덜까지 인자 내가 사자라구 허구 노리 노를 때 그냥 혀꺼찌. {사자놀이 안 해봤는데 사자놀이라고, 자기들끼리 인제 내가 사자라고 하고 놀이, 놀 때 그냥 했겠지.}
10802 @ 줄다리기는 남자나 여자나 다가치 하능 거라고 하셔쪼? {줄다리기는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하는 거라고 하셨죠?}
10802 # 줄다리기는 지금두 저런 행사 때 줄다리기 허자너 다. {줄다리기는 지금도 저런 행사 때 줄다리기하잖아 다.}
10802 @ 줄다리기할 때 인자 편 두 펴느로 나누자나요 나누자나요? {줄다리기할 때 인제 편, 두 편으로 나누잖아요, 나누잖아요?}

10802 @ 그 편 이르믈 주로 뭐라고 부처요? {그 편 이름을 주로 뭐라고 붙여요?}
10802 # 영::차 허먼. {영차 하면.}
10802 @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0802 # 자부댕이구. {잡아당기고.}
10802 @ 펴늘 이제 두 패로 두 패로 나누자나요? {편을 이제 두 패로, 두 패로 나누잖아요?}
10802 # 이. {응.}
10802 # 그 이르믈 양쪽 쩌기. {그 이름을 양쪽 저기.}
10802 # 청군 배꾼. {청군, 백군.}
10802 @ 아:: 어. {아 아.}
10802 # 청군 배꾼 그냥 해가꾸. {청군, 백군 그냥 해갖고.}
10802 @ 옌날부터 청군 배꾼? {옛날부터 청군, 백군?}
10802 # 옌:날버터 청군 배꾼. {옛날부터 청군, 백군.}
10802 # 그냥 해가꾸 인자 양쪼끼서 자부댕이는 거여 영::차 영::차 자버댕여서 시미 딸리는 디는 끼껴 가믄 즈넝 거지. {그냥 해갖고 인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야, 영차, 영차 잡아당겨서 힘이 달리는 데는 끌려가면 지는 거지.}
10802 @ 함머니 해삼자끼 가튼 노리가 이써써요 대보름 때? {할머니 해삼잡기 같은 놀이가 있었어요, 대보름 때?}
10802 @ 해삼 해삼자끼? {해삼, 해삼잡기?}
10802 # 아 내써. {안 했어.}
10802 @ 이 이쪽 똥넨 아 낸나 보네요? {이 이쪽 동네는 안 했나 보네요?}
10802 # 음 이 동네서는. {음, 이 동네서는.}
10802 @ 헤뿔싸움가틍 거는? {횃불싸움 같은 것은?}
10802 @ 헤뿔싸움? {횃불싸움?}
10802 # 훼뿔싸무는 혀:찌. {횃불싸움은 했지.}
10802 # 그저니 이 동네가 저:: 우리 친정 똥네 나 어려서. {그전에 이 동네가 저 우리 친정 동네 나 어려서.}
10802 # 버롬날 대보룸날리먼 저 짝 한산 싸람덜 이 짝 서천 싸람덜 편 갈러저가꾸 인자 불쌈허러 지불싸머러 간다::구 막 허면 으른덜뚜 가써. {보름날, 대보름날이면 저쪽 한산 사람들, 이쪽 서천 사람들 편 갈라갖고, 인제 불싸움 하러 횃불싸움 하러 간다고 막 하면 어른들도 갔어.}
10802 # 그래가주구 막:: 고무신짜게다가 불 대려가꾸 막 이냥 돌리믄 그 노가서 처지지 막 척척 어디가. {그래가지고 막 고무신짝에 불 달아갖고 막 이렇게 돌리면, 그 녹아서 처지지 막 척척 어디가.}
10802 # 그러케 해서 가주구 나가구 막 지불싸머러 가자 허며는 츠미는 애더리 가능 거처럼 허구서 으른덜뚜 나가서 싸워따구.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고, 막 횃불싸움 하러 가자하면, 처음에는 애들이 가는 거처럼 하고서는 어른들도 나가서 싸웠다고.}
10802 # 그러먼 이기는 디가 풍년든다구 해:가주구 그르케 으:른덜까지 편 갈러가꾸 막 싸매써. {그러면 이기는 데가 풍년든다고 해서 그렇게 어른들까지 편 갈라서 막 싸움했어.}
10802 @ 아:: 그럼 인제 그 불싸움하러 갈 부를 주로 어디다 부처써요? {아, 그럼 인제 그 불싸움 하러 갈 불을 주로 어디에다 붙였어요?}

10802 # 홰뿔 매지 인자. {횃불 매지 인제.}
10802 @ 어디다가? {어디다가?}
10802 # 지벼다가 인자 꼭 꼭 지불 무꺼. {짚에다가 인제 꼭 꼭 짚을 묶어.}
10802 @ 집 응. {짚, 예.}
10802 # 무꺼가주구 응 청 나무여다가 꽉 무꺼. {묶어가지고 응, 청 나무에다가 꽉 묶어.}
10802 @ 나무에 지블 이르케 이르케? {나무에 짚을 이렇게, 이렇게?}
10802 # 어 지블 이냥 혀서 무꺼가꾸 그트머리다가 불 부처서 인자 가주구 가며는 부리 인자 부리 이러케 훌훌 타는 느미 꺼저. {응, 짚을 이렇게 해서 묶어갖고 끄트머리에다가 불 붙여서 인제 가지고 가면은 불이, 인제 불이 이렇게 훌훌 타는 놈이 꺼져.}
10802 # 그리도 그 늠 막:: 이냥 돌리믄 부러저서 사러나 또. {그래도 그 놈 막 이렇게 돌리면 불어져서 살아나 또.}
10802 # 인자 말 마디 하나가 타서 터지면 또 화너게 사러나따 꽉 무끈 디 오며는 꺼지지. {인제 말, 마디 하나가 타서 터지면, 또 환하게 살아났다 꽉 묶은 데 오면 꺼지지.}
10802 # 그 늠 또 돌리믄 탁 터지믄 인자 또 화니 사러나구 그르케 혀찌. {그 놈 또 돌리면 탁 터지면, 인제 또 환하게 살아나고 그렇게 했지.}
10802 # 그루구 그저니는 솔꽹이 솔 나무 저런 소나무여서 괭이 솔꽹이 지름 이써 솔꽹이가. {그리고 그전에는 솔 옹이 솔, 나무 저런 소나무에서 옹이, 솔 옹이 기름 있어, 솔 옹이가.}
10802 # 그거셔다 그 뒤:루는 인자 깡통 구먹 뜨러서 철싸루 끈 다러가주구 거기다 부를 일드라구 솔꽹이루 그냥 해가꾸. {그것에다 그 뒤로는 인제 깡통 구멍 뚫어서 철사로 끈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일더라고 솔 옹이로 그냥 해서.}
10802 @ 깡통에 솔꽹이를 다마서? {깡통에 솔 옹이를 담아서?}
10802 # 이. {응.}
10802 # 불 이르믄 오래 가자너 집 까창코. {불 일면 오래 가잖아, 짚 같지 않고.}
10802 # 그러면 인자 뜨거니까 깡통 인자 철싸로 끈 달더라구. {그러면 인제 뜨거우니까 깡통 인제 철사로 끈 달더라고.}
10802 # 그냥 해서 그 늠 가주구 이르케 돌리믄 막 화::너게 불. {그냥 해서 그 놈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막 환하게 불.}
10802 # 그 소기서 탕개. {그 속에서 타니까.}
10802 # 그냥 해서 가주 댕이머 불 롸써. {그냥 해서 가지고 다니며 불 놨어.}
10802 @ 그면 제 엔나레는 홰뿔싸움 그러케 나무에 지플 부처서 홰뿔싸움 해써꼬? {그러면 인제 옛날에는 횃불싸움 그렇게 나무에 짚을 붙여서 횃불싸움 했었고?}
10802 # 응, {응.}
10802 @ 고 뒤에 깡통에 이르케 하능 거는 쥐불이라고 그래써요? {고 뒤에 깡통에 이렇게 하는 거는 쥐불이라고 그랬어요?}
10802 # 깡통이다 저기 솔꽹이 느쿠 그냥 돌려가모 불 놔써. {깡통에다 저기 솔 옹이 넣고 그냥 돌려가며 불 놨어.}
10802 @ 거 지불 거 쥐지불로리라고 핸나요? {그 쥐불, 그 쥐불놀이라고 했나요?}
10802 # 에 지불 그 늠 가꾸 댕이머 인자 여기 저기다 인자 불 론능 거지. {응, 쥐불, 그 놈 갖고 다니며 인제 여기저기에다 인제 불 놓는 거지.}
10802 @ 그 드를 태우느라구요? {그 들을 태우느라고요?}

10802 # 음 태우니라고. {음, 태우느라고.}
10802 @ 그럼 홰뿔싸우문 들 태울려고 하능 게 아니라? {그럼 횃불싸움은 들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802 # 양쪼기서. {양쪽에서.}
10802 @ 싸우물? {싸움을?}
10802 # 싸우믈 허능 거지. {싸움을 하는 거지.}
10802 @ 그럼 홰뿔싸우믄 어트게 해야 이기능 거에요? {그럼 횃불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10802 # 홰뿔싸머러 가며는 막 저::레 뭉처가주구 막:: 소리질르구 인자 가드라구 그러면. {횃불싸움 하러 가면 막 저렇게 뭉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인제 가더라고 그러면. }
10802 @ 어른드리 하나씩 들고? {어른들이 하나씩 들고?}
10802 # 이~ 으른덜뚜 뒤딸구 막 그냥 해서 인자 가 그러문 어토게나 부리 인자 다 되믄 꺼지믄 옵쓰니까 모더자녀. {응, 어른들도 뒤따르고 막 그냥 해서 인제 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 불이 인제 다 되면, 꺼지면 없으니까 못하잖아.}
10802 # 그릉게 그게 지 각 가는 디가 저는 디지 먼저. {그러니까 그게 지, 각, 가는 데가 지는 데지 먼저.}
10802 @ 금 저 바메 인제 하겐네요? {그럼 저 밤에 인제 하겠네요?}
10802 # 바메 어둘 때. {밤에 어두울 때.}
10802 @ 대보롬 때? {대보름 때?}
10802 # 에 에 무서써 지불쌈허먼. {응, 응, 무서웠어, 횃불싸움 하면.}
10802 @ 그래께따 위험하기도 해껜네요 할머니 그게? {그렇겠다, 위험하기도 했겠네요, 할머니 그게?}
10802 # 얼라 다치기두 허구. {어, 다치기도 하고.}
10802 @ 다 다 이르케 집찌붕인데 위험해께써요. {다 다 이렇게 짚 지붕인데 위험했겠어요.}
10802 # 지비서 안 애찌 그릉게. {집에서 안 했지 그러니까.}
10802 # 내깔 드::기 내깔 이르케 이쓰믄 가운데가 내깔 이꾸. {냇가, 둑에 냇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 냇가 있고.}
10802 # 이 쪽 싸라믄 이 쪽 저 쪼기서는 저 쪽 그래가꾸 그 내까레서 다:: 쪽:: 불 가주구 그래찌. {이쪽 사람은 이쪽, 저쪽에서는 저쪽 그래갖고, 그 냇가에서 다 족 불 가지고 그랬지.}
10802 # 이르케 집 우염허던 집 저티서는 아닝게. {이렇게 집 위험하던 집 곁에서는 아니니까.}
10802 @ 아 니까 내깔 이 편 저 펴네 서가지고. {아, 그러니까 냇가 이 편 저 편에 서가지고.}
10802 # 양쪼기서. {양쪽에서.}
10802 @ 볼 장과니겐네요 할머니 바메 보기는? {볼, 장관이겠네요, 할머니 밤에 보기는?}
10802 # 음 그렁게 먼 디서 보머 막 시끄러꾸 막 부리 죽:: 이써가꾸. {응, 그러니까 먼 데서 보면 막 시끄럽고, 막 불이 죽 있어갖고.}
10802 # 그 인자 부리 먼저 다 꺼지믄 인자 다 가야지 뭐 웁씅게. {그 인제 불이 먼저 다 꺼지면, 인제 다 가야지 뭐 없으니까.}

10802 # 긍게 인자 먼저 불 꺼지는 디가 즈더라구. {그러니까 인제 먼저 불 꺼지는 데가 지더라고.}
10802 @ 할머니 그 동 동채싸우미라능 게 이써써요? {할머니, 그 동, 동채싸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10802 @ 대보롬 날 노능 거 중에 동채쌈? {대보름날 노는 것 중에 동채싸움?}
10802 @ 싸움하능 거? {싸움하는 거?}
10802 # 동태쌈 몰라 그건. {동채싸움 몰라 그건.}
10802 @ 동채 그렁 건 모 뜨러보셔꼬? {동채, 그런 건 못 들어보셨고?}
10802 @ 할머니 다리발끼 다리발끼 그런 노리가 이써써요? {할머니 다리밟기, 다리밟기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10802 @ 답꾜라고 하 도 해따는데? {답교라고 하는, [x하기x]도 했다는데?}
10802 @ 대보름 때? {대보름 때?}
10802 # 우더른 몰르지 그렁 건. {우리들은 모르지 그런 건.}
10802 @ 용마 노리 용마 노리? {용마놀이, 용마놀이?}
10802 # 용마 노리가 그 말 타는 말로리여. {용마놀이가 그 말 타는 말놀이야.}
10802 # 사람 쭈:: 어퍼저서 사라믈 이케 너머 가구 가랭이루 이러케 뛰어서 이러케 너머 가넝 거. {사람 죽 엎어져서 사람을 이렇게 넘어 가고, 가랑이로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넘어 가는 거.}
10802 # 그렁 게 말로리지. {그런 게 말놀이지.}
10802 @ 지심발끼느뇨 할머니? {지신밟기는요, 할머니?}
10802 # 지슴발끼는 노니서 지슴 맬 때가 지슴발끼허지. {지신밟기는 논에서 김 맬 때가 지신밟기하지.}
10802 # 이렁 거는. {이런 거는.}
10802 @ 풍물 치고 마을마다 도라다니면서 인제 이 이 집찜마다 인제 풍물패가 집찜마다 그 짐 마당으로 드러가서. {풍물 치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제 이, 이 집집마다 인제 풍물패가 집집마다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10802 @ 마당을 함 바끼 이르케 돌면서 그 마당을 이르케 발바주면서 풍무를 놀면 이제 그 한 해똥안 이 지비 뭐 애기 업씨 뭐 조으라고 그런 노르미 이따는데? {마당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 마당을 이렇게 밟아주면서 풍물을 놀면, 인제 그 한 해 동안 이 집에 뭐 액이 없이 뭐 좋으라고 그런 놀이가 있다는데?}
10802 # 음 그 정워리는 그거 해써 정워리. {응, 그 정월에는 그거 했어, 정월에.}
10802 @ 그런 노리 이르믄? {그런 놀이 이름은?}
10802 # 정월 보롬 때 무러비. {정월 보름 때 무렵에.}
10802 @ 이르미 이썬나요 할머니? {이름이 있었나요, 할머니?}
10802 # 인자. {인제.}
10802 # 글:리번다구 도늘 거들라면 그냥 가서 돈 주쇼 모 더자너. {건립한다고 돈을 거두려면 그냥 가서 돈 주쇼, 못 하잖아.}
10802 # 그렁게 풍물 치구 치는 사라더리 풍물 치구 그 지비 드러가서. {그러니까 풍물 치고, 치는 사람들이 풍물 치고 그 집에 들어가서.}
10802 @ 예. {예.}
10802 # 어 인자 그 풍무를 시끄러께 치면 돈두 나오구 인자 머드러 와따구 이러케 허며는

인자 다 아러서 도널 자기 형편대로 주지. {음, 인제 그 풍물을 시끄럽게 치면 돈도 나오고, 인제 뭐 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인제 다 알아서 돈을 자기 형편대로 주지.}
10802 # 그르케 오구 두꺼티까지 장꽝까지 가서 이르케 풍물 함바꾸 치구 나오구. {그렇게 오고 뒤꼍에까지, 장독대까지 가서 이렇게 풍물 한 바퀴 치고 나오고.}
10802 # 인자 처두 괜찬타구 허면 붜:키 드르가서 또 부어키서 함바탕 치구 나오구 그래찌 풍물 치러 드르가먼. {인제 쳐도 괜찮다고 하면, 부엌에 들어가서 또 부엌에서 한바탕 치고 나오고 그랬지, 풍물 치러 들어가면.}
10802 @ 그래가주구 인제 고 도니나 뭐나 좀 주면 그거 가주고는 인제 그 사람드리 뭐하나요? {그래가지고 인제 고 돈이나 뭐나 좀 주면, 그거 가지고는 인제 그 사람들이 뭐하나요?}
10802 @ 그 거둔 돈 가지고? {그 거둔 돈 가지고?}
10802 # 그러치 인자 그러 거드러 그거 모아서 인자 동네 도늘 만들덩가 동네 도니 인제 부족되며는 그걸루 쓰구 그래찌. {그렇지, 인제 그거 걷으러 그거 모아서 인제 동네 돈을 만들든가, 동네 돈이 인제 부족하면은 그걸로 쓰고 그랬지.}
10802 @ 할머니 이워레 음녁 이워레 구럭따기 놀 따기 노리 뭐 이렁 게 인나요? {할머니 이월에, 음력 이월에 구럭다기 놀, 다기 놀이 뭐 이런 게 있나요?}
10802 @ 구럭따기 노리? {구럭다기 놀이?}
10802 # 구러글 지비로 구러글 맨들거든 오이두 따구 그거 미:구 댕기머 구러기다 따서 다물라구 구러글 만드러 근디. {구럭을 짚으로 구럭을 만들거든 오이도 따고, 그거 메고 다니며 구럭에다 따서 담으려고, 구럭을 만들어, 근데.}
10802 # 그 사른방이서 구럭따기 노리 해쓰믄 그 사른방이서 구럭 따머께 혀꺼찌. {그 사랑방에서 구럭다기 놀이 했으면, 그 사랑방에서 구럭 따먹기 했겠지.}
10802 @ 할머니 사워레 음녁 사워레 어:: 불꼰노리나 만복사탐노리 뭐 이렁 거 혹씨 사워레? {할머니, 사월에, 음력 사월에 어, 불꽃놀이나 만복사탑놀이 뭐 이런 거 혹시 사월에?}
10802 # 사워레 불꼰노리. {사월에 불꽃놀이.}
10802 # 이런 초니서는 불꼰노리 별루 그렁 걷 허본 닐 웁찌. {이런 촌에서는 불꽃놀이 별로 그런 것 해본 일 없지.}
10802 @ 탐 탐노리 가틍 거또 벼 업써꼬? {탑, 탑놀이 같은 것도 별 없었고?}
10802 @ 그렁 거또? {그런 것도?}
10802 @ 탑 저레 가면 탑 이짜나요 할머니? {탑, 절에 가면 탑 있잖아요, 할머니?}
10802 @ 탑 뭐 그렁 거또 업써꼬? {탑, 뭐 그런 것도 없었고?}
10802 # 이런 디는 그렁 거 옵씅게 그렁 거 안치.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않지.}
10802 @ 그 다메 다노 때 다논나른 수린나리라고도 해써요 할머니? {그 다음에 단오 때, 단옷날은 수릿날이라고도 했어요, 할머니?}
10802 @ 수린날? {수릿날?}
10802 @ 그러케는 암 부르고 그냥 다논나리라고만 해써요? {그렇게는 안 부르고 그냥 단옷날이라고만 했어요?}
10802 # 에:: 다논날. {에, 단옷날.}
10802 @ 다논나레 방천 노리가 뭐에요 방천 노리? {단옷날에 방천놀이가 뭐예요, 방천놀이?}

10802 @ 그렁 건 업써써요? {그런 건 없었어요?}
10802 # 그렁 거 업써찌 옌나리. {그런 거 없었지, 옛날에.}
10802 @ 할머니 다논나레 할머니 시집 오시기 저네는 그네 뛰셔짜나요 다노 때? {할머니 단옷날에 할머니 시집오시기 전에는 그네 뛰셨잖아요, 단오 때?}
10802 @ 그럼 그 그네는 주로 동 마으레서 제일 큰 나무에 매다나요? {그럼 그 그네는 주로 동,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에 매다나요?}
10802 # 그러치. {그렇지.}
10802 # 우리 친정 똥네는 양쪼기가 큰:: 정자나무 느티나무 큰:: 늠 양쪽기가 이써가주구 거기다 근디 매믄 그러케 조아써. {우리 친정 동네는 양쪽에 큰 정자나무, 느티나무 큰 놈 양쪽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그네 매면, 그렇게 좋았어.}
10802 # 양쪼기가 큰:: 늠 인는디 용구지여 용고지 지끔 그 넝자나무 여쌔 이써. {양쪽에 큰 놈 있는데 용마름여, 용마름 지금 그 정자나무 여태 있어.}
10802 # 그 가운데로 사람덜 댕기지 그게 지리여. {그 가운데로 사람들 다니지 그게 길이야.}
10802 @ 금 길 가운데다 그네를? {그럼 길 가운데에다, 그네를?}
10802 # 에 이. {에 응.}
10802 # 그릉게 저녀기덜 매구 타찌. {그러니까 저녁에들 매고 탔지.}
10802 # 긍게 인자 그네 매구 타며는 이르케 비껴서두 가구 사람더리 그래찌. {그러니까 인제 그네 매고 타면은 이렇게 비켜서도 가고, 사람들이 그랬지.}
10802 # 근디 지 그 정자나무가 우덜 어릴 때두 큰:: 정자나무여써는디 여태 그 정자나무가 여태 이써 양쪽 용구지 정자나무가. {근데 지, 그 정자나무가 우리들 어릴 때도 큰 정자나무였었는데, 여태 그 정자나무가 여태 있어, 양쪽 용마름 정자나무가.}
10802 # 그릉게 그 정자나무가 한 백 한 오심년 되껀네. {그러니까 그 정자나무가 한 백 한 오십년 됐겠네.}
10802 @ 할머니 그럼 그르케 다논날 그네 뛰러 갈려고 새악씨드리 오또 막 이쁘게 이꼬 막 이래요? {할머니 그럼 그렇게 단옷날 그네 뛰러 가려고, 색시들이 옷도 막 예쁘게 입고 막 이래요?}
10802 @ 이쁘게 하고 분도 이르케 바르고? {예쁘게 하고, 분도 이렇게 바르고?}
10802 # 분도 발르고 그냥 허고 가기는 허는디. {분도 바르고, 그냥 하고 가기는 하는데.}
10802 # 그네 뛰믄 양쪽 여기 치마는 떠러져. {그네 뛰면 양쪽 여기 치마는 떨어져.}
10802 # 새네끼다 이냥 동아주리다 이냥 슬채싸서. {새끼에다 이렇게 동아줄에다 이렇게 스쳐쌓아서.}
10802 @ 아 그럼 아까워서 어뜨카나 그치요? {아, 그럼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렇죠?}
10802 # 그릉게. {그러니까.}
10802 # 그릉게 인자 그르케 떠러저두 그냥 안 아깔 껀 니꾸 가야지 아래.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떨어져도 그냥 안 아까울 것 입고 가야지, 아래.}
10802 @ 아. {아.}
10802 @ 금 새치마는 안 닙껜네요? {그럼 새 치마는 안 입겠네요?}
10802 @ 떠러저도 괜차늘 치마를? {떨어져도 괜찮을 치마를?}
10802 # 내가 어려서 이르케 사다리 이짜너 올라가는 사다리 오디 저런 지붕이 올라가는 사다리. {내가 어려서 이렇게 사다리 있잖아 올라가는 사다리, 어디 저런 지붕에 올라가는 사

다리.}
10802 # 어려서 그 갑싸치마를 해이펴써써 나 내가 해이버써써 그랜는디. {어려서 그 갑사치마를 해 입혔었어, 나, 내가 해 입었었어, 그랬는데.}
10802 # 거기다 그네 매고 들:: 근디를 타써. {거기다 그네 매고, 늘 그네를 탔어.}
10802 # 그땡 그 치마가 어느주리 다 떠러저따구. {그랬더니 그 치마가 어느새 다 떨어졌다고.}
10802 # 갑싸치마가 얄짜너. {갑사치마가 얇잖아.}
10802 @ 스처가지고 오시? {스쳐가지고 옷이?}
10802 # 에. {응.}
10802 # 슬처가주구 치마 하나 다 떠러푸려써써 그 때. {스쳐가지고 치마, 하나 다 떨어트렸었어, 그 때.}
10802 @ 이. {예.}
10802 # 그네 타구 노:라서 항시 어릴 때. {그네 타고 놀아서, 항상 어릴 때.}
10802 @ 할머니 새악씨때는 치마만 치마만 임는 시대 시저리여써요? {할머니, 색시 때는 치마만, 치마만 입는 시대, 시절이었어요?}
10802 # 그어치 치마이버찌 다. {그렇지 치마 입었지 다.}
10802 @ 그 치마 아네 인제 바지처럼 생깅 거? {그 치마 안에 인제 바지처럼 생긴 거?}
10802 # 몸빼. {몸빼.}
10802 @ 이꼬 아. {입고, 아.}
10802 @ 그르믄? {그러면?}
10802 # 그 그 뒤루는 인자 몸빼 생기구. {그, 그 뒤로는 인제 몸빼 생기고.}
10802 @ 단논날 그네타기할 때는 치마를 거테 치마를 좀 거더 올려도 돼요? {단옷날 그네뛰기 할 때는 치마를, 겉에 치마를 좀 걷어 올려도 돼요?}
10802 @ 그네타기 할라고? {그네뛰기 하려고?}
10802 # 그이두 그때는 치마 이꾸 그냥 타찌. {그래도 그때는 치마 입고 그냥 뛰었지.}
10802 @ 새악씨가 바께서 치마를 거더 올리면 절때 안 되는 때여써요? {색시가 밖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면 절대 안 되는 때였어요?}
10802 # 그러치. {그렇지.}
10802 @ 이 백쭝 백쭝이 이짜나요 할머니? {이 백중, 백중이 있잖아요, 할머니?}
10802 @ 유워레 배쭝에요 다노 때 저기 아니 치뤌 백쭝에요? {유월에 백중예요, 단오 때 저기 아니 칠월 백중예요?}
10802 @ 호미씨시 호미 씬는다고? {호미씻이, 호미 씻는다고?}
10802 # 음? {응?}
10802 @ 호미 씬는다고 호미씨시 이런 노리 혹씨? {호미 씻는다고 호미씻이, 이런 놀이 혹시?}
10802 @ 할머니 그 모내기 다 끈내고 난 다메 함 번 노능 거 동네에서? {할머니, 그 모내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한 번 노는 거 동네에서?}
10802 @ 그런 그런 노리가 업썬나요? {그런, 그런 놀이가 없었나요?}
10802 @ 농사처레 인제 한 농사 한철 끈내고 함 번 제 쉬어 가자는 뜨세서 모내기가 다 끈나고 함 번 노는? {농사철에 인제 한 농사 한철 끝내고, 한 번 인제 쉬어 가자는 뜻에서 모내기가 다 끝나고, 한 번 노는?}

10802 # 그저니는 동네서 술덜또 머꼬 그냥 놀기두 혀찌 모 다 끈나믄. {그전에는 동네서 술들도 먹고 그냥 놀기도 했지, 모 다 끝나면.}
10802 @ 그 그러케 하능 거 뭐 특벼리 뭐 이르미 이썬나요 할머니? {그 그렇게 하는 거 뭐 특별히 뭐 이름이 있었나요, 할머니?}
10802 # 그 이르믄 몰르건네. {그 이름은 모르겠네.}
10802 # 두레헌다고 허지 두레. {도리기한다고 하지 도리기.}
10802 # 두레 멍는다고 해찌 그저니는. {도리기 먹는다고 했지 그전에는.}
10802 @ 그 몬대요 할머니? {그 뭔데요, 할머니?}
10802 @ 언제 언제 멍는? {언제, 언제 먹는?}
10802 # 두레 멍넝 거시 인자 여::러시 혀서 음식 혀서 멍넝 거지. {도리기 먹는 것이 인제 여럿이 해서,, 음식 해서 먹는 거지.}
10802 @ 그거 아무 때나 할 쑤 인는 거에요? {그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0802 # 그거 아무 때나 혀서. {그거 아무 때나 해서.}
10802 # 동네 싸람끼리 날 자버가꾸 아무 때나 하능 거. {동네 사람끼리 날 잡아갖고 아무 때나 하는 거.}
10802 @ 할머니도 그 한가윈나레 그 파뤌 명절 때 소싸움하고 이렁 거 이써써요? {할머니도 그 한가윗날에 그 팔월 명절 때 소싸움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10802 @ 소 소싸움 소 소싸움. {소, 소싸움, 소, 소싸움.}
10802 # 소 싸움 헐라믄 황소 잘 잘:: 막 살찌게 메겨가꾸 소 황소 쌈하로 가지 오디 인자 소시름 소싸움 위서 헌다구 허면 그냥 잘 메겨가주구 그냥 해서 가주구 나가서. {소싸움 하려면 황소 잘, 잘, 막 살찌게 먹여갖고, 소 황소 싸움하러 가지, 어디 인제 소 씨름, 소싸움 어디서 한다고 하면 그냥 잘 먹여가지고, 그냥 해서 가지고 나가고.}
10802 # 쌈허구 그래찌 소쌈. {싸움하고 그랬지, 소싸움.}
10802 @ 가마싸움가튼 노리는 할머니가 모 빠따고 하셔찌요? {가마싸움 같은 놀이는 할머니가 못 봤다고 하셨지요?}
10802 # 거는 모 뽜찌. {그거는 못 봤지.}
10802 @ 보메요 할머니 보메 아까 할머니가 풀각씨 풀각씨 여자애들 풀각씨? {봄에요, 할머니 봄에 아까 할머니가 풀각시, 풀각시 여자애들 풀각시?}
10802 # 각씨풀. {각시풀.}
10802 # 각씨풀 보미 이케 새펴란너게 이러케 나면 그 늠 뜨더가꾸 그 늠 이:뿌게 매::끄너게 각씨 만드러서 막때기에다 이펴가주구 잘 각씨 만드러써. {각시풀 봄에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나면 그 놈 뜯어갖고, 그 놈 예쁘게 매::끈하게 각시 만들어서 막대기에다 입혀가지고, 잘 각시 만들었어.}
10802 @ 에. {예.}
10802 # 그저니 각씨풀루. {그전에 각시풀로.}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벼지우, 나락
20102	이삭	20102	변모가지
20103	볍씨	20103	벼쫑자, 씬나라기유
20104	못자리	20104	모짜리
20105	모판	20105	씬나락능:게모파니구(+신), 그거모짜리해농거시지오(+구)
20106	쟁기	20106	쟁기네유
20107	보습	20107	서빠닥(+쟁기의 밑부분), 보십, 보습
20108	볏	20108	벼:시구
20108-0-1	-이	20108-0-1	벼시부터찌우
20109	극젱이	20109	나무쟁기가튼데(+?제)
20110	써레	20110	쓰:레네유
20111	번지	20111	번데라기핻찌우
20112	모내기	20112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20113	흑뗑이라구지우
20114	고무래	20114	고무래루, 당그래가고무래지우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고무래루허지우
20114-2	고무래(재 용도)	20114-2	그언뷕꼬무래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고무래로허는디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고모래(+미는 것과 당기는 것을 구별하지 않음)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고모래여(+미는 것과 당기는 것을 구별하지 않음)
20115	쇠스랑	20115	소스랑, 소시랑이네
20116	곡괭이	20116	꼬깽이
20117	괭이	20117	괭이네, 이게화갱이지오(+작은 것)
20118	삽	20118	사비지우

20119	호미	20119	호무
20120	농기구	20120	그저니는지슴맨다고해찌우, 농기구
20121	김	20121	지슴
20122	김매다	20122	반맬때마니쓰구유(+밭), 지슴맨다구유(+논, 밭)
20123	애벌 매다	20123	아시매능거
20123-1	두벌 매다	20123-1	두벌매구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만물헌다구지우
20124	논두둑	20124	논뚜기지우
20125	밭둑	20125	받뚝
20126	밭두둑	20126	두둑
20127	밭고랑	20127	고:랑이유, 받꼬랑
20128	밭이랑	20128	받이량치능거슨(+좁은 두둑), 네걷뚜두기라구허는디(+넓은 두둑)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20128-1	간:다구지우
20128-2	이랑밟기	20128-2	보리받발끼
20129	보리	20129	보린모기네유
20129-1	가을보리	20129-1	그냥보리구유
20129-2	봄보리	20129-2	봄보리지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1	갈가리
20132	깜부기	20132	깜베기유
20133	두엄	20133	두엄, 퇴비(+단모음 "외")
20134	거름	20134	거름낸다구허지우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바스만다구허지우
20202	볏단	20202	벰묻
20202-1	볏단(한 줌정도)	20202-1	볌무시
20202-2	볏단(타작할 정도)	20202-2	벼무슬
20202-3	볏단(한 아름정도)	20202-3	예볌무시여유
20203	가리(積)	20203	벤누리구(+위로 높이 쌓아 놓는 것), 베까리(+곡식을 세워 논둑을 따라 옆으로 길게 쌓아 놓는 것), 장정눌(+위로 높이 쌓아 놓는 것)

20204	가리다(積)	20204	가리해놔써유(+곡식을 세워 논둑을 따라 옆으로 길게 쌓아 놓는 것), 가리처놔찌우(+곡식을 세워 논둑을 따라 옆으로 길게 쌓아 놓는 것)
20204	가리다(積)	20204	누린다구허지우 (+위로 높게 쌓아 놓는 것)
20205	볏가리	20205	벤눌
20206	낟가리	20206	그누리라그지우
20207	타작	20207	바스먼다구허지우
20208	벼훑이	20208	벼훌치기라고허거찌우
20208-1	그네	20208-1	판장훌테
20209	개상	20209	개상지러능거신디
20209-1	자리개	20209-1	자리개루
20209-2	자리개질	20209-2	개상지러능거
20210	도리깨	20210	도루채, 도리채
20210-1	도리깻장부	20210-1	도루채자루라구허주지우
20210-2	도리깻열	20210-2	도루채느-르
20210-3	도리깨꼭지	20210-3	근비난디
20211	볏짚	20211	집
20211-0-1	-을	20211-0-1	지비로훌터내문
20211-0-2	-에	20211-0-2	*
20212	새꽤기	20212	회떼기, 지보떼기
20213	쭉정이	20213	쭈구렝이유
20214	티	20214	티드러따구허지우
20215	까끄라기	20215	꺼럭
20216	풍구	20216	풍누
20217	원두막	20217	오이막, 막, 에이렁게원도막
20218	허수아비	20218	허세비
20219	흉년	20219	흉년드러따구허지우
20220	머슴	20220	머슴, 달머슴도두구 (+바쁠 때만 잠깐 부리던 사람)
20221	놉	20221	노부더따구찌우
20221-0-1	-을	20221-0-1	노부더서해야지오
20221-1	(놉을) 사다/얻다/부리다	20221-1	노부더따구지
20222	품앗이	20222	푸마시헌다구허지우

20223	품삯	20223	품싹
20223-0-1	-으로	20223-0-1	품싸기루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방아지오
20302	디딜방아	20302	디딜빵아유
20303	방앗공이	20303	도구때
20304	방아확	20304	도구통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방아지우
20306	연자방아	20306	연자방아라쏘리는드런는디
20307	절구	20307	도구(+총칭은 잘 사용하지 않음)
20308	절구통	20308	확도구(+돌), 나무도구통(+나무)
20309	절굿공이	20309	도구때는, 매갱이는
20310	절구질	20310	도구때지런다구지우
20311	겨	20311	저
20312	보릿겨	20312	보리쩌
20313	왕겨	20313	왕저, 맫쩌여맫저
20314	등겨	20314	쌀껴, 곤저, 쌀저유
20315	검불	20315	검부리라구
20316	껍질	20316	귤:껍떼기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씨기라구자녀, 곡썩
20402	찹쌀	20402	찹싸른
20403	멥쌀	20403	멥쌀
20404	쌀보리	20404	쌀보리지우
20405	조	20405	조, 조:가쓰:스기에유
20406	차조	20406	메스슥, 메조
20407	메조	20407	찰스슥이지우, 찰조
20408	좁쌀	20408	스:슥쌀라오지오
20409	작다	20409	자러유
20410	조이삭	20410	스:승모가지지우
20411	수수	20411	수수이거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1	수:수여

20411-2	장목수수	20411-2	한산수수
20411-3	찰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1-4	메쑤수
20412	수수깡	20412	수숟때
20413	옥수수	20413	옥수수네유
20413-1	찰옥수수	20413-1	차록쑤수
20413-2	메옥수수	20413-2	메옥쑤수
20414	귀리	20414	*(+이 지역에서는 재배하지 않음)
20415	메밀	20415	메물
20416	콩	20416	콩잉가
20417	콩깍지	20417	콩깍찌
20418	메주	20418	메주뗑이
20419	매달다	20419	거러논다구허지오
20420	띄우다	20420	띠야여메주, 뜨게
20421	곰팡이	20421	곰팡이난거지우
20422	강낭콩	20422	근강낭콩이네
20423	콩기름	20423	콩기름짜지오, 창지름
20424	깨	20424	꽤
20424-1	참깨	20424-1	참꽤이꾸
20424-2	들깨	20424-2	들꽤이꾸
20425	고소하다	20425	고소헌마시

2.1.5. 채소

20501	채소	20501	채소지오
20502	나물	20502	그렁건나무리지우, 너무리라구해써유그저니는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1	반너무리, 반나무리라구지우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2	그냥나무리라구허지우 (+구별하지 않고 "나물"이라고 함)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3	들라무리라구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4	나무리라구허지오 (+구별하지 않고 "나물"이라고 함)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5	산너물, 산나무리라허구
20502-6	나물(산 반찬)	20502-6	*(+구별하지 않고 "나물"이라고 함)
20503	푸성귀	20503	푸성가리

20504	다듬다	20504	다드머서시처야지우
20505	반찬	20505	반찬, 건거니여
20506	무	20506	무:네유(+소), 무수(+다)
20507	썰다	20507	처가꼬쓰:르야지오
20508	무청	20508	무이파리, 무입싸라구허지오무입싸, 무수이파리
20509	시래기	20509	씨라구, 시라구데지오
20510	무말랭이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1	종다리라구허데유
20512	배추	20512	배차
20513	고갱이	20513	배추소기지우
20514	오이	20514	오이, 무레
20515	오이지	20515	무레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20516	오이속빼기
20517	가지(茄子)	20517	가지
20518	호박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19	감자, 고구마, 갈:깜자라개써
20520	감자	20520	북깜자더러, 감자
20520-1	잘다	20520-1	*
20521	우엉	20521	우엉
20522	파	20522	파
20523	고추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6	부추(+소), 졸(+다)
20527	상추	20527	싸미네유
20528	마늘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29	새앙
20530	냉이	20530	나승개
20531	달래	20531	달리
20532	도라지	20532	도라지유
20533	더덕	20533	더더기유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쌀밥
20602	찬밥	20602	참바비유
20602-1	더운밥	20602-1	따순밥
20603	조밥	20603	스:슥빱
20604	누룽지	20604	고시랭(+고), 누룽지두머꾸(+신)
20605	눌은밥	20605	누룸밥
20606	숭늉	20606	숭님
20607	뜨물	20607	뜨무리요
20608	김(蒸氣)	20608	짐나능거유
20609	갱죽(羹粥)	20609	시라구주기라구허지우
20610	싱겁다	20610	싱겁찌우
20611	국수	20611	국쑤머거찌우
20612	칼국수	20612	수제비유, 칼수제비유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2-1	국쑤지우
20613	건더기	20613	건데기
20613-1	국물	20613-1	멀궁만남찌우
20614	고명	20614	꾸미개(+“꾸미”와 구별 안함)
20615	꾸미	20615	꾸미개지우(+“고명”과 구별 안함)
20616	미역	20616	미역
20617	김(海苔)	20617	기:미유, 짐:빱
20618	수제비	20618	떠넌는수제비유, 국쑤제비유
20619	끼니	20619	끄니굴머따구
20620	미음	20620	푸레, 무윰
20620-1	(미음을) 끓이다/쑤다/삶다	20620-1	무윰써서준다허구, 끄린다구허지우
20621	엿기름	20621	엳찌름질러따가
20622	식혜(食醯)	20622	시케도ㅏ가주구인자그늠
20623	식해(食?)	20623	*
20624	달다(甘)	20624	다러유
20625	가루	20625	살까루
20625-0-1	-에	20625-0-1	가루여다
20625-0-2	-을	20625-0-2	가루룰만지면
20625-0-3	-도	20625-0-3	가루도엄는디어트게저글부치냐구
20626	밀가루	20626	밀빠수먼밀까루

20627	밀기울	20627	밀:찌우리지우
20628	미숫가루	20628	미쓰까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간장
20702	된장	20702	뒌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고추까루
20704	고추장	20704	고추장이지우
20705	소금	20705	소그미유
20706	김치	20706	짠지
20707	김장	20707	짐장헌다구, 김장, 진장허야지
20708	깍두기	20708	깍뚜기유
20709	나박김치	20709	물김치유
20710	담그다	20710	김장헌다구그냥
20710-0-1	-고	20710-0-1	김장허구이따구
20710-0-2	-어라	20710-0-2	김장해라
20711	양념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버무려찌오
20713	버섯	20713	버서신디, 버섣, 영지버섣
20713-0-1	-이	20713-0-1	버서슨, 버서시잘크지우
20714	콩나물(재료)	20714	콩너무리유,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20714-1	콩너물반차니지우
20714-2	숙주(나물)	20714-2	숙쭈너물
20715	두부	20715	두부유
20716	비지	20716	비지유
20716-1	비지떡	20716-1	비지떠기라구
20717	달걀	20717	달갈, 달걀
20718	가래떡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19	시루떡
20720	송편	20720	송편
20721	빚다	20721	맨든다고
20722	흰떡	20722	신:떠기여
20723	고물	20723	콩꼬물
20724	팥죽	20724	파쭉
20725	새알심	20725	새새미

20726	백설기	20726	신무리
20727	튀밥	20727	튀밥
20728	술	20728	수류
20729	막걸리	20729	막껄리
20730	소주	20730	청주, 소곡쭈유, 소주내리능거
20731	부침개	20731	저기지유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1	부뚜마기유
20802	가마솥	20802	가마솓
20802-0-1	-을	20802-0-1	가마쏘씬는다구유
20802-0-2	-에	20802-0-2	가마쏘씨다허지오
20803	아궁이	20803	뷕짜귀, 뷕짜구라해써
20803-0-1	-이	20803-0-1	뷕짜구가커서
20804	그을음	20804	끄름
20805	불쏘시개	20805	쏘:수개
20806	연기	20806	연기유
20806-1	내(煙氣)	20806-1	내난다구허지우
20807	그을리다	20807	끄실른다구유
20808	부지깽이	20808	부지땅
20809	부삽	20809	불삽
20810	냅다	20810	내워, 내옵따오구
20811	냄비	20811	냄비유
20812	그릇	20812	그르시만타구, 그른치넝거시니까
20812-0-1	-을	20812-0-1	그르슬시칠라먼유
20813	뚜껑	20813	냄비뚜껑이유
20814	주발 뚜껑	20814	시끼뚜껑, 복쭈깨
20815	사발 뚜껑	20815	사발뚜껑이지우
20816	솥뚜껑	20816	소당
20817	밥주걱	20817	그주거기네유, 쉐주걱, 나무주걱
20818	숟가락	20818	수저
20819	젓가락	20819	저까락, 저붐
20820	종지	20820	종제기
20821	보시기	20821	보세기
20822	뚝배기	20822	뚝빠기, 투가리

20823	접시	20823	접씨가
20824	조리	20824	조렝이
20825	이남박	20825	함박, 나무함박
20826	바가지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7	행주
20828	헹구다	20828	헹:기능거지우
20829	설거지	20829	설거지허능거지우
20830	개숫물	20830	자숨물
20831	찌꺼기	20831	찌끼가나머따구유, 찌끄럭찌
20832	화로	20832	화:리, 화:루
20833	화롯불	20833	화리뿔
20834	부젓가락	20834	불쩌붐
20834-0-1	-이	20834-0-1	불쩌까라기웁따구
20834-1	불숟가락	20834-1	불쏜
20835	다리쇠	20835	불꺼리
20836	석쇠	20836	적쒜
20837	도시락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8	바구리
20839	뒤주	20839	쌀뛰지, 두지
20840	찬합	20840	차납
20841	강판	20841	강파니가:릉거지(+가는 것), 채:카른(+채 써는 것)
20842	개다리소반	20842	이거떠러개다리소바니라구나유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1	안빵
20902	벽	20902	베랑빡
20903	다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4	벽짱
20905	감추다	20905	감춘다구
20906	흠	20906	흠:찝

20907	돌쩌귀	20907	돌쪼기
20907-1	암짝	20907-1	똥그라넝건암누미구
20907-2	수짝	20907-2	순놈돌쪼기
20908	미닫이	20908	미다지구
20909	여닫이	20909	여다지지우
20910	덧문	20910	던문
20911	열다	20911	여르야드르가지우
20912	문고리	20912	문꼬리지우
20913	자물쇠	20913	건자물통이네유
20914	갇히다	20914	가처이찌우
20915	열쇠	20915	열쐬
20916	잠그다	20916	장그야지우
20917	구멍	20917	문꾸넝
20917-1	쥐구멍	20917-1	쥐구넝
20918	찢다	20918	찌즈야지우
20919	구들	20919	방또기유
20920	흙받기	20920	흑빠지
20921	흙손	20921	흑쭈걱
20922	흙칼	20922	쇠손(+다, 총칭이라기보다 주된 연장)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1	흑쏘는(+나무, 처음 흙을 떠 벽에 바르는 연장)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2-2	쇠손(+쇠, 흙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20923	바르다	20923	발르야지우
20924	장판	20924	장판깔지우
20925	종이	20925	종이유
20926	도배	20926	데배
20927	구석	20927	구석
20928	굽도리	20928	이새
20929	깨끗하다	20929	깨끄더지우, 깨까더다구허찌우
20930	문지방	20930	문턱
20930-0-1	-에	20930-0-1	문터기올라가지마러라
20931	틈	20931	문트매기
20932	가장자리	20932	끄트머리라해찌우, 가상서리
20933	가운데	20933	가온데는
20934	시렁	20934	시렁맨거시유

20935	살강	20935	살강잉가이게
20936	선반	20936	선바니지우
20937	서랍	20937	빼다지
20938	경대	20938	체경
20939	거울	20939	밍:경
20940	걸다	20940	거러유
20941	호롱	20941	등잔, 남포뚱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1-0-1	지봉이올라가지우
21002	기와	21002	기와짱잉가보네
21003	기와집	21003	기와지바녀, 지와지비네
21004	수키와	21004	순노믄, 수끼와
21005	암키와	21005	앙끼와
21006	대들보	21006	대들뽀
21007	서까래	21007	연목까래
21008	추녀	21008	그게추녀지우
21009	처마	21009	처마끄티
21010	오두막	21010	오도막찝
21011	초가집	21011	초가지비지우
21012	이엉	21012	이영, 이영초기루
21012-0-1	-에서	21012-0-1	으-:ㅇ초기서
21013	용마름	21013	용고새
21014	기스락	21014	구찌스랑
21015	낙숫물	21015	구찌스랑물래린다구허지
21015-1	기스락물	21015-1	구찌스랑물
21016	사닥다리	21016	사닥따리
21017	용마루	21017	동마루
21018	토방	21018	토방
21019	댓돌	21019	물바지
21020	마루	21020	마리올라갈 때, 마루꾸투리지, 마루서, 마리빠닥
21020-0-1	-에	21020-0-1	마루에올라가지말라구지우
21021	툇마루	21021	골방마루

21022	기둥	21022	지둥
21023	주춧돌	21023	주추똘로야
21023-0-1	-을	21023-0-1	주추또를록
21024	굴뚝	21024	굴:뚝

2.3.3. 마당

21101	뜰	21101	꼳빧, 뜰파니라구(+토방과 같은 의미)
21102	마당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	더널찌오, 넙:따구해찌우
21103-0-1	-어서	21103-0-1	널버서조치오
21104	넓히다	21104	널피야지오
21105	곳간	21105	고까니(+광과 비슷한 말)
21106	외양간	21106	오양깐
21107	마구간	21107	마구까는
21108	광	21108	광이다(+주로 곡식이나 귀한 물건을 넣어 둠)
21109	헛간	21109	창고지우, 허깐
21110	쓰레기	21110	쓰레기버리능거신데
21111	장독대	21111	장:꽝이네장:꽝
21112	장독 뚜껑	21112	바텡이뚜껑
21113	변소	21113	치깐, 소망이지
21113-1	똥장군	21113-1	소마통, 똥통이라구지
21114	울타리	21114	훌타리
21115	담	21115	담
21115-0-1	-에	21115-0-1	다미올라가따오구
21115-0-2	-도	21115-0-2	담두무너저따구
21116	사립문	21116	살감문, 싸립문
21117	뒤꼍	21117	두꺼티, 돼니
21117-0-1	-에	21117-0-1	돼니서논다구
21118	바깥	21118	바끼마당, 바까티라구주허지우
21118-0-1	-에	21118-0-1	바까티나가지
21119	모퉁이	21119	담꾸텡이, 담모텡이
21120	모서리	21120	모소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9	꾸다(借)
21219-0-1	-어야
21220	구두쇠
21221	맡기다
21222	나머지
21223	덤
21224	몫
21224-0-1	-을
21225	빚
21225-0-1	-을
21225-0-2	-에
21226	이자(利子)

21201	동네
21202	위똥네
21203	이웃
21203-0-1	우리이우찌비
21203-0-2	우리이우시서산다구
21204	마실까여
21205	새미여
21206	두레박
21207	샴:
21208	갇:떠러, 가:시, 받까생이
21208-0-1	가:시라구허지우
21208-0-2	받까시가따온다
21209	물찌게
21210	가:게
21211	싸다, 너머허려서
21212	비싸다
21213	흥정허능거
21214	거관꾸니지
21215	잔돈
21216	에누리혀달라고두허지우
21217	나문돈, 거스름똔
21218	거스러반는다구
21219	꿔:달라구
21219-0-1	꼬야
21220	짠:도리
21221	매끼능거이조
21222	나머지똔
21223	더므로더바더따
21224	내목씨
21224-0-1	내목씨를챙겨따구
21225	비슬쭤찌
21225-0-1	비슬쭤찌
21225-0-2	비시쪼달리지오
21226	이자

21227	심부름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	한두루미
21228-1	축	21228-1	함묻
21228-2	쾌	21228-2	그어또함묻
21228-3	접	21228-3	한접
21228-4	쌈	21228-4	한쌈
21228-5	두름	21228-5	한다발
21228-6	단/뭇(작은 묶음)	21228-6	한다발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21228-7	한단
21228-8	톳	21228-8	한톳
21228-9	모숨	21228-9	한주먹
21229	켤레	21229	항컬레
21230	마지기	21230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0-1	이:백평
21231	꾸러미	21231	한줄
21232	그루	21232	두:주(+두 그루)
21233	포기	21233	포기
21234	저울	21234	저울
21235	자루(包袋)	21235	자루
21235-0-1	-을	21235-0-1	자루가저오나라, 자루가저오나라
21236	하나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1	한개
21236-2	한-되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6-3	함말
21237	둘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	섿
21238-1	세-개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2	스:되
21238-3	세-말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	넫
21239-1	네-개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2	느:되

21239-3	네-말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	다섣
21240-1	다섯-개	21240-1	다섣깨
21240-2	다섯-되	21240-2	닫뙤
21240-3	다섯-말	21240-3	다섬말
21241	여섯	21241	여섣
21241-1	여섯-개	21241-1	여석깨
21241-2	여섯-되	21241-2	옅뙤
21241-3	여섯-말	21241-3	여섬말
21242	일곱	21242	일고
21242-1	일곱-개	21242-1	일고깨
21242-2	일곱-되	21242-2	일곱뙤
21242-3	일곱-말	21242-3	일곰말
21243	여덟	21243	여덜
21243-1	여덟-개	21243-1	여덜깨
21243-2	여덟-되	21243-2	여덜뙤
21243-3	여덟-말	21243-3	여덜말
21244	아홉	21244	아옵
21244-1	아홉-개	21244-1	아오깨
21244-2	아홉-되	21244-2	아옵뙤
21244-3	아홉-말	21244-3	아옴말
21245	열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1	열깨
21245-2	열-되	21245-2	열뙤
21245-3	열-말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	수물
21246-1	스무-개	21246-1	수무개
21246-2	스무-되	21246-2	수무되
21246-3	스무-말	21246-3	수무말
21247	서른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2	서른되
21247-3	서른-말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	마은
21248-1	마흔-개	21248-1	마운개

21248-2	마흔-되	21248-2	마은되
21248-3	마흔-말	21248-3	마운말
21249	쉰	21249	쉬운
21249-1	쉰-개	21249-1	쉬운개
21249-2	쉰-되	21249-2	시운되
21249-3	쉰-말	21249-3	시운말
21250	예순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	이른
21251-1	일흔-개	21251-1	이른개
21251-2	일흔-되	21251-2	이른되
21251-3	일흔-말	21251-3	이른말
21252	여든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되	21252-2	여든되
21252-3	여든-말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	아은
21253-1	아흔-개	21253-1	아은개
21253-2	아흔-되	21253-2	아은되
21253-3	아흔-말	21253-3	아은말
21254	백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1	백깨
21254-2	백-되	21254-2	백때
21254-3	백-말	21254-3	뱅말
21255	이백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되	21256-2	한두되
21256-3	한두-말	21256-3	한두말
21257	두셋	21257	*
21257-1	두세-개	21257-1	두세개
21257-2	두세-되	21257-2	두세되
21257-3	두세-말	21257-3	두세마리라구두

21258	두서넛	21258	두서넏
21258-1	두서너-개	21258-1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21258-2	두서너되
21258-3	두서너-말	21258-3	두서너말
21259	서넛	21259	센넫, 서너너덛
21259-1	서너-개	21259-1	서너개, 서너너더깨
21259-2	서너-되	21259-2	서너너더뙤
21259-3	서너-말	21259-3	서너너던말
21260	네댓	21260	네다섣, 너더댇
21260-1	네댓-개	21260-1	너더댇:깨
21260-2	네댓-되	21260-2	네덷뙤
21260-3	네댓-말	21260-3	너더댄:말
21261	대여섯	21261	대여섣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여섣깨
21261-2	대여섯-되	21261-2	대여서뙤
21261-3	대여섯-말	21261-3	대여선말
21262	예닐곱	21262	여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1	여닐고깨
21262-2	예닐곱-되	21262-2	여닐곱뙤
21262-3	예닐곱-말	21262-3	여닐곰말
21263	일여덟	21263	이려덜
21263-1	일여덟-개	21263-1	이려덜깨
21263-2	일여덟-되	21263-2	이려덜뙤
21263-3	일여덟-말	21263-3	이려덜말
21264	여덟아홉	21264	여더라옵
21264-1	여덟아홉-개	21264-1	여더라오깨(+잘 쓰지 않음),
21264-2	여덟아홉-되	21264-2	여덜아옵뙤, 여더라옵뙤
21264-3	여덟아홉-말	21264-3	여더라옴말
21265	여남은	21265	여나믄이따구
21265-1	여남은-개	21265-1	여나무개루
21265-2	여남은-되	21265-2	여나무되
21265-3	여남은-말	21265-3	여나무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2	지레기
21303	저고리	21303	저구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4	색똥저구리
21305	두렁이	21305	둘렁방아
21306	무늬	21306	무니이따구, 무느이따구
21307	고쟁이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8	바지유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매기
21310	의복	21310	입썽
21311	구겨지다	21311	쭈구러진다, 꾸겨저써
21312	옷고름	21312	옫꼬룸
21313	단추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4	동전
21315	겉	21315	겁떼기, 걷
21315-0-1	-에	21315-0-1	껍떼기가머무더따구
21315-0-2	-을	21315-0-2	겁떼기여구(+-하고)
21316	홑옷	21316	호껍떼기, 호도시라구허지우
21317	겹옷	21317	저볻, 접껃
21318	잠방이	21318	잠뱅이
21319	누더기	21319	누데기온니버따구
21320	거지	21320	동냥아치
21321	구걸	21321	동냥헌다
21322	조끼	21322	줃께, 조께
21323	내의	21323	내우이
21324	껴입다	21324	쩌이버따구
21325	소매	21325	소매
21326	주머니	21326	주먼지, 주멩이
21327	호주머니	21327	호랑
21328	허리띠	21328	허리띠, 각띠, 허리끈
21329	댕기	21329	댕기
21330	도포	21330	도포
21331	삿갓	21331	사깓

21331-0-1	-에	21331-0-1	사까시루
21332	고깔	21332	꾀꽐
21333	사모	21333	사모관대
21334	유건	21334	제관
21335	대님	21335	댄님
21336	감발	21336	*
21337	짚신	21337	집씨기
21338	미투리	21338	미투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겯다	21338-1	집씬삼:는다구지
21339	나막신	21339	나막씬, 나막깨
21340	설피	21340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명주
21401-1	명주실	21401-1	멩주실
21402	목화	21402	모콰
21402-1	목화다래	21402-1	모콰따래가
21403	무명	21403	미영
21403-1	무명실	21403-1	미영실
21404	씨아	21404	씨아시
21405	자새	21405	자새
21406	물레	21406	물레
21407	베	21407	베짠다
21408	길쌈	21408	질싸미지우
21409	골무	21409	골무
21410	반짇고리	21410	반지끄륻
21411	가위	21411	가새
21411-0-1	-을	21411-0-1	*
21411-0-2	-에	21411-0-2	가세다
21412	마르다(裁)	21412	오깜짤른다구핸는디, 뽄뜨능거, 빈:다구야지
21412-0-1	-고	21412-0-1	오깜비구이따
21412-0-2	-어라	21412-0-2	짤러라
21413	헝겊	21413	흥겁떼기
21413-0-1	-을	21413-0-1	흥겁떼기를댄다

21413-0-2	-에	21413-0-2	홍겁떼기가무더따구
21414	바늘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	바늘뀌뀌능거
21415-0-1	-고	21415-0-1	바늘뀌뀌:구이따
21415-0-2	-어라	21415-0-2	바늘뀌꾸ㅋ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느지러능거
21417	재봉틀	21417	재봉틀(+신), 자방침(+구)
21418	끈	21418	끈뎅이
21419	노끈	21419	삼끈뎅이지
21420	참바	21420	동아질, 바:라구지, 바:쭐
21421	매듭	21421	옹첨매저따구, 옹침매징거여, 옹체저따구, 매드벼(+끝을 만드는 것)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21421-1	매듭찐다구
21422	보자기	21422	보재기
21423	이불	21423	이불
21424	솜	21424	솜
21425	포근하다	21425	포그너여
21426	홑이불	21426	혼니불
21427	겹이불	21427	점니불
21427-1	솜이불	21427-1	솜니불
21428	누비이불	21428	뉘뷔이불
21429	베개	21429	버개
21430	베갯잇	21430	베게혼니불
21430-0-1	-에	21430-0-1	혼니부리
21431	목침	21431	목침
21432	퇴침	21432	퇴침
21433	방석	21433	자부둥
21434	담요	21434	담뇨
21435	빨래하다	21435	빨래한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6	빨래빵맹이
21437	빨래터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8	빨래쭐
21439	다리미	21439	대리미
21439-1	다림질	21439-1	대리미질허능
21440	인두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1	다디미빵맹이
21442	다듬잇돌	21442	다디미똑
21443	다듬이질	21443	다드미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1	설:랄
21502	설	21502	설:쇄써유, 슬:쇠믄
21503	섣달 그믐날	21503	그믐날, 스:딸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4	무근세배라구으냥
21505	올해	21505	올해, 올
21505-0-1	-는	21505-0-1	오레는
21505-1	작년	21505-1	장녀네
21505-2	재작년	21505-2	끄러끼, 재장년
21505-3	내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4	훈내년, 내후년
21505-5	내후년	21505-5	훈내년
21506	작은설	21506	스:딸그므미라고허지우
21507	윷	21507	윧까라글던지지우
21507-0-1	-을	21507-0-1	유:슬
21507-0-2	-에	21507-0-2	유까라기루마저따구
21507-1	윷놀이	21507-1	윤:논다구
21508	윷가락	21508	유까라기구, 한가락
21508-1	도	21508-1	뒈지
21508-2	개	21508-2	개:
21508-3	걸	21508-3	걸
21508-4	윷	21508-4	윧:
21508-5	모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	토, 한동
21509-1	외동무니	21509-1	헨지
21509-2	두동무니	21509-2	두동셍이
21509-3	석동무니	21509-3	석동셍이

21509-4	넉동무니	21509-4	막까능거시구(+네 개가 포개진 것), 막똥셍이지우
21509-5	막동	21509-5	막똥이지우
21509-6	단동무니	21509-6	단동치기이겨따구두허구, 단동무니
21510	보름	21510	보룸날
21510-1	삭망	21510-1	보룸상망, 초하루상망
21511	추석	21511	추성나리라구
21512	망월	21512	*
21513	쥐불놀이	21513	쥐불로리허능거유
21514	자치기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1	자근막때기, 짤분막때기
21514-2	긴막대	21514-2	자치기막때구, 진막때기유
21515	수수께끼	21515	말저룸허능거시에유
21516	호미씻이	21516	두레멍는다구지우
21517	꽹과리	21517	꽹과리, 꽹매기라구해찌
21518	장구	21518	장구
21519	곁두리	21519	새:참
21520	무당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0-1	*
21521	고수레	21521	고시레
21521-1	고수레!	21521-1	고시레::
21522	점쟁이	21522	점쟁이(+남녀 모두를 일컬음)
21523	상여(喪輿)	21523	생애
21524	굴건	21524	굴궈니라구허지우
21525	제사	21525	제사지내지우, 지사지내머
21526	제기	21526	제:기도기지우
21527	귀신	21527	구:시니지우, 처녀귀신
21528	도깨비	21528	도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1	소꼬피라구, 꼬팽이
21602	굴레	21602	굴레유(+?제)
21603	멍에	21603	멍예
21604	길마	21604	질마(+?제)

21605	부리망	21605	임마개라고해쭈
21606	구유	21606	근소박꾸수네, 소이구수
21607	작두	21607	작:뚜
21608	꼴	21608	깔빈다우해쭈
21609	여물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10	소죽쓴다해쭈
21611	쇠죽바가지	21611	소죽빠가지요
21612	수레	21612	달구지라고, 구루마라해찌오, 소구루마
21613	끌다	21613	끄스야여
21613-0-1	-고	21613-0-1	끄꾸가지요
21614	바퀴	21614	구루마바뀌
21615	새끼(繩)	21615	새내뀌, 샌내끼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새끼요
21616	망태기	21616	구러기유, 개똥망태기(+짚)
21617	멱둥구미	21617	메꾸리라구핸는디
21618	거적	21618	떼어적
21619	가마니	21619	가마니짜능거네요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니틀, 가마이틀
21620	돗자리	21620	자리주, 왕골자리
21621	자리틀	21621	이건자리트리고:
21621-1	(자리를) 짜다/치다/만들다/겯다	21621-1	영는다오주
21622	왕골	21622	왕굴푸리유
21623	삼태기	21623	삼태미
21623-1	짚 삼태기	21623-1	집쌈태미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싸리삼태미
21624	멍석	21624	멍석
21625	어레미	21625	얼멩이
21625-1	고운체	21625-1	체, 가는체:, 접체라고지오(+고운체보다 더 촘촘한 것)
21625-2	굵은체	21625-2	엉근체:
21626	대장장이	21626	대장
21627	대장간	21627	승냥까니라고, 대장까니주
21628	풀무	21628	불무
21629	모루	21629	머리똑

21630	모루채	21630	쇠망치
21631	갈퀴	21631	갈쿠
21632	집게	21632	찌께유
21633	장도리	21633	장도리네요
21633-1	노루발	21633-1	장도리날(+?조)
21634	톱	21634	톱
21634-0-1	-에	21634-0-1	토비로짤러라
21635	도끼	21635	도키, 도구치
21636	자루(柄)	21636	도구치자루
21636-0-1	-을	21636-0-1	도키자루룰자부야
21636-0-2	-에	21636-0-2	도끼짜루에
21637	갈고리	21637	깔꾸리
21638	쐐기	21638	보염
21639	송곳	21639	송고슈
21639-0-1	-에	21639-0-1	송고시로
21640	뾰족하다	21640	빼쪼거주
21641	숫돌	21641	술뚜규
21641-0-1	-에	21641-0-1	술뚜기다가르야주
21642	맷돌	21642	매똘
21642-1	수쇠	21642-1	숩쎄구
21642-2	암쇠	21642-2	암제구
21643	지게	21643	지게
21644	발채	21644	바작
21645	지게 작대기	21645	작때기요
21646	막대기	21646	막때기
21647	몽둥이	21647	몽뎅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1	빋짜락, 마당삐이꼬, 방삐짜락이꼬
21702	광주리	21702	광주리라고해쭈
21703	소쿠리	21703	소쿠리네, 대바구리, 바구리
21704	함지	21704	함박
21705	풀비	21705	풀삐유
21705-1	귀얄	21705-1	*(+사용한 적 없음)
21706	독	21706	바탱이주, 옹기바탱이옹기바탱,

		김치똑
21706-0-1	-에	21706-0-1 바탱이다너쭈
21707	물독	21707 물뚜멍
21708	항아리	21708 이게항아리지
21709	단지	21709 단지보덤
21710	물동이	21710 물똥이
21711	똬리	21711 똥아리
21712	옹기	21712 옹기그른
21713	표주박	21713 종고레기
21714	키(箕)	21714 치
21715	떡살	21715 떡판
21716	다식판	21716 다슥판
21717	시루	21717 떡씨루, 시루
21717-0-1	-을	21717-0-1 시루가주야찌주
21717-0-2	-에	21717-0-2 시루에다
21718	시룻밑	21718 시룬믿
21718-0-1	-에	21718-0-1 시룸미시, 시루미테
21719	시룻번	21719 시루뻔부치야
21720	부싯돌	21720 체돌파기로, 체독
21720-0-1	-을	21720-0-1 *
21721	부시	21721 부싣
21722	부싯깃	21722 부시쏘미라구지
21723	담배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4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21725 설때
21726	담배통	21726 담배통이요
21727	물부리	21727 빨뿌리라고, 담배꼭찌
21728	담배쌈지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0 토신디
21731	벼루	21731 벼루, 베루
21732	가락지	21732 가락찌유
21733	비녀	21733 비나
21734	참빗	21734 참빋
21734-0-1	-을	21734-0-1 챔빋가주와라

21734-0-2	-에	챔비세
21735	얼레빗	얼게빋
21736	세숫대야	세숟대대야네이건
21737	비누	세수삐누
21738	도투마리	도토마리네
21739	활대	끄실개
21740	잉앗대	잉아때는
21741	부티	부테
21742	도롱이	도렝이요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빼기	마빠기라고, 이마빠그
21803	눈자위	누나리라구
21804	검은자위	거먹창
21805	흰자위	신창이고, 눈힌창이조
21806	눈꺼풀	눈까주라, 눙꺼풀
21807	거적눈	떼우정누니라구두허구(+소), 꺼정누니라구두허구(+다)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써비마니나따구
21809	속눈썹	송누써비조
21809-0-1	-이	송눈써비기러서이뻐요
21810	눈두덩	눈퉹이, 눈텅이
21811	안경	건안경이네유
21812	안경집	앙경찝
21813	돋보기	도뽀기
21814	주름살	이마주루미조, 이맏쭈름
21814-0-1	-이	주루미느러나조
21815	앳되다	앧뙤보인다구주
21816	수염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	구렌나리조
21817-0-1	-을	21817-0-1	구렌날까꺼따고허지오
21818	코	21818	코
21818-0-1	-이	21818-0-1	코가크다고허주
21819	콧수염	21819	코썸:유
21820	코딱지	21820	코딱찌
21821	콧구멍	21821	코꾸멍
21821-0-1	-을	21821-0-1	코꾸넝을마그야주
21821-0-2	-에	21821-0-2	코에서
21822	콧물	21822	콤물
21823	입술	21823	입쑤리요
21823-0-1	-에	21823-0-1	입쑤리가밥부터따고지오
21824	다물다	21824	입다무러따구
21825	어금니	21825	아금니요
21826	덧니	21826	던니요
21827	휘파람	21827	회파라미유
21828	침	21828	침나와요
21829	삼키다	21829	음식뚜삼키야주
21830	가래(痰)	21830	가래
21831	뱉다	21831	배트야주
21832	혀	21832	서빠닥
21833	혓바늘	21833	서빠늘
21834	귓불	21834	귀뿌리요
21835	귀고리	21835	기거리
21835-1	귀걸이	21835-1	귀싸개지오
21836	귀지	21836	귀빠비유
21837	귀이개	21837	귀지개
21838	소리	21838	말쏘리가잘들리주
21839	엿듣다	21839	으-뜬는다고주
21840	귀청	21840	귀고막떠러진다구요, 귀창떠러진다고도허지
21841	귀밑	21841	귀믿
21841-0-1	-을	21841-0-1	귀미테점니따고주
21842	관자놀이	21842	영미
21843	기미	21843	기미

21844	주근깨	21844	주궁깨
21845	턱	21845	터기조
21846	턱수염	21846	터기시엄, 턱시염
21847	뺨	21847	뺨머구, 빼미
21847-1	볼	21847-1	볼, 볼때기
21848	갸름하다	21848	지름허다
21849	보조개	21849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듬	21851	비듬
21852	기계총	21852	도장뼁이유
21853	정수리	21853	쟁배기
21854	대머리	21854	대머리대따고허주
21855	고수머리	21855	곱쓸머리
21856	가르마	21856	가르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21856-1	가르매탄다고허지오
21857	가마	21857	가마
21857-1	가마(鼎)	21857-1	가마솥
21857-2	가마(轎)	21857-2	가마
21857-3	가마(질그릇)	21857-3	가마굴, 불가마
21857-4	가마(가마니)	21857-4	가마니
21858	뒤통수	21858	뒤꼭찌, 뒤통수
21859	뒷덜미	21859	목떨미주, 목떠리
21860	목	21860	모가지, 모기
21861	멱살	21861	멕쌀

2.6.2. 상체

21901	어깨	21901	어깨주
21902	밀치다	21902	어깨치능거, 미냐구
21903	겨드랑	21903	저드락
21904	등	21904	등마리, 등마루빼
21905	가슴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21906	등깜절려따, 절린다구주
21907	갈비뼈	21907	갈비뻬
21908	허파	21908	허파, 부레라구(+물고기)
21909	쓸개	21909	쓸개, 씰개

21910	콩팥	21910	콩팓
21910-0-1	-에	21910-0-1	콩파시
21910-0-2	-을	21910-0-2	콩파슬으시매야한다
21911	팔	21911	파리조
21912	팔꿈치	21912	팔꼼뱅이
21913	팔짱끼다	21913	팔짱끼구이따구주
21914	손톱	21914	손톱
21915	오른손	21915	오른손, 바르짜
21916	왼손	21916	왼손, 오얃짝, 오야짜
21917	다르다	21917	틀리게
21917-0-1	-아서	21917-0-1	*
21917-1	틀리다	21917-1	계사니틀려쪼
21918	왼손잡이	21918	왼손재비라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송꼬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0	검지라구대유
21921	가운뎃손가락	21921	가운데송꾸락
21922	약손가락	21922	네째송꼬락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새끼송꾸락
21924	생인손	21924	생인손알른다구주
21925	사마귀	21925	사막, 사마귀라오(+곤충)
21926	손아귀	21926	소나구지
21927	손목	21927	손목
21928	뼘	21928	한:뼘
21929	허리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0	지팡이유
21931	옆구리	21931	여꾸레
21932	간지럽다	21932	간지러워유
21933	간지럼	21933	간지람탠다고허주
21934	잔허리	21934	가는허리
21935	근육	21935	그늑
21936	배꼽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37	등모거는거주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1	복싸시뼈

22002	발가락	22002	발꼬락
22003	발바닥	22003	발빠다기유
22004	발톱	22004	발토비유
22005	냄새	22005	냄새마쭈
22006	고린내	22006	꼬랑내, 발꼬랑내
22007	굳은살	22007	몯빼기주, 군살
22008	정강이	22008	압쩡갱이주, 정갱이뼈여이게
22009	종아리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0	장딴지, 장따리가
22011	회초리	22011	회차리
22012	무릎	22012	무룹, 종주꾸비라고주(+-이라고)허 무루팍, 무룸팍
22012-0-1	-을	22012-0-1	무룹
22012-0-2	-에	22012-0-2	무루비
22013	오금	22013	오곰다리
22014	엉덩이	22014	엉덩이가
22015	궁둥이	22015	궁뎅이, 궁뎅짝
22016	볼기	22016	벌기친다고, 볼기친다
22017	멍	22017	먹쩌, 멍드러따구
22018	멍울	22018	몽올드릉거
22019	가랑이	22019	가주쟁이
22020	사이	22020	이빨쌔
22021	샅	22021	사탱이
22021-0-1	-이	22021-0-1	사탱이가부어따고허조
22021-0-2	-을	22021-0-2	사탱이를
22022	사타구니	22022	사타구니라고허조:
22023	가래톳	22023	몽올서따구지, 가래때서따고도허여요
22023-0-1	-을	22023-0-1	몽울만지따고허주
22024	허벅다리	22024	허벅따리
22025	넓적다리	22025	넙떡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양반다리(+신), 발저깨고안저다고(+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2026-1	발저깨고안저따고주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강기, 고뿔
22102	기침	22102	지치먼다고주
22103	재채기	22103	재치기
22104	사레	22104	사래들리능거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22104-1	사래들리능거
22105	딸꾹질	22105	퍼꾹찔
22106	트림	22106	기트름
22107	곰보	22107	곰보라고지오, 곰보딱지
22108	천연두	22108	손님
22109	여드름	22109	이드름
22110	학질	22110	초학띤다구두허주
22110-1	하루거리	22110-1	하루거리유
22110-2	이틀거리	22110-2	이틀거리주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0-3	메누리씨미라능거슨
22111	홍역	22111	저호녁걸리믄
22112	볼거리	22112	항아리손님
22113	땀띠	22113	땀때기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드레기
22115	버짐	22115	버듬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른버드미주
22115-2	진버짐	22115-2	진버드밍게베
22115-3	도장 버짐	22115-3	도장뼝이조
22116	문둥이	22116	문뎅이, 용총배기, 용촌배기
22116-1	문둥병	22116-1	문둥뼝, 용총뼝걸려따구
22117	부스럼	22117	부슬막
22117-1	종기	22117-1	종기나따구지
22118	고름	22118	고롬
22119	곰기다	22119	곰:는다구지우
22120	난쟁이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1	사팔띠기
22122	언청이	22122	얼챙이
22123	소경	22123	소이경이유
22123-1	당달봉사	22123-1	당달봉사
22124	애꾸	22124	애꼬

22125	눈곱	22125	눈껍끼주
22126	다래끼	22126	눈다럭찌, 다래기, 눈따래기낭건디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1	우이눈썹다래끼ㅣ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6-2	아랜눈썹다래끼
22127	절름발이	22127	쩔룩빠리
22128	곱사등이	22128	꿉:쌔, 꼽:쌔
22129	귀머거리	22129	귀먹짜가리
22130	말더듬이	22130	말더듬는거시라구지우
22131	벙어리	22131	벙어리라구
22132	잠꾸러기	22132	잠퉁이
22133	졸리다	22133	졸린다
22134	하품	22134	해품나온다구
22135	졸음	22135	조로몬다구두허지우
22135-0-1	-을	22135-0-1	졸리능걸참찌모더구
22135-0-2	-에	22135-0-2	*
22136	잠꼬대	22136	장꼬대

2.7. 육아

22201	입덧	22201	입떤나따구지우
22201-0-1	-을	22201-0-1	입떠슬시머게찌우
22202	갓난아이	22202	깐난댕이지우, 간난댕이
22203	어린아이	22203	어린내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4	정풍나따구대유
22205	눕히다	22205	뉘:지우
22206	계집아이	22206	어린년, 방구쟁이라구두허구(+다), 지지배라구허지우
22207	예쁘다	22207	이: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8	머스매
22209	아우타다	22209	아수탄다구지우
22209-1	아우보다	22209-1	아수본다구
22210	야위다	22210	말러따구지우
22211	쌍둥이	22211	쌍뒹이

22212	오줌	22212	오주미유
22213	똥	22213	똥눈다구
22214	기저귀	22214	지저구에다(+신), 걸레채운다구애찌(+고)
22215	뉘다(排便)	22215	뉘야지
22216	방귀	22216	방귀, 똥뀐다애찌
22216-1	뀌다	22216-1	똥뀐다
22217	구린내	22217	구룬내
22218	구리다	22218	구룬내
22219	포대기	22219	퍼대기
22220	기지개	22220	지지개쓰능거시라구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22220-1	지지개쓰능거시라구
22221	거짓말	22221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2	넘부끄럽따구지우, 너무끄럽따구
22223	겁쟁이	22223	겁쨍이
22224	불쌍하다	22224	불쌍하다허지우
22225	죄암죄암	22225	잼잼, 지암지암지암허라허찌
22226	곤지곤지	22226	꼰지꼰지
22227	따로따로	22227	섬마섬마섬마::
22228	도리도리	22228	도리도리
22229	짝짜꿍	22229	짝짜꿍
22230	부라부라	22230	불무::불무, 불무딱딱허머
22231	걸음마	22231	거름마::거름마허지
22232	아장아장	22232	아장::아장건는다구
22233	넘어지다	22233	너머지지우
22234	곤두박질	22234	곤도박지런다구
22235	안기다	22235	앵겨
22236	바람개비	22236	바람재비라구해떵가
22237	호드기	22237	호:떼기
22238	숨바꼭질	22238	찐또리, 숨바꼭찌리지
22239	소꿉놀이	22239	바꼼사리
22240	사금파리	22240	새금파리
22241	연	22241	으-ㄴ
22241-1	방패연	22241-1	방패으-ㄴ
22241-2	가오리연	22241-2	가오리으-니구

22242	걸리다	22242	걸링거는앵매기보내따허지우
22243	고누	22243	고니두눙거
22244	땅빳기	22244	땅빼끼해써유
22245	팽이	22245	뺑이
22246	딱지치기	22246	빠치치능거유
22247	구슬	22247	다마치기
22248	그네	22248	그:네타능거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8-1	그네탄다고지우
22249	밑싣개	22249	발파뉴
22250	굴렁쇠	22250	굴레바꾸, 둘레바꾸루
22251	굴리다	22251	둘레바꾸돌린다구
22251-0-1	-고	22251-0-1	돌리구댕기지우
22251-0-2	-어야	22251-0-2	둥굴려서커게뭉치야지우
22252	자전거	22252	자정거유, 자정구
22253	목말	22253	꼰내미씅거여, 몽말탠다구두해지우
22254	말타기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5	담박찔자란다구
22256	썰매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1	썰매탄다구지우
22256-2	송곳	22256-2	송곧
22257	엄살	22257	엄사런다고지우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7-1	저애기엄사러네
22258	부아	22258	분:나따구지우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1-1	아버지
22302	어머니	22302	어머이
22302-1	어머니(호칭)	22302-1	어머이, 엄니라구
22303	할아버지	22303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3-1	하라버지
22304	할머니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22304-1	할머니, 할머이
22305	남편	22305	실랑(+유), 남편(+장)
22305-1	남편(호칭)	22305-1	여보라구두(+장), 나바유그냥(+유, 다), 아무개아빠그냥허지(+유, 아이가 있을 때)
22306	아내	22306	내각씨라구지우(+유), 우리안싸라미라고두어고(+장)
22306-1	아내(호칭)	22306-1	어이(+유), 나바(+유), 누구엄마라구(+장)
22307	형	22307	우리형이라구, 우리성
22307-1	형(호칭)	22307-1	형:그러지우(+유), 형니미라구지(+장)
22308	아우	22308	동생이다
22308-1	아우(호칭)	22308-1	이름불러찌우(+유), 동생그냥(+장)
22309	누나	22309	우리누님
22309-1	누나(호칭)	22309-1	누나(+유), 눈님(+장)
22310	누이	22310	동생이다
22310-1	누이(호칭)	22310-1	이름불러찌우(+유), 동생(+장)
22311	자식	22311	우리자녀드리구, 우리새끼더리라구
22312	맏아들	22312	마다들
22313	맏딸	22313	맏딸
22314	막내	22314	망내, 망내딸, 망내아들
22315	오빠	22315	우리오빠다(+유), 오라버이(+장)
22315-1	오빠(호칭)	22315-1	오빠그냥, 오라버이그냥
22316	언니	22316	우리성(+유)
22316-1	언니(호칭)	22316-1	우리성이지(+장)
22317	아비	22317	애비
22317-1	아비(호칭)	22317-1	애비라고어구(+아이가 있을 때), 이름불러찌(+아이가 없을 때)
22318	어미	22318	에미라구지우(+아이가 있을 때), 새아이라구지(+아이가 없을 때)
22318-1	어미(호칭)	22318-1	새애기야허구(+아이가 없을 때), 에미야(+아이가 있을 때)
22319	손자	22319	손자지우
22320	손녀	22320	손녀

22321	사위	22321	사위
22321-1	사위(호칭)	22321-1	사위라고지우
22322	외손자	22322	외손자
22323	외손녀	22323	외손녀
22324	꾸짖다	22324	혼내지우, 혼침낸다구, 혼내능거여, 혼낸다구
22324-0-1	-고	22324-0-1	혼내구이따구
22324-1	나무라다	22324-1	나무래능거
22325	총각	22325	총각
22326	처녀	22326	처녀유
22327	혼인	22327	겨로늘허야지우
22327-1	혼인식	22327-1	대사지낸다해찌
22328	혼인 잔치	22328	대사잔치
22329	장가가다	22329	장가간다고지우
22329-1	시집가다	22329-1	시집까능거
22330	혼숫감	22330	농지기, 혼::수:깜
22331	함	22331	함:보내능거지우
22332	겹사돈	22332	접사두니지우
22333	새색시	22333	새대글
22333-1	새색시(호칭)	22333-1	새대기라고어지우
22334	시아버지	22334	시아버지다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아번님
22335	시어머니	22335	우리시어머니미다
22335-1	시어머니(호칭)	22335-1	어먼님
22336	비위	22336	비우룰
22337	아주버니	22337	우리시숭니미라구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1	아주번님
22338	서방님	22338	아주범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아주범
22339	도련님	22339	데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데련님
22340	형님	22340	형님
22340-1	형님(호칭)	22340-1	형님
22341	시누이	22341	시눈님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애기씨

22341-2	아가씨	22341-2	시누지우, 우리애기씨라구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애기씨
22342	올케	22342	동상이댁, 동생이댁
22342-1	올케(호칭)	22342-1	동생이댁
22343	매형	22343	매영
22343-1	매형(호칭)	22343-1	매영그르지우
22344	매제	22344	매제구
22344-1	매제(호칭)	22344-1	이서방이먼이서방, 매제라구두허구
22345	큰아버지	22345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크나버님, 크나버지허지우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둘째아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세째아버지라고지우
22346	큰어머니	22346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크너먼니미라허지우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두째어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세째어머니
22347	큰집	22347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자그나버지조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자그나버지, 삼추니라구려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자그너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자그너머니라거지우
22350	삼촌	22350	삼춘
22350-1	삼촌(호칭)	22350-1	삼춘
22351	아저씨	22351	당수기라구해유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당수거지우
22352	아주머니	22352	당고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당고모
22353	조카	22353	조카
22354	조카딸	22354	조카딸
22355	고모	22355	고모라고지우
22355-1	고모(호칭)	22355-1	고모, 고모님
22356	고모부	22356	처녀유,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고모부
22357	고종	22357	고종사추니네
22358	이모	22358	이모

22358-1	이모(호칭)	22358-1	이모님, 이모
22359	이모부	22359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이모부허지우
22360	이종	22360	이종사춘가니지우
22361	외삼촌	22361	오삼춘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외삼춘
22362	외숙모	22362	오이숭모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외숭모
22363	외종	22363	외사춘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외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외하라버지
22365	외할머니	22365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오얄머니
22366	장인	22366	장:이니지우
22366-1	장인(호칭)	22366-1	장이너른
22367	장모	22367	장몬님
22367-1	장모(호칭)	22367-1	장:몬님
22368	처남	22368	처남
22368-1	처남(호칭)	22368-1	처남허지우
22369	처남댁	22369	처나무댁
22369-1	처남댁(호칭)	22369-1	처나무댁
22370	홀아비	22370	호래비
22371	홀어미	22371	과부
22372	계모	22372	스:모
22372-1	계부	22372-1	이부다버지
22373	아저씨	22373	이웁아저씨라구, 이웁찝아자씨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아저씨
22374	아주머니	22374	아주머이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4-1	아주머이
22375	사나이	22375	장:정이라구
22376	영감	22376	으-ㅇ감허데유
22376-1	할망구	22376-1	할망구
22377	나이	22377	나이를먹찌우
22377-0-1	-를	22377-0-1	나이를먹찌우
22378	환갑	22378	한:갑

22378-1	환갑 잔치	22378-1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22379	사투리말헌다구지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1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22402	민물꼬기
22403	피라미	22403	치리
22404	지느러미	22404	지스레미, 지느레미덩가
22405	아가미	22405	아가미
22406	창자	22406	창자가드러찌우, 창새기유
22407	송사리	22407	송사리
22408	헤엄	22408	헤엄치구댕기지우
22409	메기	22409	미기
22410	자라	22410	자라
22411	거북	22411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22412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22413	개구리, 깨구락찌
22414	올챙이	22414	올챙이
22415	두꺼비	22415	두꺼비네, 두께비
22416	거머리	22416	그머리
22417	다슬기	22417	민물다슥
22418	우렁이	22418	올갱이, 우렁
22419	고둥	22419	배꼽꼬등은
22420	달팽이	22420	달팽이
22421	새우	22421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밈물쌔오간네유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민물새우조, 새오새끼지우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대와
22421-4	새우(바다 소)	22421-4	중와
22422	새우젓	22422	새우젇
22422-0-1	-이	22422-0-1	새우저시짜다

22423	가재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4	갈치네
22425	고등어	22425	고둥어
22426	가오리	22426	가오리
22427	가자미	22427	강재밍가, 가재미
22428	멸치	22428	멸치
22429	명태	22429	명태
22429-1	동태	22429-1	동태지유
22429-2	황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3	노가리
22429-4	북어	22429-4	부거
22429-5	생태	22429-5	생태
22430	조기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1	도미, 되미되미
22432	뱀장어	22432	밈물짱어유
22433	낚시	22433	낙씨
22434	미끼	22434	이깝, 낙씨빱
22435	낚싯대	22435	낙씨때
22436	얼레	22436	자새
22437	조개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38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버러지
22502	날벌레	22502	날벌레
22503	파리	22503	퍼리
22503-1	쉬파리	22503-1	쉬퍼리
22504	쉬슬다	22504	쉬:시러따구
22505	가시	22505	고자리, 똥꼬자리
22506	진딧물	22506	진뜨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앉다/생기다	22506-1	진뜨물쩌따
22507	잠자리	22507	잠자리유
22508	방아깨비	22508	땅개비유, 송장땅개비네
22508-1	암컷	22508-1	땅개비암노문암노미라구해찌
22508-2	수컷	22508-2	수땅개비

22509	메뚜기	22509	모때기두이꾸, 메뚜기는
22510	여치	22510	으-르치네
22511	사마귀	22511	사마귀네, 사마귀땅가비
22512	벌	22512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2-1	키우지우
22513	땅벌	22513	바다리(+소), 왕텡이는(+대), 땅버리지우, 오빠시두이꾸
22514	나비	22514	나비네
22515	하루살이	22515	하루사리
22516	풍뎅이	22516	풍뎅이
22517	모기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8	*
22519	매미	22519	매:미네유
22520	개똥벌레	22520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22521	개똥부류
22522	거미	22522	거:미네
22523	굼벵이	22523	굼벵이
22524	구더기	22524	고자리지우
22525	노래기	22525	노래기
22526	그리마	22526	설렝이, 서레미
22527	지네	22527	지네
22528	개미	22528	개미
22529	바구미	22529	바그미, 바귀미머그먼
22530	진드기	22530	진디
22531	벼룩	22531	벼룩
22532	이	22532	이:
22532-1	서캐	22532-1	서캐
22532-2	빈대	22532-2	빈대
22533	송충이	22533	송충이, 송칭이
22534	귀뚜라미	22534	귀뚜라미
22535	누에	22535	뉘에
22536	고치	22536	뉘에꼬치
22537	번데기	22537	뻔데기유
22538	지렁이	22538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22539	회

22540	소금쟁이	22540	소금쟁이
22541	방개	22541	물깡궁가, 물빵개, 물빵구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짐승이만타호지우
22602	암소	22602	암:소
22603	송아지	22603	송아치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네:미네:미그냥허데유
22605	황소	22605	황소, 숨소더러황소라구지
22606	길들이다	22606	질디린다구지우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와와허먼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22606-3	(+고삐를 오른쪽으로 잡아 끈다)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22606-4	쩌쩌쩌쩌허먼여피루가구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무:라무라허지우
22607	쇠고기	22607	소고기라구헝게
22608	고기(肉)	22608	고기라구허지우
22609	둘치	22609	둘치
22610	꼬리	22610	꽁지, 소꼬리
22611	망아지	22611	망아지라구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귀
22613	갈기	22613	목털
22614	돼지	22614	뒈지지우
22614-1	멧돼지	22614-1	멛뛔지
22615	주둥이	22615	주뎅이루
22616	돼지 머리	22616	뒈지대갈
22617	돼지우리	22617	뒈지오양
22617-1	오래오래	22617-1	오래오래오래오래허지유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숭캐
22618-2	암캐	22618-2	암:캐
22619	강아지	22619	강아지
22620	염소	22620	염성이, 염생이, 염소
22621	고양이	22621	고양이, 괭:이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숭코양이지우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앙코양이
22622	토끼	22622	퉤끼, 퇴끼
22623	거위(鵝)	22623	때께우
22624	암탉	22624	암탁
22625	병아리	22625	병아리
22626	모으다	22626	모아, 모야논다구지우
22627	수탉	22627	장닥
22627-0-1	-이	22627-0-1	장다기울면
22628	벼슬(鷄冠)	22628	벼슬
22629	부리	22629	주뎅이
22630	모이	22630	마시
22630-0-1	-을	22630-0-1	마시를
22630-1	모이다	22630-1	모아들지우
22631	닭털	22631	닥털
22632	닭똥	22632	닥똥
22633	어리	22633	닥퉁거리
22634	닭장	22634	닥짱
22635	둥우리	22635	닥퉁가리
22636	날개	22636	날개
22637	깃	22637	*
22637-0-1	-을	22637-0-1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1	호랑잉가
22702	살쾡이	22702	살가지, 살쾡이, 살쾡잉가
22703	여우	22703	여수
22704	원숭이	22704	원숭이, 원셍이
22705	사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1	노루가마네따
22706-0-2	-를	22706-0-2	노루럴자버따
22707	고슴도치	22707	고든도시, 고돈다시, 고돈도시
22708	두더지	22708	두지기
22709	족제비	22709	쪽쩨비
22710	뱀	22710	뱜:, 베암

22711	도마뱀	22711	동아배아미네
22712	구렁이	22712	구렁이, 구링이는
22713	살모사	22713	살모사가
22714	생쥐	22714	새앙쥐
22715	박쥐	22715	박:쮜
22716	거꾸로	22716	꺼꿀로매달리지우
22717	다람쥐	22717	다람지
22718	새(鳥)	22718	날찜승, 새
22719	꽁지	22719	꽁지빠저따구
22720	솔개	22720	소루개
22721	독수리	22721	독쑤링가
22722	제비(燕)	22722	제비
22723	두루미	22723	두루미두이꾸
22724	소쩍새	22724	서쪽쌔
22725	꿩	22725	꿩:이네유
22726	장끼	22726	쟁끼라구혀
22727	까투리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27-1	꿩새끼라구
22728	종달새	22728	종달새라쏘리는
22729	뻐꾸기	22729	뻐꾹쌔
22730	기러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1	뜸부깅가봐
22732	올빼미	22732	오빼미, 올빼미
22733	까치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4	딱따구리
22735	덫	22735	돈논능거
22735-0-1	-을	22735-0-1	도설로야지
22736	올가미	22736	올개미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1	진달예, 진달래는

22802	철쭉꽃	22802	철쭈꼳
22803	민들레	22803	민들레라구두허구
22804	맨드라미	22804	맨드롸미
22805	봉선화	22805	봉숭와
22806	꽈리	22806	꽈:루여
22807	해바라기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8	꼳뽕오리
22809	시들다	22809	시드러진다
22810	질경이	22810	질겡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1	질겡이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0-2	질겡이
22811	삘기	22811	삐:비
22812	비름	22812	비드미유
22813	쇠비름	22813	소이비듬
22814	씀바귀	22814	씀바귀, 쓴나무리
22815	고들빼기	22815	꼬돌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1	고들빼기를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5-2	꼬들빼기짠지
22816	고사리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8	도둥놈나무네
22819	도꼬마리	22819	메누리미정개라
22820	억새	22820	웍쌔
22821	갈대	22821	갈 때, 갈꼳
22822	이끼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루
22824	담쟁이	22824	담쟁이유(+?제)
22825	수세미	22825	쑤세미
22826	덩굴	22826	넝쿨
22827	덤불	22827	덤풀
22827-1	가시덤불	22827-1	가시덤풀
22828	잔디	22828	잔디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2	솔빵울
22903	관솔	22903	솔꽹이
22904	솔가리	22904	솔까루
22905	그러모으다	22905	글거모데서
22906	뽕나무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7	오다
22908	도토리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09	도토리나무
22910	상수리	22910	상:수리
22911	옻	22911	옫
22911-0-1	-으로	22911-0-1	오돌론다
22912	버드나무	22912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3	정자나무, 느티나무가
22914	그림자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4-1	그늘찌라구
22915	숲	22915	숩
22915-0-1	-을	22915-0-1	수불다
22915-0-2	-에	22915-0-2	수페드러가면, 수베드러가면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원허지오
22917	찔레	22917	찔리라구해써
22918	칡	22918	칙뿌리
22918-0-1	-에	22918-0-1	치게걸려서
22919	가지(枝)	22919	가지, 가젱이
22920	끝	22920	나무까지끋
22920-0-1	-이	22920-0-1	끄시라구지우
22920-0-2	-에	22920-0-2	*
22920-0-3	-을	22920-0-3	끄시다언저
22921	삭정이	22921	삭쩡가지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22921-1	짤른다구해야지우
22922	나무	22922	나무허러
22922-0-1	-을	22922-0-1	나무럴
22922-0-2	-에	22922-0-2	나무에연걸려따그러지
22923	나무하다	22923	나무허러간다구지우
22924	그루터기	22924	등컬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4-1	뿌리지우

22925	등걸	22925	등컬
22926	장작	22926	장작
22927	패다	22927	팬다구
22928	부스러기	22928	장적뿌스레기
22929	숯	22929	숟
22929-0-1	-이	22929-0-1	수시만타
22929-0-2	-을	22929-0-2	수술구워서팔지우
22929-0-3	-에	22929-0-3	수세부리부터
22930	불잉걸	22930	숟뿔
22931	싹	22931	싸기나오지우
22932	잎	22932	근이파리
22932-0-1	-을	22932-0-1	입싸구따오라
22932-1	잎사귀	22932-1	입싸구라구해찌오
22933	가랑잎	22933	가랑닙
22934	뿌리	22934	뿌리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2	도빼
23003	복숭아	23003	복쑹아
23004	곶감	23004	꼬깜
23005	홍시	23005	물렁감, 홍시가
23006	고욤	23006	고염
23007	살구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8	앵두가
23009	자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	오야
23010-0-1	-을	23010-0-1	오야를따라오러지
23011	석류	23011	성뉴, 성누라해찌성누
23012	모과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4	꼭찌지우
23015	밤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1	밤숭어리
23015-2	풋밤	23015-2	푿빰

23015-3	알밤	23015-3	알밤
23015-4	쌍동밤	23015-4	쌍밤
23016	보늬	23016	번데기
23017	호두	23017	호두라구해지우
23018	가래(楸子)	23018	*
23019	개암	23019	개금
23020	머루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1	다래란쏘린
23022	청미래덩굴	23022	멍감
23023	으름	23023	어름, 으름
23024	참외	23024	차뫼
23025	딸기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1	딸기라구허지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2	뱜:딸기라구, 멍석딸구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3	복뿐자는(+?조), 멍석딸기는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4	그게산딸기우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5	산딸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5-6	산딸기
23026	뱀딸기	23026	뱜딸기
23027	마름(菱)	23027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산꼭떼기
23102	기슭	23102	산끼슬기다가
23102-0-1	-에	23102-0-1	산끼슬기다가
23103	골짜기	23103	산꼬랑, 고라당
23104	메아리	23104	메아리치능거
23105	고함	23105	괌:질른다구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5-1	괌:질른다구
23106	묘	23106	모이
23107	뫳자리	23107	모읻짜리본다구지우

23107-1	광중	23107-1	관중이라구허거찌우(+?제)
23108	구덩이	23108	구데기
23109	비탈	23109	비알, 산삐알
23110	가파르다	23110	갑쩌따구지우
23111	언덕	23111	엉덕, 언더기라구허지우, 어덕
23112	낭떠러지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	드:른
23113-0-1	-에	23113-0-1	드:레, 드:리
23114	벌	23114	벌파는
23115	갈림길	23115	갈릉끼리지
23116	헤어지다	23116	헤어지야지
23117	바위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1	바위를
23117-0-2	-에	23117-0-2	바우에
23118	돌(石)	23118	돌
23118-0-1	-을	23118-0-1	도:리만타구해야지우(+-이)
23118-0-2	-에	23118-0-2	도:게마저주거따구
23119	자갈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0-0-1	모래퍼오라구
23121	진흙	23121	지늑
23121-1	찰흙	23121-1	차륵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1	물
23202	거품	23202	버큼
23203	개운하다	23203	개우너다구
23204	도랑	23204	또랑
23204-1	봇도랑	23204-1	물꼬랑
23205	둑	23205	뚝싼는다구지우
23206	잠기다	23206	잠기지우
23207	개울	23207	개울물
23208	내(川)	23208	내깔
23209	미역 감다	23209	미역깜는다구지우
23210	발가숭이	23210	뻘거등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모교건다구
23212	수채	23212	수채
23213	개골창	23213	갱고랑, 갱구랑
23214	시궁창	23214	시금창
23215	웅덩이	23215	웅뎅이
23216	수렁	23216	수랑
23217	늪	23217	스퍼다구, 습, 습꾸데기
23217-0-1	-에	23217-0-1	스비빠저따구, 스꾸데기빠저따구
23218	배(船)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	돋
23220-0-1	-에	23220-0-1	도시:
23221	돛대	23221	도때
23222	돛배	23222	돋딴배
23223	돛 줄	23223	돋쭐이네
23224	닻 줄	23224	다:쭐
23225	거루	23225	똑딱빼
23226	상앗대	23226	사때
23227	개(펄)	23227	바다뻘, 개뻐른
23228	뭍	23228	육찌에간다굴지우
23228-0-1	-으로	23228-0-1	육찌루시집가따구해야지우
23229	밀물	23229	들물
23230	썰물	23230	쓸물
23231	가라앉다	23231	가란찌우
23232	그물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33	해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2	새복빱
23303	아침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4	아침빱
23305	점심	23305	점신
23306	저녁	23306	저녁
23307	설핏하다	23307	어슴푸르더다

23308	노을	23308	노을저따구
23308-0-1	-을	23308-0-1	북쌔보구이따구
23309	불그레하다	23309	빨가녀
23310	해거름	23310	해질무러비
23311	땅거미	23311	땅거미질때
23312	봄	23312	봄철
23313	여름	23313	여름철
23314	더위	23314	더위멍는다구
23315	추위	23315	추위탄다
23316	가을	23316	가을철
23316-0-1	-에	23316-0-1	가으리허지우
23317	겨울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7-0-1	겨우레
23318	얼음	23318	어름
23319	오늘	23319	오눌
23320	내일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1	모례
23322	글피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6	그끄저께
23327	훗날	23327	후:제
23328	하룻날	23328	초하룬날
23329	이튿날	23329	초이튼날
23330	사흗날	23330	초사흔날
23331	나흗날	23331	초나흔날
23332	닷샛날	23332	초다쌘날
23333	엿샛날	23333	초여쌘날
23334	이렛날	23334	초이렌날
23335	여드렛날	23335	초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23336	초아으렌날
23337	열흘날	23337	여를랄
23338	하루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1	나흘
23342	닷새	23342	닫쌔
23343	엿새	23343	여쌔
23344	이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으레
23347	열흘	23347	여를
23348	한나절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	그믐날
23349-1	그믐께	23349-1	그믕끼
23350	지금	23350	지끔먹짜
23351	아직	23351	아직암머거써유
23352	이제	23352	이제머글라구
23353	이미	23353	이미느저따구
23354	요즈음	23354	요즘(+구), 요새뜨시지(+신)
23355	금방	23355	금방머거써유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볕	23401	벼테말리야지
23401-0-1	-이	23401-0-1	벼시잘드는고세
23401-0-2	-을	23401-0-2	벼슬쪼인다
23402	따스하다	23402	따뜨더다
23403	아지랑이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4	응다리라구두허지
23405	양달	23405	양지
23406	비(雨)	23406	비
23407	가랑비	23407	가랑비라구두혀찌
23408	이슬비	23408	이스랭이와
23409	안개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0	이스랑비
23411	무지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2	쏘나기, 쏘내기
23413	갑자기	23413	갑짜기

23414	홍수	23414	홍수나따고지우
23415	번개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18	무섭찌우
23419	함박눈	23419	함방눈
23420	싸락눈	23420	싸래기,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23421	눈짜욱, 발짜욱
23422	진눈깨비	23422	지눅깨비
23423	우박	23423	오박
23424	고드름	23424	고두룸
23425	햇무리	23425	해마루
23426	달무리	23426	달마루
23427	둥글다	23427	똥골지
23428	은하수	23428	으나수는
23429	금성	23429	새벽뼈리라구는허지우
23430	가뭄	23430	가뭄드러따구
23431	마르다	23431	잘말르지
23431-0-1	-어서	23431-0-1	잘말러서조타
23432	위	23432	우이
23433	아래	23433	아래
23434	왼쪽	23434	오여쪽, 오야쪽
23435	오른쪽	23435	바루쪽
23436	곁	23436	저티
23436-0-1	-에	23436-0-1	저티
23437	회오리바람	23437	헤오리바람, 돌풍이라구두허구
23438	북풍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39	마파람
23440	동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41	서풍

=2	평치능거시지오
	(+넓은 두둑을 만드는 것)
=2	날릴기가(+날씨가)
=2	벤난만(+벼낱알)

=2 집터매가꾸라구허지우
=2 디림지러능거
=2 매가러서
=2 북떼기유(+벼이삭)
=2 쑤수파딴지해주능거
=2 쑤수망세기
=2 꺼푸른
=2 이송아리
=2 소쎄기다
=2 불래능거
=2 큼크머게(+컴컴하게)
=2 댕대미넝쿨루만드릉거
=2 으-ㄷ뽀넝거
=2 성주빠텡이
=2 떠부서놔따(+퍼붓다)
=2 구열때(+귀할 때)
=2 허틈서리
=2 바텡이
=2 터서리
=2 모콰쏭오리
=2 모콰쏭이
=2 정쟁이
=2 신소사서인자(+신솟다)
=2 한심신다구유
=2 터우리는
=2 따그랭이저서
=2 함:지내비라구
=2 상느미라구
=2 이늘달링거
=2 까그매
=2 솔뿌리
=2 가랑눈
=2 달버유
=2 달러유

제3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가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테보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가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태보다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떼가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떼보다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가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때보다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트리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틀보다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터리만타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털보다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그리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글보다
31008-0-1 걸(윷)-이/가	31008-0-1 거리
31008-0-2 걸(윷)-보다	31008-0-2 걸보다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기가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기보다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귀가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귀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시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1 쉬가
31012-0-2 쉬(蠅卵)-보다	31012-0-2 쉬보다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쇠가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쇠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외구기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외국뽀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구기
31015-0-2	왜국(倭國)-보다	외국뽀다
31016	쉬:다(休)	쉰:다
31017	쇠:다(설을～)	센:다고지우
31018-0-1	베(布)-이/가	베가
31018-0-2	베(布)-보다	베보다
31019-0-1	배(船)-이/가	배가
31019-0-2	배(船)-보다	배보다
31020-0-1	배(腹)-이/가	배가
31020-0-2	배(腹)-보다	배보다
31021-0-1	(떡)메-이/가	메가
31021-0-2	(떡)메-보다	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매가
31022-0-2	매(鞭)-보다	매보다
31023	메:다(擔)	멘:다
31024	매:다(繫)	맨:다
31025	떼:다(分離)	뗀:다
31026	때:다(炊)	땐:다
31027	베:다(切斷)	벤:다
31028	배:다(孕胎)	애기밴:다
31029	세:다(算)	센:다
31030	새:다(漏泄)	샌:다
31031-0-1	뒤(後)-이/가	뒤
31031-0-1	뒤(後)-이/가	내뒤가
31031-0-2	뒤(後)-보다	뒤보다
31032-0-1	되(升)-이/가	되가
31032-0-1	되(升)-이/가	되가크다
31032-0-2	되(升)-보다	되보다
31033-0-1	게:(蟹)-이/가	게가
31033-0-2	게:(蟹)-보다	게보다
31034-0-1	개:(犬)-이/가	개가
31034-0-2	개:(犬)-보다	개보다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2 여럳뽀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3 여러슬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1 물껴리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2 물껼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3 물껴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예의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2 예의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3 예의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1 게에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2 게엑뽀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3 게에글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1 귀치기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2 귀칙뽀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3 귀치글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쉬:리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2 쉬:일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3 쉬:이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교통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3 교통을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1 효:자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2 효: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3 효:자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웬니리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2 웬닐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3-0-3 웬니를
31044-0-1 궤:(짝)(櫃)-이/가	31044-0-1 궤짜기
31044-0-2 궤:(짝)(櫃)-보다	31044-0-2 궤짝뽀다
31044-0-3 궤:(짝)(櫃)-을/를	31044-0-3 궤짜글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왜라니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2 왜란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0-3 왜라늘
31046-0-1 횃대(鷄架)-이/가	31046-0-1 홰때가
31046-0-2 횃대(鷄架)-보다	31046-0-2 헤때보다

31046-0-3 횃대(鷄架)-을/를 31046-0-3 헤때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원망이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2 원망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3 원망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권투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권투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3 권트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1 으노니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2 으논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0-3 으노늘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무니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2 무니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0-3 무니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1 왕이
31051-0-2 왕(王)-보다 31051-0-2 왕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1-0-3 왕을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1 과자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2 과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0-3 과자를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1 이:리
31053-0-2 일(一)-보다 31053-0-2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1 이:리
31054-0-2 일:(事)-보다 31054-0-2 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1 매가
31055-0-2 매(鞭)-보다 31055-0-2 매보다
31056-0-1 매:(鷲)-이/가 31056-0-1 매가
31056-0-2 매:(鷲)-보다 31056-0-2 매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1 바미
31057-0-2 밤(夜)-보다 31057-0-2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1 바:미
31058-0-2 밤:(栗)-보다 31058-0-2 밤: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1 누니박따
31059-0-2 눈(眼)-보다 31059-0-2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1 누:니
31060-0-2 눈:(雪)-보다	31060-0-2 눈: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1 마:리
31061-0-2 말(馬)-보다	31061-0-2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1 마리
31062-0-2 말(斗)-보다	31062-0-2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1 마리
31063-0-2 말:(言)-보다	31063-0-2 말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소니와따
31064-0-2 손(客)-보다	31064-0-2 손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니크다
31065-0-2 손(手)-보다	31065-0-2 손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소니
31066-0-2 손:(孫)-보다	31066-0-2 손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가
31067-0-2 배(梨)-보다	31067-0-2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배가
31068-0-2 배:(倍)-보다	31068-0-2 배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벌바더따
31069-0-2 벌(罰)-보다	31069-0-2 벌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버리
31070-0-2 벌:(蜂)-보다	31070-0-2 벌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리
31071-0-2 솔(松)-보다	31071-0-2 솔보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리
31072-0-2 솔:(刷)-보다	31072-0-2 솔: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주리
31073-0-2 줄(鉉)-보다	31073-0-2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31074-0-2 줄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도리
31075-0-2 돌:(石)-보다	31075-0-2 돌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다미
31076-0-2 담(牆)-보다	31076-0-2 담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1 다미

31077-0-2 담:(膽)-보다	31077-0-2 담:보다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드:리
31078-0-2 들:(野)-보다	31078-0-2 들:보다
31079-0-1 달-(懸)-고	31079-0-1 달더라
31079-0-1 달-(懸)-더라	31079-0-1 달더라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더라
31080-0-1 달-(甘)-더라	31080-0-1 달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1 달더라
31081-0-1 달:-(熱)-더라	31081-0-1 달더라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더라
31082-0-1 갈-(換)-더라	31082-0-1 갈더라
31083-0-1 갈-(磨)-고	31083-0-1 갈:더라
31083-0-1 갈-(磨)-더라	31083-0-1 갈:더라
31084-0-1 갈:-(耕)-고	31084-0-1 갈:더라
31084-0-1 갈:-(耕)-더라	31084-0-1 갈:더라
31085-0-1 걷-(收)-고	31085-0-1 거:떠라
31085-0-1 걷-(收)-더라	31085-0-1 거:떠라
31086-0-1 걷:-(步)-고	31086-0-1 거:떠라
31086-0-1 걷:-(步)-더라	31086-0-1 거:떠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적:떠라
31087-0-1 적-(書)-더라	31087-0-1 적:떠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작:떠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즉:떠라
31088-0-1 적:-(小)-더라	31088-0-1 작:떠라
31088-0-1 적:-(小)-더라	31088-0-1 즉:떠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 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찌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았/었다) 32001-0-5 마갇따
32001-0-5 막-(防)[ㄱ]-아/어(았/었다) 32001-0-5 마거따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흘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흘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흘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흘르니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았/었다) 32002-0-5 흘러따
32003-0-1 오-(來)[ㅗ]-지 32003-0-1 오지
32003-0-2 오-(來)[ㅗ]-고 32003-0-2 오고
32003-0-3 오-(來)[ㅗ]-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ㅗ]-으니까 32003-0-4 오니까
32003-0-5 오-(來)[ㅗ]-아/어(았/었다) 32003-0-5 와따
32004-0-1 듣-(聞)[ㄷ변]-지 32004-0-1 듣찌
32004-0-2 듣-(聞)[ㄷ변]-고 32004-0-2 득꼬
32004-0-3 듣-(聞)[ㄷ변]-더라 32004-0-3 드떠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변]-아/어(았/었다) 32004-0-5 드러따
32005-0-1 많:-(多)[ㄶ]-지 32005-0-1 만:치
32005-0-2 많:-(多)[ㄶ]-고 32005-0-2 만:코
32005-0-3 많:-(多)[ㄶ]-더라 32005-0-3 만트라
32005-0-4 많:-(多)[ㄶ]-으니까 32005-0-4 마느니까
32005-0-5 많:-(多)[ㄶ]-아/어(았/었다) 32005-0-5 마나따
32006-0-1 맡-(任)[ㅌ]-지 32006-0-1 마찌
32006-0-2 맡-(任)[ㅌ]-고 32006-0-2 맏꼬
32006-0-3 맡-(任)[ㅌ]-더라 32006-0-3 마떠라
32006-0-4 맡-(任)[ㅌ]-으니까 32006-0-4 마트니까
32006-0-5 맡-(任)[ㅌ]-아/어(았/었다) 32006-0-5 마터따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알:지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알:고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아르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았/었다) 32007-0-5 아라따
32008-0-1 감:-(閉眼)[ㅁ]-지 32008-0-1 감:찌
32008-0-2 감:-(閉眼)[ㅁ]-고 32008-0-2 감:꼬

32008-0-3 감:-(閉眼)[ㅁ]-더라
32008-0-4 감:-(閉眼)[ㅁ]-으니까
32008-0-5 감:-(閉眼)[ㅁ]-아/어(았/었다)
32009-0-1 벗-(脫)[ㅅ]-지
32009-0-2 벗-(脫)[ㅅ]-고
32009-0-3 벗-(脫)[ㅅ]-더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32009-0-5 벗-(脫)[ㅅ]-아/어(았/었다)
32010-0-1 옳-(可)[ㄹ]-지
32010-0-2 옳-(可)[ㄹ]-고
32010-0-3 옳-(可)[ㄹ]-더라
32010-0-4 옳-(可)[ㄹ]-으니까
32010-0-5 옳-(可)[ㄹ]-아/어(았/었다)
32011-0-1 입-(着衣)[ㅂ]-지
32011-0-2 입-(着衣)[ㅂ]-고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32011-0-5 입-(着衣)[ㅂ]-아/어(았/었다)
32012-0-1 바꾸-(換)[ㅜ]-지
32012-0-2 바꾸-(換)[ㅜ]-고
32012-0-3 바꾸-(換)[ㅜ]-더라
32012-0-4 바꾸-(換)[ㅜ]-으니까
32012-0-5 바꾸-(換)[ㅜ]-아/어(았/었다)
32013-0-1 덮-(覆)[ㅍ]-지
32013-0-2 덮-(覆)[ㅍ]-고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32014-0-1 묻:-(問)[ㄷ변]-지
32014-0-2 묻:-(問)[ㄷ변]-고
32014-0-3 묻:-(問)[ㄷ변]-더라
32014-0-4 묻:-(問)[ㄷ변]-으니까
32014-0-5 묻:-(問)[ㄷ변]-아/어(았/었다)
32015-0-1 낫:-(癒)[ㅅ변]-지
32015-0-2 낫:-(癒)[ㅅ변]-고

32008-0-3 감:떠라
32008-0-4 가므니까
32008-0-5 가마따
32009-0-1 벋찌
32009-0-2 벋꼬
32009-0-3 벋떠라
32009-0-4 버스니까
32009-0-5 버서따
32010-0-1 올치
32010-0-2 올코
32010-0-3 올터라
32010-0-4 오르니까
32010-0-5 오라따
32011-0-1 입:찌
32011-0-2 입:꼬
32011-0-3 입:떠라
32011-0-4 이브니까
32011-0-5 이버따
32012-0-1 바꾸지
32012-0-2 바꾸고
32012-0-3 바꾸더라
32012-0-4 바꾸니까
32012-0-5 바꿔따
32013-0-1 덥찌
32013-0-2 덥꼬
32013-0-3 덥떠라
32013-0-4 더프니까
32013-0-5 더퍼따
32014-0-1 묻찌
32014-0-2 묻꼬
32014-0-3 묻떠라
32014-0-4 무르니까
32014-0-5 무러따
32015-0-1 난:찌
32015-0-2 난:꼬

32015-0-3 낫:-(癒)[ㅅ변]-더라
32015-0-4 낫:-(癒)[ㅅ변]-으니까
32015-0-5 낫:-(癒)[ㅅ변]-아/어(았/었다)
32016-0-1 닫-(閉)[ㄷ]-지
32016-0-2 닫-(閉)[ㄷ]-고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32017-0-1 쫓-(追)[ㅊ]-지
32017-0-2 쫓-(追)[ㅊ]-고
32017-0-3 쫓-(追)[ㅊ]-더라
32017-0-4 쫓-(追)[ㅊ]-으니까
32017-0-5 쫓-(追)[ㅊ]-아/어(았/었다)
32018-0-1 베:-(枕)[ㅐ]-지
32018-0-2 베:-(枕)[ㅐ]-고
32018-0-3 베:-(枕)[ㅐ]-더라
32018-0-4 베:-(枕)[ㅐ]-으니까
32018-0-5 베:-(枕)[ㅐ]-아/어(았/었다)
32019-0-1 깨:-(破)[ㅐ]-지
32019-0-2 깨:-(破)[ㅐ]-고
32019-0-3 깨:-(破)[ㅐ]-더라
32019-0-4 깨:-(破)[ㅐ]-으니까
32019-0-5 깨:-(破)[ㅐ]-아/어(았/었다)
32020-0-1 펴-(伸)[ㅕ]-지
32020-0-2 펴-(伸)[ㅕ]-고
32020-0-3 펴-(伸)[ㅕ]-더라
32020-0-4 펴-(伸)[ㅕ]-으니까
32020-0-5 펴-(伸)[ㅕ]-아/어(았/었다)
32021-0-1 밝-(明)[ㄺ]-지
32021-0-2 밝-(明)[ㄺ]-고
32021-0-3 밝-(明)[ㄺ]-더라
32021-0-4 밝-(明)[ㄺ]-으니까
32021-0-5 밝-(明)[ㄺ]-아/어(았/었다)
32022-0-1 삶:-(烹)[ㄻ]-지
32022-0-2 삶:-(烹)[ㄻ]-고

32015-0-3 나:떠라
32015-0-4 나스니까
32015-0-5 나서따
32016-0-1 다찌
32016-0-2 닫꼬
32016-0-3 다떠라
32016-0-4 다드니까
32016-0-5 다다따
32017-0-1 쪼찌
32017-0-2 쫃꼬
32017-0-3 쪼떠라
32017-0-4 쪼추니까
32017-0-5 쪼차따
32018-0-1 베지
32018-0-2 베고
32018-0-3 베더라
32018-0-4 베니까
32018-0-5 벼:따
32019-0-1 깨지
32019-0-2 깨고
32019-0-3 깨더라
32019-0-4 깨니까
32019-0-5 깯:따
32020-0-1 피지
32020-0-2 피고
32020-0-3 피더라
32020-0-4 피니까
32020-0-5 펴:따
32021-0-1 박찌
32021-0-2 박꼬
32021-0-3 박떠라
32021-0-4 발그니까
32021-0-5 발가따
32022-0-1 쌈:찌
32022-0-2 쌈:꼬

32022-0-3 삶:-(烹)[ㄹ]-더라
32022-0-4 삶:-(烹)[ㄹ]-으니까
32022-0-5 삶:-(烹)[ㄹ]-아/어(았/었다)
32023-0-1 읊-(吟)[ㄻ]-지
32023-0-2 읊-(吟)[ㄻ]-고
32023-0-3 읊-(吟)[ㄻ]-더라
32023-0-4 읊-(吟)[ㄻ]-으니까
32023-0-5 읊-(吟)[ㄻ]-아/어(았/었다)
32024-0-1 밟:-(踏)[ㄺ]-지
32024-0-2 밟:-(踏)[ㄺ]-고
32024-0-3 밟:-(踏)[ㄺ]-더라
32024-0-4 밟:-(踏)[ㄺ]-으니까
32024-0-5 밟:-(踏)[ㄺ]-아/어(았/었다)
32025-0-1 하-(爲)[ㅏ변]-지
32025-0-2 하-(爲)[ㅏ변]-고
32025-0-3 하-(爲)[ㅏ변]-더라
32025-0-4 하-(爲)[ㅏ변]-으니까
32025-0-5 하-(爲)[ㅏ변]-아/어(았/었다)
32026-0-1 맺-(結)[ㅈ]-지
32026-0-2 맺-(結)[ㅈ]-고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5 맺-(結)[ㅈ]-아/어(았/었다)
32027-0-1 없:-(無)[ㅄ]-지
32027-0-2 없:-(無)[ㅄ]-고
32027-0-3 없:-(無)[ㅄ]-더라
32027-0-4 없:-(無)[ㅄ]-으니까
32027-0-5 없:-(無)[ㅄ]-아/어(았/었다)
32028-0-1 앉-(坐)[ㄵ]-지
32028-0-2 앉-(坐)[ㄵ]-고
32028-0-3 앉-(坐)[ㄵ]-더라
32028-0-4 앉-(坐)[ㄵ]-으니까
32028-0-5 앉-(坐)[ㄵ]-아/어(았/었다)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2 비비-(刮)[ㅣ]-고
32022-0-3 쌈:떠라
32022-0-4 쌀무니까
32022-0-5 쌀마따
32023-0-1 읍:찌
32023-0-2 읍:꼬
32023-0-3 읍떠라
32023-0-4 을부니까
32023-0-5 을버따
32024-0-1 발:찌
32024-0-2 발:꼬
32024-0-3 발:떠라
32024-0-4 발부니까
32024-0-5 발바따
32025-0-1 하지
32025-0-2 하고
32025-0-3 하더라
32025-0-4 하니까
32025-0-5 핟:따
32026-0-1 맫찌
32026-0-2 맫꼬
32026-0-3 맫떠라
32026-0-4 매저따
32026-0-5 매즈니까
32027-0-1 업찌
32027-0-2 업꼬
32027-0-3 업떠라
32027-0-4 업쓰니까
32027-0-5 업써따
32028-0-1 안찌
32028-0-2 안꼬
32028-0-3 안떠라
32028-0-4 안즈니까
32028-0-5 안자따
32029-0-1 비비지
32029-0-2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비니까
32029-0-5 비비-(刮)[ㅣ]-아/어(았/었다) 32029-0-5 비벼따
32030-0-1 끄-(消)[ㅡ]-지 32030-0-1 끄지
32030-0-2 끄-(消)[ㅡ]-고 32030-0-2 끄고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3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4 끄니까
32030-0-5 끄-(消)[ㅡ]-아/어(았/었다) 32030-0-5 꺼:따
32031-0-1 꺾-(折)[ㄲ]-지 32031-0-1 꺽찌
32031-0-2 꺾-(折)[ㄲ]-고 32031-0-2 꺽꼬
32031-0-3 꺾-(折)[ㄲ]-더라 32031-0-3 꺽떠라
32031-0-4 꺾-(折)[ㄲ]-으니까 32031-0-4 꺼끄니까
32031-0-5 꺾-(折)[ㄲ]-아/어(았/었다) 32031-0-5 꺼꺼따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신:찌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신:꼬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느니까
32032-0-5 신:-(履)[ㄴ]-아/어(았/었다) 32032-0-5 시너따
32033-0-1 보-(視)[ㅗ]-지 32033-0-1 보지
32033-0-2 보-(視)[ㅗ]-고 32033-0-2 보고
32033-0-3 보-(視)[ㅗ]-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ㅗ]-으니까 32033-0-4 보니까
32033-0-5 보-(視)[ㅗ]-아/어(았/었다) 32033-0-5 봐:따
32034-0-1 추-(舞)[ㅜ]-지 32034-0-1 추지
32034-0-2 추-(舞)[ㅜ]-고 32034-0-2 추고
32034-0-3 추-(舞)[ㅜ]-더라 32034-0-3 추더라
32034-0-4 추-(舞)[ㅜ]-으니까 32034-0-4 추니까
32034-0-5 추-(舞)[ㅜ]-아/어(았/었다) 32034-0-5 춰:따
32035-0-1 피우-(吸煙)[ㅜ]-지 32035-0-1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ㅜ]-고 32035-0-2 피우고
32035-0-3 피우-(吸煙)[ㅜ]-더라 32035-0-3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ㅜ]-으니까 32035-0-4 피우니까
32035-0-5 피우-(吸煙)[ㅜ]-아/어(았/었다) 32035-0-5 피어따
32036-0-1 서-(立)[ㅓ]-지 32036-0-1 스지
32036-0-2 서-(立)[ㅓ]-고 32036-0-2 스고

32036-0-3 서-(立)[ㅓ]-더라 32036-0-3 스더라
32036-0-4 서-(立)[ㅓ]-으니까 32036-0-4 스니까
32036-0-5 서-(立)[ㅓ]-아/어(았/었다) 32036-0-5 서따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3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기니까
32037-0-5 기-(匍腹)[ㅣ]-아/어(았/었다) 32037-0-5 기어따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이:지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이:고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이니까
32038-0-5 이-(戴)[ㅣ]-아/어(았/었다) 32038-0-5 이어따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니니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았/었다) 32039-0-5 아녀따
32040-0-1 되-(升)[ᅬ]-지 32040-0-1 되지
32040-0-2 되-(升)[ᅬ]-고 32040-0-2 되고
32040-0-3 되-(升)[ᅬ]-더라 32040-0-3 되더라
32040-0-4 되-(升)[ᅬ]-으니까 32040-0-4 되니까
32040-0-5 되-(升)[ᅬ]-아/어(았/었다) 32040-0-5 도ㅑ따
32041-0-1 있-(有)[ㅆ]-지 32041-0-1 이찌
32041-0-2 있-(有)[ㅆ]-고 32041-0-2 이꼬
32041-0-3 있-(有)[ㅆ]-더라 32041-0-3 이떠라
32041-0-4 있-(有)[ㅆ]-으니까 32041-0-4 이쓰니까
32041-0-5 있-(有)[ㅆ]-아/어(았/었다) 32041-0-5 이써따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치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았/었다) 32042-0-5 노아따
32043-0-1 홇-(扱)[ㄹ]-지 32043-0-1 홀찌
32043-0-2 홇-(扱)[ㄹ]-고 32043-0-2 홀꼬

32043-0-3	홅-(扱)[ㄹ]-더라	32043-0-3	홀떠라
32043-0-4	홅-(扱)[ㄹ]-으니까	32043-0-4	홀트니까
32043-0-5	홅-(扱)[ㄹ]-아/어(았/었다)	32043-0-5	홀터따
32044-0-1	곱:-(麗)[ㅂ변]-지	32044-0-1	곱:찌
32044-0-2	곱:-(麗)[ㅂ변]-고	32044-0-2	곱:꼬
32044-0-3	곱:-(麗)[ㅂ변]-더라	32044-0-3	곱:떠라
32044-0-4	곱:-(麗)[ㅂ변]-으니까	32044-0-4	고우니까
32044-0-5	곱:-(麗)[ㅂ변]-아/어(았/었다)	32044-0-5	고와따
32045-0-1	쥐:-(握)[ㅟ]-지	32045-0-1	쥐:지
32045-0-2	쥐:-(握)[ㅟ]-고	32045-0-2	쥐:고
32045-0-3	쥐:-(握)[ㅟ]-더라	32045-0-3	쥐:더라
32045-0-4	쥐:-(握)[ㅟ]-으니까	32045-0-4	쥐:니까
32045-0-5	쥐:-(握)[ㅟ]-아/어(았/었다)	32045-0-5	쥐어따
32046-0-1	가-(去)[ㅏ]-지	32046-0-1	가지
32046-0-2	가-(去)[ㅏ]-고	32046-0-2	가고
32046-0-3	가-(去)[ㅏ]-더라	32046-0-3	가더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32046-0-4	가니까
32046-0-5	가-(去)[ㅏ]-아/어(았/었다)	32046-0-5	가따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32047-0-1	머꼬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7-0-2	머거도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32048-0-1	뜯꼬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8-0-2	뜨더도
32049-0-1	같-(如)-지 -고 -더라	32049-0-1	각:꼬
32049-0-2	같-(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9-0-2	가타도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32050-0-1	얃꼬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0-0-2	야차도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32051-0-1	허치고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1-0-2	허처도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32052-0-1	나르고(+?조)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2-0-2	나러도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32053-0-1	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3-0-2	우러도
32054-0-1	일:-(淘)-지 -고 -더라	32054-0-1	일:고

32054-0-2 일:-(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9-0-1 눕:-(臥)-지 -고 -더라
32059-0-2 눕:-(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1-0-1 밉:-(憎)-지 -고 -더라
32061-0-2 밉:-(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6-0-1 짖-(吠)-지 -고 -더라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7-0-1 꽂-(揷)-지 -고 -더라
32067-0-2 꽂-(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8-0-1 낳-(産)-지 -고 -더라
32068-0-2 낳-(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9-0-1 땋:-(辮)-지 -고 -더라
32069-0-2 땋:-(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4-0-2 이러도
32055-0-1 얼:고
32055-0-2 어:러도
32056-0-1 넘:꼬
32056-0-2 너머도
32057-0-1 숨:꼬
32057-0-2 수머도
32058-0-1 쉽:꼬
32058-0-2 쉬:어도
32059-0-1 누:꼬
32059-0-2 누워도
32060-0-1 꼬매고
32060-0-2 꼬매도
32061-0-1 믹꼬
32061-0-2 미여도
32062-0-1 놉꼬
32062-0-2 노파도
32063-0-1 지:코
32063-0-2 지어도
32064-0-1 붇:꼬
32064-0-2 붜:도
32065-0-1 욷꼬
32065-0-2 우서도
32066-0-1 짇꼬
32066-0-2 지서도
32067-0-1 꼭꼬
32067-0-2 꼬저도
32068-0-1 나쿠
32068-0-2 나으도
32069-0-1 따:쿠
32069-0-2 따:도
32070-0-1 끈코
32070-0-2 끄너도
32071-0-1 괜찬코
32071-0-2 괜차너도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32072-0-1 일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2-0-2 일거도
32073-0-1 떫:-(澁)-지 -고 -더라 32073-0-1 뜨르꾸
32073-0-2 떫:-(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3-0-2 뜨:러도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32074-0-1 옴:꼬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4-0-2 올마도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32075-0-1 뜰:구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5-0-2 뜨러도
32076-0-1 꿇-(跪)-지 -고 -더라 32076-0-1 끌코
32076-0-2 꿇-(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6-0-2 끄러도
32077-0-1 닳-(抏 연필 심이)-지 -고 -더라 32077-0-1 달고
32077-0-1 닳-(抏 연필 심이)-지 -고 -더라 32077-0-1 달코
32077-0-2 닳-(抏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7-0-2 다러도
32078-0-1 닳:-(煎 솥에서 장이)-지 -고 -더라 32078-0-1 달코
32078-0-2 닳:-(煎 솥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8-0-2 다러도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32079-0-1 짜구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9-0-2 짜도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32080-0-1 말:코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0-0-2 마러도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32081-0-1 쓰고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1-0-2 써도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32082-0-1 오르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2-0-2 올라도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32083-0-1 바쁘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3-0-2 바빠도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32084-0-1 고푸고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4-0-2 고파도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32085-0-1 쏘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5-0-2 쏘아도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32086-0-1 꾸고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6-0-2 꿔도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32087-0-1 머물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7-0-2 머무러도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32088-0-1 다듬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8-0-2 다드머도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32089-0-1 견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9-0-2 견뎌도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32090-0-1 베고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0-0-2 벼도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32091-0-1 끼고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1-0-2 끼여도
32092-0-1 마시-(飮)-지 -고 -더라 32092-0-1 마시고
32092-0-2 마시-(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2-0-2 마셔도
32093-0-1 세:-(强)-지 -고 -더라 32093-0-1 씨:고
32093-0-2 세:-(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3-0-2 써:도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32094-0-1 포개고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4-0-2 포개도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32095-0-1 투두리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5-0-2 투디러도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32096-0-1 키: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6-0-2 키여도
32097-0-1 쐬:-(바람을)-지 -고 -더라 32097-0-1 쐬:고
32097-0-2 쐬:-(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7-0-2 쐬여도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32098-0-1 쇠:고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8-0-2 쇠아도
32099-0-1 쉬:-(饐)-지 -고 -더라 32099-0-1 쉬:고
32099-0-2 쉬:-(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9-0-2 쉬:여도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32100-0-1 시고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0-0-2 시어도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32101-0-1 복꼬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1-0-2 보까도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32102-0-1 안: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2-0-2 아나도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32103-0-1 묻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3-0-2 무더도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32104-0-1 불고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4-0-2 부러도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32105-0-1 빨고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5-0-2 빠러도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32106-0-1 주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6-0-2 주거도
32107-0-1 걷:-(步)-지 -고 -더라 32107-0-1 걷:꼬
32107-0-2 걷:-(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7-0-2 거러도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32108-0-1 가물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8-0-2 가무러도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32109-0-1 졸: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9-0-2 조라도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32110-0-1 쓸:고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0-0-2 쓰러도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32111-0-1 감:꼬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1-0-2 가머도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32112-0-1 더듬꼬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2-0-2 더드머도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32113-0-1 국:꼬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3-0-2 구워도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32114-0-1 무겁꼬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4-0-2 무궈도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32115-0-1 읻:꼬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5-0-2 이서도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32116-0-1 빋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6-0-2 비서도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32117-0-1 검:꼬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32117-0-1 까무꼬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7-0-2 거머도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7-0-2 꺼머도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32118-0-1 너코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8-0-2 너:도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32119-0-1 곱:꼬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9-0-2 고와도
32120-0-1 얹-(載)-지 -고 -더라 32120-0-1 언지고
32120-0-2 얹-(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0-0-2 언저도
32121-0-1 귀찮-(嘽)-지 -고 -더라 32121-0-1 귀찬코
32121-0-2 귀찮-(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1-0-2 귀차너도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32122-0-1 발르고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2-0-2 발러도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4-0-1 곪:-(膿)-지 -고 -더라
32124-0-2 곪:-(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6-0-1 엷:-(薄)-지 -고 -더라
32126-0-2 엷:-(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7-0-1 쓿-(春)-지 -고 -더라
32127-0-2 쓿-(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8-0-1 쑤-(造粥)-지 -고 -더라
32138-0-2 쑤-(造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0-0-1 데우-(焐)-지 -고 -더라

32123-0-1 막꼬
32123-0-2 말거도
32124-0-1 곰:꼬
32124-0-2 골마도
32125-0-1 굴:꼬
32125-0-2 굴거도
32126-0-1 여는코
32126-0-2 여너도(+?조)
32127-0-1 찌:코
32127-0-2 찌여도
32128-0-1 읻꼬(+?조)
32128-0-2 이저도(+?조)
32129-0-1 할꼬
32129-0-2 할터도
32130-0-1 짤꼬
32130-0-2 짤버도
32131-0-1 놀:래고
32131-0-2 놀:래도
32132-0-1 자고
32132-0-2 자도
32133-0-1 몯:하고
32133-0-2 모:대도
32134-0-1 모르고
32134-0-2 몰라도
32135-0-1 아푸고
32135-0-2 아파도
32136-0-1 크고
32136-0-2 커도
32137-0-1 꼬:고
32137-0-2 꼬와도
32138-0-1 쑤:고
32138-0-2 쑤어도
32139-0-1 마추고
32139-0-2 마춰도
32140-0-1 데피고

32140-0-2 데우-(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6-0-1 켜-(톱을)-지 -고 -더라
32146-0-2 켜-(톱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0-0-1 눋:-(燋)-지 -고 -더라
32150-0-2 눋:-(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0-0-2 데펴도
32141-0-1 해일고
32141-0-2 해이러도
32142-0-1 갈기고
32142-0-2 갈겨도
32143-0-1 기다리고
32143-0-2 기다려도
32144-0-1 세:고
32144-0-2 세어도
32145-0-1 빼:고
32145-0-2 빼어도
32146-0-1 키:고, 쓸:고
32146-0-2 키어도, 쓰러도
32147-0-1 되:고
32147-0-2 되아도
32148-0-1 쉬:고
32148-0-2 쉬:어도
32149-0-1 갈키고
32149-0-2 갈켜도
32150-0-1 눌:꼬
32150-0-2 누:러도
32151-0-1 깨닫꼬
32151-0-2 깨다러도
32152-0-1 마리고
32152-0-2 마려도
32153-0-1 부끄러꼬
32153-0-2 부끄러도
32154-0-1 가깝고
32154-0-2 가까도
32155-0-1 집꼬
32155-0-2 지퍼도
32156-0-1 그시고
32156-0-2 그셔도
32157-0-1 싣꼬
32157-0-2 시처도

32158-0-1 찧-(搗)-지 -고 -더라
32158-0-2 찧-(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9-0-1 갉-(搔)-지 -고 -더라
32159-0-2 갉-(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3-0-1 곯-(腓)-지 -고 -더라
32163-0-2 곯-(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0-0-1 쏘-(蜇 벌이)-지 -고 -더라
32170-0-2 쏘-(蜇 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32158-0-1 찌:코
32158-0-2 찌어도
32159-0-1 세기고
32159-0-2 세겨도
32160-0-1 굼:꼬
32160-0-2 굴머도
32161-0-1 담:꼬
32161-0-2 달머도
32162-0-1 실코
32162-0-2 시러도
3216-0-1 골코
3216-0-2 고라도
32164-0-1 붇꼬
32164-0-2 부서도
32165-0-1 타고
32165-0-2 타도
32166-0-1 말르고
32166-0-2 말러도
32167-0-1 쓰고
32167-0-2 써도
32168-0-1 슬프고
32168-0-2 슬퍼도
32169-0-1 기뿌고
32169-0-2 기뻐도
32170-0-1 쏘:고
32170-0-2 쏘아도
32171-0-1 주고
32171-0-2 줘:도
32172-0-1 키고
32172-0-2 켜:도
32173-0-1 가두고
32173-0-2 가둬도
32174-0-1 부시고
32174-0-2 부셔도
32175-0-1 나누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5-0-2 나눠도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32176-0-1 소기고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6-0-2 소겨도
32177-0-1 끼-(揷)-지 -고 -더라 32177-0-1 끼:고
32177-0-2 끼-(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7-0-2 껴:도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32178-0-1 튀고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8-0-2 투ㅕ도
32179-0-1 괴:-(渟)-지 -고 -더라 32179-0-1 괴고
32179-0-2 괴:-(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9-0-2 괴아도
32180-0-1 여위-(癯)-지 -고 -더라 32180-0-1 야위고
32180-0-2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0-0-2 야여도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32181-0-1 매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1-0-2 매워도
32182-0-1 뀌:-(屁)-지 -고 -더라 32182-0-1 뀌:고
32182-0-2 뀌:-(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2-0-2 뀌여도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32183-0-1 고치고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3-0-2 고처도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32184-0-1 실코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4-0-2 시러도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32185-0-1 얻:꼬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5-0-2 어더도
32186-0-1 빻-(粉碎)-지 -고 -더라 32186-0-1 빵구고
32186-0-2 빻-(粉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6-0-2 빵거도
32187-0-1 파랗-(碧)-지 -고 -더라 32187-0-1 파란코
32187-0-2 파랗-(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7-0-2 파라도(+?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32188-0-1 틀리고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8-0-2 틀려도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32189-0-1 푸고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9-0-2 퍼도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32190-0-1 누고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0-0-2 눠:도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32191-0-1 더럽꼬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1-0-2 더러도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32192-0-1 거두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2-0-2 거둬도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32193-0-1 끄리고
32193-0-2 끄려도
32194-0-1 이기고
32194-0-2 이겨도
32195-0-1 부시고
32195-0-2 부셔도
32196-0-1 자빠지고
32196-0-2 자빠저도
32197-0-1 일씨고
32197-0-2 일쎠도
32198-0-1 땡기고
32198-0-2 땡겨도
32199-0-1 버리고
32199-0-2 버려도
32200-0-1 훔치고
32200-0-2 훔쳐도
32201-0-1 지고
32201-0-2 저도
32202-0-1 외고
32202-0-2 외여도
32203-0-1 사기고
32203-0-2 사겨도
32204-0-1 썩꼬
32204-0-2 써거도
32205-0-1 질고
32205-0-2 지러도
32206-0-1 까불고
32206-0-2 까부러도
32207-0-1 드물고
32207-0-2 드무러도
32208-0-1 줄:고
32208-0-2 주러도
32209-0-1 심:꼬
32209-0-2 시머도
32210-0-1 쓰다듬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0-0-2 씨다드머도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32211-0-1 사납꼬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1-0-2 사나도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32212-0-1 개보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2-0-2 개봐도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32213-0-1 젇:꼬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3-0-2 저서도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32214-0-1 두껍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4-0-2 두꺼도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32215-0-1 물루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5-0-2 물러도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32216-0-1 뿐질고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6-0-2 뿐지러도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32217-0-1 배우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7-0-2 배워도
32218-0-1 다리-(熨)-지 -고 -더라 32218-0-1 대리고
32218-0-2 다리-(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8-0-2 다려도
32219-0-1 후비-(挖 귀를)-지 -고 -더라 32219-0-1 쑤시고
32219-0-2 후비-(挖 귀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9-0-2 쑤셔도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32220-0-1 애리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0-0-2 애려도
32221-0-1 그리-(畵)-지 -고 -더라 32221-0-1 그리고
32221-0-2 그리-(畵)-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1-0-2 그려도
32222-0-1 저리-(痲)-지 -고 -더라 32222-0-1 저리고
32222-0-2 저리-(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2-0-2 저려도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32223-0-1 불리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3-0-2 불려도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32224-0-1 뜨시고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4-0-2 뜨셔도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32225-0-1 끌리고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5-0-2 끌려도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32226-0-1 누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6-0-2 누벼도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32227-0-1 꾸기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7-0-2 꾸겨도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2-0-1 쪼:-(啄)-지 -고 -더라
32242-0-2 쪼:-(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32228-0-1 비고
32228-0-2 벼:도
32229-0-1 시키고
32229-0-2 시켜도
32230-0-1 매고
32230-0-2 매어도
32231-0-1 맫꼬
32231-0-2 매저도
32232-0-1 뛰:고
32232-0-2 뛰여도
32233-0-1 담:꼬
32233-0-2 다마도
32234-0-1 가럅꼬
32234-0-2 가려도(+?조)
32235-0-1 때리고
32235-0-2 때려도
32236-0-1 어둡꼬
32236-0-2 어둬도
32237-0-1 잡꼬
32237-0-2 자버두
32238-0-1 차고
32238-0-2 차도
32239-0-1 모자라고
32239-0-2 모자라도
32240-0-1 부루고
32240-0-2 불러도
32241-0-1 따르고
32241-0-2 따러도
32242-0-1 쪼:꼬(+?조)
32242-0-2 쪼아도
32243-0-1 두고
32243-0-2 둬:도
32244-0-1 시키고
32244-0-2 시켜도
32245-0-1 지리고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5-0-2 지려도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32246-0-1 던지고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6-0-2 던저도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32247-0-1 모이고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7-0-2 모여도
32248-0-1 만지-(掮)-지 -고 -더라 32248-0-1 만지고
32248-0-2 만지-(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8-0-2 만저도
32249-0-1 쬐:-(曬)-지 -고 -더라 32249-0-1 쪼이고
32249-0-2 쬐:-(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9-0-2 쪼여도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32250-0-1 삐틀고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0-0-2 삐트러도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32251-0-1 돕:꼬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1-0-2 도와도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32252-0-1 씹:꼬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2-0-2 씨버도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32253-0-1 미끄럽꼬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3-0-2 미끄러도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32254-0-1 다:코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4-0-2 다:도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32255-0-1 누르고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5-0-2 눌러도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32256-0-1 주물르고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6-0-2 주물러도
32257-0-1 메우-(塡)-지 -고 -더라 32257-0-1 미:고
32257-0-2 메우-(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7-0-2 며:도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32258-0-1 고숩꼬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8-0-2 고소와도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32259-0-1 내리고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9-0-2 내려도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32260-0-1 굴루고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0-0-2 굴러도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32261-0-1 만들고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1-0-2 만드러도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32262-0-1 늘꼬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2-0-2 늘거도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32263-0-1 알:코이따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3-0-2 아러도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32264-0-1 따르고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4-0-2 따러도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32265-0-1 사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5-0-2 사도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32266-0-1 치우고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6-0-2 치어도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67-0-1 뿌러지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7-0-2 뿌러저도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32268-0-1 다치고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8-0-2 다처도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32269-0-1 느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9-0-2 느려도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32270-0-1 무치고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0-0-2 무처도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32271-0-1 째고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1-0-2 째:도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32272-0-1 팔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2-0-2 파러도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32273-0-1 뽑꼬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3-0-2 뽀바도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32274-0-1 뒤지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4-0-2 뒤저도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32275-0-1 마추고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5-0-2 마춰도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32276-0-1 저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6-0-2 저려도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32277-0-1 휘고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7-0-2 후ㅕ:도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32278-0-1 줃:꼬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8-0-2 주워도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32279-0-1 뺃꼬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9-0-2 빼서도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32280-0-1 기울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0-0-2 기우러도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32281-0-1 아깝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1-0-2 아까도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32282-0-1 방갑꼬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2-0-2 방가도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32283-0-1 찌고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3-0-2 쩌도
32284-0-1 노랗-(黃)-지 -고 -더라 32284-0-1 노리고
32284-0-2 노랗-(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4-0-2 노라도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32285-0-1 푸루고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5-0-2 푸러도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32286-0-1 서들고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6-0-2 서드러도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32287-0-1 서트르고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7-0-2 서트러도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32288-0-1 게우루고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8-0-2 게우러도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틋하고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9-0-2 따뜨대도
32290-0-1 춥-(寒)-지 -고 -더라 32290-0-1 춥꼬
32290-0-2 춥-(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0-0-2 추워도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32291-0-1 뜨겁꼬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1-0-2 뜨거도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32292-0-1 미지근하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2-0-2 미지근해도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32293-0-1 차겁꼬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3-0-2 차거워도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32294-0-1 부럽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4-0-2 부러워도
32295-0-1 얄밉-(憎)-지 -고 -더라 32295-0-1 얄미꼬
32295-0-2 얄밉-(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5-0-2 얄미여도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32296-0-1 비슫하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6-0-2 비슫해도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32297-0-1 새롭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7-0-2 새로워도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3-0-1 늦-(晩)-지 -고 -더라
32303-0-2 늦-(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32298-0-1 서롭꼬
32298-0-2 서로워도
32299-0-1 까다로꼬
32299-0-2 까다뤄도
32300-0-1 에로꼬
32300-0-2 에로워도
32301-0-1 아쉽꼬
32301-0-2 아쉬워도
32302-0-1 단다너고
32302-0-2 단다내도
32303-0-1 늗꼬
32303-0-2 느저도
32304-0-1 남:꼬
32304-0-2 나머도
32305-0-1 냉기고
32305-0-2 냉겨도
32306-0-1 너머티리고
32306-0-2 너머티려도
32307-0-1 쭈구려티리고
32307-0-2 쭈구려츠러도
32308-0-1 견주고
32308-0-2 견줘도
32309-0-1 에우고
32309-0-2 에워도
32310-0-1 문지르고
32310-0-2 문지러도
32311-0-1 가리치고
32311-0-2 가리처도
32312-0-1 가리치고
32312-0-2 가리처도
32313-0-1 고노꼬
32313-0-2 고놔도
32314-0-1 겨루고
32314-0-2 겨뤄도
32315-0-1 달래고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5-0-2 달래도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32316-0-1 번보고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6-0-2 번바도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32317-0-1 어질고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7-0-2 어지러도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32318-0-1 달리고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8-0-2 달려도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32319-0-1 우기고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9-0-2 우겨도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32320-0-1 쭝얼거리고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0-0-2 쭝얼거려도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32321-0-1 지끄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1-0-2 지꺼려도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32322-0-1 다니고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2-0-2 다녀도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32323-0-1 떠러티리고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3-0-2 떠러티려도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32324-0-1 깨고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4-0-2 깨여도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32325-0-1 시고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5-0-2 셔:도
32326-0-1 솟-(湧)-지 -고 -더라 32326-0-1 솓꼬
32326-0-2 솟-(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6-0-2 소사도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32327-0-1 조:코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7-0-2 조와도
32328-0-1 빨갛-(赤)-지 -고 -더라 32328-0-1 빨간코
32328-0-2 빨갛-(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8-0-2 빨가나도
32328-0-2 빨갛-(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8-0-2 빨거도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32329-0-1 끄끼고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9-0-2 끄껴도
32330-0-1 엷:-(薄)-지 -고 -더라 32330-0-1 널꼬
32330-0-2 엷:-(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30-0-2 널버도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32331-0-1 하얀코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31-0-2 하야내도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굴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기서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기루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뚜
32333-0-1 논(沓)-이/가	32333-0-1 노니
32333-0-2 논(沓)-을/를	32333-0-2 노눌
32333-0-3 논(沓)-에(서)	32333-0-3 노니서
32333-0-4 논(沓)-으로	32333-0-4 노니루
32333-0-5 논(沓)-도	32333-0-5 논두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를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리서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쌀루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두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믈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미서
32335-0-4 봄(春)-으로	32335-0-4 보미루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두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지블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비서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지비루
32336-0-5 집(家)-도	32336-0-5 집뚜
32337-0-1 옷(衣)-이/가	32337-0-1 오시
32337-0-2 옷(衣)-을/를	32337-0-2 오슬
32337-0-3 옷(衣)-에(서)	32337-0-3 오시서
32337-0-4 옷(衣)-으로	32337-0-4 오시루
32337-0-5 옷(衣)-도	32337-0-5 오뚜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방이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방을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방이서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방이루

32338-0-5 방(房)-도	32338-0-5 방두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시
32339-0-2 낮(晝)-을/를	32339-0-2 나슬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세서
32339-0-4 낮(晝)-으로	32339-0-4 나시루
32339-0-5 낮(晝)-도	32339-0-5 나뚜
32340-0-1 낯(顔)-이/가	32340-0-1 나시
32340-0-2 낯(顔)-을/를	32340-0-2 *
32340-0-3 낯(顔)-에(서)	32340-0-3 나시
32340-0-4 낯(顔)-으로	32340-0-4 *
32340-0-5 낯(顔)-도	32340-0-5 나뚜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1 붜:기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2 붜:글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3 붜:기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4 붜:기루
32341-0-5 부엌(廚)-도	32341-0-5 붹:뚜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시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바슬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시서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티서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바티루
32342-0-5 밭(田)-도	32342-0-5 바뚜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아비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벌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페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아피루
32343-0-5 앞(前)-도	32343-0-5 압뚜
32344-0-1 넋(魂)-이/가	32344-0-1 너기
32344-0-2 넋(魂)-을/를	32344-0-2 너글
32344-0-3 넋(魂)-에(서)	32344-0-3 너기서
32344-0-4 넋(魂)-으로	32344-0-4 너기루
32344-0-5 넋(魂)-도	32344-0-5 넉뚜
32345-0-1 흙(土)-이/가	32345-0-1 흐기
32345-0-2 흙(土)-을/를	32345-0-2 흐글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흐기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흐기루
32345-0-5 흙(土)-도	32345-0-5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여더리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2 여더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3 여더레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4 *
32346-0-5 여덟(八)-도	32346-0-5 여덜뚜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1 도리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2 도롤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3 도리서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4 도리루(?조)
32347-0-5 돌(週歲)-도	32347-0-5 돌두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가비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가블
32348-0-3 값(價)-에(서)	32348-0-3 가비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4 가비루
32348-0-5 값(價)-도	32348-0-5 갑뚜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소:기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소:글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소:기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소:기루
32349-0-5 속:(內)-도	32349-0-5 속:뚜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니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눌
32350-0-3 돈:(錢)-에(서)	32350-0-3 도:니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4 도:니루
32350-0-5 돈:(錢)-도	32350-0-5 돈:두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바리
32351-0-2 발(足)-을/를	32351-0-2 바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리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발루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지믈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지미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4 지미루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두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이비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블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비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비루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뚜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나시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슬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시서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나시루
32354-0-5 낫(鎌)-도 32354-0-5 낟뚜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강이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강을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강이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강이루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두
32356-0-1 젖(乳)-이/가 32356-0-1 저시
32356-0-2 젖(乳)-을/를 32356-0-2 저슬
32356-0-3 젖(乳)-에(서) 32356-0-3 저시서
32356-0-4 젖(乳)-으로 32356-0-4 저시루
32356-0-5 젖(乳)-도 32356-0-5 저뚜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시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슬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세서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시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꼬시루
32357-0-5 꽃(花)-도 32357-0-5 꼳뚜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파시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파슬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파시서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4 파시루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파뚜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여피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여블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여플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여피서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여피루
32359-0-5 옆(側)-도	32359-0-5 엽뚜
32360-0-1 삯(賃金)-이/가	32360-0-1 품싸기
32360-0-2 삯(賃金)-을/를	32360-0-2 품싸글
32360-0-3 삯(賃金)-에(서)	32360-0-3 품싸기서
32360-0-4 삯(賃金)-으로	32360-0-4 품싸기루
32360-0-5 삯(賃金)-도	32360-0-5 품싹뚜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다기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다글
32361-0-3 닭(鷄)-에(서)	32361-0-3 다기서
32361-0-4 닭(鷄)-으로	32361-0-4 다기로
32361-0-5 닭(鷄)-도	32361-0-5 닥뚜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바끼
32362-0-2 밖(外)-을/를	32362-0-2 바글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바끼서
32362-0-4 밖(外)-으로	32362-0-4 바끼루
32362-0-5 밖(外)-도	32362-0-5 박뚜

제4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5	나-와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0-1	저-가
40102-0-2	저-의
40102-0-3	저-을/를
40102-0-4	저-에게
40102-0-5	저-와/과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5	너
40105-0-1	-가
40105-0-2	-의
40105-0-3	-을/를
40105-0-4	-에게
40105-0-5	-와/과
40105-0-6	-는
40105-0-7	-도
40106	자네

40101	나지우
40101-0-1	내가
40101-0-2	내꺼라
40101-0-3	나를
40101-0-4	나한티, 나한테
40101-0-5	나허구, 나하구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2	저
40102-0-1	지가, 제가라구
40102-0-2	제꺼라구
40102-0-3	저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
40102-0-6	저는
40102-0-7	저두
40103	우리
40104	저이
40105	너는
40105-0-1	네가, 니가
40105-0-2	니
40105-0-3	너를
40105-0-4	너한테
40105-0-5	너하구
40105-0-6	너는
40105-0-7	너두
40106	자네라

40107	당신	40107	당시니
40108	너희	40108	너히, 느이
40109	걔	40109	가이, 그아이, 걔:가, 개라
40109-1	얘	40109-1	얘:
40109-2	쟤	40109-2	재라구
40110	자기	40110	지말만
40111	당신	40111	하라버지방이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	누구여, 누구유, 누구세유, 누구시우
40112-0-1	누-가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2	누구
40112-0-3	누구-를	40112-0-3	누구
40112-0-4	누구-에게	40112-0-4	누군네, 누구, 누구게루
40112-0-5	누구-와	40112-0-5	누구어구, 누구하구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	무어시냐, 뭐에유
40113-0-1	무엇-이	40113-0-1	뭐인니, 뭐시
40113-0-2	무슨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3	뭐더니, 무하니, 뭐터니허지우
40113-0-4	무엇-과	40113-0-4	뭔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4	오디, 어디루
40115	언제	40115	온제, 원제
40116	어느	40116	워떤, 어떤
40117	왜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9	어트게, 어터께, 워트게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0	이게, 이거시
40121	그것	40121	그게, 그거
40122	저것	40122	저거시, 저게라구두

40123	여기	40123	여기라
40124	거기	40124	거게, 거기루
40125	저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8	저리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	40201	싸리
40202	-이/가	40202	소가
40203	-을/를	40203	코룰
40204	-을/를	40204	무룰
40205	-에게/게	40205	사람한테, 내게
40206	-보고/더러	40206	누구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7	말뚝뽀구
40208	-에	40208	지비
40209	-에	40209	후제
40210	-에서	40210	큰지비서
40211	-에서	40211	시장이서
40212	-에서	40212	마동써
40213	-으로	40213	쌀루
40214	-으로	40214	지비루
40215	-으로	40215	샌내끼루
40216	-으로	40216	어디루
40217	-와/과	40217	차매하구
40218	-와/과	40218	나아구
40219	-보다	40219	형보다
40220	-처럼	40220	뒈지처럼
40221	-만큼	40221	너만치
40222	-만큼	40222	망큼, 만치
40223	-아/야	40223	봉나마

40224	-아/야	40224	봉나미
40225	-아/야	40225	영수야
40226	-아/야	40226	눈님
40226-1	-예	40226-1	*
40227	-아/야	40227	하라버지
40227-1	-요	40227-1	하라번님
40228	-이랑	40228	수리랑 고기랑
40229	-커녕	40229	마눠닐랑, 마넌커니, 마너닐랑사레

4.2.2. 보조사

40230	-은/는	40230	수른
40231	-만	40231	큰딸만
40232	-도	40232	키두
40233	-마다	40233	날마두
40234	-부터	40234	내일버텀
40235	-까지	40235	내일까지, 골무까장
40236	-조차	40236	그걷쪼차
40236-1	-할라	40236-1	꿩:한채, 비할래
40237	-이야/야	40237	마:리야
40238	-을랑	40238	소릴랑, 가설랑, 안존걸랑
40239	-이라도	40239	부자라두
40240	-밖에	40240	너바께
40241	-가지고	40241	싸가지구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2	오라구
40243	알았어-요	40243	허셛:써유
40244	했지-요?	40244	핻쑤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	40301	안저라
40302	-게	40302	안께나
40303	-으오	40303	안지세요
40304	-으십시오	40304	안지세유
40305	-세요	40305	안지세유

4.3.2. 청유법

40306	-자	40306	가자
40307	-세	40307	가세
40308	-으오	40308	가세요
40309	-십시다	40309	가세유
40310	-세요	40310	가세유

4.3.3. 의문법

40311	-니	40311	오니
40312	-나	40312	오나
40313	-오	40313	와유
40314	-습니까	40314	와유
40315	-나요	40315	와유
40316	-니	40316	가니
40317	-나	40317	가
40318	-시오	40318	가시우, 가세요
40319	-십니까	40319	가세유
40320	-세요	40320	가세유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1	머거
40322	-네	40322	머거, 멍네
40323	-오	40323	잡써요
40324	-습니다	40324	잡써유
40325	-네요	40325	잡쑤세유
40326	-다	40326	작따
40327	-네	40327	장네

40328	-소	40328	장네유
40329	-으십니다	40329	짱네유
40330	-으세요	40330	장네유

4.3.5. 반말

40331	-아	40331	아퍼
40332	-지	40332	갈꺼지

4.3.6. 이다

40333	-이다	40333	생이리다
40334	-이니	40334	생이리냐
40335	-이네	40335	생이리네
40336	-인가	40336	생이리여
40337	-이오	40337	생이리여유
40338	-이오	40338	생이리우
40339	-입니다.	40339	생시니여유
40340	-입니까	40340	생시니여유
40341	-이시지요	40341	생시니여유
40342	-이시지요	40342	생시니우, 생시니여유
40343	-이냐?	40343	뭐니
40344	-인가?	40344	뭐여
40345	-이오?	40345	뭐에유
40346	-입니까?	40346	뭐에유
40347	-인가요?	40347	뭐에유
40348	-이야?	40348	뭐야
40349	-이어요?	40349	뭐유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0	마나유, 마녀유
40351	-습디다	40351	만씁띠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2	멍는다, 멍는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3	멍네, 멍능구만
40354	-일세	40354	오랜마니네, 오랜마닐쎄

40355	-으마	40355	가푸께, 가푸마, 가풀께
40356	-음세	40356	가품세
40357	-을라	40357	버질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1	머꾸서
40402	-으면서	40402	보면서
40403	-어/-어서	40403	와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4	따트더니까
40405	-관데	40405	무슨일루
40406	-다가	40406	먹따가
40407	-거든	40407	만나면, 만나거든
40408	-더라도	40408	허더라두
40409	-으려고	40409	머글라면
40410	-도록	40410	빼빠지드락
40411	-을수록	40411	영그룰수룩
40412	-듯이	40412	물쓰듣, 불쓰드끼
40413	-지	40413	보지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1	오세유, 와유, 오셔
40502	-셨소	40502	심어쑤, 심어써유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1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2	겨:댕긴다

40603	크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4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40605	오고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6	잡써써유
40607	왔었다	40607	와써써
40608	먹더라	40608	안테
40609	먹더냐	40609	이쁘데
40610	만나는 친구	40610	만나는
40611	만난 친구	40611	본
40612	만났던 친구	40612	만난, 만나떤
40613	만날 친구	40613	만날
40614	큰 아이	40614	큰
40615	크던 아이	40615	크던
40616	컸던 아이	40616	커떤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7	안멍는다
40618	비가 오겠다	40618	올껃깥따, 오게생겨따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1	암머거써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2	안조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40703	앙깨끄대유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4	앙가써유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40705	암만나바써유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	먹또앙쿠
40706-1	먹도 않고	40706-1	먹또앙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7	몸마셔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8	마저찌, 암마저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린다
40802	늘리다	40802	늘린다구지
40803	말리다1	40803	말린다
40804	말리다2	40804	말긴다
40805	얼리다	40805	얼린다구
40806	녹이다	40806	노긴다
40807	신기다	40807	싱낀다
40808	보이다	40808	보인다구
40809	알리다	40809	알:린다
40810	입히다	40810	이핀다
40811	앉히다	40811	안친다
40812	벗기다	40812	버낀다
40813	웃기다	40813	우:낀다
40814	썩히다	40814	써킨다
40815	숨기다	40815	숨긴다
40816	굶기다	40816	궁긴다
40817	깨우다	40817	깨운다
40818	돋우다	40818	도둔다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자핀다
40820	깎이다	40820	까낀다
40821	끼이다	40821	찡긴다
40822	떼이다	40822	뗀다
40823	채이다	40823	챈다
40824	닫히다	40824	다친다
40825	들리다	40825	드낀다
40826	업히다	40826	어핀다
40827	바뀌다	40827	바뀐다
40828	씹히다	40828	씨핀다
40829	얹히다	40829	언친다
40830	찍히다	40830	찌킨다
40831	눌리다	40831	눌린다

40832	실리다	40832	실린다
40833	끊기다	40833	끈킨다
40834	긁히다	40834	갈킨다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1	십따
40902	싶다	40902	십떠니
40903	보다	40903	보자
40904	버리다	40904	버려써
40905	대다	40905	싼는다두
40906	-나/는가 보다	40906	올라나부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7	간나부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8	충가부다

4.10. 부사

41001	실컷	41001	실컫
41002	많이	41002	마:니
41003	너무	41003	너머
41004	조금	41004	쩨끔만
41005	자주	41005	자꾸
41006	빨리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8	그여
41009	가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17	똑또키
41018	겨우	41018	제우
41019	늘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0	저절루
41021	자꾸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3	한버트럼
41024	함께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5	껄찌더먼
41026	공연히	41026	괘니
41027	그냥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8	경장히
41029	곧장	41029	고짱
41030	벌써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2	가마니
41033	미리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34	이따금

4.11. 관용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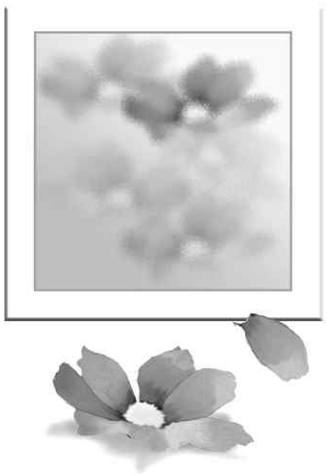
4.11.1. 관용구

41101	여보	41101	여보, 당신
41102	여보세요	41102	나좀봐유, 나좀보세유, 여보세유
41103	들어가세요	41103	드러가세유
41104	수고하세요	41104	수고허세유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오랜마니만나서방갑따구, 그새자리써써유, 몸경강허세유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진지잡써써유
41107	오랜만에 찾아 뵌 어른에게	41107	그새펴난허시써유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8	여기써유
41109	예	41109	네
41110	아니	41110	아니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나암시랑안혀
41112	내버려 둬	41112	내비둬:, 내비러둬: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3	개:나거리나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한:강에독떤지기여, 믿빠진도기물붇끼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를도두기소도둑뗀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41116	부란뗀굴:뚜기연기가나냐
	-하고	=4	조카여구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위 원 장　이 기 갑(목 포 대 학 교)
◈ 위　　원　강 영 봉(제 주 대 학 교)
◈ 위　　원　김 무 식(경 성 대 학 교)
◈ 위　　원　김 봉 국(부산교육대학교)
◈ 위　　원　김 정 대(경 남 대 학 교)
◈ 위　　원　박 경 래(세 명 대 학 교)
◈ 위　　원　소 강 춘(전 주 대 학 교)
◈ 위　　원　한 영 목(충 남 대 학 교)
◈ 자문위원　최 명 옥(서 울 대 학 교)
◈ 자문위원　홍 윤 표(연 세 대 학 교)